

충북 CHANGE 21

21 C 발전계획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서를 발간하며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다가온 21세기를 희망찬 충북의 시대로 열기 위해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미래를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 우리 충청북도가 나아갈 방향과 지표가 되고 도정의 기틀이 되는 장기 발전계획인 「충북 CHANGE 21」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남북중단철도(수도권~충주~문경간)신설, 대전~청주간 고속도로건설 등 지역발전방안 25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정부가 2000년 1월 8일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한편, 「충북 CHANGE 21」 계획과 연계해 이를 보완·발전시켜 수립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장기발전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시·군 계획과 도시계획 등 부문별 하위계획에 대해서는 개발방향 및 지침역할을 하면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개발과 투자의 방향을 제시·유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충북이 국토의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한반도의 융합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세계속에 우뚝서는 희망의 땅 충북을 건설 하겠다는 원대한 목표아래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잠재력과 지역특성을 살린 4대 발전축과 6대 지역개발권역을 설정하고 이와같은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하여 9대부문 443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에 우리 충청북도는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민족생태공원의 중심축 「관광충북」,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북」으로 인간과 자연환경, 그리고 신산업이 조화되는 가장 살기좋은 풍요로운 고장으로 탈바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의지와 지혜가 모아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건설을 향해 우리 모두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여 힘차게 나갑시다.

2001. 8.

충 청 북 도 지 사

목 차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제1장 계획의 개요	5
제1절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5
1. 배경	5
2. 목적	5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및 이념	6
1. 성격	6
2. 역할	7
3. 이념	7
제3절 계획의 범위	8
1. 시간적 범위	8
2. 공간적 범위	9
3. 내용적 범위	9
제4절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11
1. 국토종합계획	11
2. 1·2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13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17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17
1. 입지적 여건	17
2.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18
3. 인문·사회적 여건	20
4. 지역 경제적 여건	24
5. 지역금융 여건	28
6. SOC 및 생활환경 여건	31
제2절 대내외적 여건변화분석	33
1. 국내외 여건변화	33
2. 지역내 여건변화	35
제3절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검토	36
1. 지역기반부문	36
2. 산업경제부문	38
3. 사회·환경부문	38

4. 행정 및 세계화	39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43
제1절 계획의 기본목표	43
1. 계획과제의 도출과 목표설정	43
2. 계획의 기본 전략	47
제2절 계획지표 설정	51
1. 충북의 인구전망	51
2. 경제구조와 전망	54
제3절 장기발전지표 및 미래상	56
1. 장기발전지표	56
2. 2020년 충청북도의 미래상	56

제2부 부문별 계획

제1편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제1장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63
제1절 발전축의 설정과 개발구상	63
1. 발전축의 도입배경	63
2. 관련계획 검토	64
3. 충북발전축의 설정	66
제2절 지역개발권역 설정과 기능배분	69
1. 지역개발권역 육성방향	69
2. 지역개발권역의 설정과 주기능	69
제3절 광역개발권간의 연계성 강화	76
1. 청주광역도시권 개발	76
2. 대전광역도시권 개발	79
3.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81
제2장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87
제1절 교통체계의 정비·확충	87
1. 현황 및 전망	87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97
3. 세부추진계획	98
제2절 물류체계의 확충	109
1. 현황 및 전망	109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13
3. 세부추진계획	114

제2편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제3장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123
제1절 전망 및 특성	123
1. 농업전망	123
2. 농업특성	124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25
1. 여건분석	125
2. 전략과제 도출	125
제3절 세부추진계획	127
1. 주곡 안정생산과 경쟁력 확보	127
2.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	130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확충	136
4. 환경친화성 농업의 육성	142
5. 고품질 지향의 축산 및 내수면 어업 추진	143
6. 산림의 생태공원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145
7. 생태·체험관광농업 육성	146

제4장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충북 건설	151
제1절 전망 및 특성	151
1. 산업전망	151
2. 산업특성	152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55
1. 여건분석	155
2. 전략과제 도출	155
제3절 세부추진계획	156

1. 제조업과 주력업종	156
2. 지역자본시장의 활성화	169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170

제5장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175

제1절 현황 및 전망	175
1. 정보화	175
2. 지역내 기업의 정보화 수준	178
3. 지역별 홈페이지 보유	178
4. 정보화 관련 산업기반	179
5. 정보화에 대한 도의 강력한 정책추진	179
6. 지식유통자원	180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82
1. 여건분석	182
2. 전략과제 도출	182
제3절 세부추진계획	183
1. 정보화를 통한 열린행정 실현	183
2.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회복	187
3. 정보화를 통한 균형발전 촉진	194

제3편 민족생태공원의 「관광충북」

제6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201

제1절 현황 및 전망	201
1. 중원문화권의 위상	201
2. 문화예술인프라	202
3. 문화행사	203
4. 문화행정	205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206
1. 여건분석	206
2. 전략과제 도출	206
제3절 세부추진계획	208
1. 중원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208
2.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212

3. 문화 향수기회의 확대와 문화산업 육성	214
제7장 인간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223
제1절 현황 및 전망	223
1. 관광자원 현황	223
2. 관광객 이동현황	226
3. 관광환경 전망	227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231
1. 여건분석	231
2. 전략과제 도출	231
제3절 세부추진계획	234
1. 어드벤처형 관광개발의 추진	234
2. 지식기반형 관광산업의 육성	241
3.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243

제4편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북」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의 실현	257
제1절 지역현황	257
1. 자연환경 현황	257
2. 생활환경 현황	258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263
1. 여건분석	263
2. 전략과제 도출	263
제3절 세부추진계획	265
1. 자연환경 보전	265
2. 생활환경 보전	269
3. 지역환경계획 수립	288
4. 산업시설의 오염관리	289
5. 지역환경자원 관리	290
6. 재해 및 에너지 관리	292
제9장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299
제1절 현황 및 전망	299
1. 충북의 토지이용현황 및 문제점	299
2. 토지이용 수급 전망	304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308
1. 여건분석	308
2. 전략과제 도출	308
제3절 세부추진계획	310
1. 합리적 토지이용규제제도의 마련	310
2. 잠재적 가용토지자원의 계획적 관리	310
3. 토지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311
4. 다양한 토지개발수법을 이용한 시범도시 및 시범지구 계획	311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315
제1절 주거 환경	315
1. 현황 및 전망	315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322
3. 세부추진계획	324
제2절 보건의료환경	327
1. 현황 및 평가	327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332
3. 세부추진계획	333
제3절 사회복지시설	335
1. 현황 및 평가	335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346
3. 세부추진계획	348
제4절 교육·체육	355
1. 교육·체육 현황	355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360
3. 세부추진계획	362

제3부 행·재정 계획

제1장 행정계획	371
제1절 여건변화 및 현황	371
1. 행정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371
2. 행정구역 현황	372
3. 행정조직 현황	374

제2절 행정개혁모형과 전략 과제	377
1. 행정개혁모형의 모색	377
2. 행정개혁의 전략 과제	378
제3절 행정개혁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380
1. 행정조직의 체제혁신능력 확충	380
2. 성과지향적 행정체제의 구축	381
3. 충북의 전자행정서비스 개발	382
4. 민관협력을 통한 생산성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	384
5. 경영혁신기법의 적극적 도입	386
6. 효율적인 광역행정체계의 구축	388
7. 관련 법령의 검토 및 제도개선	389
제2장 재정계획	401
제1절 도 재정의 일반현황	401
1. 도 재정규모의 지속적 확대	401
2. 일반회계중심의 일반재원 조달구조	403
3. 자체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재정자립도	403
4. 신중한 부채관리 대책의 필요	405
5. 충북의 재정분석 지표	407
제2절 도 재정계획의 기본방향 및 예측	409
1. 재정계획의 기본방향	409
2. 일반회계 세입예측	411
제3절 도 재정 확보방안	412
1. 내부재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412
2. 외부재원 확충 방안	515
제4절 세부투자계획	419
1. 투자사업 선정의 기준	419
2. 대상사업 선정의 기준	420
3. 총 투자규모 및 투자비 분담	421
4. 투자재원 확보방안	424
5. 집행관리 방안	425

부록 1. 시·군별 발전방향

부록 2. 부문별 투자계획

표차례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표 I-2-1> 충북의 기상개황	18
<표 I-2-2> 지목별 면적	19
<표 I-2-3>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현황	19
<표 I-2-4> 지역별 인구 증가율	20
<표 I-2-5> 충북의 인구동태	21
<표 I-2-6> 경제활동인구	22
<표 I-2-7> 연령계층별 취업자 구성비	23
<표 I-2-8> 1995년 가격기준 충북의 지역내 총생산	24
<표 I-2-9> 산업별 총생산 (경상가격)	25
<표 I-2-10> 규모별 사업체 현황	26
<표 I-2-11> 광공업 사업체 현황	28
<표 I-2-12> 어음교환 및 부도	31
<표 I-2-13> 도시공원결정 현황	32
<표 I-2-14> 상하수도 현황	32
<표 I-2-15>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37
<표 I-3-1> SWOT 분석표	45
<표 I-3-2> 계획의 기본전략	49
<표 I-3-3>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52
<표 I-3-4> 총인구의 지역별 인구전망(계획지표)	52
<표 I-3-5> 성별 연령별 인구추이 및 부양비	53
<표 I-3-6> 경제활동인구 추정	54
<표 I-3-7> 산업별 취업자수 추정	54
<표 I-3-8> 산업별 생산액 추정	55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1-1>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83
<표 II-2-1> 충청북도 동급별 도로현황 총괄	87
<표 II-2-2> 교통량 증감추이 및 애로구간분석	89
<표 II-2-3> 지방도 교통량 증감추이	90
<표 II-2-4> 자동차의 증가추이	92
<표 II-2-5> 교통사고 지표	93
<표 II-2-6> 충북선의 철도수송실적	94
<표 II-2-7> 청주공항 주요시설 및 장비 현황	95
<표 II-2-8> 충북의 교통수요 전망	96
<표 II-2-9> 지역별 물류시설 총괄현황	109
<표 II-2-10> 중소기업자의 공동 집배송단지 추진 현황	110

<표 II-2-11> 창고업 등록현황	111
<표 II-2-12> 권역별 화물물동량 예측	113
<표 II-2-13> 권역별 유통단지 조성계획	116
<표 II-3- 1> 충북지역의 지식기반1차산업 현황	124
<표 II-3- 2> 충북지역의 지식기반1차산업 특성	125
<표 II-3- 3> 농지기반정비의 효과	127
<표 II-3- 4> 경지정리사업의 추진	127
<표 II-3- 5>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	131
<표 II-3- 6> 농산물 전문재배단지 조성 개요	132
<표 II-3- 7> 농산품 가공산업 육성 대상품목	134
<표 II-3- 8> 단계별 시설농업기술 확대 개념	136
<표 II-3- 9>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137
<표 II-3-10> 농업·농촌용수개발사업	137
<표 II-3-11> 배수개선사업	137
<표 II-3-12> 농산물 유통시설의 단계화	140
<표 II-3-13>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 세부추진내용	142
<표 II-3-14> 고품질 축산업 육성 방안	144
<표 II-3-15> 산림의 생태공원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방안	145
<표 II-3-16> 농업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148
<표 II-4- 1>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제조업 현황	152
<표 II-4- 2>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제조업 특성	153
<표 II-4- 3>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153
<표 II-4- 4>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특성	154
<표 II-4- 5> 제3섹터형 재단법인의 기능 및 사업	164
<표 II-4- 6> 지역공동연구개발 현황	166
<표 II-4- 7> 협동화단지 육성방안과 전략	166
<표 II-4- 8>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	167
<표 II-4- 9> 산업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172
<표 II-5- 1> 충북의 정보화 현황	175
<표 II-5- 2> 충북의 디지털화 수준	175
<표 II-5- 3> PC통신 이용자 수	176
<표 II-5- 4> 시·도별 전화 및 PC통신 가입자 현황	177
<표 II-5- 5> 지역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178
<표 II-5- 6> 도내 기업의 홈페이지 보유율	178
<표 II-5- 7> 정보산업 창업기반	179
<표 II-5- 8> DB관련 현황	180
<표 II-5- 9> 전화시설과 전화가입회선 및 인터넷	180
<표 II-5-10> 매스미디어	181
<표 II-5-11> 정보통신	181

<표 II-5-12> 지방지치단체 조직내 CIO직제 도입방안	183
<표 II-5-13> 업무프로세스 재구축(BPR) 고려사항	184
<표 II-5-14>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단계별 목표설정 및 수행	189
<표 II-6- 1> 중원문화권의 특성	201
<표 II-6- 2>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분포	202
<표 II-6- 3> 1998년도 문화예술행사 행사별 지원액	203
<표 II-6- 4> 충북의 주요 지역축제 개최현황	204
<표 II-6- 5> 전통민속예술작품 선정·보존 현황	209
<표 II-6- 6> 문화의 거리	215
<표 II-6- 7>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탐사 루트	216
<표 II-6- 8> 주제별 문화기행 루트	217
<표 II-6- 9> 문화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219
<표 II-7- 1> 충북지역의 관광지 지정현황	223
<표 II-7- 2> 문화재 지정현황	224
<표 II-7- 3> 충북지역의 명소·명품현황	224
<표 II-7- 4> 충북의 관광호텔 이용현황	225
<표 II-7- 5> 자치단체별 관광사업체 현황	225
<표 II-7- 6> 시도별 박물관·미술관 현황	226
<표 II-7- 7> 개관전시관 현황	226
<표 II-7- 8> 관광객의 계절별 분포현황	277
<표 II-7- 9> 관광환경 전망	227
<표 II-7-10> 미래 관광 경쟁요소와 관광개발형태	228
<표 II-7-11> 1999년 국민관광실태	229
<표 II-7-12> 외국인 관광수요전망	229
<표 II-7-13> 내국인 관광수요전망	230
<표 II-7-14> 기존 및 신규관광지 특화방향	234
<표 II-7-15> 거점 관광지의 지구별 테마	235
<표 II-7-16>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236
<표 II-7-17> 내륙순환관광도로 관광명소 이미지화 사업	236
<표 II-7-18> 테마형 관광특구 개발	238
<표 II-7-19>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	238
<표 II-7-20>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243
<표 II-7-21> 비수기 및 성수기 관광객 유치촉진 방안	245
<표 II-7-22> 연령별 및 대상계층별에 따른 개선방안	246
<표 II-7-23> 관광 재원조달 및 투자촉진 방안	248
<표 II-7-24> 관광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249
<표 II-8- 1> 충북의 호수 현황	257
<표 II-8- 2> 충북의 국립공원 면적	257
<표 II-8- 3> 충북의 법정하천 현황	258

<표 II-8- 4> 상수도 현황	259
<표 II-8- 5> 하수도 현황	260
<표 II-8- 6> 충북의 풍수해 현황	260
<표 II-8- 7> 충북의 연도별 전력사용 현황	262
<표 II-8- 8> 충청북도의 권장수종	265
<표 II-8- 9> 오염정화 식물 및 징정수 보호어종	266
<표 II-8-10> 충북의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종	268
<표 II-8-11> 환경오염 신고 전용전화 신고요령	270
<표 II-8-12> 대기환경개선 정책 목표 및 수단	271
<표 II-8-13> 오수처리시설의 연차적 보급계획	272
<표 II-8-14> 수질환경개선 정책 목표 및 수단	274
<표 II-8-15> 폐기물 처리계획	275
<표 II-8-16> 다이옥신의 주요국 규제기준	276
<표 II-8-17> 폐기물의 적정처리 정책 목표 및 수단	277
<표 II-8-18>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279
<표 II-8-19> 농·도지역간 상대적 우위항목 비교표	279
<표 II-8-20> 도시하천에서의 친수활용	280
<표 II-8-21> 상수도 보급계획	282
<표 II-8-22> 용수수요 전망	282
<표 II-8-23> 시설용량계획	283
<표 II-8-24>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284
<표 II-8-24> 하수도 보급계획(처리인구 기준)	285
<표 II-8-25>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287
<표 II-8-26> 도내 『지방의제 21』 작성 현황	288
<표 II-8-27> 도내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지역 지정	289
<표 II-8-28> 정부의 10대 대체에너지 분야	295
<표 II-8-29> 환경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296
<표 II-9- 1> 충북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299
<표 II-9- 2>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의 현황	300
<표 II-9- 3> 개발제한구역 이용 현황	302
<표 II-9- 4> 개발촉진지구 현황	304
<표 II-9- 5> 용지별 토지수요 전망	305
<표 II-9- 6> 토지이용부분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312
<표 II-10- 1> 주택보급의 추이	315
<표 II-10- 2> 형태별 주택현황	316
<표 II-10- 3> 주거 점유형태별 현황	317
<표 II-10- 4> 총괄현황	317
<표 II-10- 5> 택지개발 관련사업 계획	318
<표 II-10- 6>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319

<표 II-10- 7>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319
<표 II-10- 8> 충북 인구 및 가구변화 전망	320
<표 II-10- 9> 주거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326
<표 II-10-10> 보건·의료 지표	227
<표 II-10-11> 보건시설 현황	328
<표 II-10-12> 병상수급 현황과 추계	329
<표 II-10-13>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329
<표 II-10-14> 보건소 인력	329
<표 II-10-15> 1999년도 보건의료사업	331
<표 II-10-16> 보건의료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334
<표 II-10-17> 사회복지시설 지표	335
<표 II-10-18> 199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35
<표 II-10-19> 1998년도 충청북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사업	336
<표 II-10-20> 아동복지시설 현황	336
<표 II-10-21> 노인인구와 주거형태	337
<표 II-10-22> 노인생활시설 현황	337
<표 II-10-23> 지역별 묘지 및 납골시설	338
<표 II-10-24> 장애인보호시설 현황표	339
<표 II-10-25> 모자복지·부랑인·정신지체생활시설 현황	340
<표 II-10-26> 사회복지(허가)시설의 유형별 분포	340
<표 II-10-27> 사회복지시설의 대상자별 분포	341
<표 II-10-28> 사회복지시설의 시·군별 분포	341
<표 II-10-29>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정원	343
<표 II-10-30>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현원	343
<표 II-10-31>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현황	344
<표 II-10-32>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월평균 이용인원	345
<표 II-10-33> 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자 현황	345
<표 II-10-34> 사회복지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354
<표 II-10-35> 아동수별 초등학교 학급수	355
<표 II-10-36> 학생변동상황	356
<표 II-10-37>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상황	356
<표 II-10-38> 교사 1인당 학생 수	357
<표 II-10-39> 학교 급식 실시 현황	357
<표 II-10-40> 체육시설 현황	358
<표 II-10-41> 공공체육시설현황	358
<표 II-10-42> 교육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364
<표 II-10-43> 체육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365

제3부 행 · 재정계획

<표 III-1- 1> 충청북도 행정구역 현황	373
<표 III-1- 2> 전국대비 충청북도 행정구역 일반현황	373
<표 III-1- 3> 기관별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374
<표 III-1- 4> 시도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75
<표 III-1- 5> 직종별 공무원 현원 현황	375
<표 III-1- 6> 기업가적 정부론에 입각한 충청북도 행정개혁의 원리	789
<표 III-1- 7> 지원기능 위주의 서비스	381
<표 III-1- 8> 논스톱 행정서비스 방법	383
<표 III-1- 9> 민간위탁 판단기준	384
<표 III-1-10> 정부 · 시장 · 비정부기구의 특성 비교	385
<표 III-1-11>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관계 유형	386
<표 III-2-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추이	401
<표 III-2- 2> 재정위기의 원인	402
<표 III-2- 3> 세입규모추이	402
<표 III-2- 4>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	403
<표 III-2- 5> 재정자립도 현황	403
<표 III-2- 6> 1998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404
<표 III-2- 7> 시도별 부채규모	405
<표 III-2- 8> 지방채 추이	406
<표 III-2- 9> 충북도 본청의 재정분석 지표	407
<표 III-2-10> 시 · 군별 지방재정 분석자료	409
<표 III-2-11> 재정책충방안	410
<표 III-2-12> 자체수입 회귀분석 결과	411
<표 III-2-13> 자체수입 예측	411
<표 III-2-14> 의존수입 예측	412
<표 III-2-15> 지역개발기금 확충방안	414
<표 III-2-16> 지역사회에서 공공부문에의 활용이 예상되는 자원봉사활동	414
<표 III-2-17> 아웃소싱의 목표	415
<표 III-2-18> 민자유치의 유형	418
<표 III-2-19> 투자 우선 순위의 결정기준	420
<표 III-2-20> 부문별 투자비 산정 및 분담내역	421
<표 III-2-21> 단계별 투자비 산정 및 분담내역	422
<표 III-2-22> 제3차 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에 따른 투자비 산정 내역	423

그림 차례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그림 I-1-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6
<그림 I-1- 2> 계획의 공간적 범위	9
<그림 I-1- 3> 계획의 내용적 범위	10
<그림 I-2- 1> 충북의 입지적 여건	17
<그림 I-2- 2> 충북의 세대 및 인구수	21
<그림 I-2- 3> 교육정도별 취업자	23
<그림 I-2- 4> 충북지역내 학생수	24
<그림 I-2- 5> 1인당 지역내 총생산	25
<그림 I-2- 6> 산업분류별 사업체 구성비	26
<그림 I-2- 7>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27
<그림 I-2- 8> 작물생산량	27
<그림 I-2- 9> 1997년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생산구조	29
<그림 I-2-10> 금융기관 점포현황	29
<그림 I-2-11> 예금은행 예금 및 대출금	30
<그림 I-2-12> 산업별 대출금	30
<그림 I-2-13> 도로길이 현황	32
<그림 I-2-14> 지역개발 방향 설문	37
<그림 I-3- 1> 계획의 기초 및 목표 도출	47
<그림 I-3- 2> 계획과제의 도출 과정	48

제2부 부문별 계획

<그림 II-1-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64
<그림 II-1- 2> 지역개발축	68
<그림 II-1- 3> 충북의 개발권	70
<그림 II-1- 4> 산수관광권역 개념도	71
<그림 II-1- 5> 역사·문화권역 개념도	71
<그림 II-1- 6> 산업육성권역 개념도	72
<그림 II-1- 7> 국제교류권역 개념도	73
<그림 II-1- 8> 휴양관광권역 개념도	74
<그림 II-1- 9> 과학영농권역 개념도	75
<그림 II-1-10> 광역협력계획 개념도	76
<그림 II-2- 1> 도로망 현황도	88
<그림 II-2- 2> 2010년 충청북도 도로망 계획	107
<그림 II-2- 3> 2020년 충청북도 도로망 계획	108
<그림 II-2- 4> 충청북도 물류시설 현황도	112
<그림 II-2- 5> 권역별 물류 계획	116

<그림 II-2- 6> 물류체계 구축 개념도	118
<그림 II-3- 1> 특화단지 조성계획	133
<그림 II-3- 2> 축산업 육성 방안	144
<그림 II-3- 3> 산림생태공원 조성	146
<그림 II-3- 4> 그린위터파크 구상도	147
<그림 II-4- 1> 첨단지식산업벨트	157
<그림 II-4- 2> Two Core Golden Triangle 개념도	158
<그림 II-5- 1> 전자상거래운영센터의 모형	188
<그림 II-6- 1> 여행목적지로서의 충북지역 점유비중	228
<그림 II-6- 2> 충북관광의 장기발전 구상	233
<그림 II-6- 3> 충북관광권 개념	234
<그림 II-6- 4> 충북 6대 거점 관광개발 구상	235
<그림 II-6- 5> 지역관광 연계망 구축	237
<그림 II-6- 6>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244
<그림 II-8- 1>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	259
<그림 II-8- 2> 충북의 연도별 화재발생건수 추이	261
<그림 II-8- 3> 용도별, 연도별 전력사용량	261
<그림 II-8- 4> 충북의 석유류 소비량 추이	262
<그림 II-8- 5> 「그린네트워크」 구성요소와 추진사업	268
<그림 II-8- 6> 상·하수도 보급계획	286
<그림 II-8- 7>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및 보상 모델 ..	291
<그림 II-9- 1> 주거부문의 여건변화	321
<그림 II-9- 2> 충북의 주택용지 수급전망	322
<그림 II-9- 3> 사회복지시설중 가장 부족한 것	342
<그림 II-9- 4> 충북도내 학교 수	355

제3부 행·재정계획

<그림 III-1- 1> 행정환경변화와 정부개혁의 필요성	372
<그림 III-1- 2> 도 본청 기구도	376
<그림 III-1- 3> 충북행정개혁모형: 기업가적 정부	377
<그림 III-2- 1> 지방정부의 부채추이	406
<그림 III-2- 2> 아웃소싱 방침의 결정	416
<그림 III-2- 3> 아웃소싱의 과정모형	416
<그림 III-2- 4> 계획목표에 따른 투자비 추이	423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계획의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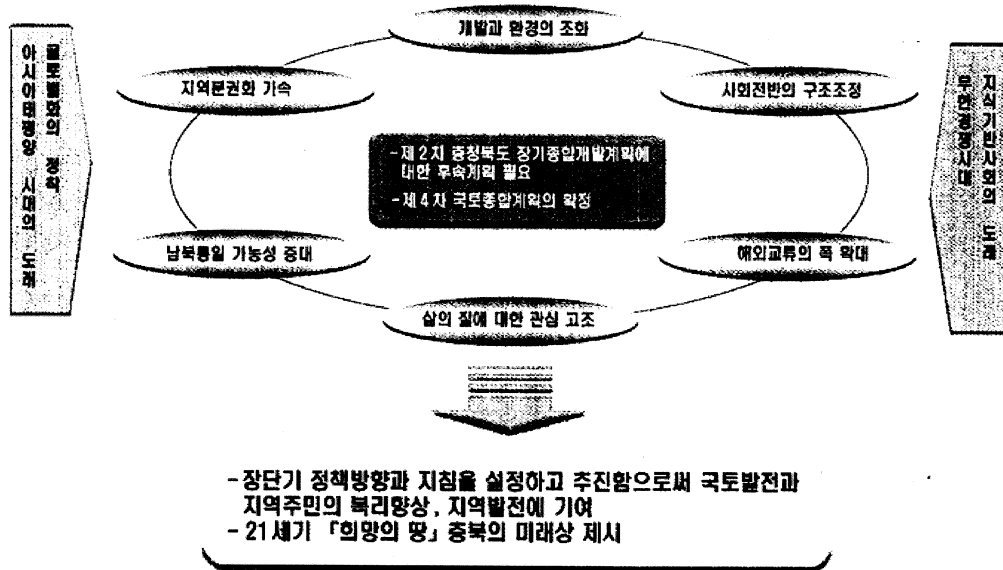
계획의 개요

제 1 장

- 제1절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및 이념
- 제3절 계획의 범위
- 제4절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제3차 계획의 기본구상

- 이에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국토 중심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아시아 태평양시대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반도 융합지, 희망의 땅 충청북을 건설하고자 함.



〈그림 1-1-1〉 계획의 배경과 목적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및 이념

1. 성격

1) 상위 계획의 구체화계획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립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임.

2) 국토종합계획의 지역부문계획

- 도 종합계획은 국토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계획을 낚는 계획임.
-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 제4항 : “도계획은 도가 그 관할전역 또는 그 중 2군(시를 포함한다)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3) 하위계획의 지침계획

- 도 종합계획은 군계획, 도시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이 되고 민간 부문에 대해 개발방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계획임.
-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4조：“전국계획은 특정지역계획과 도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계획은 시·군계획의 기본이 된다.”

4) 분야별 하위계획의 수정·보완계획

- 충북 CHANGE 21 및 분야별 하위계획(정보화기본계획, 사회복지종합계획, 문화비전21, 충북지역농업종합계획, 청풍명월21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계획임.

2. 역할

-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개방화와 자유화, 지방분권화, 산업의 지식기반화와 정보화의 진전,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의 대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정주체계, 산업, 교통, 생활환경 등에 관한 정책수단을 제시함.
- 이를 통하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분과 개인, 기업 등의 민간부분이 각종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함.

3. 이념

-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창조적으로 개척하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충북이 변한다”는 「CHANGE」를 바탕으로 창조의 충북, 인본의 충북, 활력의 충북, 자연의 충북, 새개의 충북, 정의의 충북을 계획의 이념으로 설정함.
- 「희망의 땅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충북 CHANGE21」을 기본 이념으로 새천년 충청북도의 20년 장기발전전략인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작성함.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C	reative	창조의 충복
		창조와 기술이 융합하는 첨단지식산업 육성
H	uman	인본의 충복
		인류와 문화가 융합하는 지역문화예술 창달
A	ctive	활력의 충복
		지역과 국토가 융합하는 교통물류체계 구축
N	atural	자연의 충복
		자연과 환경이 융합하는 관광휴양산업 육성
G	lobal	세계의 충복
		지역과 세계가 융합하는 국제교류망 활성화
E	quity	정의의 충복
		균형과 복지가 융합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21		21세기 희망의 땅 충복 건설
		한반도 융합지대, 동북아 심장부, 지구촌 미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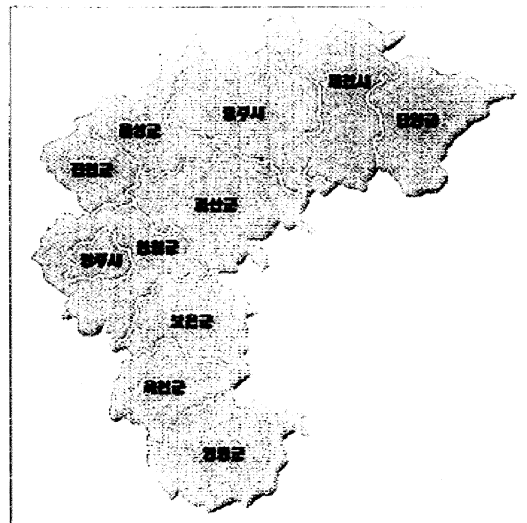
제3절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로 함.
- 기준연도는 1998년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함.
- 계획기간(2000년~2020년) 중 초기 5개년 동안은 중점추진할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매5년마다 검토·평가 후 수정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연동계획이 되도록 함.
- 각종 지표는 계획기간의 시작년도와 종료년도, 2004년도와 2010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반기 10개년에서의 계획지표는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그 실천성을 확보하도록 함.

2.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는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이며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균형개발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초아래, 거시적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및 세계 전역과 대한민국 전역을 계획의 검토대상으로 함.
- 도 종합계획의 미시적·실천적 공간 범위로는 1999년말 기준 충청북도 행정구역울 기준으로 하여 청주, 충주, 제천시, 증평출장소(3개시, 1개 출장소)와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8개군)을 대상으로 함.



〈그림 1-1-2〉 계획의 공간적 범위

- 인접된 타 시·도 지역(인접한 중부권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본 계획의 정책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정책입안시 포함함.

3. 내용적 범위

-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변화 추이에 따라 2020년까지의 각 부문별 계획 지표 및 삶의 질 향상 목표를 설정함.
 - 충북지역의 여건변화와 투자가능자원 등의 분석 및 검토
 - 계획기간 초기 5개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수단 제시
 - 예기치 못한 여건변화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지표설정, 계획 및 정책수단 제시에 융통성 부여
- 도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 충청북도의 미래미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테마 제시
 - 국제개방거점 구축 등을 통해 세계와 함께 하는 개방성 강화
 -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화하는 환경친화성 강화
 - 지역간 균형발전, 계층간 분배정의 실현하는 기회균등성 확보
 - 충북의 선비정신, 충북형 복지정책 등 유연한 방식의 발전방안 강조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충청북도종합계획

계획의 기본구상

- 계획의 개요
-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부문별 계획

- 미래지향적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충북 건설
-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인간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 실현
-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극대화

계획의 집행과 관리

- 행정계획
- 재정계획

〈그림 1-1-3〉 계획의 내용적 범위

제4절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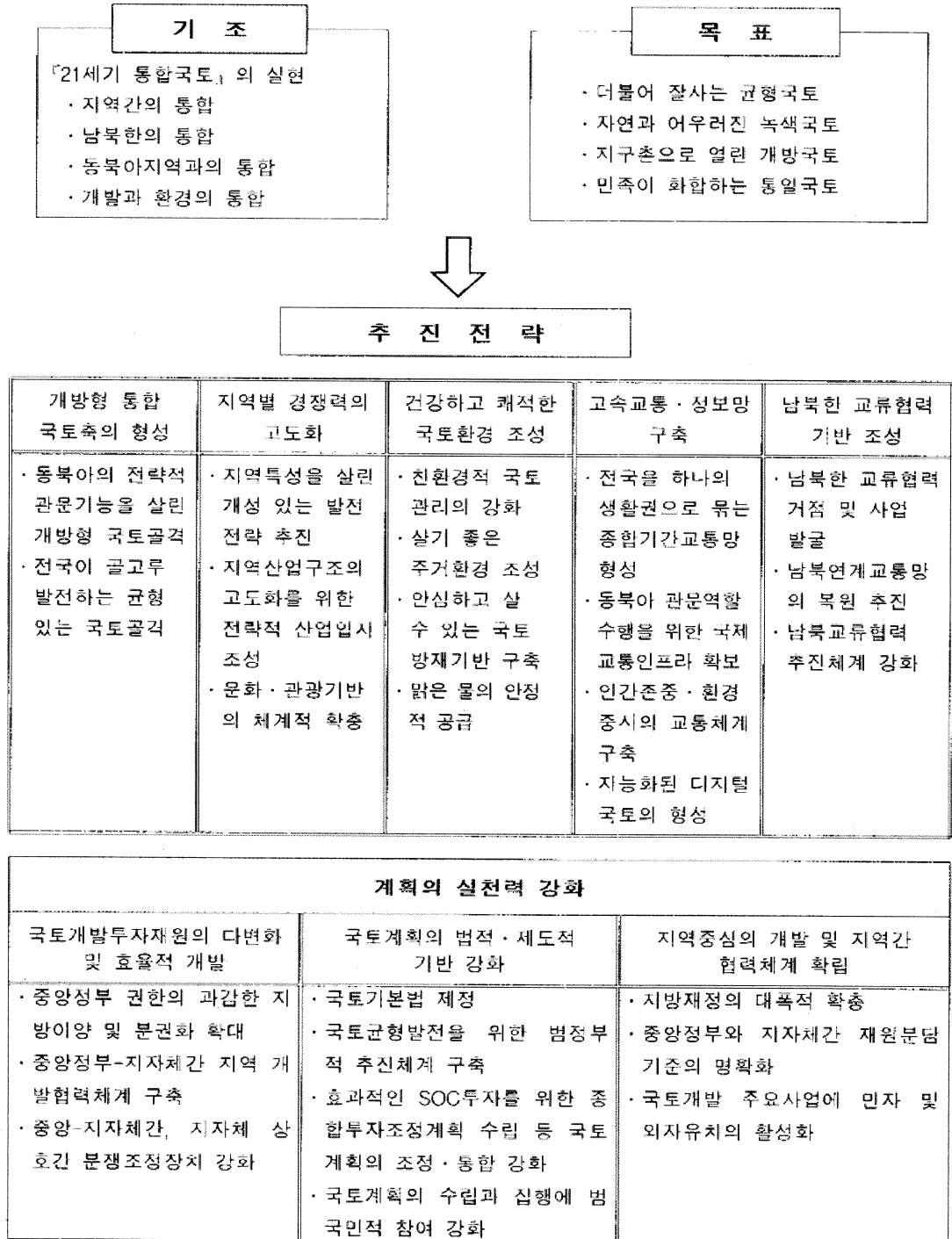
1. 국토종합계획

1) 제1~3차 국토종합계획

구분	제1차 국토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계획 (1992~2001)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력의 신장 공업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수도권의 과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 자율적 지역개발 전개
기본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토자원개발과 자연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국민복지 수준의 제고 국토 자연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생산적·자원 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보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개발전략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축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서울, 부산의 성장억제 및 관리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후진지역의 개발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 신산업지대 조성 and 산업구조 고도화 종합적 고속교통망의 구축 국민생활과 환경부문의 투자 증대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특징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개발 방식의 채택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 균형발전 추구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 지속, 올림픽 개최의 확정 등으로 1987년의 계획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화·개방화·지방화 등 여건 반영 미흡 WTO 출범 등 국토개발의 기조 변화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2. 1·2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구분	1차 계획(1982~1991)	2차 계획(1992~2001)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로부터의 개발효과를 적극 수용 · 거점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격자형 개발 유도 · 중소도시와 인접 배후농촌의 통합개발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점진적 증가 및 적정선 유지 ·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구현 · 지속적인 쇄신과 창조적인 변화 지향 ·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정립 및 창달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발전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부고속전철 본선의 충북통과 -청주국제공항 착공 -중앙고속도로 착공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실시설계 -산업도로망의 확충 · 내륙공업벨트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음성, 충주공업발전 -청주첨단산업단지개발 착수 · 생활환경 개선 · 농촌기반시설 확충 · 교육·문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증설 -특수고교 설립 -전통문화유적의 발굴 -통일신라 유적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국제공항 개항 -중앙고속도로 부분개통 및 확장 -중부내륙고속도로 착공 -청주-제천간 국도 확장 -도로 확·포장사업 지속 추진 · 내륙첨단산업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 착공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개발착공 -산·학·연 교류협력체계 추진 · 농촌생활기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속 추진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 -지역토종 되살리기 사업 추진 · 관광개발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순환관광벨트 테마화 사업 추진
문제점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상수도사업 실적의 부진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부족 야기 · 동서간 연결 교통체계가 계획 기간중 확충되지 못했음 · 계획성 있는 지방공단의 조성이 미흡 · 숙박시설 미비, 관광배후거점지역의 부재, 동적 관광시설의 부족, 관광지간의 상호연계성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 등 상위 국가단위계획에의 지역의지 반영 노력 미비 · 전국산업경제권과의 역할분담 및 기능보완 관계 재정립 필요 · 지역내 생활권별 연계기능 미흡 · 충주·대청호 및 국립공원지역 개발 제한규제에 대한 대안모색 미비 · 지역주민들의 참여유도 저조

계획의 기본구상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제 2 장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제2절 대내외적 여건변화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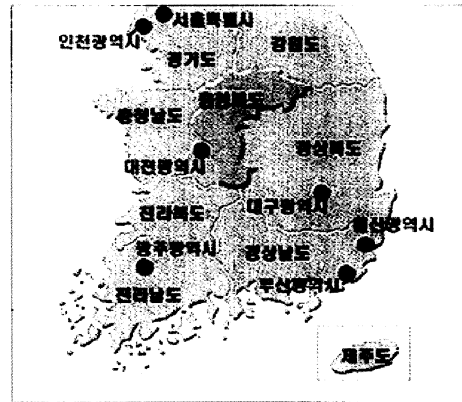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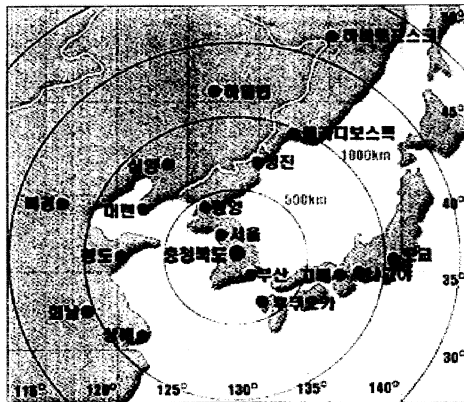
제3절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검토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1. 입지적 여건

- 중북지역은 경위도상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단은 단양 영춘면, 서단은 청원 강외면, 남단은 영동 용화면, 북단은 제천 백운면이 위치해 있음.



〈그림 1-2-1〉 중북의 입지적 여건

- 중북지역은 우리나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수도권(서울, 경기)과 산악자원의 보고인 강원도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 대전, 경북, 전북에 둘러싸인 국토의 중심부에 있음.
- 국토공간상으로는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간 교류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1차적으로 흡수·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수도권내의 서해안 산업지대와 국토 서남부에 위치한 산업 및 교역지태를 포함한 서해안개발의 연계축을 형성하고, 수도권과 경부 및 호남축을 잇는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충북부지역에서 발달한 저산성 구릉지대는 산업입지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풍부한 온천지대와 호수경관, 산수는 종합여가선용 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임.
- 경북·전북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지대를 청정지역으로 영구 보존함으로써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맑은 물과 공기를 필요로 하는 미래의 환경산업지대로 활용이 가능함.

2.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 지형적 특성은 동고서저의 산지가 많고 평야가 협소한 산악을 형성하고 있으며,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류가 전면적의 2/3정도로 넓게 분포되어 자연풍화작용에 의한 분지형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북동으로 태백산맥, 서북으로 차령산맥, 동남으로 소백산맥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분지 및 산지로 구성되어 정주체계의 확립과 생산기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호조건을 갖추고 있음.
- 기후는 한랭건조한 긴 겨울과 고온다습한 긴 여름이 계속되는 대륙성 기후로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도내 남부와 북부지역의 평균 기온차는 심하지 않은 편임.

〈표 1-2-1〉 충북의 기상개황

구 분	평균 기온 (℃)	최고 온도 (℃)	최저 온도 (℃)	일조 시간 (시간)	강수량 (mm)	평균 풍속	최고 풍속	일조율	안 개 발생일	상대 습도
충 북	13.6	19.0	9.0	2,206	1,640	2.0	10.8	49.6	40	70
서 울	13.8	18.4	9.8	2,080	2,349	2.2	9.9	46.7	14	65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1999.

- 충북지역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유일한 내륙도로서 국토의 7.5%인 7,432.7 km²의 면적에 불과하나 인구의 비중이 높고, 도시계획구역의 비중이 낮아 개발 가능성은 높은 지역임.
- 이 밖에 도시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청주권과 대전권(청원, 옥천)을 합쳐 321.2km²로서 전국의 5,397.1km²의 6%를 점하고 있음.

〈표 1-2-2〉 지목별 면적

구 분	전 국		충 북	
	(km ²)	구성비(%)	(km ²)	구성비(%)
총면적	99,407.9	100.0	7,432.7	100.0
논	12,476.0	12.6	722.9	9.7
밭	8,222.4	8.3	711.4	9.6
과수원	510.9	0.5	4.1	0.1
목장용지	539.2	0.5	24.8	0.3
임야	65,274.2	65.7	5,070.2	68.2
염전	123.0	0.1	-	-
대지	2,265.3	2.3	120.8	1.6
공장용지	467.8	0.5	31.8	0.4
학교용지	229.7	0.2	15.4	0.2
도로	2,178.7	2.2	155.1	2.1
철도용지	116.6	0.1	11.8	0.2
하천	2,810.3	2.8	210.8	2.8
제방	168.1	0.2	11.5	0.2
구거	1,720.1	1.7	119.7	1.6
유지	1,072.1	1.1	134.3	1.8
기타	1,233.5	1.2	88.1	1.2

자료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1999.

〈표 1-2-3〉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km², %)

구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전국	15,298.19 (100.0)	1,838.78 (12.0)	236.01 (1.5)	698.11 (4.6)	11,403.35 (74.5)	1,121.94 (7.3)
충북	644.20 (100.0)	67.87 (10.5)	8.58 (1.3)	21.05 (3.3)	546.18 (84.8)	0.52 (0.1)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 1998.

3. 인문·사회적 여건

1) 인구규모 및 동태

- 충북의 인구는 1990년까지 감소하던 몇몇 지역들이 증가세로 반전되는 반면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들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추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충북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및 음성군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청원군의 경우 1990년 이후 증감이 반복되고 있음. 한편, 보은군, 옥천군을 비롯한 여타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
 - 인구가 증가추세로 반전된 지역을 살펴보면 청주시의 인구는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지만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충주시와 제천시의 인구는 1990년까지 감소하나 그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 이 밖에 청원군, 진천군 및 음성군이 1990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0.98%, 2.45%, 2.03%로 진천군 및 음성군의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반면 청원군은 1%미만으로 낮은 편임.
 -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지역을 살펴보면 증평출장소는 증감이 반복되면서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5개 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감소추세가 대체로 둔화되고 있음.

〈표 1-2-4〉 지역별 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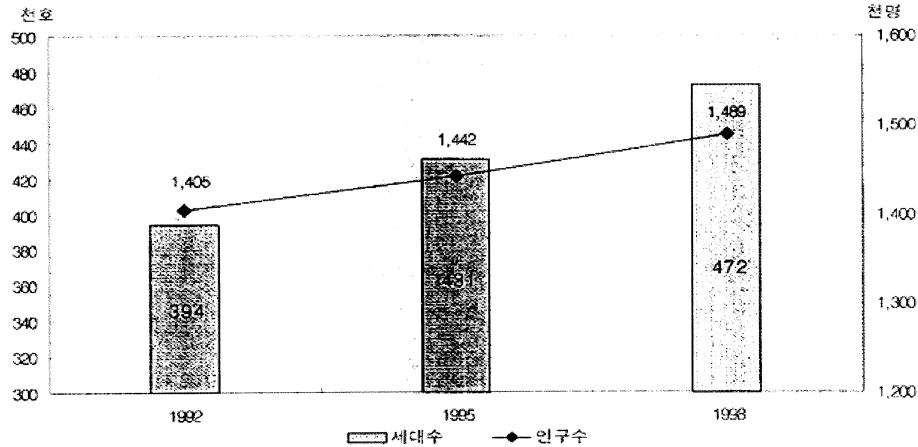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1970~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8
충 북	-0.21	-0.47	-0.02	0.87
청주시	5.80	6.72	7.27	1.47
충주시	-0.20	-1.74	-0.38	1.48
제천시	-0.02	-1.30	-1.61	0.72
청원군	-1.62	-3.94	-4.16	0.98
보은군	-2.33	-3.37	-5.17	-1.69
옥천군	-1.36	-1.76	-3.27	-1.45
영동군	-1.71	-2.27	-1.95	-2.84
진천군	-1.97	-2.41	-2.80	2.45
괴산군	-2.10	-3.82	-5.85	-1.44
음성군	-1.56	-2.84	-2.18	2.03
단양군	-2.39	-2.90	-4.65	-1.96
증평출장소	-	3.59	1.34	-2.64

주 :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임.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로 1㎢당 3,645.2명이고, 충북의 인구밀도는 전국평균 474.5명의 절반수준인 200.4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1-2-2〉 충북의 세대 및 인구수

- 도내 출생아수는 1988년 17,978명, 1991년 19,079명, 1997년 20,95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1998년에는 19,817명으로 1988년 이후 처음 감소하였으며, 여아 100명당 남아의 출생성비는 1988년에 112.7, 1991년에 112.4, 1998년에 108.3명으로 1988년에 비해 감소되었음.
- 비교적 고령층이 많은 충북지역의 사망자수는 1988년에 10,499명, 1991년에 10,870명, 1998년에는 10,021명으로 나타났다.
- 혼인건수는 젊은 연령층의 타 시도 전출로 인하여 1988년 11,499건에서 1998년 9,396건으로 낮아졌고, 이혼건수는 1988년에 986건, 1991년에 1,146건, 1998년에 2,777건으로 해마다 증가되었음.

〈표 1-2-5〉 충북의 인구동태

구 분	출 생 (명)		사 망(명)	혼 인(건)	이 혼(건)
		남아성비			
전국 1998년	663,597	110.2	243,252	306,853	98,531
충북 1991년	19,079	112.4	10,870	12,286	1,146
1994년	20,605	114.7	10,262	11,185	1,624
1997년	20,954	105.8	10,298	10,741	2,173
1998년	19,817	108.3	10,021	9,396	2,77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2) 경제활동인구

- 1991년 이후 충북의 15세이상 인구는 연평균 1.37%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45% 증가하여, 15세이상 인구의 증가보다 경제활동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경제활동인구중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광공업은 정체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타서비스 및 SOC는 크게 증가하였음.
- 취업자수는 1991년 601천명에서 1998년 현재는 638천명으로 1991년에 비해 6.2% 증가했고, 실업자수는 1991년 7천명에서 1998년 33천명으로 4.71배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1991년에 1.2%에서 1998년 현재 4.9%로 3.7% 증가했고, 전국 6.8%에 비해 1.9% 낮게 나타났음.
- 1998년 현재 농림어업 27%, 광공업 18%, 기타서비스 및 SOC 55%를 차지하고 있음.

〈표 1-2-6〉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구 분	경제 활동 인 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비 경 제 활동인구
				계	남	여		
전 국 1998년	21,456	19,994	1,461	60.7	75.2	47.0	6.8	13,906
충 북 1991년	608	601	7	60.3	71.3	49.8	1.2	401
1994년	640	628	12	61.2	73.8	49.5	1.9	406
1997년	668	658	11	60.9	74.0	48.6	1.6	429
1998년	671	638	33	60.3	72.7	48.6	4.9	44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연령계층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15~19세는 1991년 2.3%에서 1998년 현재 1.4%로 0.9%, 20~29세는 19.7%에서 16.4%로 3.3% 각각 감소한 반면, 30~59세는 1991년 67.1%에서 68.4%로 1.3%, 60세이상은 1991년 10.8%에서 14.1%로 3.3% 각각 증가하였음.
- 전체 취업자중 60세이상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9.5%에 비해 4.6% 낮게 나타났음.

〈표 1-2-7〉 연령계층별 취업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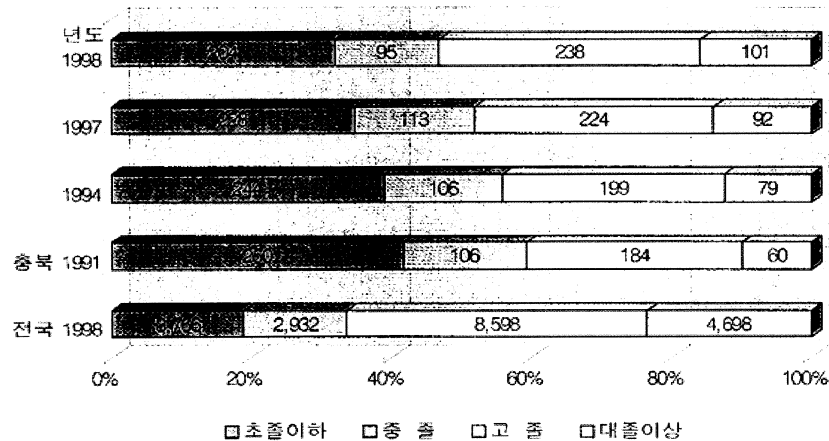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15~19	20~24	25~29	30~59	60세이상
전국 1998년	100.0	1.6	7.4	13.1	68.4	9.5
충북 1991년	100.0	2.3	8.7	11.0	67.1	10.8
1994년	100.0	2.2	8.3	10.7	53.2	14.2
1997년	100.0	2.0	7.8	9.9	63.8	16.4
1998년	100.0	1.4	6.7	9.7	68.4	14.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3) 교육 및 인력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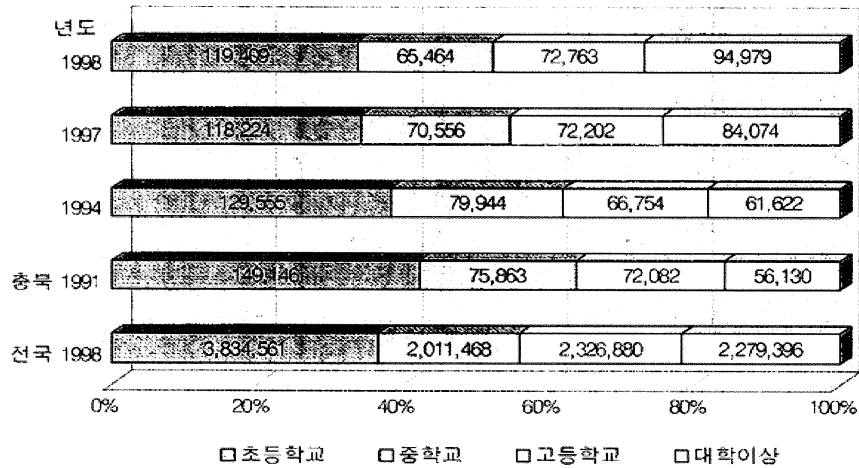
- 교육정도별 취업자를 보면, 초졸 이하는 1991년 250천명에서 1998년 현재 204천명으로 1991년에 비해 18.4% 감소한 반면, 고졸은 184천명에서 238천명으로 1991년에 비해 29.3%, 대졸이상은 60천명에서 101천명으로 1991년에 비해 68.3% 각각 증가하였음.



〈그림 1-2-3〉 교육정도별 취업자

- 도내 학생수는 10년전인 1988년보다 대학 이상을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 감소한 반면, 대학 이상의 학생수는 1988년 5만2천명에서 1998년 현재 9만5천명으로 84.3% 증가하였음.
- 초등학교 여학생 비율은 1988년 48.7%에서 1998년 47.4%로 1988년에 비해 1.3%, 중학교는 48.9%에서 48.5%로 0.4% 각각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는 4.2%, 대학 이상은 8.4% 증가하였음.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그림 1-2-4〉 충북지역내 학생수

4. 지역 경제적 여건

1) 지역내 총생산

- 1995년 가격기준으로, 1997년의 총생산액 148,220억원은 1988년의 총생산액 61,700억원에 비해 2.4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총생산액의 3.5%를 차지함.

〈표 1-2-8〉 1995년 가격기준 충북의 지역내 총생산(1995년 기준)

구 분	경제성장률(%)	총생산액(십억원)	
			산 업
전국 1997년	4.9	423,910	389,317
충북 1991년	10.2	8,136	7,306
1994년	8.5	10,821	9,916
1996년	11.7	13,236	12,371
1997년	12.0	14,822	13,849

주 : 전국총생산액은 국방부문 및 수입관세가 포함됨.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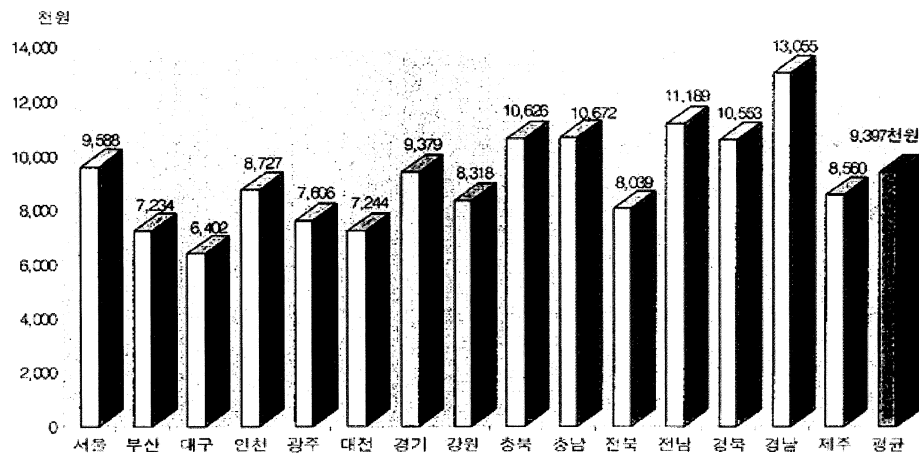
- 1997년 총생산액의 93.4%는 산업활동에서 생산된 것으로 정부 및 비영리서비스업의 생산액은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장률은 1988년에 7.8%, 1991년에 10.2% 이후 연 7%이상 성장하였으나, 1997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4.9%보다 높은 12.0%로 나타났다.

〈표 1-2-9〉 산업별 총생산 (경상가격)

구 분	총생산액 (십억원)	산 업 (십억원)	구 성 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전국 1997년	432,195	410,988	5.6	32.8	61.6
충북 1991년	6,516	6,063	15.1	37.8	47.1
1994년	10,164	9,380	12.5	40.5	47.0
1996년	13,691	12,735	10.9	44.1	45.0
1997년	15,325	14,198	8.8	45.0	46.2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 경상가격 기준으로 1997년도 산업부문 총생산액은 전국의 3.5%인 141,980억원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46.2%를 차지하고, 광공업이 45.0%, 농림어업이 8.8%를 차지하여 3차, 2차, 1차 산업순의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음.
 - 1988년에 비해 농림어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반면, 광공업이 높게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음.
- 전국 시도의 1인당 평균생산은 9,397천원이며, 충청북도내 1인당 생산액은 10,626천원으로 경남, 전남, 충남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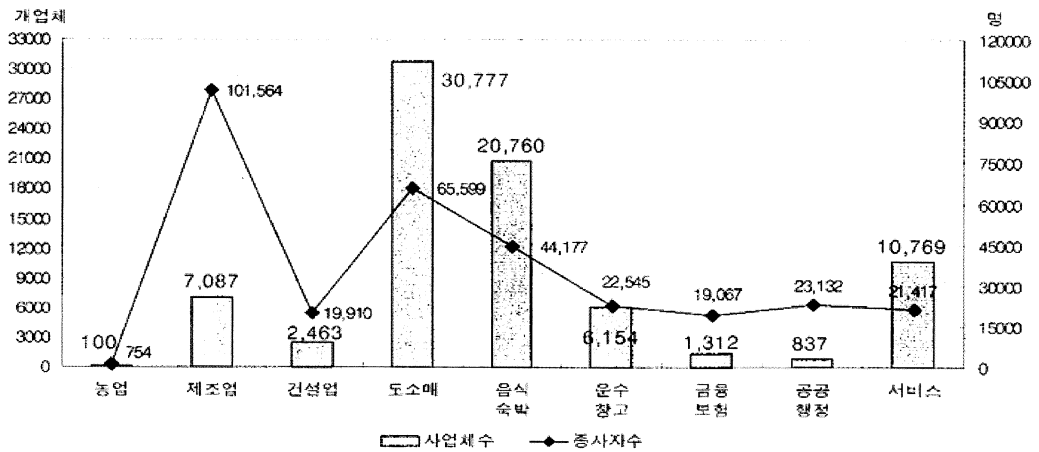
〈그림 1-2-5〉 1인당 지역내 총생산

2) 사업체 현황

- 1998년 현재, 도내 사업체수의 구성비는 도소매 및 수리업이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23.4%,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은 12.1%, 제조업 8.0% 순으로 나타났음.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전체 사업체 중 8.0%에 불과한 제조업이 종사자수로는 2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및 수리업(17.5%), 숙박 및 음식점(11.8) 순으로 나타났다.
- 1998년 현재, 전 사업체의 88.4%가 1~4인 규모의 사업체로 종사자의 35.2%가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개 업체당 1.70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6〉 산업분류별 사업체 구성비

- 사업체 규모는 전국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대규모 사업체는 적은 편임.

〈표 1-2-10〉 규모별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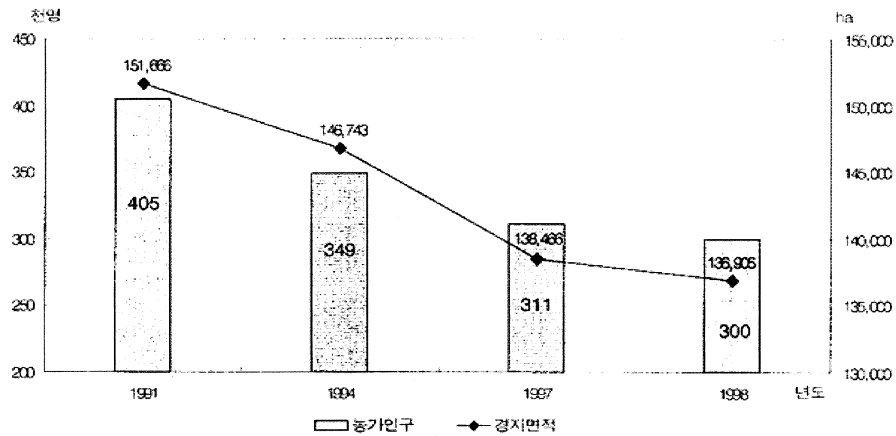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총 복			전 국		
		사업체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1개업체당 종사자수	사업체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1개업체당 종사자수
사 업 체 규 모	1~4	88.4	35.2	1.7	89.3	34.4	1.7
	5~9	6.0	8.9	6.3	6.7	9.5	6.3
	10~19	2.7	8.7	13.5	3.0	8.9	13.4
	20~49	1.9	13.7	29.9	2.2	12.2	25.0
	50~99	0.6	9.1	66.9	0.5	8.2	67.8
	100~299	0.3	11.5	162.5	0.3	10.3	165.7
	300~499	0.0	4.3	391.9	0.0	3.6	380.1
	500~999	0.0	3.3	652.0	0.0	4.5	676.5
	1000이상	0.0	5.2	2,186.3	0.0	8.3	2,150.4

자료 :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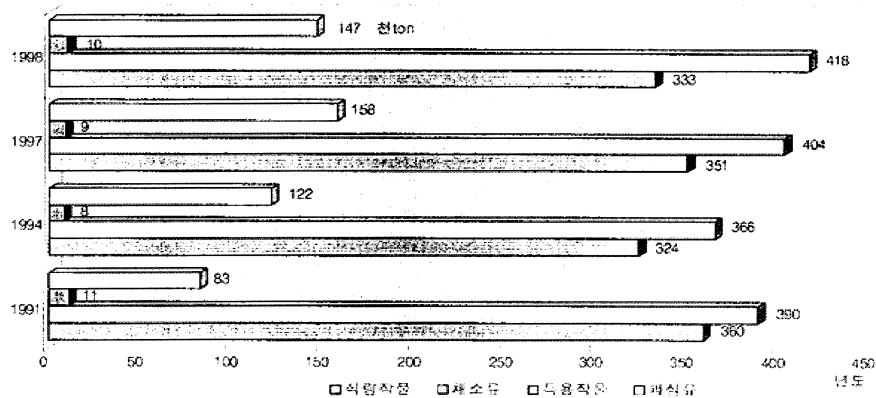
3) 산업별 특징

- 농가수는 1988년 122,015가구에서 1994년에 102,505가구, 1998년에 95,070가구로 점차 감소하면서 1988년에 비해 22.1% 감소하였음.
- 농가인구도 1988년 490천명에서 1994년 349천명, 1998년에는 300천명으로 점차 감소하여 1988년에 비해 38.8% 감소하였음.
- 경지면적은 1988년 154,144ha에서 1998년 136,905ha로 1988년에 비해 11.2% 감소하였음.



〈그림 1-2-7〉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 식량작물중 쌀 생산은 1988년 371천M/T에서 1998년 291천M/T로 1988년에 비해 21.6% 감소하였으며, 전국생산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식량작물 생산량 중 잡곡이 18.7%, 두류 9.7%, 서류가 4.1%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2-8〉 작물생산량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광공업 사업체수는 1988년 931개에서 1998년 현재 2,066개로 1988년에 비해 2.22배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1988년 3,400십억원에서 1998년 현재 17,395 십억원으로 5.12배 증가하여 1998년 현재 8,410십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음.

〈표 1-2-11〉 광공업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업체, 명, 십억원, %)

구분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생산액	출하액	주요 생산비	부가 가치	유형 고정자산
전국 1998년	80,298	2,344,039	427,615	428,024	254,344	182,370	212,637
충북 1991년	1,388	89,562	6,871	6,584	3,635	3,236	3,694
1994년	1,907	101,855	12,182	11,776	5,902	6,280	6,932
1997년	2,270	110,007	18,637	18,519	9,396	9,242	12,184
1998년	2,066	93,462	17,395	17,586	8,985	8,410	14,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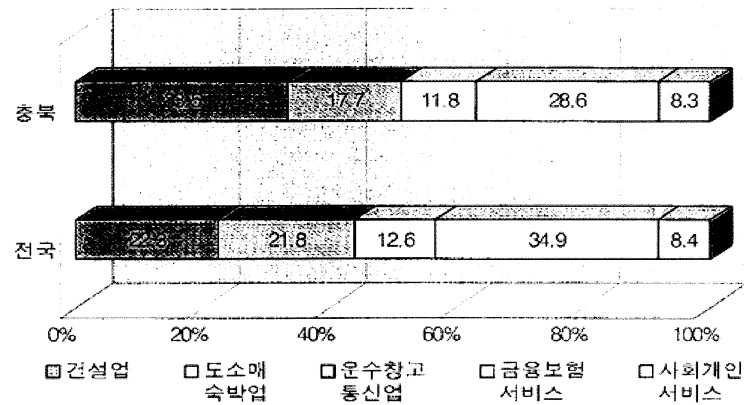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3차산업 생산액은 1997년 현재 63,740억원으로 전국 3차산업 생산액의 2.6%를 차지하였음.
- 도내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3차산업의 분포를 보면, 전국의 경우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이 34.9%로 비중이 높으나, 충북의 경우는 건설업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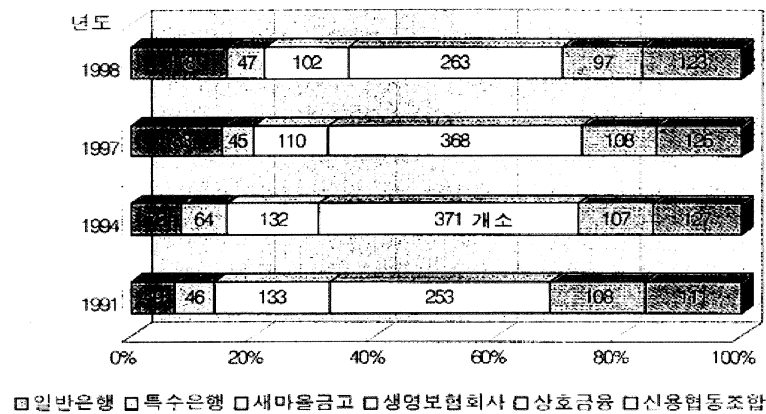
5. 지역금융 여건

- 1998년 현재, 도내 예금은행은 모두 165개소로서 일반은행이 118개소, 특수은행 47개소로 1988년에 비해 2.5배 늘어났음.
-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1988년에 비해 늘었으나, 새마을금고는 1988년 154개소에서 1998년 현재 102개소로 33.8% 줄었고, 상호금융도 1988년 109개소에서 1998년 현재 97개소로 11.0% 줄었음.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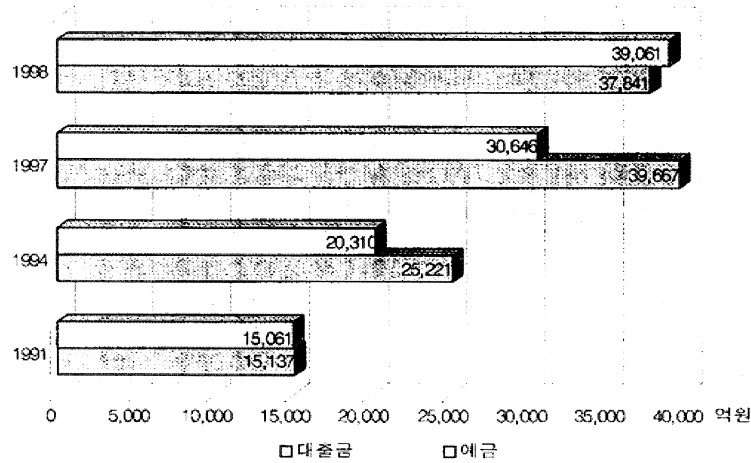
〈그림 1-2-9〉 1997년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생산구조



〈그림 1-2-10〉 금융기관 집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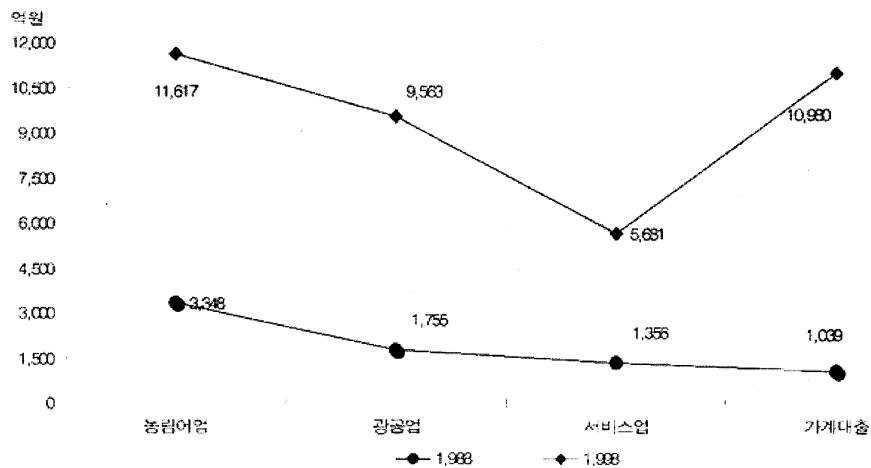
- 1998년 현재, 도내예금은 10년 전인 1988년에 비해 5.34배 증가한 39,061억원으로, 이중 저축성예금은 3.93배 증가한 7,894억원, 요구불예금은 5.87배 증가한 31,167억원임.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그림 1-2-11〉 예금은행 예금 및 대출금

- 예금은행의 총대출금(연말기준)은 1988년 7,498억원 수준이었으나, 1998년에는 37,841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예금은행 대출금을 산업별로 보면, 대출금 비중이 가장 큰 농림어업(30.7%)은 1988년 3,348억원에서 1998년 현재 11,617억원으로 3.47배 증가하였음.
- 가계대출은 1988년 1,039억원에서 1998년 현재 10,980억원으로 10.5배 증가해서 전 산업에서 증가하였음.
- 광공업은 1988년 1,755억원에서 1998년 현재 9,563억원으로 5.45배,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은 1988년 1,356억원에서 1998년 5,681억원으로 4.19배 증가하였음.



〈그림 1-2-12〉 산업별 대출금

- 1998년 현재, 어음교환금액은 전국의 0.3%인 244,966억원에 불과하나, 부도율은 오히려 전국부도율 0.52%보다 높은 1.84%로 나타났다.
- 10년전 1988년에 비해 어음교환금액은 3.95배 증가했고, 부도율도 0.26%에서 1.84%로 1.58%p 증가하였음.
- 어음교환 장수는 1988년 4,123천장에서 1998년 현재 18,198천장으로 1988년에 비해 4.41배 증가했고, 부도율은 1988년 0.08%에서 1998년 현재 0.11%로 1988년에 비해 0.03%p 증가하였음.

〈표 1-2-12〉 어음교환 및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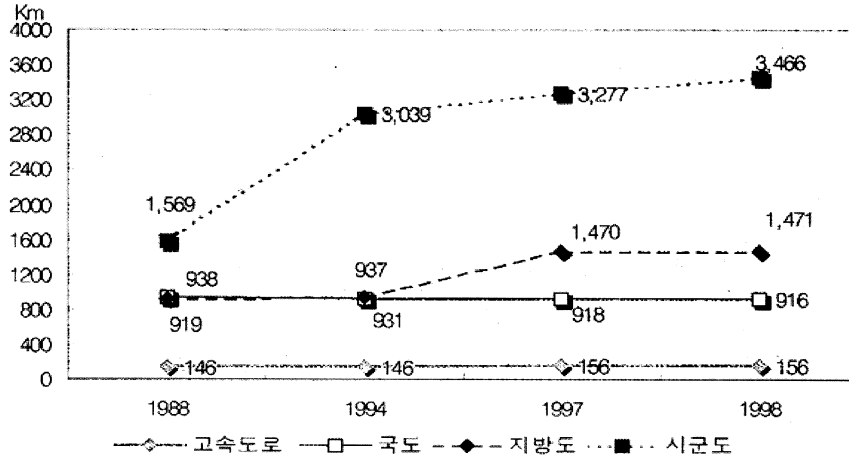
구 분	교 환		부 도		부 도 율(%)	
	금액	장수(천장)	금액	장수(장)	금액	장수
전국 1998년	75,058,269	1,012,466	389,344	1,399	0.52	0.14
충북 1991년	167,756	13,104	342	4,325	0.20	0.03
1994년	211,451	13,686	1,142	9,954	0.54	0.07
1997년	273,897	21,068	3,172	15,808	1.16	0.08
1998년	244,966	18,198	4,497	21,014	1.84	0.11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각년도.

6. SOC 및 생활환경 여건

- 철도,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남북간 국가기간교통망이 총집결되어 있는 반면, 동서간의 간선교통망은 미흡한 실정임.
- 1988년 도내 도로길이는 3,572km에서 1998년 현재 6,009km로 1988년에 비해 68.2% 증가하였으며, 도로포장률은 1988년 56.7%에서 1998년 현재 63.1%로 6.4%p 증가하였음.
- 1998년 국도포장률은 전국 98.0%에 비해 2.0% 높은 100.0%이고, 지방도는 전국 75.7%에 비해 3.9% 높은 79.6%인 반면, 시·군도 포장률은 전국 57.6%에 비해 12.9% 낮은 44.7%로 나타났다.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그림 1-2-13〉 도로길이 현황

- 도시공원 결정현황을 보면, 총 43,851천㎡로서 전국 969,861천㎡의 4.5%를 점하고 있으며, 공원결정률은 전국 6.3%에 비해 다소 높은 6.8%를 나타내고 있음.

〈표 1-2-13〉 도시공원 결정현황

구분	공원결정현황		도시계획구역(km ²)		도시계획 구역인구 (천명)	공 원 결정률 (%)	1인당공 원면적 (㎡)
	개소	면적(천㎡)	전체	시가화			
전국	10,316	969,861	15,298	2,773	41,201	6.3	23.5
충북	431	43,851	644	98	1,085	6.8	40.4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9.

- 상수도 현황을 보면, 1일 급수량이 355천톤으로 전국 15,872천톤에 비하여 2.2%에 불과하며, 보급률에 있어서도 전국 85.2% 보나 낮은 68.1%를 보임.
- 하수도의 경우도 전국 65.9%에 못미치는 59.3%에 불과해 상하수도 확충을 위한 투자가 절실함.

〈표 1-2-14〉 상하수도 현황

구분	상수도					하수도		
	급수인구 (천명)	시설용량 (천톤/일)	급수량 (천톤/일)	1일1인당 (ℓ)	보급률 (%)	총하수 처리인구 (명)	하수종말 처리인구 (명)	보급률 (%)
전국	40,190	25,695	15,872	395	85.2	31,099,434	30,943,814	65.9
충북	1,014	541	355	350	68.1	882,977	882,400	59.3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9.

제2절 대내외적 여건변화분석

1. 국내외 여건변화

1) 지역경쟁력 기반의 변화

- 세계의 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경제활동의 영역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사람, 자본, 기술, 상품이 국경없이 넘나드는 하나의 지구촌시대가 도래하였음.
- 지역경쟁력은 그 동안 국내 지역간 상대적 우위성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주변국의 인접 및 유사지역과의 관계에서, 넓게는 동아시아 및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새로이 정립되어 갈 것임.

2)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 급세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가장 역동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이 세계 주요경제권중 하나로 등장하였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시 될 전망이다.
- 한편, 가시화되고 있는 통일한반도의 미래는 동북아 경제영역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뒤바꾸는 기폭제가 잠재되어 있는 상태임.

3) 디지털시대의 산업환경 변화

- 인류역사상 3번째 변혁인 ‘디지털 혁명’이 본 궤도에 진입하여 새천년은 산업사회를 정보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음.
- 디지털 혁명은 이른바 신경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로 표현되는 신경계는 개인, 기업,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그들간의 경쟁 및 협력을 위한 규칙을 재정의하고 있음.
-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정보,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탈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실업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4)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도래

-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연계기반시설이 매우 중요한 바, 단절된 도로, 철도, 해운, 항공로를 복원하고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 전망이다.
- 남북간의 산업교류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하여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5) 주민의 질적 수요 증대

- 삶의 질에 대한 인식제고와 건강과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건강과 노령인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유로운 가치와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유연한(soft) 인식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
- 민주화, 개방화로 다양한 주민욕구 표출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참여가 증대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의 역할 및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치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 소득증대와 근로시간 단축등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사회적 지위의 성취, 부의 축적 등 양적인 차원에서 여유로운 생활과 쾌적한 환경 등 문화적이고 질적인 차원으로 변모되고 있음.
- 21세기 지역개발수요는 지역문화 및 여가활동 촉진, 환경의 질적 수준개선, 주거환경 등 삶의 질 측면이 중시될 것이며, 따라서 지역의 문화나 환경적 쾌적성 등 정주여건으로서의 매력에 기업이나 전문가의 지역선택에 있어서 보다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됨.

6) 광역적 정주체계 등장

- 교통·통신망의 확충 및 자동차 보급의 확대는 정보, 물자, 사람의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도시민의 통근, 통학, 쇼핑거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사회활동의 광역화와 대도시권의 형성은 공간문제 해결에 있어 단위자치단체의 공간적 범위를 초월하는 광역적 접근방법을 요구하게 될 것임.
- 도시중심의 경제·사회활동의 광역화는 광역적 교통망 및 공급처리시설의 건설과 각종 광역서비스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광역행정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함.

2. 지역내 여건변화

1) 지역간 협력 및 갈등 증대

- 지역간 광역교통 및 통신망의 발달과 네트워크화로 인해 정보, 자본, 인력의 공간적 이동이 원활해지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통하여 인근 수도권, 대전·충남권, 강원권, 경북권 등과의 광역화가 전개되고 있음.
- 지방중심시대로 전환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지역간 형평성에 근거한 균질화 및 개성화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영역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인적 삶의 현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지역개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간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지역개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및 능력강화 그리고 지역간 갈등과 분쟁조정이 주요한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2) 국토중심지 기능 강화

- 도로, 철도 등 국가간선교통망의 중간 연결지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21세기에는 고속전철 건설, 초고속정보망의 구축,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등에 따라 국내 지역간 물류유통의 주요결절지역으로서 명실상부한 국토중심지의 기능수행이 기대됨.
- 국가적 행정관리기능 및 국방기능의 인접 대전권 입지와 수도권기능의 분담을 통해 국가 중추기능의 집적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고속철도, 첨단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수도권 정부기능의 실질적인 분담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산업 및 경제기능 이전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충북지역의 주요과제는 국토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불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도권 기능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수용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3) 첨단지식산업기반 확대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연구단지가 인접해 있고, 건설중인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계획중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가동되면, 이를 토대로 고도의 두뇌집단과 시설이 집적되어 새로운 과학기술산업지대로 등장할 것임.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 정보 등 첨단산업이 국가발전의 핵심분야로 등장하고 있고,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정책적으로 충북지역은 첨단과학기술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충북지역의 향후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도입, 전문고급두뇌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전문인력의 육성, 과학과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4)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

-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활동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권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시민들의 질 높은 관광수요는 충북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삶의 양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주거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는 바, 획일화된 아파트문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수도권주민들의 수요는 고속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접근성이 향상된 충북지역으로 급속히 유입될 전망이다.
-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해양, 호수 및 산악관광자원간의 연계, 그리고 인접 백제문화권 그리고 중원문화권 등의 풍부한 역사문화·경관자원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제3절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검토

1. 지역기반부문

1) 정주환경

- 정주의사는 이사하고 싶다(33.1%)는 응답보다 계속 살고싶다(66.9%)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속 살고싶은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39.4%), 아는 사람이 많아서(30.8%), 경제활동이 편리해서(15.0%), 교육환경이 편리해서(5.1%) 등인 것으로 조사됨.
 - 이사하고 싶은 지역으로는 도내지역(54.7%)이 도외지역(45.3%)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1-2-15〉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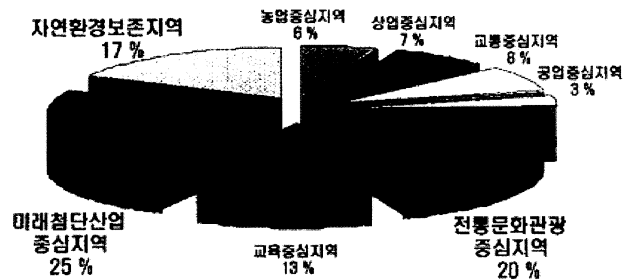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	매우 불만
주거환경	87(3.8)	680(29.5)	1,213(52.6)	283(12.3)	43(1.9)
교육환경	31(1.3)	384(16.7)	1,191(51.9)	572(24.9)	119(5.2)
의료·복지환경	17(0.7)	226(9.8)	1043(45.3)	859(37.3)	156(6.8)
정보·통신환경	19(0.8)	290(12.6)	1,111(48.4)	743(32.4)	132(5.8)
도로·교통환경	31(1.4)	373(16.3)	1,018(44.5)	667(29.2)	197(8.6)
문화·예술환경	10(0.4)	177(7.7)	828(36.0)	902(39.2)	382(16.6)

- 또한,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35.8%), 문화시설이 풍부해서(19.5%), 경제활동이 편리해서(17.9%), 교육환경이 편리해서(12.8%) 등으로 조사됨.
- 도내 지역중 이사하고 싶은 지역은 청주시(51.3%), 충주시(13.9%), 청원군(7.0%), 옥천군(6.2%) 등으로 나타남.
- 도내지역중 노년을 보내고 싶은 곳으로는 청주시(22.5%), 충주시(13.9%), 청원군(12.3%), 제천시(10.4%)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47.9%), 아는 사람이 많아서(31.3%) 등으로 나타남.

2) 지역개발의식

- 충북의 발전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낙후되었다(57.7%), 매우 낙후되었다(14.1%)는 의견이 매우 발전되었다(1.9%), 발전되었다(26.3%)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발전 또는 개발희망으로는 미래첨단산업중심지역(24.8%), 문화관광중심지역(20.0%), 자연환경보존지역(17.4%), 교육중심지역(13.4%), 교통중심지역(7.9%), 상업중심지역(7.3%) 등으로 발전을 희망하고 있음.



〈그림 1-2-14〉 지역개발방향 설문

2. 산업경제 부문

1) 교통 · 물류

- 교통시설중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는 주차장(52.4%), 도로(22.6%), 버스(2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충북지역이 물류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위한 방안으로는 산업단지연계교통망 확충(34.6%), 청주공항의 기능보강 및 연계산업육성(26.5%), 동서연결 수송체계구축(20.3%), 권역별 유통단지배치(18.7%) 등으로 나타남.

2) 산업경제 · 정보통신

-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과학기술영농의 보급(32.4%), 농산물 가격유지(23.4%), 농업기반개선사업 추진(22.1%), 기업농 육성(14.1%)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급한 추진전략으로는 제조업체 지원강화(28.6%), 외국자본 · 기업유치(20.9%), 토지이용규제 완화(17.2%), 제조업체간의 협력체계 강화(16.8%), 기능인력의 양성(16.4%)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충북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보화사업 확대(33.9%), 정보서비스 제공(19.7%), 정보전용통신체계(18.9%), 주민대상 정보교육(14.9%), 정보망 구축(12.5%)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는 PC통신요금 인하(33.1%), 통신고속화(23.6%), 전문인력 육성(19.5%), 지역고유정보개발(11.2%) 등으로 나타나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3. 사회 · 환경 부문

1) 문화 · 관광

- 충북을 문화적 특성으로 볼 때 중원문화권(46.3%), 내륙문화권(23.5%), 백제문화권(19.5%), 서원문화권(8.1%)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2) 환경보전

-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의 생활화(26.2%), 쓰레기처리 확충(24.1%), 상수원 오염방지(16.1%), 오폐수시설 확충(15.8%), 하천오염방지 및 정화사업(13.7%)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행정 및 세계화

1) 집행관리

- 충북지역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 참여확대(32.7%), 개발이익 환수(22.5%), 세외수입 확대(15.7%), 재원의 안정화(14.4%), 수익자부담원칙(7.5%)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2) 세계화 · 국제화

- 21세기 충북이 나가야 할 발전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지역(32.7%), 첨단산업 육성(30.8%), 물류유통의 중심(10.2%), 국제관광기능 육성(11.7%), 국제교역의 중심(7.8%)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계획의 기본구상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제 3 장

제1절 계획의 기본목표

제2절 계획지표 설정

제3절 장기발전지표 및 미래상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제1절 계획의 기본목표

1. 계획과제의 도출과 목표설정

1) SWOT분석

□ 지역의 강점(STRENGTH)

- 입지적 우월성
 - 지리적 측면에서 국토의 중심부 특히, 수도권이라는 국내 최대시장이 인접해 있으며, 경부축과 호남축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전국의 각 지역으로 신속하게 파급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지역임.
- 온화한 자연환경 및 수려한 관광자원
 - 온화한 기후와 낮은 자연재해라는 조건하에 백두대간과 충주호, 대청호 등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이 펼쳐져 있으며, 월악산, 속리산, 소백산국립공원 등 관광자원이 널리 분포되어 있음.
- 동북아 인적·물적교류의 관문
 - 청주국제공항의 역할증대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장은 물론 그 밖의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역사·문화적 우월성
 - 중원역사문화를 근간으로 온화한 정신문화가 배어있는 지역으로 한반도 통합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임.

□ 지역의 약점(WEAKNESS)

- 동서간 간선교통체계 미흡
 - 남북중단 교통체계는 우월하나, 동서간의 간선교통체계가 미흡하여 주요 거점지역간 접근성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음.
- 지역간 통합성 미흡
 - 청주·정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및 북부·남부지역간 연결고리의 부재로 인해 지역간 상호 통합성이 미흡한 실정임.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인접광역권에 경제적 예측
 - 수도권이나 대전권이 인접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체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상당부분 의존구조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자생적 지역경제체제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발규제지역 산재
 - 2D·3P(2개의 덴과 3개의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개발규제에 따라 경제적인 토지이용이 억제되고 있음.

□ 외부적 환경의 기회요인(OPPORTUNITY)

- 간선교통망 확충과 발전가속화
 - 앞으로 전개될 서해안 개발지대와 환동해경제권을 연계하는 대규모 국가간 선교통망의 건설 및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음.
- 국제교류기반의 확대
 -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더불어 장항항, 보령항,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등과의 연계망 확보를 통하여 국제교류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 관광문화자원 연계성 강화
 - 백제문화권과 금강권 개발계획 등의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은 지역내 관광문화자원간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첨단산업의 잠재력 증대
 -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R&D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지역내 첨단지식산업벨트가 연계됨으로써 고부가가치 신산업기술지대로서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됨.

□ 외부적 환경의 위협요인(THREAT)

- 지식산업화 실현 지연
 - 전통적 생산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한계기업인 관계로, 기존 산업의 재구조화가 지연될 경우 지식기반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됨.
- 고급인력의 정착기반 미흡
 - 고급인력의 정착기반이 미흡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지역경제성장의 엔진인 고급두뇌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 무질서한 난개발 우려
 -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이전업체들이 유입되고,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난개발 압력이 가중될 것임.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 자치단체간 경쟁으로 투자재원 부담
 - 지방자치단체간 무차별적인 경쟁과 공급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원부담과 손실이 우려됨.

〈표 1-3-1〉 SWOT 분석표

<div style="text-align: center;"> 내부환경 외부환경 </div>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입지적 우월성 • 국제공항 보유 • 수려한 관광자원 • 역사·문화적 우월성	• 동서 간선교통체계 미흡 • 지역내 통합성 미약 • 인접광역권에 경제 애속 • 개발규제지역 산재
기 회 (OPPORTUNITY)	수 단 (LEVERAGE)	제 약 (CONSTRAINTS)
• 간선교통망 확충 • 국제교류기반의 확대 • 관광문화자원 연계강화 • 첨단산업의 잠재력 증대	• 산업입지수요 지속증대 • 청주국제공항 위상강화 • 미래형 관광산업여건 양호 • 지역의 정체성 확립	• 도내 국제화 수준 격차 노정 • 특정지역에 집중적 난개발 • 효율적인 관광개발 저해 • 지역경제효과 유출
위 험 (THREAT)	취 약 (VULNERABILITY)	문 제 (PROBLEM)
• 지식산업화 실현 지연 • 고급인력 정착기반 미흡 • 무질서한 난개발 우려 • 자치단체간 경쟁과 협력	• 첨단핵심산업 수도권 집중 • 연구기술인력 지속 유출 • 생활 및 생산환경 오염우려 • 수도권 한계기업 유입	• 타지역과의 산업연계 미흡 • 내생적 지역발전 위축 • 도내 지역간 불균형 심화 •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2) 계획과제의 도출

□ 지역발전을 위한 지렛대 기능 강화

- 산업입지수요 지속증대 ⇨ 수도권의 용량초과에 따른 산업기능 유입효과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산업입지 및 기업유치전략 마련
- 청주국제공항 위상강화 ⇨ 국제교류 확산에 따른 청주공항의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공항시설 확충 및 청주권의 국제기능 수용기반 확충
- 미래형 관광산업여건 양호 ⇨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백두대간 관광루트와 타 지역 관광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반을 정비
- 지역의 정체성 확립 ⇨ 역사문화자원과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통일시대 국토통합을 위한 한반도 융합문화 창출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지역내 제약요인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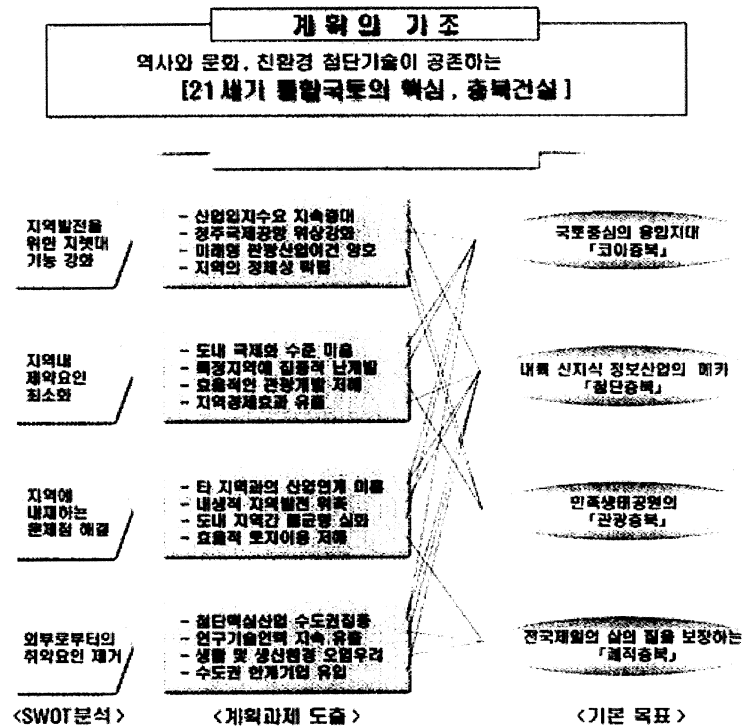
- 도내 국제화 수준 미흡 ⇨ 통일한반도의 역량이 견집되고 지구촌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공간구조 형성과 국제기능 확충 및 교류확대
- 특정지역에 집중적 난개발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정책을 마련하고 산업입지의 집단화를 유도하며 산업기능을 선별적 유치
- 효율적인 관광개발 저해 ⇨ 하드웨어 중심의 무질서한 관광개발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적 관광산업 육성책을 마련
- 지역경제효과 유출 ⇨ 산업기반 확충과 더불어 지역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과 기업본사 및 국가기능 유치노력을 전개

□ 지역에 내재하는 문제점 해결

- 타 지역과의 산업연계 미흡 ⇨ 지역간 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적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수급연계체계 구축
- 내생적 지역발전 위축 ⇨ 지역내 자원을 결집하고 R&D부문의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지역성장이 지역내에서 발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도내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성장지역 관리와 낙후지역 육성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수준의 제고를 통해 지역공동체 실현
-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 무질서한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철저한 토지이용 관리체계를 확립

□ 외부로부터의 취약요인 제거

- 첨단핵심산업 수도권 집중 ⇨ 지식기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과 첨단기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연구기술인력 지속 유출 ⇨ 수도권 수준의 생활편의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기술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생활 및 생산환경 오염우려 ⇨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
- 수도권 한계기업 유입 ⇨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그림 1-3-1〉 계획의 기초 및 목표 도출

2. 계획의 기본 전략

1)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 국토중심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발전축 설정과 개발구상, 지역생활권별 주기능의 배분, 광역지역개발 및 환경정비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를 개편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통합 및 국내외 교통연계체계와 유통체계 확립, 그리고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교류확대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확충
-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제교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네트워크 구축과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수출진흥 방안을 구상하며, 국제교류사업 확대와 내실화 방안을 제시

2)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 특화작목개발과 첨단과학영농 실현,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생산자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첨단지식 산업을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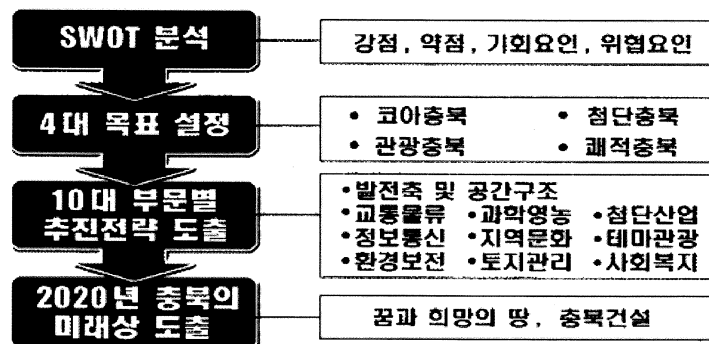
- 지역정보화를 위한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정보화 확산과 디지털사회 조성 방안을 강구

3) 민족생태공원의 중심지 「관광충북」

- 충청북도는 역사적으로 선사문화와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의 문화가 모두 모여있는 중원문화와 근현대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주독립운동의 성지임. 이러한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현대적 의미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올바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테마와 이미지가 살아있는 충북의 미래형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지역관광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북」

- 단양 소백산에서 영동 민주지산에 이르는 내륙순환 관광벨트 선상에 위치한 3개의 국립공원, 대청·충주댐 등 2번의 깨끗하고 풍부한 용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21세기 최고의 자산으로, 미래 자산가치의 보전 방안을 모색
- 지역공간기능별 효율적 토지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농 복합적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상호보완적인 토지기능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산업입지체계를 구축
-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극대화와 경관보전, 녹지공간 조성 등의 쾌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거단지 정비 및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 공해, 교통정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적정규모의 사회간접시설과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



〈그림 1-3-2〉 계획과제의 도출 과정

〈표 1-3-2〉 계획의 기본전략

기본전략		추진방향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국토균형개발 발전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 남부·북부권과 중부권의 유기적 연결 - 국토 : 호남권·중부내륙권·강원권의 연결 • 광역개발지역의 육성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청주권, 중부내륙권, 수도권 인접지역 • 기간도로망과 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발전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축 : 첨단지식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국제교류혁신벨트, 과학영농특화벨트
	교통물류 체계의 정비 및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제일의 신수관광권역 : 제천·단양 • 역사와 온천휴양문화의 중심지 : 충주·수안보 • 첨단산업벨트의 연결축 : 음성·진천 • 국제교류 비즈니스의 중심지 : 오송·오창·증평·청주 • 가족단위 휴양관광의 최적지 : 괴산·보은 • 청정환경과 첨단 1차산업의 결합 : 보은·옥천·영동
내륙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 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지의 규모화, 품질고급화,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상품성 향상을 강화하여 주곡생산의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 • 친환경 첨단과학영농을 통한 농특산품 수출산업화 • 농업생산기반의 정비·확충,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태 및 체험 관광농업 육성
	21세기 첨단지식 산업육성을 통한 선진 충북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의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창과학산업단지, C&S밸리 개발 등 • 생물·건강(BT) 산업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국제보건박람회 등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21세기 중부권 • 정보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 • 영농기술 IP채널과 인트라넷 구축,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율적 지역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가장 잘 쓰는 충북의 위상 확립

제7부 계획의 기본구상

〈표 1-3-2〉 계획의 기본전략(계속)

기본전략		추진방향
민족생태 공원의 「관광충북」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중원문화권 재정립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국가지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철기문화의 중심지, 금속활자본 '직지'의 고장으로 위상정립 • 근현대 문학, 자주독립운동의 성지(聖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용, 홍명희 등 / 신채호, 손병희 등 •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충북문화재단(가칭) 설립
	인간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원문화와 민족생태공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미래형 문화생태 체험관광의 추진 • 권역별 관광개발의 차별화 전략 수립 및 특화된 관광패키지 개발 • 내륙순환관광벨트와 인접한 수도권, 태백·설악권, 지리산권 등 주변지역과 연계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벚길 700리, 충청권 역사가도 등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북」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손에게 가치 있는 미래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2D·3P(대청·충주댐, 소백산·월악산·속리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청정환경 보전 •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내 훼손 및 단절된 생태공간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생태공원의 중심축으로서 중부권의 허파 역할 강화 - 바이오툼 조성, 녹지단절구간 복원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개발가능지, 보전지, 불능지에 대한 구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체계 구축 • 준농림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지침 수립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 기존 개발촉진지구(보은, 영동)의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및 신규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단양, 제천, 괴산 등)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도시설계기법을 응용한 주거단지의 개발 및 시범단지 운영 : 디지털 네트워크 하우스 시범단지 등 • 공해, 범죄, 교통정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시설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전문취업상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실시 등 - 노인건강 및 취업알선센터, 장묘문화 개선 등

제2절 계획지표 실장

1. 충북의 인구전망

1) 상위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1998년에 1,456천명, 2020년에 1,640천명으로서 20년동안 약 184천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그런데 1998년 실제인구는 1,489천명으로 33천명 정도 과소평가 되었으며, 1999년 현재 1,497천명으로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계한 충북인구는 과소추계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현재 계획중인 오송신도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경우 충북인구는 향후 급속히 성장할 것이므로 충북인구는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계한 인구보다 약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2) 인구추정

□ 충북의 인구 추세

- 인구추정은 총 12개 시·군·출장소의 인구시계열을 개별적으로 추정해야 하는데,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인구시계열의 특징에 따른 분석은 배제하고 모든 인구시계열에 동일한 계량적 기법 적용.
- Exponential Smoothing에 의해 분리된 추세와 변동치에 각각 ARMA 또는 ARIMA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후 이 추정치를 합하여 2020년 기초인구를 추정하였음.
- 1990~1998년간 인구시계열의 절대수준뿐만 아니라 변화율을 감안한 추정인구에 충북 전체인구의 통계적 오차를 조정하여 최종인구를 추정함.
- 인구의 추정결과 2005년 1,541천명, 2010년 1,580천명, 2020년 1,662명으로 추정함.

□ 유발인구 추정

- 면적기준의 종업원 원단위를 산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함.
-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원단위를 이용하여 계획업지별 종업원을 추정하고,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유발인구를 추정하였음.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통근률은 고려하지 않고 유발인구가 해당 지역내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최종 계획인구는 총 유발인구의 50%로 적용함.

〈표 1-3-3〉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산업단지	조성면적 (만㎡)	완공년도	유발인구 (명)	계획인구 (명)
오창과학산업단지	944	2001년	148,721	59,488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634	2004년(1단계)	142,723	57,089
	277	2006년(2단계)	55,182	22,073
충주첨단과학산업단지	546	2006년	128,733	51,493
음성금왕지방산업단지	57	2001년	14,120	5,648
음성맹동지방산업단지	42	2002년	14,410	5,764
제천지방산업단지	118	2000년말	18,054	7,222
합 계	2,618		521,943	208,777

주 : 계획인구는 유발인구의 40%를 적용하였음.
유발인구는 완공년도의 다음년도를 시작년도로 하였음.

3) 충북의 인구전망

□ 지역별 인구전망

- 인구배분은 지역별 추정인구와 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유발인구를 감안하여 계획함.
- 충북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8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진천군 및 음성군이 증가할 전망이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괴산군, 증평출장소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표 1-3-4〉 총인구의 지역별 인구전망(계획지표)

(단위 : 천명)

년 도	충 북	청 주 시	충 주 시	제 천 시	청 원 군	보 은 군	옥 천 군	영 동 군	진 천 군	음 성 군	괴 산 군	단 양 군	증 평
1998년	1,489	559	219	148	124	46	63	61	60	88	46	42	33
2000년	1,504	575	221	149	124	45	62	60	60	90	46	41	33
2001년	1,520	580	222	157	124	44	61	60	61	90	45	41	33
2002년	1,538	585	223	158	130	44	61	59	61	97	45	41	33
2003년	1,548	590	224	158	130	44	60	59	62	101	45	41	33
2004년	1,556	595	225	159	131	44	60	59	62	102	45	41	33
2005년	1,624	600	227	159	192	44	59	58	63	103	45	41	32
2010년	1,741	626	288	162	218	44	57	57	65	107	45	40	31
2015년	1,781	653	294	164	220	44	55	55	68	112	45	40	31
2020년	1,823	681	301	167	222	43	53	54	71	117	45	39	30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 인구구조

- 충북의 성별·연령별 인구는 Exponential Smoothing에 의해 추세와 변동치를 분리하여 추정된 인구에 대해, 지역별 생산율, 지역간 인구이동 유형 등을 이용하는 조성법에 의하여 시·도별 인구를 추계한 통계청의 수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 1999년에서 2020년 기간동안 남자는 연평균 0.99% 증가하고 여자는 연평균 0.94% 증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0.97%의 수치를 보임.
- 부문별로 보면, 0-14세 인구규모의 남자의 경우에만 약 -0.06%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인구부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65세이상 인구규모는 같은 기간 남자가 3.69%, 여자가 2.7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인구의 노령화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노령인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 생산가능연령에 대한 유년인구 부양비는 2005년 31.6%를 정점으로 낮아져 2020년에는 1999년보다 낮은 24.9%로 추정되는데 비해, 노년인구 부양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20년에 19.6%를 보임.

〈표 1-3-5〉 성별 연령별 인구추이 및 부양비

구 분		1999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1999~2020년
남자	0~14	165,566	171,577	183,912	184,821	163,557	-0.06%
	15~64	537,933	530,567	563,355	610,717	654,317	0.94%
	65+	49,554	55,951	72,453	84,550	106,109	3.69%
	소 계	753,053	758,094	819,720	880,088	923,983	0.99%
여자	0~14	148,822	151,882	162,602	165,974	151,131	0.07%
	15~64	515,495	507,393	533,865	572,141	607,270	0.78%
	65+	80,124	87,235	108,016	122,994	141,105	2.73%
	소 계	744,441	746,511	804,484	861,109	899,505	0.94%
전체	0~14(A)	314,387	323,459	346,515	350,795	314,688	0.00%
	15~64(B)	1,053,428	1,037,960	1,097,220	1,182,858	1,261,586	0.86%
	65+(C)	129,678	143,186	180,469	207,545	247,214	3.12%
	총 계	1,497,494	1,504,605	1,624,204	1,741,197	1,823,488	0.97%
(유년)	A/B*	29.8	31.2	31.6	29.7	24.9	-
(노년)	C/B**	12.3	13.8	16.4	17.5	19.6	-
(총인구)	(A+C)/B***	42.2	45.0	48.0	47.2	44.5	-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2. 경제구조와 전망

-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15세이상 인구는 2005년 1,220천명, 2015년 1,398천명, 2020년 1,497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005년 734천명, 2015년 861천명, 2020년에 93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1-3-6〉 경제활동인구 추정

(단위 : 천명)

구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0년	1139	678	650	28	462
2001년	1155	689	661	27	466
2002년	1171	700	673	27	471
2003년	1187	711	684	27	476
2004년	1203	722	696	26	481
2005년	1220	734	708	26	486
2010년	1306	795	771	24	511
2015년	1398	861	840	21	537
2020년	1497	932	915	17	564

- 2000~2020년동안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5세이상 인구가 약 1.4%, 경제활동인구가 약 1.7%, 취업자가 약 1.8%로 증가되는 반면 실업자는 약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충북의 고용구조는 안정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임.
-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취업자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광공업과 기타서비스 및 SOC의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표 1-3-7〉 산업별 취업자수 추정

(단위 : 천명)

구분	총계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서비스 및 SOC
				제조업	
2000년	650	163	119	117	368
2001년	661	159	123	120	379
2002년	673	154	128	124	391
2003년	684	150	132	128	402
2004년	696	145	137	133	414
2005년	708	141	142	137	425
2010년	771	122	169	161	480
2015년	840	106	201	189	533
2020년	915	92	239	221	584

■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 산업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1997년에 농림어업이 8.1%, 광공업이 41.7%, 기타 서비스 및 SOC가 42.8%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에는 농림어업이 5.4%, 광공업이 43.8%, 기타서비스 및 SOC가 41.7%를 차지하여 중북산업은 제조업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1-3-8〉 산업별 생산액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 서비스 및 SOC	기타
			총계	제조업		
2000년	17,534,440	1,352,779	7,364,104	7,152,315	7,491,849	1,325,709
2001년	18,340,557	1,390,842	7,721,182	7,459,614	7,829,251	1,399,282
2002년	19,184,338	1,429,976	8,095,574	7,780,116	8,181,850	1,476,938
2003년	20,067,563	1,470,211	8,488,121	8,114,389	8,550,327	1,558,904
2004년	20,992,097	1,511,578	8,899,701	8,463,024	8,935,400	1,645,418
2005년	21,959,897	1,554,110	9,331,239	8,826,638	9,337,815	1,736,734
2010년	27,523,062	1,785,404	11,823,844	10,892,911	11,638,620	2,275,193
2015년	34,520,343	2,051,122	14,982,286	13,442,890	14,506,337	2,980,597
2020년	43,326,168	2,356,386	18,984,426	16,589,806	18,080,649	3,904,706

주 : 총 계 = 농림어업 + 광공업 + SOC 및 기타 서비스업 + 기타

광공업 = 광업 + 제조업

기타서비스 및 SOC = 전기·가스·수도사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 + 통신업 + 금융보험업 + 부동산·사업서비스 + 사회 및 개인서비스

기타 = 정부서비스생산자 + 일반공공행정 + 민간비영리단체 + 금융권속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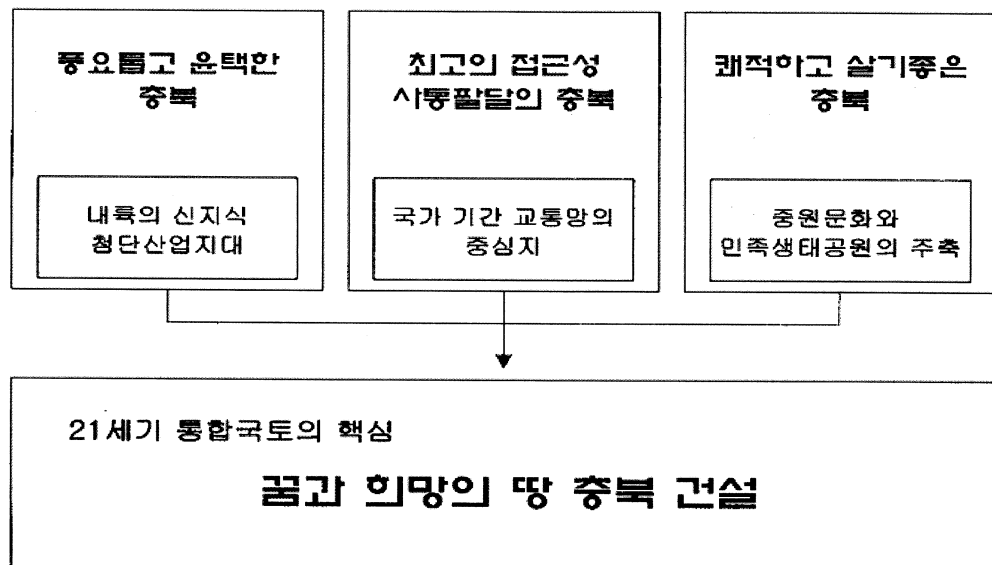
제1부 계획의 기본구상 ■

제3절 장기발전지표 및 미래상

1. 장기발전지표

구 분	2000년	2010년	2020년
인 구 (천명)	1,504	1,741	1,823
G R D P (백억)	1,753	2,752	4,333
도 로 연 장 (km)	6,011	9,230	12,350
상수도보급률(%)	72	83	88
주택보급률 (%)	90	103	106
의사1인당인구(명)	1,157	696	608

2. 2020년 충청북도의 미래상



제2부 부문별 계획

제1편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제1장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제2장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제2편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제3장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제4장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충북 건설

제5장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제3편 민족생태공원의 「관광충북」

제6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제7장 인간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제4편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북」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의 실현

제9장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제 1 편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제1편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제 1 장

- 제1절 발전축의 설정과 개발구상
- 제2절 지역개발권역 설정과 기능배분
- 제3절 광역개발권간의 연계성 강화

세계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제1절 발전축의 설정과 개발구상

1. 발전축의 도입배경

1) 국내외 여건변화 대응

- 규모의 경제 달성, 국가간의 분업 및 상호보완성, 혁신의 범지역적 확산과 인프라 구축 등이 경제권 형성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세계경제의 축이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태평양지역중 동북아의 경제변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간 경영전략이 요구됨.
- 국토의 남북축과 동서축이 교차하고, 국토내륙과 연안축이 융합할 수 있는 이른 바 ‘국토대통합’을 성사시키는 핵심거점이 필요한.
-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통일기반이 성숙됨에 따라 북한지역은 물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등과의 연계망 구축이 요구됨.

2) 지역차원의 의지표현

-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입지하여 수도권 기능분담지역으로의 역할 강화와 중부권 국제관문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에 따른 지역효과가 미흡하였음.
- 특히,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을 제외한 충주, 제천, 단양의 북부지역과 보은, 옥천, 영동 등의 남부지역은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수도권 및 광역대도시에 초점을 둔 국토계획 추진과정에서 충북이 적절한 자생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핵심 국책사업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도시비용의 상승과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의 추진 등으로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 따라서 제3차 도 종합계획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창조적 개

제2부 부문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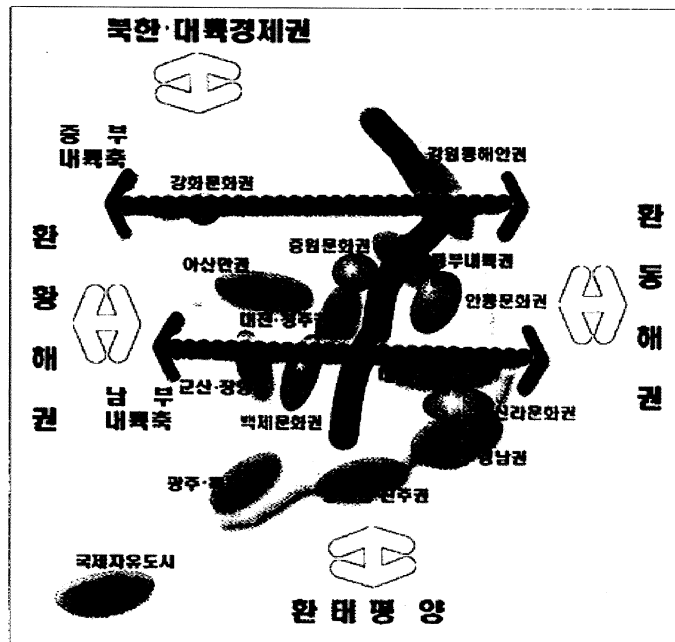
척정신을 결집하여 희망에 찬 밝은 중북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의지를 담고자 함.

2. 관련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계획상의 국토축 검토

□ 연안국토축 → 국토3면의 해안 활용

- 환동해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북으로는 극동 러시아, 중국, 유럽대륙을 향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하는 축으로서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 환남해축 :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에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 및 동남아, 일본,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축으로서 국제물류, 관광, 산업특화지대로 육성
- 환황해축 :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환황해경제권 발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면서 북으로는 중국과 유럽,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로 향하는 축으로서 신산업지대망으로 육성



〈그림 II-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1장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 동서내륙축 → 내륙균형개발의 추진

- 남부내륙축 : 군산-전주-대구-포항
군산-포항을 잇는 고속도로망 구축과 지역간 공동의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영·호남의 균형발전을 도모
- 중부내륙축 : 인천-원주-강릉-속초
수도권 남부지역으로의 기능분산과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산악 및 연안 관광지역으로 특성화
- 북부내륙축 : 평양-원산
통일시대에 있어 북한지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서 남한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지역의 통합을 추진

□ 서울·부산축 → 산업구조개편과 정비

- 남북중단축 : 서울-천안-충북-대구-부산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도모하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

2) 제2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상의 발전축 검토

□ 발전축의 특징

- 청주-충주축 : 36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시기능 및 산업기능 결집
- 제천-단양축 : 충주호권 관광개발과 3도 침강지역간 연계 강화
- 보은-옥천-영동축 : 관광·농업의 진흥과 대전권의 순기능 흡수
- 충주-음성-진천-증평축 : 청주-충주축선상의 산업기능 결집

□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

- 북부, 중부, 남부지역간의 기능적 연계성 미흡
- 지역내 균형발전의 매개역할 미흡
- 공간구조와 기능적 연계성의 불일치

3) 인접시도와의 지역개발연계 검토

□ 수도권

- 지속적 규제와 인구 및 산업의 분산 ⇒ 수도권 기능의 능동적 수용

제2부 부문별 계획

□ 강원권

- 낙후지역개발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 중부내륙권 공동개발과 관광연계망 구축

□ 대전·충남권

- 과학기술진흥과 환황해경제권 육성 ⇨ R&D 연계망 구축과 산업간 연관체계 확립

□ 경북권

- 낙후지역개발과 유교문화자원의 육성 ⇨ 중부내륙권 중원문화자원과 연계

□ 전북권

- 부진장지구 개발촉진과 군장지구의 첨단산업화 ⇨ 남부권 연계사업 추진과 해안산업지대와 연계

3. 중복발전축의 설정

- 본 계획에서는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목표를 토대로 지역공간구조와 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중복의 특성에 부합하는 독창적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
- 지구촌시대, 통일시대 한반도의 위상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인접한 수도권, 대전·충남권, 강원권, 영·호남권의 역량을 결집하고, 해안산업지대와 연계성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국토의 융합지대로 부상하는데 초점을 맞춤.
- 정부축에 대비하여 호남권, 강원권을 연결하는 통합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X축의 중심으로 도로, 철도를 포함한 국제교류축산벨트와 첨단지식산업벨트의 연계축을 설정함.
- 국내외 교류망 확충을 통하여 한반도 및 지구촌에서 중복의 역량이 힘껏 발휘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 자원, 기능, 연계성 등을 고려한 4개의 발전축을 설정함.
- 지역발전의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 생물산업을 두축으로 북부의 산수관광권과 남부의 과학영농권을 첨단산업, 관광, 국제교류, 과학영농의 4대 발전축으로 연계한 「Two Core Golden Triangle」 전략을 설정함.

충북개발의 발전축

- 첨단지식산업벨트 ⇨ 오송-오창-증평-진천-음성-충주-제천
- 내륙순환관광벨트 ⇨ 단양-제천-수안보-화양동-속리산-보은-옥천-영동
- 국제교류확산벨트 ⇨ 오송-청주-오창-증평 : 청주국제공항
- 과학영농특화벨트 ⇨ 보은-영동-옥천

1) 첨단지식산업벨트

국토개발축과의 연계성 ⇨ '서울-부산'축의 산업기능과 환황해축의 평양 및 신의주, 중국대륙과 연계

- 충북의 기간도로망을 바탕으로 산업기능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과의 통합성을 극대화시키고자 오송-오창-증평-진천-음성-충주-제천을 축으로 하는 산업벨트를 구축함.
- 첨단지식산업벨트의 산업기능이 대전과 수도권첨단산업지대를 연결하여 4차 국토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첨단산업지대로 육성함.

2) 내륙순환관광벨트

국토개발축과의 연계성 ⇨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과 환동해축의 원산, 나진, 선봉을 따라 러시아와 연계

- 단양-제천-충주호-수안보-화양동-속리산-보은-옥천-영동을 잇는 내륙순환관광벨트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결집·테마화 함.
- 국토계획상의 백두대간을 통해 태백·설악권과 무주·시리산권을 연결하여 국내 유일의 내륙순환관광축을 형성하고,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공요소가 가미된 관광벨트를 조성함.

3) 국제교류확산벨트

국토개발축과의 연계성 ⇨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지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동북아 관문기능을 수행

-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오송-청주-오창-증평을 연결하는 국제교류망을 구축하여 수출지향의 지역산업발전, 지역문화의 세계화 추진과 더불어 중부권의 국제화 거점지역으로 육성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청주시가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성장하고, 오송신도시, 오창신도시가 새롭게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별도시들의 성장관리전략에 역점을 둔.

4) 과학영농특화벨트

국토개발축과의 연계성 ⇨ 백두대간 생태계자원 연계와 '서울-부산'축의 생명산업 및 농업부문의 첨단 R&D기능을 수용

- 남부권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의 첨단농업육성을 위한 기술영농, 자본영농, 지식영농으로 특징짓는 전국차원의 과학영농 거점지대로 육성함.
-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자연환경과 첨단영농기술을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첨단농업을 창출하고, 대전·청주권 및 수도권은 물론 해외농산물시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둔.
-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지정된 보은, 영동의 개발촉진지구에서는 기존 개발촉진지구계획에 수립된 사업(보은 : 대추가공공장, 특산물판매센터, 민박촌, 영동 : 농특산물가공공장, 농산물유통센터, 영동지방공업단지, 수출전용 사과 및 화훼단지, 배단지)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그림 II-1-2〉 지역개발축

제2절 지역개발권역 실정과 기능배분

1. 지역개발권역 육성방향

지역잠재력의 극대화, 살기 좋은 생활권 조성, 농촌 및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산업개발의 형성과 발전, 관광개발권의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권역별 적정기능을 배분함.

1) 도농통합개발전략 추진

- 도시와 농촌을 별개의 공간이 아닌 하나의 통합공간으로서 지역생활권계획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지역을 통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 개발전략을 추진함.

2) 시·군간 광역개발전략 추진

- 광역적인 접근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상호 협력하면서 합리적인 입지선정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도시문제의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둠.

3) 시·도간 광역개발전략 추진

-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경쟁력 있는 지역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접 광역자치단체와 공동발전네트워크를 구축함.

4) 주요 핵심사업간의 연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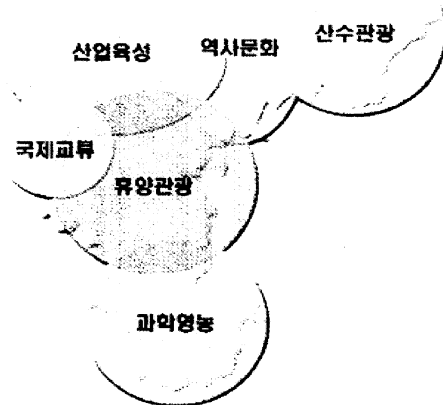
- 지역간 협력과 아울러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의 핵심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 산업단지, 용수, 교통·물류시스템 등 관련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함.

2. 지역개발권역의 설정과 주기능

충북의 생활권역은 자연조건과 행정구역, 경제·사회·문화·인문적 측면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6개 권역 각각에 대해 차별화 된 기능을 배분·수행토록 함.

제2부 부문별 계획

지역 개발 권역	
• 산수관광권역	⇒ 제천, 단양
• 역사문화권역	⇒ 충주, 수안보
• 산업육성권역	⇒ 음성, 진천
• 국제교류권역	⇒ 오창, 오송, 증평, 청주
• 휴양관광권역	⇒ 괴산, 보은
• 과학영농권역	⇒ 보은, 옥천, 영동



〈그림 II-1-3〉충북의 개발권

1) 산수관광권역

- 월악산국립공원의 산악자원과 충주호반의 수변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접한 수도권 및 태백권과 지역내 순환관광벨트간 연계기능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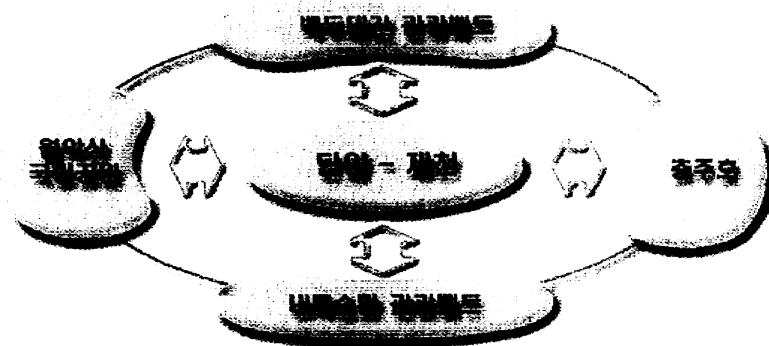
□ 단양

- 충주호 주변지역의 관광기능과 밀착시키면서 관련 편의시설을 유치
-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산수관광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 선사문화, 불교문화, 도예문화와 산수문화의 이미지를 결합

□ 제천

-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기반 구축과 관광 배후지원산업을 육성
-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한방휴양타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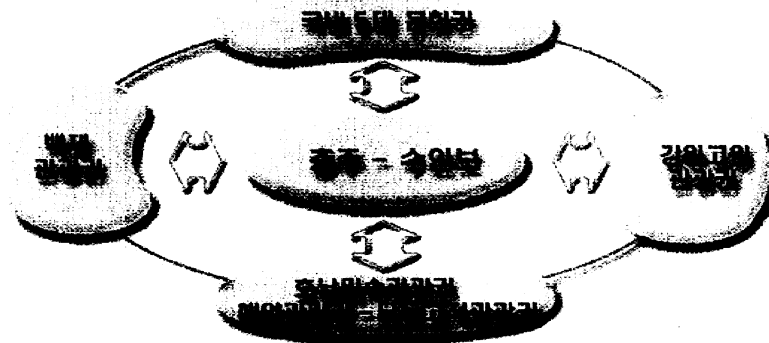
- 간선교통망을 통하여 수도권 산수관광 및 여가수요를 흡수



〈그림 II-1-4〉 산수관광권역 개념도

2) 역사문화권역

- 국내 5대 문화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원문화사적을 관광자원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와 주변명소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국민역사순례 교육공간으로 조성함.



〈그림 II-1-5〉 역사·문화권역 개념도

□ 충주

- 남한강유역 일대의 문화사적을 정비하여 중원문화권 위상을 확립
- 통일신라시대의 역사문화를 결집하여 융합문화권 창출
- 석조공예품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수준의 위락단지를 조성

제2부 부문별 계획

□ 수안보

- 온천지대와 월악산의 자연경관이 결합하는 여가휴양지구를 형성
- 중원문화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물리적 개발을 억제
- 관광소프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3) 산업육성권역

- 수도권 첨단산업지대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국제교류기능과의 R&D 연계망 구축을 통해 기존 산업구조의 첨단화를 유도함.

□ 음성

- 첨단산업지대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분별한 개별입지를 억제
-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인력 정착을 유도
-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국도횡축 구축

□ 진천

- 원활한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주호 광역상수도사업을 조기 추진
- 원예산업의 부가가치증진을 위해 첨단원예수출단지를 조성
- 농공병진 산업정책의 추진과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



〈그림 II-1-6〉 산업육성권역 개념도

4) 국제교류권역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과 병행하여 수위도시인 청주시를 중심으로 특급 호텔, 컨벤션센터 등 비즈니스 관련시설을 유지하여 국제화기능을 강화함.

□ 오창

- 첨단산업과 무역기능이 결합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육성
- 시간과 공간이 융합하는 정보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
-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임대공간을 조성

□ 오송

- 자연과 인간이 융합하는 세계적 생명과학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배디컬센터, 생명산업,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해외 연구기능 유치
- 생명과학분야의 국제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

□ 증평

- 도내 북부와 남부개발축이 교차하는 결절도시로 육성
- 첨단지식산업벨트의 개발효과가 남부개발축과 연계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 인삼타운을 조성하여 국내외 수요자를 대상으로 건강휴양서비스 제공

□ 청주

- 배후 지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비즈니스기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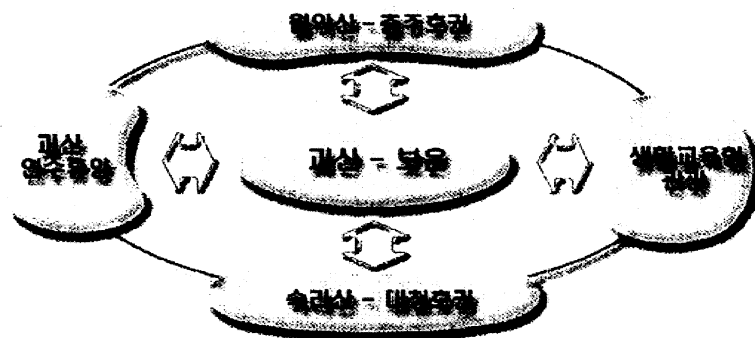
〈그림 II-1-7〉 국제교류권역 개념도

제2부 부문별 계획

- 국제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적 확산체계를 확립
- 청주도심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인접 신도시로 인구 분산

5) 휴양관광권역

- 자연환경과 관광문화자원의 조화를 통하여 산업체연수 및 가족휴양기능을 유치하여 21세기형 관광휴양문화를 창출함.



〈그림 II-1-8〉 휴양관광권역 개념도

□ 괴산

-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청정이미지를 강화
- 가족형 휴양위락단지 및 산업체 연수단지를 조성
- 도시기능의 유도 및 확산을 통하여 생활환경수준 제고

□ 보은

- 청주권과 남부 3군 지역간의 공간적 매개기능을 강화
-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을 향상
- 역사유적과 불교자원을 결집하여 생활형 교육관광지로 육성

6) 과학영농권역

-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특화농산물과 첨단벤처기능을 보강하여 미래형 첨단과학영농의 메카로 육성함.

제1장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 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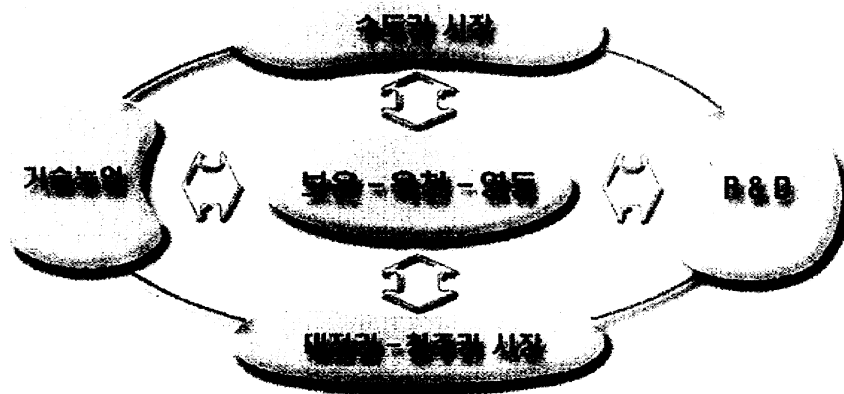
- 농업기반 확충과 농특산물 소득증대사업 추진
-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농특산물 개발에 주력
- 청주광역권과의 산업교류 연계기반 강화

□ 옥천

- 대전권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확산기능을 흡수
- 도시근교형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 농특산물주산단지 조성과 유통거점지역으로 육성

□ 영동

- 개발촉진지구내에 농산물집산단지 유치
- 전통영농문화와 국악문화를 접목하는 국악타운 조성
- 과실류를 비롯한 주요특산물의 첨단가공기술을 확산



〈그림 II-1-9〉 과학영농권역 개념도

제3절 광역개발권간의 연계성 강화

광역개발의 목적

- 광역개발권역내 지역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둠.
- 이를 위해서 공간계획, 협력계획, 광역행정체계 확립 등을 포함하여 지역간 광역협력계획을 수립·추진함.
- 광역협력계획의 유형
 - 지역종합발전 및 조정형 → 지역간 공동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체계 형성
 - 자원공동이용 및 관리형 → 지역공유자원 공동이용 및 광역적 관리
 - 광역서비스 공급형 → 광역서비스시설 공동건설을 통한 공동활용
 - 지역현안문제 대응형 → 낙후지역 공동개발과 이해관계 조정

공동발전전략 수립과 실천수단 제시



〈그림 II-1-10〉 광역협력계획 개념도

1. 청주광역도시권 개발

1) 개발의 배경과 목적

-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등의 입지로 첨단과학산업 및 생명과학산업의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제1장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 고속철도 등 광역적 교통체계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전국적 교통 및 기술·정보기능 강화가 예상되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라 국제교류가 확산될 전망이다.
- 이 같은 청주광역권의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여 수도권에 대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공간범위: 1시, 5군, 1출장소(3,403km²)
- 해당지역: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출장소

2) 광역개발의 추진전략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지역통합성 강화

- 중부권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광역교통망과 물류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심도시의 기술과 정보 등 고차서비스와 도시인프라가 주변지역까지 확대되도록 함.
- 중심도시의 행정·기술지원 강화, 지역통합적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의 구축, 중심도시의 고차서비스와 도시인프라 및 첨단기술·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지역간 협력을 강화함.

□ 지역별 적정 기능배분과 균형발전 도모

-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별 기능을 적정 배분하고 활성화하여 상호 보완성을 갖도록 함.
- 한편, 주변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전원주거단지화하여 정주성을 제고함.
 - 지역간 산업 및 서비스기능의 적정배분과 특화지구 개발
 - 광역시설의 공동투자, 공동이용체계 구축
 - 도시-농촌간 균형적 정주환경 조성

□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 지식정보 거점도시 구현

- 대규모 첨단기술정보지대를 조성하고, 산학연 인큐베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의 첨단기능을 음성, 진천, 증평 등지로 확산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른 국제 물류유통과 컨벤션기능 강화

제2부 부문별 계획 ■■

□ 중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자립경제기반 구축

- 지식·정보·기술력과 교통길질지로서의 입지적 이점을 산업구조의 개편과 경쟁력 제고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중심도시의 성장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기능 특화와 보완체계를 구축함.
- 산업구조의 첨단화, 고도화, 유연화를 통한 지역경제기반 강화
- 광역교통체계와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물류유통기능 경쟁력 제고
- 지역별 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상호보완체계 구축

□ 자원절약형 토지이용관리와 공간구조 구축

- 자원절약형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발대상지역은 토지이용밀도를 높여 신개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기존 시가지의 재생·정비로 신규개발 수요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억제하고, 직주근접형 토지이용과 공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유발 수요의 최소화를 유도함.
- 도시지역의 평면적 확산 방지와 조밀도시(compact city) 지향
- 직주근접형 토지이용계획과 복합기능의 공간구조 조성
- 기성 시가지의 재생·정비와 신개발 억제에 성장관리정책 추구

□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오염원에 대한 직접규제와 함께 가격정책을 통한 수요관리의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주거단지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이미 파괴된 녹지와 생태자원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함.
- 수요관리정책을 통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정립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네트워크화로 자연환경 접근성 강화
-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및 시범생태마을 조성

□ 개성과 전통성 있는 역사·문화공간의 창출

-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유무형의 민속자원을 전승하여 각종 계획과 교육·문화정책에 반영함.
- 특히 민속자원이 잘 보존되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을 시범민속마을로 조성하여 전통문화 학습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제1장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복원(역사도시 만들기)
- 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복합·관광지대 조성(중원문화권-백제문화권을 연계한 역사문화벨트 구축)
- 시범민속마을, 생태마을의 조성과 학습탐방·관광자원화

□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관광·컨벤션도시 구현

- 가장 지방적이고 전통적인 민속·문화자원과 지역의 청정자원을 관광상품화 하여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함.
- 국제적 컨벤션과 과학행사, 민속축제를 적극 유치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과학도시연합, 국제테크노마트, 국제사이언스 페스티벌의 정례화와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
 - 한반도 융합문화의 이미지와 역사적 전통의 관광축제 행사를 추진

주요 핵심사업

- 중부권의 잠재력 제고를 위한 광역 교통물류 연계체계 확립
- 중부권 국제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의 이용률 제고
- 대전광역권과의 상호보완적 제휴 및 선의적 경쟁관계 형성
- 청주 인근지역에 도시기능을 확산하여 근교생활권을 향상

2. 대전광역도시권 개발

1) 개발의 배경과 목적

- 대덕연구단지, 대전과학산업단지, 연기첨단산업단지 등의 입지로 첨단과학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기능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영향력이 중부권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서해안 시대 전개에 따른 아산만권, 군장권 개발의 배후 거점지역으로 기능이 강화되면서 환황해권 시대의 중부권 핵심거점으로 등장하고 있음.
- 대전권에 포함된 옥천, 영동지역에 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단계적 개발전략을 마련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공간범위: 2군
- 해당지역: 옥천군, 영동군(대전, 충남 일부 등 타지역 포함)

2) 광역개발의 추진전략

□ 첨단산업단지의 기능적 확산

- 대전·충남지역에 대규모 첨단기술정보지대를 형성하고, 산학연 인큐베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첨단지식·정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대전과학-연기첨단'을 연계한 산업벨트 조성
-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산학연 인큐베이터 체계 구축
- 옥천, 영동지역과 유기적 지원관계 형성

□ 과학영농특화기능을 수행

- 대전권, 청주권, 수도권을 겨냥한 첨단가공 농산물을 생산하여 건강장수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함.
- 과학영농특화벨트 확립 : 보은지역과 연계

□ 농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 백두대간 내륙순환관광벨트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과 첨단영농기법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백두대간 관광자원과 첨단영농을 연계한 관광리조트 육성
- 관광개발사업의 연계추진 및 관광상품의 보완적 개발

주요 핵심사업

- 대덕연구단지 및 서해안산업지대와 지역내 첨단지식산업벨트와의 연계 강화
- 남부 3군 지역에 도시기능을 확산하여 근교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
- 과학영농특화권역으로서 농업부문의 R&D투자 확대
- 백두대간의 내륙순환관광벨트 육성

3.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1) 개발의 배경과 목적

- 강원, 충북, 경북이 접해 있는 중부내륙 광역권의 3도 인접지역은 백두대간이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가장자리에 입지하여 수려한 산악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내륙고원지대이자 수계의 상류지역이라는 입지적·환경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
- 과거 삼척, 태백, 문경, 단양 등지의 탄전이 지역경제의 전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만성적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 따라 중부내륙 광역권의 공동발전과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간의 경쟁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연계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켜 지역균형발전과 만성적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간범위: 2시, 1군
- 해당지역: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경북 영주, 강원 영월 등 타지역 포함)

2) 광역개발의 추진전략

□ 계획수립에 따른 광역개발전략 추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3도 지역의 개발촉진지구를 통합 조정하고, 거점개발방식을 통해 배후도시의 중추기능 및 생산기반을 강화하여 낙후문제를 해결함.
- 복합단지개발 방식을 통해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며, 자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중앙고속도로 주변지역을 최우선 대상지역으로 검토함.

□ 성장잠재력의 극대화와 지역개발 촉진

- 시군별 특화업종을 전문화하고, 균형발전과 고유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특산물의 공동판매 및 상호홍보전략을 추진함.
- 강원, 충북, 경북의 삼각지대에 자연과 문화, 산업을 함께 갖춘 청정 침단산업지역으로의 개발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인접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사업
- 청정한 자연환경, 저렴한 지가, 지역대학을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간 협력

-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연결지대로서의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함.
- 연결지역으로서 내륙연계성과 해양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동시간의 간선교통망을 구축함.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 경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3도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산악고원자원과 전통문화자원을 연계한 종합리조트 조성
 - 지역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화합의 계기로 이용
- 청정한 산악고원지대로서 3도간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를 연계한 관광기반을 확충하여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함.
 - 관광개발사업의 연계추진 및 관광상품의 보완적 개발
 -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한 복합형 관광벨트 형성
 - 인접지역간 공동축제 개최 및 지역축제의 상호 지원
 - 지역간을 연계한 테마관광코스 개발
- ※ 유교문화권 및 중원문화권 탐방, 중점의 현장 답사, 자연과 문화자원 복합형 테마관광, 환상선 눈꽃 관광열차 운행
-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최적의 산악자원을 활용하여 백두대간의 국립공원과 연계한 산악관광의 거점지대로 개발함.
 - 태백산-소백산-월악산-속리산의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 개발

□ 관광지대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 정관지대와 자연보전 상태가 양호한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대되면서 나타나는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지역 보전 계획을 수립함.
- 환경영향평가 실시, 생태적 기술개발 도입, 환경정보의 체계적 정비 등의 제도적 개선노력과 함께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환경감시 및 보전활동을 전개함.

주요 핵심사업

-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 및 친환경적 휴양여가지대 조성
- 개발촉진지구사업을 비롯한 낙후지역개발사업 적극 추진
- 지역간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및 공동활용
- 유교, 중원, 선사 등 역사문화자원의 계승
- 동서횡축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사업을 조기에 추진
- 중앙선 복전철화 및 충주-문경간 철도연결사업 조기 추진

〈표 II-1-1〉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 및 목적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발전축 설정과 개발구상	첨단지식산업벨트 구축·육성	'서울-부산'축의 산업기능과 환황해축의 평양 및 신의주, 중국대륙과 연계
	내륙순환관광벨트 구축·육성	백두대간 민족생태벨트와 환동해축의 원산, 나진, 선봉을 따라 러시아와 연계
	국제교류혁신벨트 구축·육성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동북아 관문기능을 수행
	과학영농특화벨트 구축·육성	백두대간 생태계자원 연계와 '서울-부산'축의 생명산업 및 농업R&D기능을 수용
지역개발권의 기능배분	신수관광권역 육성	월악산국립공원의 산악자원과 충주호반의 수변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접한 수도권 및 태백권과 지역내 순환관광벨트간 연계기능을 강화
	역사문화권역 육성	국내 5대 문화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원 문화사적을 관광자원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와 주변명소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국민역사순례 교육공간으로 조성
	산업육성권역 육성	수도권 첨단산업지대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국제교류기능과의 R&D 연계망 구축을 통해 기존 산업구조의 첨단화를 유도
	국제교류권역 육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과 병행하여 수위도시인 청주시를 중심으로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등 비즈니스 관련시설을 유치하여 국제화기능을 강화
	휴양관광권역 육성	자연환경과 관광문화자원의 조화를 통하여 연수·휴양기능을 유치하여 21세기형 관광휴양문화를 창출
	과학영농권역 육성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특화농산물과 첨단벤처기능을 보강하여 미래형 첨단과학영농의 메카로 육성
광역개발권의 연계강화	청주권 광역개발 추진	청주광역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토의 중심역량을 결집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수도권의 경제, 산업, 행정기능을 능동적으로 수용
	중부내륙권 광역개발 추진	국토계획에서 제시하는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신국토축 형성에 따른 후속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자원을 연계·개발하여 공동번영 달성
	대전권 광역개발 추진	대전권에 포함된 옥천, 영동지역을 대도시 근교생활권의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설투자를 유도

제1편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교통 · 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제 2 장

제1절 교통체계의 정비 · 확충

제2절 물류체계의 확충

제2장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제1절 교통체계의 정비·확충

1. 현황 및 전망

1) 도로 현황

- 충북의 도로총연장은 1998년말 현재 6,009km이며, 등급별로는 고속도로 3개 노선 156km, 일반국도 12개 노선 916km, 국가지원지방도 7개 노선(지방도 42개 노선 포함) 1,471km, 시군도 266개 노선 3,466km임.

〈표 II-2-1〉 충청북도 등급별 도로현황 총괄(1998년 12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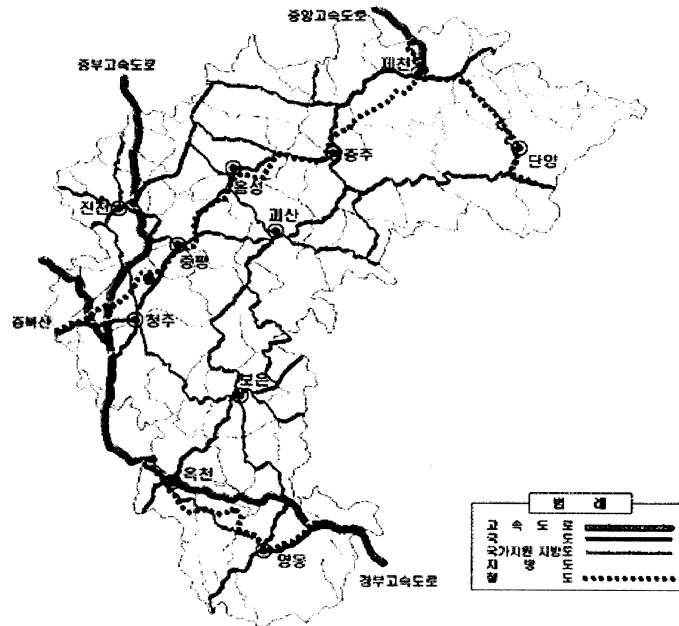
(단위 : km, %)

도로등급별		총연장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로	비율		
			소계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이상			포장도	사리도	미개통
합 계		6,009	3,794 (100.0)	157 (4.1)	3,053 (80.5)	443 (11.7)	140 (3.7)	15,419	673	63.1	25.7	11.2
고속국도		156	156 (100.0)	-	10 (6.3)	110 (70.5)	36 (23.2)	-	-	100.0	-	-
일반국도		916	916 (100.0)	-	688 (75.2)	220 (24.1)	7 (0.7)	-	-	100.0	-	-
지방도	계	1,471	1,172 (100.0)	28 (2.4)	1,131 (96.5)	12 (1.0)	1 (0.1)	224	75	79.7	15.2	5.1
	국가 지원 지방도	257	209 (100.0)	14 (6.7)	189 (90.3)	6 (3.0)	-	-	48	81.4	-	18.6
	지방도	1,214	963 (100.0)	14 (1.4)	942 (97.9)	5 (0.6)	1 (0.1)	224	27	79.3	18.5	2.2
시군도	계	3,466	1,550 (100.0)	129 (8.3)	1,225 (79.0)	101 (6.5)	96 (6.2)	1,318	598	44.7	38.0	17.3
	시도	1,180	751 (100.0)	13 (1.8)	541 (72.1)	101 (13.4)	96 (12.7)	103	326	63.7	8.7	27.6
	군도	2,286	799 (100.0)	116 (14.5)	683 (85.4)	0.4 (0.1)	-	1,215	273	35.0	53.1	11.9

- 전체적으로 2차선과 4차선이 9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6차선 이상 도로는 고속국도를 제외하고 극히 낮은 비율을 보여 도로의 간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제2부 부문별 계획

- 또한 교량은 1,266개소 73,914m로서 도로의 등급별로는 고속도로 128개소 10,935m와 일반국도 280개소 21,817m, 국가지원지방도 69개소 4,305m, 지방도 295개소 15,531m, 시군도 494개소 21,326m가 가설되어 있음.
- 국도 1, 3, 4, 5, 17, 19, 21, 25, 34, 36, 37, 38 호선 등 12개의 국도가 충북내 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지방도 506호선(현도~미원), 510호선(도계~증평), 512호선(청주~낭성) 등이 지역간 연결기능을 담당함.
- 지역을 관통하는 12개 국도중 지역내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4차선의 국도 17, 19, 36호선이 충북지역의 주요한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타 도로들은 대부분 2차선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간선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움.



〈그림 Ⅱ-2-1〉 도로망 현황도

□ 고속도로, 국도 교통량 증감추이 및 애로구간분석

- 충북도내 주요 국도의 교통량은 지난 8년(1990~1998)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평균 9.8%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1985~1995의 16.8%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도 12개 노선 중 3번(주덕-장호원), 5번(봉양-원주, 영주-단양), 17번(청주-월정), 19번(영동읍-용산), 21번(진천읍-장호원), 38번(장호원-하영리, 주포리-석항리) 노선 등이 교통애로구간으로 분석되었음.

제2장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표 II-2-2〉 교통량 증감추이 및 애로구간분석

(단위 : 대/일, %)

구분	구분	연장(km)	노선	측정구간	차선수	1998년	1999년	증감추이	V/C
고속도로	(3개 노선)	156.6				168,182	185,511	10.3	
	경부	90.5	청원, 옥산~영동, 추풍령	천안-대전	6	89,567	104,457	16.6	1.1
	중부	55.8	음성, 삼성~청원, 남이	하남-호법	4	65,387	66,938	2.4	1.1
	중앙	9.9	제천, 봉양~제천, 봉양	서제천-만종	2	13,228	14,116	6.7	1.6
국도	(12개 노선)	915.6				515,082	506,989	-1.6	
	1	1.2	청원, 강외~충남, 도계	조치원-행정리	4	11,688	11,448	-2.1	0.2
	3	78.0	괴산, 연동~음성, 갑곡	문경읍-살미면	4	8,424	9,092	7.9	0.2
				살미면-충주시	4	13,959	16,615	19.0	0.3
				충주시-주덕면	4	27,487	29,324	6.7	0.5
				주덕면-장호원	2	10,577	10,900	3.1	1.6
	4	61.9	옥천, 군북부~영동, 추풍령	논산시-옥천읍	4	28,525	26,153	-8.3	0.5
				옥천읍-영동읍	2~4	11,285	12,531	11.0	0.2
				영동읍-추풍령	2	5,184	5,890	13.6	0.8
				영주시-단양읍	2	10,654	9,528	-10.6	1.4
	5	64.1	단양, 대강~제천, 봉양	단양읍-제천시	4	13,262	13,485	1.7	0.2
				제천시-봉양읍	4	18,662	20,473	9.7	0.4
				봉양읍-원주시	2	6,796	7,393	8.8	1.1
				대전시-정주시	4	25,709	27,223	5.9	0.5
	17	69.9	청원, 현도~진천, 민승	청주시-진천군	2	15,494	14,266	-7.9	2.0
				진천군-원정리	2	10,207	10,846	6.3	1.5
				부주읍-영동읍	2	4,615	4,320	-6.4	0.6
				영동읍-웅산리	2	5,049	7,429	47.1	1.1
	19	177.8	영동, 학산~충주, 소태	웅산리-보은읍	2	3,527	3,929	11.4	0.6
				보은읍-미원면	2	6,485	6,747	4.0	1.0
				미원면-괴산읍	2~4	5,089	6,009	18.1	0.1
				괴산읍-살미면	2	2,483	5,027	102.5	0.7
				충주시-옥계리	4	13,553	17,508	29.2	0.3
				옥계리-원주시	2	6,489	6,756	4.1	1.0
				병천읍-진천읍	2	4,396	4,740	7.8	0.7
				진천읍-금석리	2	6,763	8,344	23.4	1.2
	21	32.2	진천, 진천~음성, 생곡	금석리-정호원	2	8,350	8,907	6.7	1.3
				상주시-보은읍	2	4,960	5,443	9.7	0.8
				보은읍-두산리	2	5,345	4,914	-8.1	0.7
				두산리-청주시	4	22,893	23,262	1.6	0.4
	34	79.7	진천, 백곡~괴산, 연동	임장면-진천읍	2	6,355	5,453	-14.2	0.8
				진천읍-증평읍	2~4	9,163	9,254	1.0	0.2
				증평읍-괴산읍	2~4	13,505	14,427	6.8	0.3
				괴산읍-연중면	2	5,308	6,298	18.7	0.9
	36	113.1	청원, 강외~단양, 단양	조치원-청주시	4	23,734	16,391	-30.9	0.3
				청주시-증평읍	4	42,921	27,551	-35.8	0.5
				증평읍-음성읍	4	17,386	12,863	-26.0	0.2
				음성읍-주덕면	4	12,303	9,159	-25.6	0.2
	37	118.1	옥천, 군서부~음성, 금왕	살미면-단성면	2	2,929	2,064	-29.5	0.3
				미전리-옥천읍	2	6,936	7,762	11.9	1.1
				옥천읍-보은읍	2	5,647	6,011	6.4	0.9
				보은읍-내속리	2	2,049	2,657	29.7	0.4
				내속리-괴산읍	2	2,144	2,065	-3.7	0.3
				괴산읍-음성읍	2	3,828	4,489	17.3	0.6
				음성읍-무극리	2	11,134	10,624	-4.6	1.5
				장호원-하영리	2	11,744	11,170	-4.9	1.6
38	60.0	음성, 갑곡~제천, 송학	하영리-주포리	2~4	9,491	9,296	-2.1	0.2	
			주포리-석항리	2	10,595	10,952	3.4	1.6	

주 : 중앙고속도로는 2000년 6월 1일 4차선 확장된(원주-제천간).

V/C는 고속도로서비스기준 C, 국도서비스기준 D를 기준으로 산출(애로구간은 음형으로 표시)

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백서, 각년도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제2부 부문별 계획

□ 지방도 교통량 증감추이

- 충북의 지방도 교통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313, 318, 335, 402, 507, 510, 512, 517, 522, 525 노선이 평균 10%이상의 높은 교통량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2-3〉 지방도 교통량 증감추이

(단위 : 내/일, %)

구 분	연장 (km)	노 선	측정구간	차선수	1998년	1999년	증감 추이	
지 방 도	1,214				263,040	261,449	-0.6	
	313	16.3	진천, 진천 ~ 진천, 백곡	안성읍-백곡면	2	2,078	2,617	25.9
	318	7.1	음성, 삼성 ~ 음성, 생곡	일죽면-생곡면	2	5,030	5,552	10.4
	335	1.0	충주, 앙성 ~ 충주, 앙성	점동면-가남면	2	8,799	9,886	12.4
	402	13.0	제천, 백운 ~ 제천, 백운	백운면-영월읍	2	1,547	1,787	15.5
	501	29.2	영동, 학산 ~ 옥천, 옥천	옥천읍-이원면	2	4,116	4,318	4.9
	502	43.5	보은, 회남 ~ 보은, 탄부	이원면-양산면	2	5,304	5,822	9.8
				회남면-안내면	2	1,126	1,139	1.2
				안내면-삼승면	2	2,551	2,571	0.8
	505	69.9	영동, 학산 ~ 보은, 내속리	삼승면-탄부면	2	2,257	2,296	1.7
				학산면-교평리	2	3,475	3,712	6.8
	507	14.8	청원, 부용 ~ 청원, 정봉	교평리-내속리	2	1,465	1,480	1.0
				부용면-강내면	2	10,566	11,167	5.7
				강내면-태평리	2	10,936	11,336	3.7
	508	19.2	청원, 강외 ~ 청원, 오창	강내면-성북리	2	2,156	2,458	14.0
				강외면-쌍청리	2	7,299	7,452	2.1
	509	29.7	보은, 회남 ~ 청원, 가덕	쌍청리-오창면	2	6,523	6,060	-7.1
				회남면-병암리	2	1,117	1,297	16.1
	510	20.4	청원, 오창 ~ 괴산, 증평	오창면-여천리	2	9,644	9,686	0.4
				오창면-증평읍	2	13,418	14,830	10.5
	511	25.7	청원, 미원 ~ 진천, 초평	미원면-내수리	2	8,054	8,834	9.7
				북일면-초평면	2	3,568	3,477	-2.6
	512	17.8	청주, 남문로 ~ 청원, 앙성	청주시-낭성면	2	4,896	5,525	12.8
	513	17.5	진천, 초평 ~ 음성, 금왕	초평면-덕산면	2	3,658	3,770	3.1
				덕산면-금왕면	2	2,913	3,079	5.7
	514	22.9	옥천, 이원 ~ 영동, 황간	이원면-황간면	2	3,604	3,942	9.4
	515	74.4	괴산, 청천 ~ 음성, 금왕	청천면-지경리	2	702	726	3.4
				원남면-맹동면	2	1,196	1,244	4.0
				맹동면-금왕읍	2	3,239	3,278	1.2
	516	36.2	진천, 초평 ~ 괴산, 불정	초평면-음성읍	2	1,201	1,223	1.8
				음성읍-불정면	2	628	652	3.8
				음성읍-감물면	2	3,719	3,756	1.0
	517	28.6	괴산, 청천 ~ 괴산, 장연	청천면-장연면	2	917	931	1.5
				장연면-추점리	2	559	689	23.3
	519	17.3	단양, 가곡 ~ 단양, 어상천	가곡면-어상천	2	1,819	-	-

〈표 II-2-3〉 지방도 교통량 증감추이 (계속)

(단위 : 대/일, %)

구분	연장 (km)	노선	측정구간	차선수	1998년	1999년	증감 추이	
방 도	520	32.0	음성, 감곡 ~ 충주, 문화동	감곡면-충주시	2	6,087	6,529	7.3
	522	28.9	제천, 동현 ~ 단양, 영춘	제천시-영춘면	2	2,368	3,314	39.9
	525	54.8	괴산, 청천 ~ 충주, 노은	청천면-덕평리	2	1417	1886	33.1
				청천면-철성리	2	868	1081	24.5
				철성면-감물리	2	1127	1403	24.5
				감물면-이류면	2	3103	3104	0.0
				살미면-엄정면	2	955	411	-57.0
	531	58.0	충주, 살미 ~ 충주, 엄정	송강리-귀래면	2	393	1124	186.0
				동양면-금성면	2	3489	3753	7.6
	532	87.4	충주, 동량 ~ 단양, 어상천	금성면-매포면	2	1503	2036	35.5
	534	22.5	제천, 덕산 ~ 단양, 대강	덕산면-단성면	2	2,142	2,116	-1.2
	540	25.3	청원, 오창 ~ 괴산, 증평	용우리-북이면	2	5,897	6,255	6.1
	571	24.3	보은, 회남 ~ 보은, 내북	회남면-회북면	2	2594	2626	1.2
				회북면-내북면	2	682	795	16.6
	575	63.9	옥천, 청성 ~ 괴산, 청천	청성면-청천면	2	3,574	3,671	2.7
	581	20.9	영동, 용화 ~ 영동, 양강	용화면-양강면	2	2,278	2,447	7.4
	583	8.8	음성, 금왕 ~ 음성, 삼성	금왕읍-삼성면	2	5,383	5,470	1.6
	587	13.4	진천, 덕산 ~ 진천, 이월	덕산면-이월면	2	1526	1867	22.3
				이월면-신계리	2	2476	2704	9.2
	591	17.4	청원, 현도 ~ 청원, 강외	현도면-부용면	2	6370	6783	6.5
				부용면-강외면	2	9254	9482	2.5
	592	18.9	괴산, 증평 ~ 괴산, 청안	증평읍-청안면	2	3,082	3,479	12.9
	594	17.5	청원, 강내 ~ 청주, 남천동	강내면-청주시	2	4,324	4,772	10.4
	595	20.1	단양, 가곡 ~ 단양, 영춘	가곡면-영춘면	2	724	717	-1.0
	596	18.0	청원, 오창 ~ 청주, 강서	오창면-강내면	2	14,928	-	-
	597	66.8	괴산, 장연 ~ 제천, 송학	장연면-상모면	2	1951	2066	5.9
				상모면-목평리	2	2002	2063	3.0
				목평리-송학면	2	6451	6031	-6.5
	599	41.9	음성, 소이 ~ 충주, 소태	소이면-가금면	2	2139	2236	4.5
				가금면-소태면	2	8785	9186	4.6
	901	24.7	영동, 상촌 ~ 영동, 황간	상촌면-황간면	2	999	1131	13.2
				황간면-금계리	2	3545	3740	5.5
	906	7.4	영동, 매곡 ~ 영동, 매곡	매곡면-노촌리	2	5,271	5,602	6.3
	927	17.9	단양, 대강 ~ 단양, 대강	대강면-장림리	2	4,688	4,452	-5.0
	935	18.7	단양, 영춘 ~ 단양, 영춘	영춘면-오사리	2	585	525	-10.3

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1999.

제2부 부문별 계획

□ 자동차 보유대수

- 1998년말 현재 충북의 총 자동차대수는 약 337천대이며, 이중 자가용 승용차가 전체의 65.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택시나 영업용 버스에 비해 자가용 승용차 및 버스가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
- 자동차대수의 연평균 증가율(1980~1998)은 18.5%로서 동기간의 전국평균 16.6%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율은 두드러져 동기간의 전국평균에 비해 5.7% 더 높은 26.1%로 나타남.
- 그러나 자가용의 증가율에 비해 도로연장의 증가는 4.4%에 불과하여 교통시설의 공급이 수요증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표 II-2-4〉 자동차의 증가추이

(단위 : 천대, %)

구 분	충 북			전 국			연평균증가율 (’80~’98)	
	1980년	1990년	1998년	1980년	1990년	1998년	충북	전국
자동차대수	12	80	338	528	3,395	10,470	18.5	16.6
자가용 승용차 ¹⁾	2	35	220	186	1,902	7,324	26.1	20.4
100인당 자동차	0.9	5.7	22.7	1.4	7.8	22.5	17.9	15.4
100인당 승용차	0.3	2.5	14.8	0.7	4.4	15.8	21.7	17.3

주 : 자가용 승용차에는 관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1) 건설교통부, 건설교통 통계연보, 각년도.

2)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 자전거도로망 추진실적

- 자전거도로는 1999년이래 총 16개 노선으로 청주 6, 충주 6, 제천 2, 진천 1, 증평 1개소이며, 총연장 39.3km에 6,587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청주·충주·제천·진천·증평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추진실적이 전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이 요구됨.

□ 교통사고

- 충북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98년 10,275건으로 자동차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평균(1997~1998) 11.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동기간 전국의 감소율 2.7%보다도 더욱 낮은 수준임.
- 충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8년 인구 10만명당 32명으로 전국평균수준인 19명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1990년 49명을 기록한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임.

제2장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의 경우 충북은 14명으로 전국평균수준 9명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1990년 82명에 비해 연평균 17.7% 감소한 수치임.
- 충북의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인구 10만명당 946명, 자동차 1만대당 416명으로 전국 평균 725명, 325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율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평가를 상회하는 충북의 교통사고율은 도로의 선형, 종단구배 불량 등 기하구조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것에 기인함.

〈표 II-2-5〉 교통사고 지표

(단위: 명, %)

구 분	충 북			전 국		
	1997년	1998년	증가율	1997년	1998년	증가율
교통사고 발생건수	11,597	10,275	△11.4	246,452	239,721	△ 2.7
교통사고 사망자수	751	522	△30.5	11,603	9,057	△21.9
교통사고 부상자수	16,697	15,175	△ 9.1	343,159	340,564	△ 0.7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99.

2) 철도 현황

- 충북지역의 철도망은 지역의 서부에 위치한 경부선과 북동부에 위치한 중앙선에 의해 타지역과 연결되고 있으며, 지역내 철도망으로는 충북선이 충북을 동서로 가로질러 경부선, 중앙선 및 태백선을 각각 연결하고 있음.
- 최근 충북선(조치원~봉양간) 115km의 기존 복선구간에 대하여 2002년까지 2,636억원을 투입하여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99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999년부터 전철주 기초 등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이 개통될 경우 호남권과 강원권을 경부축과 연결하는 내륙 고속철도망의 중심지 역할이 기대됨.

□ 철도수송실적

- 1998년 현재 충북에는 39개 역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북선의 경우 연평균 4%의 여객수송실적 감소율을, 화물은 연평균 9.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장거리 수송의 경우 타 철도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철도체계상의 문제점에 기인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충북선의 전철화가 완료되는 2003년 이후에는 수송능력이 일 55회에서 83회(편도)로 증가되고, 25%의 동력비 절감과 환경공해 저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여 충북 북부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며, 연계성 강화로 인해 충북선의 이용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표 II-2-6〉 충북선의 철도수송실적

(단위 : 천명, 천톤)

구 분	여 객 수 송			화물
	계	정 기	일 반	
1980년	1,841	105	1,736	1,171
1998년	894	9	885	225
증가율(%)	-4.0	-13.6	-3.7	-9.1

주 : 충북선의 철도길이는 115km 북선이며, 16개 역이 위치하고 있음.

자료 : 1) 건설교통부, 건설교통 통계연보, 각년도.

2)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3) 공항 현황

- 운항노선
 - 국내여객 정기운항 노선
 - 국내선은 청주↔제주간 1일 8편, 일요일 10편 운항
 - 국제여객 부정기 운항 노선(중국 동방항공 주 3회)
 - 청주↔중국 무한, 제남 및 홍콩간 부정기 여객전세기 1999년 24편 운항
 - 청주↔상해간 주 1~3회 여객전세기 2000년 4월 19일 취항
 - 국제선 화물 부정기 운항노선은 청주↔러시아 브라츠크, 도모네도브, 울란우테, 하바노브스크 등 연합국적기가 4개 노선으로 주 5회 운항중임.
 - 청주국제공항의 외국 화물기는 러시아 연합국적(5개 항공사)이 1998년 6월 첫 취항하였으며, 이들 운항 편수는 주 5회(월 22회)이고,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2,800 톤임.
- 주요시설 및 장비
 - 청주국제공항의 총 부지면적은 42만평(군부대 포함 200만평)으로써 전국 16개 공항 중 4번째 규모이며, 활주로는 2개로 구성되어 있음.
 - 계류장은 현재 B-727 3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2000년 계류장 1기 증편중), 주차장 시설은 616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임.

〈표 II-2-7〉 청주공항 주요시설 및 장비 현황

(2000년 11월 현재)

구 분	시 설 명	규 모	비 고
면 적	토 지	42만평(1,382,298m ²)	군부대 포함 (약 200만평)
이착륙 시 설	활 주 로	2,740m×60m, 2,740m×45m	년간 196,000회
	유 도 로	340m×30m	Code Letter C급
	계 류 장	32,736m ²	B-727 4기 동시주기
항 공 보 안 시 설	계기착륙 시 설 (ILS)	방위각시설(LLZ)/거리측정장치(DME) 활공각시설(G/P), 중앙표지시설(M/M)	CAT - 1
	무 선 표지시설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거리측정장치(DME)	CAT - 1
	항 공 등화시설	접근등장치(ALS), 정밀접근지시기(PAPI), 활주로 등	CAT - 1
지 원 시 설	여객청사	22,406m ²	
	부속건물	8,262m ² (7동)	-
	주 차 장	26,611m ²	616대 동시주차
	전력시설	수배전, 비상발전설비	-
	통신시설	교환기 600회선 안내장비 2식 CCTV 52대 X-RAY 7대	구내 2,000회선 스피커 600대 모니터 37대 분당 350명 처리
	운송설비	컴버벨트 4식, 에스컬레이터 6대, 엘리베이터 7대	-
	냉 난 방 설 비	보일러 4대(145), 냉동기 3식(1500R/T) 에어컨 8식(54 R/T)	-

□ 공항 이용실적

○ 여객변동추이

- 청주국제공항 여객이용의 경우 1998년 299,904명에서 1999년 353,728명으로 약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운항편수의 증가로 인해 2000년에는 501,940명으로 약 4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2002년 월드컵 개최시 대전, 수원 스타디움 관람객들이 직접이용이 가능한 공항이며,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는 선수단 및 관광객들을 위한 전세기 및 부정기 노선 취항시 청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이 과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현 추세로 보건대 항공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월별로는 봄철, 여름 휴가시즌인 8월과 10~1월 사이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제2부 부문별 계획 ■

○ 화물수송실적

- 연도별 화물수송실적의 경우 국내선은 1998년 8,295톤, 1999년 11,941톤, 2000년에는 14,300톤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
- 국제선 또한 1998년 473톤에서 1999년 5,368톤으로 약 1,035%, 2000년에는 5,300톤으로 고도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화물청사 건립에 외자유치가 실현될 경우 공항활성화 뿐만 아니라 화물수송실적도 부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각 년도 화물수송량을 월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9월에서 12월 사이에 화물운송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으며, 1998년에 비해 1999년에는 전반적으로 약 2배 이상 운송량이 증가함.

4) 교통수요 전망

- 1인당 통행회수는 경제규모의 확대, 노동시간의 감소 및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률에 따라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2021년 충북도 총 발생통행량은 약 360만통행/일이 될 것으로 예측됨.

〈표 II-2-8〉 충북의 교통수요 전망

구 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20년
인 구 (만인)	149	154	163	174	182
인당통행횟수(회)	1.7	1.8	1.9	2.0	2.1
총통행량(만통행)	245	263	287	312	360
자가용승용차보유대수	16.5	33	45	51	75
100인당자가용보유대수	14.8	22	28	33	52
도로연장(km)	6,011	7,230	8,320	9,230	12,350
도로포장률(%)	63.2	75	85	93	100

- 국민소득의 증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자동차 가격, 경제규모의 확대와 여가시간의 증대 및 자동차산업의 수요창출효과에 따른 폭발적인 자동차증가가 교통수요 폭발의 주 요인으로 작용함.
- 충북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6년경 현재의 선진 유럽국가의 자동차 보유수준인 100인당 45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가정과 현재의 증가패턴을 감안하여 추정함.
- 도로포장률의 경우는 1998년 63.2%에서 2010년 85%, 2020년에는 100%의 포장률을 원칙으로 보정토록 하였음.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선교통망의 결절지 · 국내·외 교통접근성 용이 · 국제교류기반 활성화 지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시대의 도래 · 여가선용 지대로서의 충북 · 수도권 전철화의 확대 · 경비행기 시대의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거점 기능의 취약 · 대전권의 배후지역 입지에 따른 통과지대 · 수위도시 부재에 따른 중추거점기능 미비 · 교통수요와 시설의 불일치 · 교통사고 다발지역 · 도시구조와 교통체계간 부조화 · 인천공항 건설에 따른 지원미비 	

2) 전략과제 도출

□ 동서간 지역통합을 위한 고효율 광역도로망 구축

- 청주-충주를 중심축으로 한 동서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함.
- 공항연계 도로망의 확충 및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함.

□ 중부권 고속철도망의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

- 고속철도 오송역을 유치함으로써 충북선의 내륙 동서간 연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조치원에서 보령을 잇는 서해안 연장선을 구상함.
- 청주-대전권 도시철도 및 청주권 장전철을 건설하여 현행 도로 중심에서 철도망 중심의 교통망 체계로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함.

□ 동북아 물류전담공항 육성

- 동북아 물류전담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항공물류체계를 구축함.
- 혼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지방분산형 고효율 교통체계를 구축함.
- 도로망, 철도망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함.

□ 교통정책의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조화

- 교통수단별 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한형 있는 교통체계 개선을 도모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확대하고, 교통시설 건설시 내성토, 대절토를 통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경관·식생을 고려한 공법을 활용함으로써 21세기형 쾌적한 교통서비스망을 구축함.

3. 세부추진계획

1) 도로부문

□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 공항 연결도로망의 확충
 - 청주~진천간 국도 17호선의 4차선 완공시기의 조정
 - 공항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등을 연결하는 도로를 미호천변을 따라 신설
 - 오창~증평간 4차선 구간의 계획기간내 완공유도
- 내륙관광순환도로 조성(국도 및 지방도 연계성 강화)
 - 관광객 접근성 및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여 가족단위 관광코스로서의 특성화 전략을 구사하여 지역간 통합 및 관광개발을 촉진함.
 - 영동~옥천~보은~청주·청원~괴산~충주~충주호~제천·단양~영월, 지방도와 국도 연결노선의 에로구간의 정비를 통해 남부(영동)와 북부(제천)의 지역간 통합 및 속리산·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 충주호 주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강원남부, 경북북부를 포괄하는 중부내륙광역권에서 충주, 제천권이 중심축이 되어 통합개발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
- 동서고속도로건설(동서 4, 5, 6축)
 - 서해안~경부·중부~중부내륙·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국토횡축 노선의 개통으로 교통난 해소 및 고속도로망 연계성을 향상시킴.
 - 충북 북부 산업벨트권역의 고속수송로 및 향만 직결노선 확보로 충북 산업경쟁력의 기반을 확립함.
 -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동서 4축) : 안중~평택~유성~충주~삼척(222km)
 - 당진~울진간 고속도로(동서 5축) : 당진~천안~청주~영주~울진(269km)
 - 서천~영덕간 고속도로(동서 6축) : 서천~공주~청주~상주~안동~영덕(300km)
- 남북고속도로건설(남북 4, 5축)
 - 국토종축 노선의 개통으로 남북경협활성화에 따라 대북한 진출 교두보로 이용가능하며, 백두대간 지역으로 지리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낙후지역

제2장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 을 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함.
- 백두대간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영남과 중부지역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구간의 공사기간을 단축함.
- 중부내륙고속도로(남북 4축)
 -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미고속도로 연결 : 375km)
- 중앙고속도로(남북 5축)
 -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연결 : 447km)
- 중평~보은~옥천~영동~함양~광양간 고속도로 신설
 - 동서 5축 고속도로의 중평을 기점으로 하여 남북 4축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정부고속도로 사이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화 추진

- 도내 주요 국도의 확포장시 직선화·터널화 등 노선개량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화를 추진하여 지역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 현재 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화 추세이며, 충북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4차선 고속국도로 인한 선형구간과 주간선기능 수행으로 승용자동차의 고속주행과 대형화물차의 폭주로 교통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대형안전사고 절감 등을 위해 4차선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장호원~충주~문경간 3번 국도
 - 보은~청주간 25번 국도
 - 장호원~충주~봉양, 제천~단양간 38번 국도(봉양~제천간 5번 국도)
- 충북의 주 개발축인 대전~청주~충주를 연결하는 조치원~청주~주먹간 36번 국도, 대전~청주간 17번 국도에 대해서는 일부구간의 선형개선과 지하도 및 육교 등의 설치로 주간선기능을 수행하는 고속화도로로 기능을 제고함.

□ 국도의 확장(교통애로구간노선의 4차선 확장)

-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애로를 겪고 있는 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이 필요하며, 국도의 확포장사업은 각 시·군의 전략사업지로의 집진성을 향상시킬.
- 또한 도심을 관통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며, 북부권의 관광지와 남부권의 농업지역, 대청호, 속리산권 관광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역외 관광객의 지역내 유인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신약 관광벨트를 연결하여 관광진흥효과를 달성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17번 국도(청주~진천, 진천~월정리)
- 19번 국도(영동읍~용산리, 보은읍~미원면)
- 37번 국도(마천리~옥천읍, 옥천읍~보은읍, 음성읍~부곡리)
- 38번 국도(장호원~하영리, 주포리~석항리)

□ 지방도 및 간선도로체계 구축

- 지방도의 확포장 및 국도승격을 통해 지방도의 지역간 도로망 역할을 제고시키며, 교량개축과 증축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을 구축함.
- 낙후지역인 단양과 제천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유도
-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노선 개발
- 국립공원 인근의 낙후지역의 개발잠재력을 향상키며, 낙후지역간 연계성 도모

□ 도계 연결국도의 4차선 확장

- 도계 연결도로 개통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간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함.
- 주덕~장호원간 국도 확장
- 단양~영주간 국도 확장
- 제천~문경간 도로 확장
- 수안보~문경간 국도 확장
- 목계~원주(귀래)간 국도 확장
- 진천~장호원간 국도 확장
- 영동~김천간 국도 확장

2) 철도부문

□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을 통해 중부내륙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서간의 연결성을 강화함.
- 호남고속전철 분선역의 오송역추진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북선의 이용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금강산 철도와의 연계성을 도모함.
- 오송·오창·충주 첨단산업지대와 충주호반의 국민여가지를 연결하여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고, 오송고속전철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환승센터를 설치함.

□ 충북선의 전철화

- 국내 철도노선중 경부, 경인, 중앙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노선인 상황에서, 현대화 및 고급화를 통한 수송능력의 증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충북선 수송능력증대를 위한 현대화 방안의 하나로 전철화 사업을 추진함.
- 충북선의 전철화 추진은 수도권의 성남~이천~여주~충주~문경을 잇는 지역간 연결철도와의 연계기능 향상으로 충북선의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조치원~봉양간 115km : 2003년 완료

□ 중앙선과 태백선의 전철화 추진

- 화물수송증가에 대비하여 중앙선의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충북 북부지역의 양회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제천~도담간 17.4km에 대해서도 조기추진이 필요함.
- 청량리~원주간과 제천~도담간은 전반기 사업기간인데 비해 원주~제천간 41.1km 구간이 후반기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중앙선의 원활한 이용과 소통을 위해서 전반기 사업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천~도담(복선전철화) 17.4km : 2001~2007
 - 원주~제천(복선전철화) 41.1km : 2004~2011 (충북구간≒16km)
 - 도담~영천(복선전철화) 164.0km : 2010~2017 (충북구간≒20km)
- 또한 강원권의 태백 탄광카지노 개발효과가 북부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태백선의 복선전철화사업을 동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제천~백산(복선전철화) 96.8km : 2006~2014 (충북구간≒14.4km)

□ 지역간 연결철도 신설

- 현재 중부권의 철도망 체계가 경부선과 중앙선 사이를 연결하는 노선이 미흡한 실정으로 철도미비구간에 대하여 지역간 연결철도의 개선을 추진함.
- 청주국제공항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충주의 호반관광과 첨단산업 그리고 음성·진천의 산업단지와 수도권 및 서해안권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함.
- 지역간 연결철도 : 수도권 전철(성남)~이천~충주~문경구간의 사업기간과 구간별 전철화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 ※ 국가기간망 계획(2000-2019)
 - 성남~여주(복선전철화) 53.8km : 2003~2010

제2부 부문별 계획 ■■■

- 이천~충주(단선전철화) 61.0km : 2010~2016 (충북구간≒30km)
- 충주~문경(단선전철화) 39.0km : 2013~2019 (충북구간≒24km)

※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에서 성남~이천구간 노선이 성남~여주 구간으로 1단계사업기간에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변경(2002-2010)되었기 때문에 이천~충주구간 61km에 대해 후반기 사업기간 전반기에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함.

□ 대전~오송~청주(공항)간 도시철도 신설(청주권 경전철과 연계)

- 대전~청주(공항)~오송을 삼각형(Triangle)으로 연계하여 대전의 제2행정타운, 오송신도시(고속전철역사), 청주공항을 직접 연계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첨단과학단지, 청주공항간 상호연계성을 제고시킴.
- 경부선, 호남선과 대전 지하철망을 오송을 기점으로 청주국제공항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편리성 확보 및 청주광역화 달성은 물론 원활한 인구 및 산업의 유입을 통한 지역 경쟁력향상에 기여함.

□ 청주권 경전철 건설

- 청주권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첨단경전철(LRT)의 도입을 검토하고 고속철도 및 충북선과의 연계된 노선구상과 조차원, 증평 및 대진과의 연계성을 모색함.
- 청주시는 현재의 도로교통체계만으로 교통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존 도로시설의 고가나 지하를 활용하여 대량·고속·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경전철시스템(LRT)을 고려중임.
-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에도 수도권 전철노선(수도권~충주~문경 연장)의 장기계획과 병행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신교통수단의 도입계획을 마련하며, 민자유지를 통한 역세권 개발과 연계교통망을 구축함.

□ 환승시스템의 구축

- 환승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속철도 역내에 종합환승센터의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항역 건설과 종합적이고 복합화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함.
- 현재의 간이역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충북선, 시내 및 시외버스정차장, 택시정차장, 경전철역 등을 도보권내에 배치하는 한편, 장래 급증하게 될 자가용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주차장(Park and Ride)을 건설함.

3) 공항부문

□ 시설 용량 및 규모 확충

- 물류거점공항으로의 육성을 위한 화물청사의 조기 건립과 수도권 초과수요 분담을 고려하여 후반기 계획기간중 여객터미널과 주차장시설의 확장을 계획함.
- 국제적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충북선의 철도 이설과 함께 기존의 활주로를 동측으로 460~860m 확장하여 활주로 길이를 3,200~3,600m를 확보함.
- 항공기 9대를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을 완비하여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중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항공기 정비기지를 유지하여 항공사의 거점기지로 육성함.

□ 국내외 노선 신설과 증편

- 강릉과 부산의 노선 신설 및 재취항
 - 청주~부산간 노선은 일 1회 운항을 원칙으로 연차적으로 증편유도
 - 청주와 제주간 노선을 현재 일 4회에서 지속적으로 증편유도
 - 청주와 강릉간 노선은 주 2~3회 운항토록 증편유도
- 국제 부정기노선의 정기노선화 추진
 - 러시아 화물기 부정기편을 정기노선화 추진
 - 관광시즌을 겨냥한 노선발굴
 - 괌, 사이판,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노선
 - 사천성과 동북3성, 중국내 경제특구로 지정 받은 개펄시의 중국노선
 - 후쿠오카와 오사카의 일본노선, 타이베이의 대만노선 등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

□ 남북 경험활성화에 따른 북한노선 신설

- 남북경협활성화에 따른 대북한 노선 확보
 - 순안(평양), 원산, 신의주, 청진 등의 북한노선 신설을 위한 중장기 노선확충방안을 모색함.

□ 제3민항 유치를 통한 항공수요 창출

- 50인승 규모의 커뮤니티(Commuter)급 항공사의 신설을 원칙으로 하며, 화물전용 제3민항기 및 외국국적사의 물류기지화 추진을 검토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장기적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여 민항전용으로 운영할 때 효율성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 청주국제공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물류공항으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국제물류 관련업체의 입주를 통한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금융산업 등의 지원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물류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4) 도시교통부문

□ 자전거 이용체계 구축

- 자전거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전체의 자전거 이용 접근성을 제고토록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전거 도로유형 개발, 교통제한(traffic calming) 기법 도입, 자전거 주차장, 횡단시설 등 관련시설을 확충함.
- 자전거 도로의 건설이 어려운 도심부의 경우는 현재 차도를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정체 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심의 경우 인도 이용을 적극유도(일본 구마모토의 경우 참조)하며, 상가의 노상 불법물품의 인도점유 억제와 불법간판의 정비를 추진함.
- 경자동차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구리식 주차방법은 이러한 자전거 이용의 제약요인이 되므로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현재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증평에 국한되어 개설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함.
 - ※ 자전거도로 적용기준 및 조건
 - 지역특성에 맞는 자전거 도로유형 개발
 - 자전거 이용목적에 따른 노선 우선순위 결정
 - 교통제한(traffic calming) 기법 도입
 - 자전거 주차장 설치

- 보도턱 없애기 사업 추진
-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 개설(차도 이용제한)
- 보도환경정비 방안강구(불법 입간판 정비, 불법 보도 적치물 정비, 전신주, 전화부스 등 보도적치물의 정비)

□ 교통안전구역의 확대지정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구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확립방안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 지하도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 및 보도턱 제거와 장애인 신호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완충녹지와 도로 중앙의 녹지대 형성 등 녹색도로화 사업을 추진함.
- 보행전용 “물”의 확대 설치, 보행환경축의 선정·정비, 스쿨존 및 자동차 금지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함.
- 사고 많은 지역의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 및 안내표지 등 시설확충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안전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도의 개정 및 보완을 강력히 건의함은 물론 조례를 제정함.

□ 버스 및 택시 승하차장의 정비

- 환승시스템(버스와 버스, bus와 자가용, bus와 전도, 자전거와 bus 등) 개발, 버스전용차선, 버스 Gate, 버스우선신호 등의 기법 적용, 고속버스·시의 bus와 시내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 강화방안을 검토함.
-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의 중복성을 피하는 대신 연계화를 도모하여 이용승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환경상태가 매우 열악한 도심외곽지역의 bus 정류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적인 주차대책의 추진

- 도시내 주차장 정비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민간부분의 주차장 사업을 적극 유도하여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혼란을 방지하여 쾌적한 교통운행을 구현함.
- 도시계획 수립시 주차장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며 자동차 주차장, 공동주차장, 버스정류장의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지역으로 유도

제2부 부문별 계획 ■

- Park and Ride 주차장 건립, 종합적인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 주차제도(주거 지역 주차허가제, 지역별 차고지 증명제, 주차요금 및 주차운영관리 등) 개선 등 주차장 종합정비를 실시함.
- 지역주민과 외래방문객들을 위한 지도 제작 및 주차장 안내시스템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장 건설 및 권역별 자전거 임대구역 확대함.

□ 통행수요관리(TDM) 및 교통체계관리(TSM) 추진

-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교통수단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요구됨으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통행수요관리(TDM) 및 교통체계관리(TSM) 체계를 도입함.
- 도시내 주요 축별 교통체계관리사업(가변·능률차로제 및 일방통행로의 도입, 신호체계개선, 교차로 지하구조 개선 등)을 추진함.
- 주말차량이용제, 가변 출·퇴근시간제, 관련 세제의 개편 등의 자가용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함.
- 신교통수단의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낭비요인 및 나홀로 차량 등의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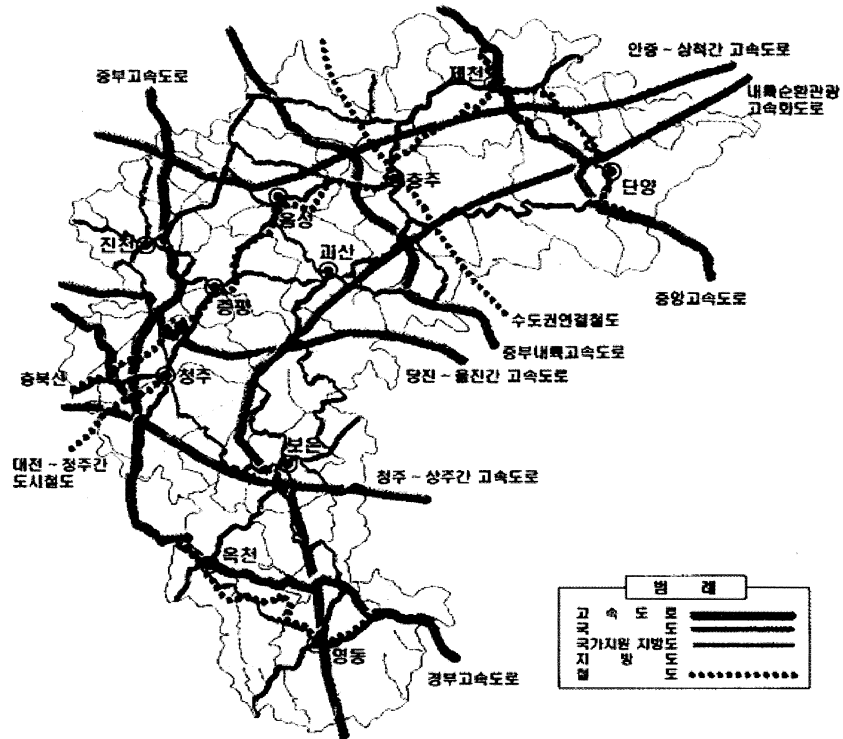
□ 교통정보체계의 구축

- 교통상황에 대응하는 교통관리(신호제어 등), 현재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경로안내,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 상용차량 운영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사업을 추진함.
- 첨단교통관리체계(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ATMS) 도입으로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를 대중교통체계와 연결시켜 교통수요와 교통체계의 용량을 변동하는 교통환경과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하는 교통제어체계 개발함.
- 첨단교통관리체계(ATMS)의 조기도입은 물론 첨단교통정보체계(ITS), 첨단대중교통체계, 상업용차량운영체계 및 첨단차량제어체계의 도입과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효율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구현함.

□ 여행자 정보체계의 도입

- 관광충북 구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행자 정보체계(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 : ATIS, 여행자에게 교통여건에 대한 정보 및 새로운 교통정보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는 체계)를 도입함.

제2부 부문별 계획



〈그림 Ⅱ-2-3〉 2020년 충청북도 도로망 계획

제2절 물류체계의 확충

1. 현황 및 전망

1) 지역별 물류시설 현황

- 충북은 중부내륙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경부, 중부, 중앙, 동서, 중부내륙 및 동서고속도로의 통과지대로서 막대한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지에 위치해 있음.
- 전국 6,613개의 물류시설 중 충북은 219개로 3.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북의 연간처리실적은 137,038톤으로 2.3%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II-2-9〉 지역별 물류시설 총괄현황

지역	시설수 (개)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연간처리 능력(톤)	연간처리 실적(톤)	종사자수 (인)
		(㎡)	(평)	(㎡)	(평)			
서울	810	5,302	1,604	8,232	2,490	55,946	48,536	313
부산	510	10,109	3,058	4,682	1,416	173,469	150,249	60
대구	349	2,205	667	2,681	811	41,188	23,736	87
인천	221	17,418	5,269	4,537	1,373	1,893,577	3,290,793	119
광주	155	2,250	680	2,402	727	56,168	5,602	78
대전	225	2,863	866	2,833	857	103,818	109,822	120
경기	273	9,736	2,945	7,290	2,205	74,395	58,643	101
강원	104	12,633	3,821	2,245	679	631,247	1,086,770	14
충북	219	4,290	1,298	2,293	693	1,924,144	137,038	73
충남	634	2,255	682	975	295	107,052	85,961	25
전북	432	6,936	2,098	1,768	535	98,810	71,073	37
전남	1,108	2,857	864	1,044	316	431,760	89,443	25
경북	941	3,750	1,134	1,962	594	175,395	482,784	16
경남	562	6,892	2,085	2,681	811	171,218	185,662	94
제주	70	6,068	1,835	2,991	905	77,505	53,438	16
전체	6,613	95,564	28,906	48,616	14,707	6,015,692	5,879,550	1,178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물류시설 총량, 1997. 12.

제2부 부문별 계획 ■

2) 물류시설별 특징 및 시설개요

□ 화물터미널

- 충북지역의 일반화물터미널 현황은 청주 자동동, 제천 장락동, 보은 지산리 3개소에 17,059평의 규모로 입지해 있으며, 이는 수도권 및 향만지역 소재 터미널에 비해 적은 규모임.
- 따라서 향후 규모의 확장과 중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산업특화지대인 진천, 음성지역과 남부 3권인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화물터미널의 건설이 요구됨.

□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ICD)

- 건설교통부에서 1991년 12월 화물유통촉진법 제정, 1994년 7월 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물유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및 1995년 7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사업인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이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일원에 약 21만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음.

□ 공동집배송단지

- 충북지역에는 운영내지 건설중인 공동집배송단지는 없으나 충북음식료품도매업협동조합에서 공동집배송단지 2개를 구상 중에 있음.

〈표 II-2-10〉 중소기업자의 공동 집배송단지 추진 현황

권역별	시설구분	추진주체	비고
충청권(6)	산업용재유통상가	대전기계공구상협동조합	건축물 건설중
	공동집배송단지(1)	충남슈퍼마켓협동조합	토지물색단계
	공동집배송단지(2)	충북음식료품도매업협동조합	구상단계
	광고물자재센터	대전·충남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구상단계
	백제민속공예단지	백제공예사업협동조합	사업부진
	공동창고	음성니트공업사업협동조합	토지매입 완료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7.

□ 창고

- 창고의 유형에는 보관형태별로 보통, 냉동, 정온, 야적, 위험물, 수면, 간이 창고 등 7개 형태로 구분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나타나고 있는 창고의 종류는 6종으로 보통, 야적, 수면, 저장, 위험물, 냉동(냉장)창고로 구분하고 있음.

제2장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 충북지역의 경우 총계 93개 업체로 전국대비 5.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일반창고가 88개 업체(9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국창고의 평균면적이 209,826평인데 반해 충북지역의 창고업체 면적은 이의 60% 정도인 128,856평으로 나타나 충북물류업계의 규모의 영세성과 낙후성을 보여줌.

□ 유통단지

- 현재 조성되고 있는 유통시설 중 유통관련시설이 집약화하여 입지하는 단지의 성격을 갖는 시설로는 5년 단위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수립에 의해 조성중에 있는 음성군의 유통단지시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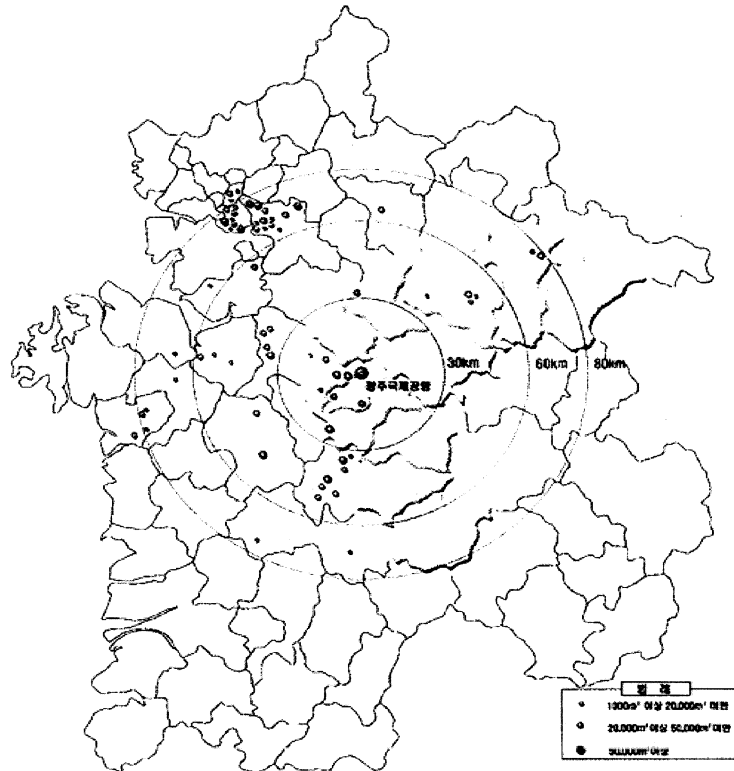
〈표 II-2-11〉 창고업 등록현황

(단위 : m²)

종류 시도	계			일반창고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		
	업체	동수	면적	업체	동수	면적	업체	동수	면적	업체	동수	면적
서울	65	98	127,986	54	84	85,288	-	-	-	11	14	42,698
부산	87	127	592,183	25	52	11,884	4	5	4137	58	70	469,162
대구	21	42	38,511	20	41	35,852	-	-	-	1	1	2,659
인천	39	80	768,988	35	69	757,410	3	9	4247	1	2	7,331
광주	5	6	13,464	5	6	13,464	-	-	-	-	-	-
대전	13	24	35,137	11	22	33,761	1	1	149	1	1	1,227
울산	12	17	29,759	11	16	28,699	-	-	-	1	1	1,227
경기	170	259	666,237	98	127	294,077	9	52	7538	63	80	364,622
강원	65	121	62,720	61	115	54,867	-	-	-	4	6	7,853
충북	93	154	128,856	88	149	106,384	-	-	-	5	5	22,472
충남	173	250	102,110	170	246	100,062	-	-	-	3	4	2,048
전북	216	377	145,344	207	368	142,830	6	6	404	3	3	2,110
전남	15	21	61,700	13	19	60,058	-	-	-	2	2	1,642
경북	428	605	239,373	412	579	223,508	-	-	-	16	26	15,865
경남	182	310	141,948	153	274	108,059	1	1	7112	28	35	26,777
제주	3	3	1,327	1	1	213	-	-	-	2	2	1,114
합만청	44	134	411,393	18	58	223,150	3	53	5117	23	23	183,126
계	1,631	2,628	3,567,036	1,382	2,226	2,386,566	27	127	28,705	222	275	1,151,766

자료 :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1999.

제2부 부문별 계획



〈그림 II-2-4〉 충청북도 물류시설 현황도

3) 물류시설 수요 전망

- 권역별 화물물동량은 전국의 경우 1996년에서 2011년 기간동안 3.7%의 증가하고, 대전·청주권의 경우는 1996년 140,274천톤에서 2011년 223,108천톤으로 약 2.9%의 증가율로 전국의 증가추세보다 0.8% 낮게 나타남.
- 2011년 대전·청주권의 총물동량은 전국대비 5.0%의 점유비중이 예측되는데, 이는 1996년 6.5%보다 1.5% 감소한 비율임.
- 권역별 유통단지의 수요는 총 1,887만평 중 수도권에 794만평으로 약 66.9%가 집중될 것이며, 대전·청주권은 105만평으로 전국대비 5.6%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반면 이를 단계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62만평에서 92만평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충북의 경우도 39만평에서 34만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표 II-2-12〉 권역별 화물물동량 예측

(단위: 톤)

권역	총물동량(천톤)				전국대비(%)			
	1996	2001	2006	2011	1996	2001	2006	2011
수도권	979,725	1,171,633	1,250,195	1,275,480	45.2	45.2	38.9	34.8
아산만권	67,104	123,936	184,653	285,326	3.1	3.0	5.3	6.9
대전·청주권	140,395	171,885	195,905	223,108	6.5	6.5	5.6	5.0
군산·장항권	104,274	142,586	195,936	246,807	4.8	4.8	6.3	7.4
광주·목포권	123,978	168,100	233,134	300,578	5.7	5.7	6.7	7.3
광양만권	41,189	63,798	149,761	243,373	1.9	1.9	2.9	3.4
부산·경남권	395,343	500,423	613,685	726,987	18.2	18.2	18.5	18.7
대구·경북권	232,272	294,354	367,111	434,651	10.7	10.7	11.6	12.1
강원권	61,015	76,229	104,408	127,391	2.8	2.8	3.3	3.6
제주권	22,510	28,544	30,672	32,121	1.0	1.0	0.9	0.8
합계	2,167,805	2,741,502	3,325,462	3,895,821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유동탄지중화개발계획 수립연구, 1997.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선교통망의 결절지 · 국내외 교통접근성 용이 · 국제교류기반 활성화 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거점 기능의 취약 · 대전권의 배후지역 입지에 따른 통과지대 · 국토중심부 입지에 따른 환적비용증가 	
	강점 기회	약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시대의 도래 · 수도권 전철화의 확대 · 경비행기 시대의 도래 · 수송비용의 절감에 따른 물류입지선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설간의 네트워크 미구축 · 도시구조와 교통체계간 부조화 · 교통운영의 비효율성 · 인천공항 건설에 따른 청주공항 지원 미비 · SOC의 기반 미비 	

제2부 부문별 계획

2) 전략과제 도출

□ 국제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

- 청주국제공항을 동북아물류 전담공항으로 특화하는 한편, 공항을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등과 연계함으로써 국제물류센터로의 기능을 보강함.
- 정보화, 조직화, 대형화를 통한 국제물류환경에 적극 대처함.

□ 물류기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물류 네트워크 구축

- 정부축과 청주-충주축을 연결하는 중부권,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북부권,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가 연결되는 남부권에 지역특성을 살린 물류기지를 건설함.
-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환경친화형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함.

□ 기존 물류유통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지역 종합정보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를 활용한 인터넷서비스 기반을 구축함.
- 중기청 정보화지원단, 대학, IT업체를 통한 기업 정보화를 추진함.

3. 세부추진계획

1) 물류중심지 역할 강화

- 청주국제공항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화물터미널을 신축함으로써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수출의 진진기지로 육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공항활성화와 연계사업을 통한 수요창출에 기여함.
- 청주국제공항을 핵으로 주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집배송하며, 청주공항을 화물의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함.
- 신속 정확한 배송체계를 요하는 고 신선도의 청정농산물, 경박단소형 제품 등 항공물류 관련사업 자원체제를 구축함.

2) 권역별 물류시설 확충

□ 중부권 물류기지 건설

- 청원군 부용면에 건설중인 21만평 규모의 중부내륙화물기지는 막대한 양의

제2장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정인권·중부권 불동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불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북아 화물거점으로서의 청주국제공항과 충북선 전철화, 지역간 연결철도(성남~이천~충주~분경)의 추진을 통해 충북도의 불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 청주공단,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등에 산재해 있는 산업 불동량을 연결할 수 있는 불류시설 설치하고, 음성군 대소면 불류센터에 대한 계획을 감안하여 소규모 복합물류단지를 음성지역에 조성함.

□ 북부권 불류기지 건설

-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기대되는 제천지역의 공업화에 대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한 불류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중규모의 종합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함.
- 제천시에는 중앙고속도로와 국·지방도의 교통망체계를 활용한 농산물의 불동량 수급을 위해 도농통합형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을 시내주변 적정장소에 건설하여 생산 및 소비조절에 기여함.
- 충주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4축(안중~삼척)의 연결지대에 대규모 불류단지를 조성하여 중북부권의 불류집배송기능을 수행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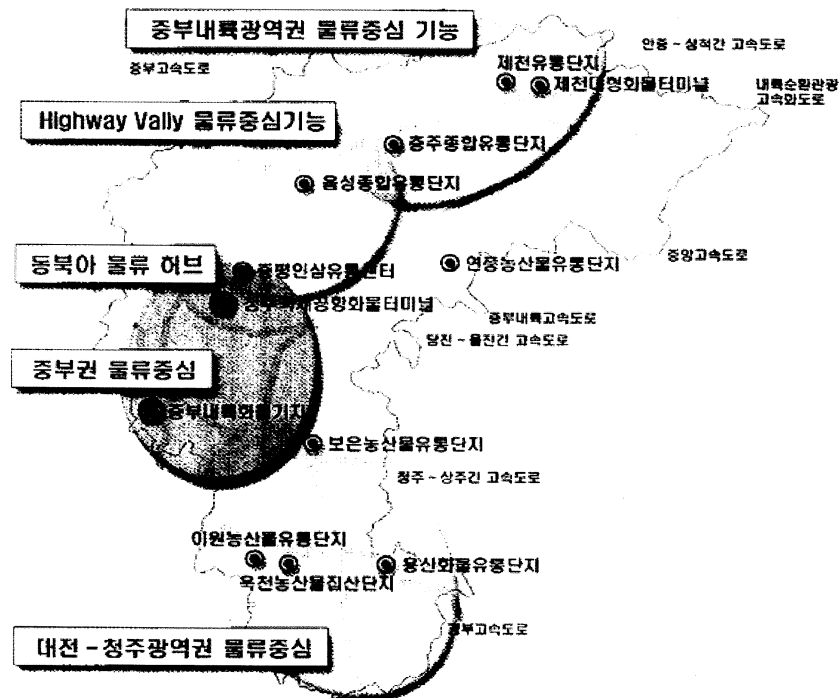
□ 남부권 불류계획

- 남부권은 육천과 영동축을 중심으로 대전권을 대비한 불류관리전략을 수립하며, 독자적인 중규모의 불류기능을 살려 지역내 농특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함.
- 특히 영동군의 대부분 지역은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에 피해가 적은 불류시설의 유치불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함.
-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지방도의 교통망체계를 활용하여 불류기지를 건설하며, 생산품의 직거래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킴.
- 남부권역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세계제일의 농특산품이 생산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특화상품유통 전담물류기지를 건설함.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2-13〉 권역별 유통단지 조성계획

구 분	규모(천평)	사업주체	사업기간	비고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복합화물터미널 + ICD)	210	민자유치	2001-2010	
충주 종합유통단지(충주)	200	외자/민자유치	2005-2010	
중평인삼유통센터(증평)	100	중앙정부 자치단체	2000-2004	
청주공항 화물청사(청원)	200	공항관리공단 (외자/민자유치)	2000-2004 2005-2010(확장)	
음성종합유통단지(음성)	80	토지공사	2000-2004 2005-2010(확장)	
연풍농산물 유통단지(괴산)	20	중앙정부 자치단체	2000-2004	
제천유통단지(봉양)	100	외자/민자유치	2005-2010	
제천대형화물터미널(제천)	30	외자/민자유치	2000-2004	
용산 화물유통단지(영동)	80	중앙정부 자치단체	2000-2004	
보은 농산물 유통단지(보은)	30	중앙정부 자치단체	2000-2004	
이원 농산물 유통단지(옥천)	30	중앙정부 자치단체	2000-2004	
옥천 농산물 집산단지(옥천)	20	중앙정부 자치단체	2001-2005	



〈그림 II-2-5〉 권역별 물류 계획

3) 물류시설 운영의 효율화

□ 기존 화물터미널 활성화 및 철도수송 기반 조성

- 배송, 창고기능 등 종합단지로서의 기능보강, 물류정보 교환 등 화물터미널 간의 연계성 강화 및 기업간 공동배송체제 구축을 통한 기존 화물터미널의 운영활성화 도모함.
- 철도 유휴시설부지를 활용한 기지 조성과 하역장비의 기계화를 통한 인력 하역 비용 절감을 이용하여 철도역 기능을 화물수송 위주로 개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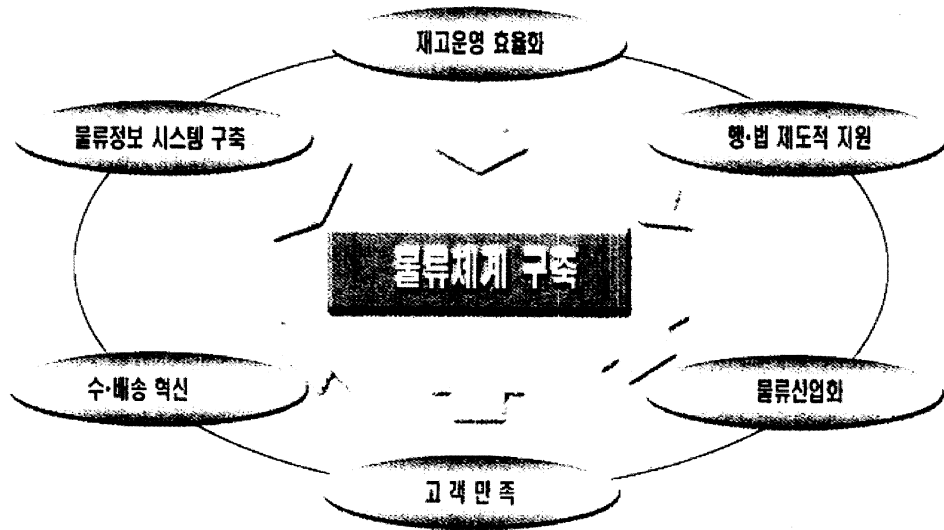
□ 창고시설의 확충 및 공동집배송단지 건설

- 휴폐업공단 및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부지원창고시설을 활용하여 역내생산품의 수출기지건설 및 역외유출의 진진기지화함으로써 지역내 공산품 및 농특산물의 수도권 및 대도시권으로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지역내 제조업체의 물류비용이 절감됨.
- 공단내에 다양한 기능의 물류시설이 입지함으로써 물류효율화 달성이 가능하고 기반시설 등의 완비에 따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단지운영방법은 (가칭)○○공단유통연합회 등 회원사들의 협의에 의해 운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함.
- 기존 중소영세 창고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유통단지건설 및 운영을 유도함.
 - 도심지역 창고시설의 외곽이전 추진
 - 냉동·냉장창고 등 고부가가치 창고시설 확충

□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

- 기업형 공동마케팅사업 추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개발을 통한 기술지원, 창업이나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지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함.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가 주축으로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정보 자료구축 및 검색, 거리·면적측정 등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제2부 부문별 계획



〈그림 11-2-6〉 물류체계 구축 개념도

제 2 편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제2편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제 3 장

- 제1절 전망 및 특성
-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 제3절 세부추진계획



제1절 전망 및 특성

1. 농업전망

□ 3차 기술혁명의 진전

- 현재 생명공학(Bio-tech), 전자공학, 정보기술 등 혁신기술이 주축이 된 제3차 농업기술혁명이 진전되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생명공학에 의해 품종과 번식혁신이 유발되고 있으며, 메카트로닉스와 신소재기술에 의해 농장자동화와 기계화, 시설화가 촉진되고 정보기술에 의해 재배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경영유통의 변혁이 촉발되고 있음.

□ 시장개방의 가속화

- WTO체제의 확산에 따라 농산물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고 각종 수입농산물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수입 및 가격이 불안정하게 되고 대부분 품목이 과잉국면에 접어들어 농가소득 증대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함.
- 이러한 WTO체제의 확산으로 각국의 농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강조

- 선진국에서는 시장개방과 가격지지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음. 즉 선진국 농정이 국경보호, 가격지지, 생산보조에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방식으로 선회하였음.
- 최근 들어서는 환경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친환경농업이 중시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확산되고 유기농산물 표시기준이 설정되는 등 친환경농업이 급속히 확산됨.

제2부 부문별 계획

2. 농업특성

- 지식기반1차산업의 경우 충북지역은 종사자 기준으로 전국대비 약1.4%로서 전국 대비 1차산업 점유율(2.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충북지역 전체 1차산업에서 지식기반 1차산업의 비중은 33.8%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 다소 미흡함.
- 충북지역 지식기반 1차산업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첨단작물(64.7%)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축산(25.7%)이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지식기반1차산업의 각 업종별 충북지역의 점유비중은 첨단영림(12.3%), 첨단작물(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3-1〉 충북지역의 지식기반1차산업 현황

구 분	1차산업 내 점유비(1)	지식기반 1차 산업 구성비(2)	지식기반 1차 산업 점유비(3)	전국지식기반 1차산업구성비
첨 단 작 물	21.9	64.7	2.3	40.9
첨 단 축 산	8.7	25.7	0.9	19.6
첨 단 영 림	2.9	8.6	12.3	1.0
첨 단 양 식 업	0.3	1.0	0.0	38.5
지 식 기 반 1차산업 계	33.8	100.0	1.4	100.0
1차산업 계	100.0	-	2.4	-

주 : (1)은 충북지역 1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는 충북지역 지식기반1차산업에서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3)은 전국지식기반1차산업에서 충북지역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전국지식기반1차산업구성비는 전국지식기반1차산업에서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사업제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8.

- 충북지역 지식기반1차산업은 지역의 경쟁요인 보다는 전국산업구조효과에 의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첨단영림업만이 특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업종별로 보면 첨단작물 중 작물생산관련서비스업, 첨단축산업 중 낙농·육우사육, 양돈·양계·가금부화축산업 등의 업종이 지역내에 특화되어 있음.

제3장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표 II-3-2〉 충북지역의 지식기반1차산업 특성

산업명	특화계수	변이할당분석(1995-1998)		
		산업구조 효 과	지역할당 효 과	순효과
첨단작물	0.93	476	-87	389
첨단축산	0.77	424	-31	393
첨단영립	5.05	-2	58	56
첨단양식업	0.02	25	-14	12
지식기반1차산업	0.59	826	-73	753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5, 1998년.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중심지에 입지(수도권 최접근성) ·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청정 이미지 · 풍부한 수자원으로 용수 풍부 · 역사문화자원 풍부 	강 점	약 점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다면적 기능증시 · 각종 고속도로의 개통 및 건설계획 · 도시민들의 관광수요증대 및 전원주택 선호 · 중국의 WTO가입으로 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면적, 경제력 등 도세가 약함 ·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아 개발제한 과다 · 소필지 분산으로 규모의 경영이 곤란 · 경지이용율이 낮고 연중생산곤란 기후조건 · 농산물 및 유통시장의 개방 · 수출입대체 농산물간의 경쟁격화 · 시장개방 및 확대에 따른 지역농산물 타격 · 도로 확장, 공장의 난립으로 인한 농지잠식 	

2. 전략과제 도출

□ 주곡안정 생산과 경쟁력 확보

- 주곡생산의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서 각종 개발 명목하에 농지전용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생산면적의 안정화를 촉진함.
- 생산단지를 규모화하고 품질고급화,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상품성 홍보를 강화하여 주곡생산의 안정화와 함께 경쟁력을 확보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

-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제 확립 및 품질향상, 신뢰도 증진을 위한 농산물품질인정제도를 구축함.
-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수요자 특성에 맞춘 농특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내수뿐 물론 세계수출시장을 향한 개방된 생산체제로 전환함.

□ 농업생산기반의 정비·확충

-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력의 정예화, 종자은행의 설치, 정보화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선진국형의 기반시설을 확충함.
-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의 분류유통의 현대화를 추진함.

□ 환경친화성 농업의 육성

-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농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여 저공해 농산물에 대한 수요 및 WTO체제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함.
-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함.

□ 고품질 지향의 축산·내수면 어업 추진

- 고품질 생산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축산물의 유통시장을 확대하고, 치어방류를 통한 어자원 조성 등 생태계보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권역별 광역 산림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21세기형 집단 생명·환경·산림산업을 육성함.

□ 생태 및 체험 관광농업 육성

- 차별화된 내륙순환관광벨트와 연계한 1차, 3차 복합형 산업을 육성하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휴양실버타운 조성 등을 통해 도농통합형 자연생태관광지구를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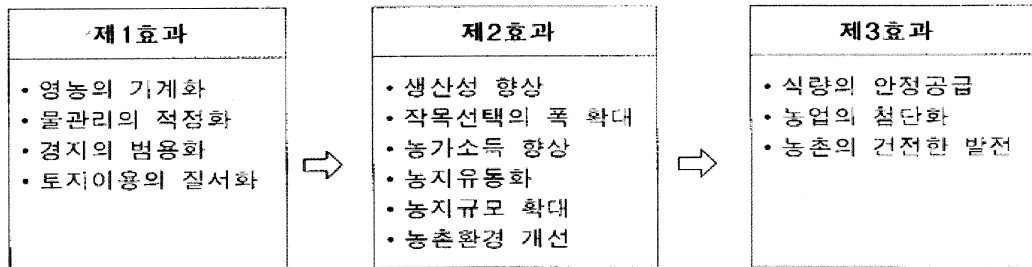
제3절 세부추진계획

1. 주곡안정 생산과 경쟁력 확보

□ 생산단지 규모화

- 지속적인 경지정리사업의 확대실시로 농지의 규격화 및 규모화하여 생산요소비용의 절감을 통한 쌀생산의 국제가격경쟁력을 확보함.
- 쌀생산 전업 농가당 5ha이상의 경지규모가 확보되어야 단위면적당 생산비가 크게 줄어들어 경영규모화를 이룰 수 있음.
- 농업진흥지역내 대단위 농경지 조성을 위한 확대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주요 농작업의 100% 기계화를 촉진함.
- 개발여건이 불리한 남부 3개군을 친환경농업지구로 특화·육성하기 위하여 원예분야, 특작분야, 산림분야 등 품목별로 과학영농특화지구(주산단지화)로 지정하여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표 II-3-3〉 농지기반정비의 효과



〈표 II-3-4〉 경지정리사업의 추진

구 분	사 업 내 용	대상면적(ha)
일반 경지정리	•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영농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용·배수로 시설의 정비로 관계 배수 체계의 개선	49,859
대구획경지정리	• 대형 농기계의 영농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과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도록 집단화 및 규모화	12,817
밭 기 반 정 리	• 현대화된 발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소득기반 구축과 농로, 용수이용시설 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	4,400

제2부 부문별 계획

□ 품질향상 및 상품성 홍보 강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의 끊임없는 개발과 과학영농기술의 보급으로 소비자
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무공해 쌀생산에 주력함.
- 생산·가공·유통의 일원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지
방정부 품질보증제도(예 : 진천특산기)를 확대 실시함.

□ 쌀 전업농 육성

- 쌀생산을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된 가족단위 전문경영농가 육성
- 신청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55세 이하인 농가, 최근 3년 이상 쌀
농사를 주업으로 한 농가
- 지원내용
 - 농지구입 : 1호당 10ha규모의 한도까지 지원가능, 평당 3만원기준 진흥지
역을 원칙(융자 90%, 자담 10%, 연리 4% 20년 균등상환)
 - 임대차 사업 : 임대자에게 ha당 258만원 소득이양보조금 지원후 별도 임
대자에게 임대료(200평당 쌀 80kg정도) 지급
 - 교환분합 : 농어촌진흥공사 사업과 농업인 당사자간 교환분합
 - 성립조건 : 경지정리, 간척지역, 수리시설 등의 청산관계와 농업인의 경
작자와 교방관계, 근로조건 등에서 발생
 - 청산금지원 : 연리 3% 10년간 균등분할 상환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 성립조건 : 호당 23,500천원
 - 대상농기계 : 트랙터, 콤팩트, 승용이앙기 등
 - 조건 : 융자 90%(국비 36%, 지방지 54%), 자부담 10%

□ 농가소득 안정

-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초생력·저비용 안전생산기술개
발과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소비성향의 보완 충족을 위한 쌀용도의 다양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쌀자급률 최대확보를 지향하기 위한 초다수성 쌀 품
종개발과 가공용, 공업용 등 쌀의 용도 다양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중
점을 둬.

□ 진천, 청원, 음성 등 미호천변 고품질 쌀의 타지역(여주, 이천 등) 유출 억제

- 고품질 쌀에 대해서는 RPC가 있는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단지, 품종, 가공

제3장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미호천쌀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여 민간을 통한 고품질 원료곡의 타지역 유출을 적극 억제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

- 쌀 브랜드의 축소 조정
 - 현재 충북지역에서 사용되는 51개 쌀 브랜드는 농협, RPC, 심지어 소규모 도정공장이나 정미소별로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국적인 유명브랜드로 발전시키기에는 개별 브랜드별로 불량이 부족하여 홍보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선 지역별로 농협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집중관리 및 홍보가 필요하며, 브랜드 및 디자인 평가연구를 실시하여 브랜드를 대폭 축소 조정함.
 - 성과가 높은 진천의 '생거진천쌀' 등은 고급미에 한해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유통과정을 차별화함.
- 포장디자인 개발
 - 현재 대량 유통되는 소비자 유통업체에서 충북 쌀의 디자인이 조잡하고 지역과 브랜드 이미지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브랜드명과 함께 포장디자인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작업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호감이 가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함.

□ RPC 추가 설치 및 건조·저장 시설 증설

- 생산량 대비 RPC 처리능력이 부족한 괴산군, 제천시, 단양군의 RPC 추가 설치 또는 건조·저장시설 증설 계획을 수립함.
- 생산량의 50%를 처리하기 위해 1,200톤 저장용량 기준으로 괴산군은 RPC 3.6개소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단양군은 생산량의 50%를 저장처리하기 위해 소형 RPC가 필요하나 어보다는 제천시의 RPC를 이용하되 건조·저장시설만 1개소 설치토록 함.

□ RPC 경영전문가 육성, 교육훈련

- 공매곡 매입, 처리 등 RPC 경영자의 전문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및 우수경영 RPC의 공매, 브랜드화, 판매전략 등에 대한 벤치마킹(전남 해남군 옥천농협 RPC 등)을 실시함.

2.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

□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

- 경제발전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자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무공해 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적합한 품목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고속도로 IC 부근(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괴산군, 청원군, 제천시 등)의 잠발달된 구릉지에 생산단지의 규모화를 통하여 국내 시장을 겨냥한 농산물을 생산함.
- 청주국제공항의 주변인 보강천(중평출장소)과 미호천(진천군, 청원군)변에는 농복아 등 국제 시장을 겨냥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함.
- 영동~보은~옥천지역을 잇는 과학영농특화지구인 대전·청주권 등 중부권 주요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적 생태농업지대로 육성함.
 - 남부지역 과학영농특화지구 중심지역인 옥천에 「아로마 치료」에 필수적인 원료로 이용되는 허브식물을 채집·육종·보급할 수 있는 『허브식물 연구소』를 설립함.
 - 허브식물 외에도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에서 의약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작약, 복단, 치자, 석류, 도라지 등 유용식물을 연구·보급함.
- 기존에 충북지역의 각 시·군별 특화작목들이 선정된 배경에는 이들 품목들이 해당 지역에 특화된데 있음. 이는 농산물이 지리적 여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특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새로운 특산품의 발굴·육성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선정된 특화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야말로 이들 품목들의 품질향상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도 제고 및 생산주체인 농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제3장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표 II-3-5〉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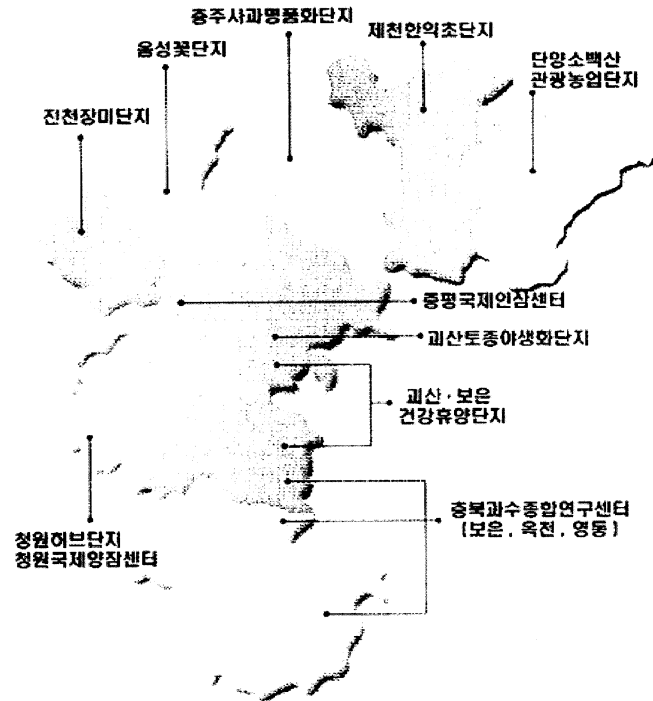
경쟁력 강화 방안	사업내용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향토색 짙은 작목의 품질차별화로 경쟁력 확보, 소득증대 및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지원 강화로 수출농업으로 육성 · 육성작목 : 19품목(시설채소, 고추, 마늘, 수박, 사과, 방, 복숭아, 배, 장미, 인삼, 약초, 생강, 버섯류, 관상어, 포도, 백합, 선인장, 양파, 표고)
지역산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표 및 포장재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 브랜드화와 포장디자인 제작 지원 ·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재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충북의 청정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는 대내외적 홍보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 대청댐, 소백, 월악, 속리산국립공원의 청풍명월 이미지 상품화 ·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농특산물 이벤트 개발 및 참여 ·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저공해 청정농산물 생산으로 차별화 추진
주산단지 중심의 특성화로 타지역과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성있는 주산단지 조성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 생산, 저장, 가공, 유통까지 특화생산을 통한 명품 명소화 실현 · 연구개발기능의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 촉진
주요 농특산물의 농산물품질인증제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품질인증 품목 우선 실시후 타 품목으로 확대 · 우수 농특산물 추천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구축 및 생산농가 소득보장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3-6〉 농산물 전문재배단지 조성 개요

구 분	내 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WTO 체제 : 식량자급전략 필요 · 소득 수준향상과 소비문화패턴 변화 :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필요
전 문 단 지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산간지역(제천, 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녹색관광 특화지역으로 집중 육성 - 특히 농산물 쇼핑관광코스를 집중 개발하여 운영하고, 소백산 관광 목장 및 관광농원과 제천 한약재단지를 집중 개발) · 중부구릉지역(충주, 음성, 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의 사과연구소와 생산농가를 연계하여 충주사과 명품화단지를 육성 - 인삼의 최대산지(음성, 괴산)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 권역의 중심이며 교통이 편리한 증평에 인삼종합센터를 조성(농림부의 인삼종합유통 센터 유치) - 괴산, 음성의 고추 주산지로서 명성 유지를 위해 양 지역을 연계한 각종 홍보사업 강화 - 잡곡(팥, 콩, 옥수수)과 특용작물(담배, 들깨, 참깨)의 주산지로서 이를 이용한 잡곡 소포장 상품 개발 및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가공공장 집중 지원 - 충주의 역사문화 유적과 괴산의 청정산품을 연계한 농산물쇼핑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농원과 민박단지 개발, 음성의 주말농원 개발 · 서부평야지역(진천, 청주, 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 수도권과 가깝고 권역내 대소비자인 청주를 주소비처로 하는 시설원에단지 조성 확대(진천 화훼단지, 청원 시설채소단지) · 남부중간지역(보은, 옥천, 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산업 중 농업관련 생물산업의 일차적인 파급수용지대 -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는 특화작목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한 저공해 청정농산물 생산지대 및 공동브랜드 상표개발 등 명품화(삼승 : 사과, 탄부 : 시설채소, 회북 : 대추, 동이 : 포도, 이원 : 과수묘목, 학산 : 포도, 영동 : 배·표고, 심천 : 시설채소 등) - 친환경적 청정농업지대와 관광산업 연계화 촉진(녹색관광농업 개발)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생산의 차별화 : 국내 시장용과 해외 시장 수출용 차별 생산 · 지역적 차별화 : 집중적인 정책지원 차별화 용이 ·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 친환경 영농의 확대 · 도직영 영농회사 : 과학영농의 현장 견학습득 등 교육홍보 효과

제3장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그림 II-3-1〉 특화단지 조성계획

□ 수출산업화의 촉진

- WTO시대는 농업의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지므로 충북지역은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의 풍부한 시장을 겨냥해 고급화·다양화된 농작물을 생산하는 고급 작물단지를 조성하여야 함.
- 청주국제공항 부근에 농산물수출입 집배송센터를 설립하여 충북은 물론 전국수출농업의 전진기지화 역할을 함.
- 이는 충북 농업유통의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수출 및 유통과정에서 파생되는 연관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농업기술원, 농업관련연구소 및 산업단지간 연계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
 - 생산과 연구·가공 등 1+2전략의 추진을 통한 다양한 식품개발로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새로운 시장수요에 적극 대처함.
 - 1·2차 산업의 산업연관효과 증대를 통한 관련산업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3-7〉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대상품목

농산물가공 산업 육성	육성대상품목
농산물가공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가공품의 특화개발(정력제, 미용제, 장수제 등 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천 포도주스→인삼+포도주스 - 영동 감식초→허브+감식초(여성용) - 보은 대추음료→인삼+대추음료 - 진천 도두음료→작두콩+현미+황정 덕산 천연주 등 · 개발된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 육성
일본수출 주력품목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들의 기호에 맞는 가공식품 집중개발(돼지고기, 표고 등) · 수출품의 고유브랜드화로 중복상품의 고급화, 차별화 추진 · 농산물 생산 수출농가의 품질개선 및 수출마인드 교육강화
농특산품의 세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제 식품 품평회 출품·출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천 포도주, 제천 고분주, 영동 감식초 등 - 세계적인 품질로 공인(금상, 은상 수상 등) 받도록 행·재정 지원 · 각종 국제식품박람회에 적극 참여 수출증대에 기여

○ 수출전략거점단지 조성

- 10대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세계 기호에 맞는 농특산물 생산단지 조성
과 내수 위주의 폐쇄농업을 열린 세계수출시장을 향한 개방된 생산 체계로 전환
- 최첨단 농업시설, 주산단지 중심으로 수출단지 지정 : 화훼, 시설채소, 관상어, 과수단지 등
- 주산단지별 기술진단 지도사 배치, 재배기술·유통관리 지도
- 대학교의 지역농업협력교수단과 단지별 자매결연(1단지 1교수)
- 지방비 지원과 농가부담으로 수출농업육성기금을 확보하여 수출가격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

○ 농산물 수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오파 개실 노하우를 가진 주요 수출업체와 도내 주요 작목반 대표의 만남의 장을 정기적으로 주선
- 국내 전문 수출업체 초청 「팜투어(Farm Tour)」 실시
- 수출가능 품목에 대한 작목반별 생산동향 D/B화 실시
- 주요 수출전략 품목 「카탈로그」 제작·배포 등

○ 농업인의 수출마인드 확산

- 수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농업인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와 수출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협력사업 추진으로 효과 배가

제3장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농업인 수출마인드 고취로 영농방향 전환
- 농특산물 수출업체와 농업인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수출 주산단지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농특산품 해외 시장 개척
 - 외화 가치가 높은 농특산품의 국내위주 시장을 해외로 확대 유도하며, 생산자 및 수출업체와 유관기관 단체의 수출시장 공동개척으로 효과 극대화
 - 농특산물 위주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일본, 미국
 - 바이어 상담 수출계약서 현지 실태조사를 위한 해외수출 전진기지의 타당성 조사
 - 국제식품박람회 생산업체 참가로 바이어를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확대
 - 우편주문 판매제도(Mail Order System)를 활용한 국내 가공 농특산품의 시장개척
- 외부 전문가 영입 수출컨설팅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무역업무 미숙에 따른 보완책 강구
 - 은행, 수출업체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행한 잉여 인력 중 외국어에 능통한 수출업무 전문가 및 수출업자 자문관 운영
 - 임무 및 역할
 - 농특산물 수출에 대한 외국의 시장정보 수집·전파
 - 수출에 따른 규격품, 포장, 수출보험, 검역 등에 대한 컨설팅
 - 해외시장개척 및 신용장 개설 등 수출업무 컨설팅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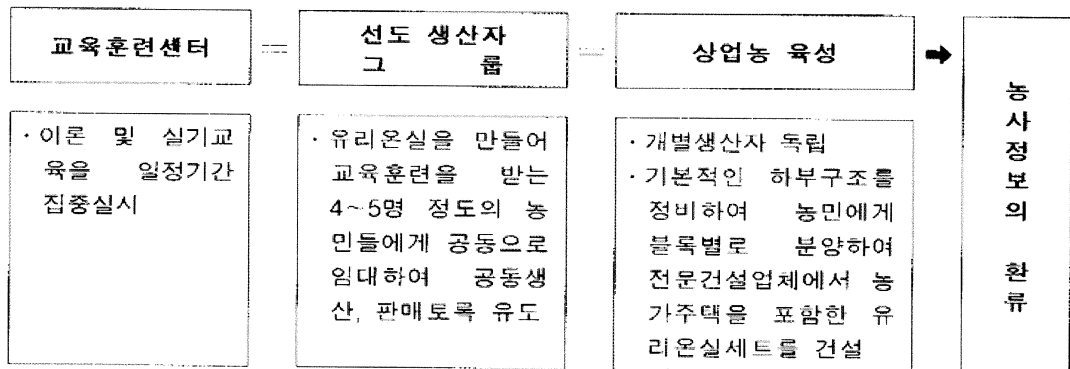
□ 기술집약적 산업화

- 관련기술의 농업에의 접목 및 기술집약적 농업으로의 발전
 - 기존 농업기술의 한계성을 탈피하고 과학농업의 입자구축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예측 가능한 기술농업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자, 정보, 기계, 화학 등 주변 관련기술의 농업에의 접목활용연구는 현장의 초기연구단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함.
 - 작목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경우 집단화와 규모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시설자동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현재의 노동집약적 형태에서 자본집약적 나아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농업생산의 공장화 단계로 진입하여야 함.
- 환경농업을 통한 안전성과 품질규격화로 고급화 촉진
 -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품질 및 판매방법 표시

제2부 부문별 계획 ■■■

- 산지에서 소분포장(300~500g)후 상자단위로 판매처에 공급
-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및 판매상 확충으로 유통활성화
- 품목별 전문작목반을 육성하여 생산성 및 상품성 제고
 - 주산지역의 전업농을 주축으로 전문작목반 육성
 - 품목별 전남지도사를 지정하여 기술지도 및 품질관리
- 지역별 향토색 있는 특화작목의 명품화 실현
 - 지역 기후와 여건에 맞는 품종 발굴 및 육성
 - 상품성이 뛰어난 토종 및 우량신품종 단지 조성

〈표 II-3-8〉 단계별 시설농업기술 확대 개념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확충

□ 농업생산기반의 조성

- 선진국형의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비사업 지속추진,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상습침수지역의 획기적인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우량농지의 보전
 - 전 지구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상이변 등에 대비해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주곡의 자급기반을 확충함.
 - 전략적인 농업육성지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해당지역에서의 농경지 잠식과 전용을 억제할 수 있는 차별화 관리시스템을 도입함.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지역개발관련 사업시 각 시·군에서 종합적인 지역관리체계의 구축하에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제3장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표 II-3-9〉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일 반 경지정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영농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용·배수로 시설의 정비로 관계배수체계 개선
대 구 획 경지정리	대형 농기계의 영농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및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도록 집단화 및 규모화
발 기 반 정 비	현대화된 발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소득기반 구축과 농로, 용수이용시설 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

〈표 II-3-10〉 농업·농촌용수개발사업

구분	사 업 내 용
대·중규모 용수개발	· 수혜면적 50ha이상의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 농촌용수 확보 및 원활한 공급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을 우선개발
지표수보강 개발	·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 조성
수리시설 개보수	· 농업용 수리시설로서 노후 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보수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고 흠수로를 구조물화

〈표 II-3-11〉 배수개선사업

구분	사 업 내 용
배수개선	·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 수렁농 또는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작업 환경 및 작물재배 토양 환경을 개선 ·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지역을 우선개발

□ 생산지원기반의 구축

○ 농업인력의 정예화

- 기술중심의 농업시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의 정예화가 불가피하며 농업을 전문지식과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전담할 수 있는 귀족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기업농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모험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에 인큐베이터 개념을 도입하여야 함.
 - 농업기술원과 농협연수원 등을 연계한 전문농업교육의 실시로 각 특화작목 생산자 조직원과 전업농들에게 교육기능은 물론 관련 국내외 동향정보자료를 제공함.
 - 농업기술원과 농촌지도소 및 성공한 생산자 조직원 등과 같은 농업전문 기술자를 활용하여 농업부문 전반의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고급기술 집약적 농업으로 유도함.
 - 농촌기업가 양성시스템을 확충하고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업경영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창업여건을 향상시킴.
- 특성화대학 지원
- 지역여건에 알맞은 농업개발과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역 농업인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강화함.
 - 지원대상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 사업비 : 국고보조
 - 사업내용 : 농업과학기술센터 신축
- 종자은행의 설치운영
- 평상시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필요할 때 인출하여 사용하듯 동식물의 종자를 맡겼다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제도로서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책화된 사업
 - 농작물종자은행의 설치

목 적	유전자원의 수집 보전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작물 또는 신품종 개발시 육종재료로 활용
대 상	국내외 유망 유전자원 수집 - 종자번식작물 : 244종(주곡작물 164, 유료작물 23, 기타작물 57) - 영양채 번식작물 : 380종(양념채소류 260, 기타작물 120)

- 동물유전자은행의 설치

목 적	가축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체계 확립과 유전적 다양성 보존 및 재래가축 등 멸종위기 동물 품종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존
대 상	생식세포(수정란, 정자, 난자)및 생체로 다루어지는 대상동물 - 토종가축 : 토종한우(흰소, 흑소), 토종돼지, 토종닭, 오골계, 토종견 - 우량가축 : 한우, 돼지, 흑염소, 사슴, 닭, 도끼 - 야생동물

제3장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식물 종자은행 운영
 - 토내 희귀종, 천연기념수, 야생화초류 등 향토 우수유전자를 보존하여 연구사업 활용과 토민 필요시 제공
 - 향토 우량수종 등의 유전자 체계적 수집
 - 새로운 품종으로 육종할 수 있는 품종을 우선 수집
 - 토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수 품종 위탁관리
- 정보화사업의 추진
 - 지역농업 관련 DB를 구축하여 민·관·학·연의 합동 정보제공으로 영농 의사결정에 기여하며 농산물 유통체계의 간소화와 농산물 직거래 체계의 구축 및 농업예측을 통한 주요품목의 계획생산을 유도하는 등 각종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
 - 농업정책 입안·기획·집행단계에 농업인, 농업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열린 농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농업정보화, 수출농업, 유통혁신방안 등을 협의하며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농민회 등 각종 농민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
 -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정보통신용 모델 공급
 - 농산물 전자판매를 위한 「CAPECS」 시스템 개선 운영
 - 농업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확대
 - 농립수산정보망(Affis)활용 극대화

□ 유통물류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 농산물도매센터를 청주·충주·제천 등 도시지역에 설치하며 대형화되어 가는 종합유통센터와 생산자단체간 계약재배 등 확대·추진
 - 농산물의 계절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집배송센터를 고속도로IC와 주요도로 등이 교차하는 주변 농산물 집산지과 대도시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하여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로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실질적 이익 보장
 -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국제시장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배후지역에 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의 집산지가 있는 지역에 복합화물터미널을 조성하여 산지와 국제소비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국제화 촉진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3-12〉 농산물 유통시설의 단계화

도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농특산물을 집하·배송할 수 있는 집배송센터 건립 · 상업적 유통기능 : 상품의 매입, 전시, 상담, 판매기능 · 물적 유통기능 : 하역, 운송, 보관, 가공, 검품기능 · 도매센터 입지후보지 : 청주, 충주, 제천 등의 도시지역 · 생산자단체와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유통전문업체 유치를 통해 유통단계를 대폭 개선
집배송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와 국도 등 주요교통시설 연결지에 물류센터를 건설 · 입지선정 기준 : 고속도로 IC 등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주변 농특산물 집산지와 대도시 연계가 용이 · 농산물 산지와 소비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생산 농가 및 소비자 보호
복합화물터미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국제공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유치 · 입지선정 기준 :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국제시장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배후지역에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의 집산지 · 대상후보지역 :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 · 생산지와 국제소비지를 직접 연결하여 지역 농산물의 국제화 유도

○ 도농간 자매결연의 확대

- 도시소비자 단체와 인적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도 ·농간 화합과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신뢰성 구축
- 최근에는 직거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 생산자 단체와 아파트부녀회 등과 자매결연 촉진

○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 확대

-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기에 납품하는 프로의식을 함양
- 유통업체, 백화점, 호텔 등 대량소비업소와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 농특산품의 홍보확대

- 우리지역의 특화품목을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TV등과 같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광고의 세련미는 지역특산품의 품질과 직결된다고 소비자들이 인식함.
-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한 판로확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들 시장수요를 파악하여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제3장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충북쌀의 이미지(CIP)제고로 상품성 강화
 -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가족농을 계열화하여 품질향상 도모
 -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계약재배, 공동브랜드 활용 및 판촉활동 전개
- 농특산물 축제의 대중화 실현
 - 개별 농산물 축제
 - 충주 사과축제 · 청원 허브축제 · 보은 대추축제 · 진천 덕산 수박축제 · 음성 고추축제 · 음성 비백 복숭아축제 · 증평 인삼축제 · 옥천 보복축제
 - 향토문화제 / 축제 이벤트
 - 옥천 증봉충원제 /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영동 난계국악축제 / 감아가씨 선발대회, 괴산문화제 /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단양 소백산절쫄쫄제 /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증평문화제 / 인삼아가씨 선발대회
- 전국적 · 세계적 농특산물축제 개발
 - 전국단위 또는 세계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축제 개발 육성
 - ※ 개발가능축제 ⇒ 진천장미축제, 충주사과축제, 진천관상어축제, 괴산송이축제, 증평인삼축제, 옥천보복축제 등
 - 먹거리 + 볼거리 + 놀거리 등 이벤트 개발(자두씨 밀리 댄스 등)
 -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시군 단위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축제에서 충북특산품을 대표하는 산지 중심의 세계적인 축제로 전환 :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상징(emblem), 캐릭터 상품 개발
 - 도내 우수 농특산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 판매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하여 우리농산물 애용의식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대도시 소비자에대한 충청북도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확대 계기 마련
 -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 농산물 전자상거래 실시
 - 지역생산품의 홍보 · 판매망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새로운 쇼핑문화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제강
 - 가상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유통효율의 극대화
 - 생산자단체 및 민간유통업체,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주문판매, 텔레마케팅을 통한 소비자와 직거래 확대

제2부 부문별 계획 ■

4. 환경친화성 농업의 육성

□ 환경농업기반의 구축

-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일반 소비자들은 무농약, 무비료로 키운 다량종 소량의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WTO체제에 따른 외국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무공해 농산물이면서도 토속적인 우리의 전통식생활 문화와 일치하는 전통식품의 개발이 시급함.
- 농산물부문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의 개발·보급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판매량의 지속적인 확대를 유도하여야 함.

□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

- 농업생산기반 보존과 자연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농업의 지속성 구현과 쾌적한 농업생산환경 제공을 위해 농업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건실한 자원절약형 농업기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표 II-3-13〉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 세부추진내용

분 야	중장기 세부추진내용
농업환경변동 모니터링	· 토양환경 변동(4년주기) 및 농업용수 수질(2년주기)조사
환경오염대책 기준설정	· 오염원별 피해특성 규명 · 피해대책기술 개발
유기성폐기물 활용기술개발	· 폐기물자원화 기술개발 및 폐기물 사용기준설정
토양지원종합 관리기술개발	·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과학적 시비추천
환경보전형 기술 확립	· 유기물 등 미생물 활용농업기술 개발 ·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의 정화능력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 -정화 효율 제고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 작물양분종합관리(INM)시스템 기술실천(비료사용량 감축)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 IPM 모델개발 · 병해충 생력방제 연구등
식물생태 및 토양연구	· 환경변화에 따른 식물상 변동 연구 · 환경지표 생물을 활용한 농업생태 환경평가 시스템 개발
농업환경 정보화	·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정보 DB구축 · 농업환경 종합영향평가시스템 개발
농업기상 연구	· 작물종합관리를 위한 농업기상정보 분석 ·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농업기상재해 예측시스템 개발
환경보전형 농업현장 연구	· 유형별 환경보전형 농업기술보완

제3장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친환경농업정책의 추진

-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 농약·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쌀을 생산 토록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
 - 마을 단위로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친환경 벼 재배기술을 집중·지원하여 환경농업 실천능력을 배양
 - 시범마을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환경농업 확산 도모
 - 마을별로 전담지도팀을 구성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을 집중 지원
 -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병행 추진
- 친환경농업의 직접지불제 확대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장려
 - 개별 농업인보다는 생산자조직 우선 지원
 - 법적 근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
 - 대상지역 : 환경규제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 대상작목 : 벼, 채소, 과수, 기타작목 등 4종류, 향후 기타작목에 확대 실시
 - 대상자 의무
 - 친환경농업 이행을 위한 영농지도 교육의 이수
 - 농약 및 비료사용대장의 기록 등
- 환경농업 교육장 설치
 - 환경농업의 과학적인 접근과 농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농업인 홍보 및 교육장 설치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보전에 기여
 - 사업대상자 선정 : 환경농업을 연구·실천하는 홀산립연구소와 연계
 - 지원내용 : 환경농업교육관 등을 설치하여 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
- 기타 : 친환경가족농 단지조성 및 운영,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 기술 및 시책 확대개발

5. 고품질 지향의 축산 및 내수면 어업 추진

□ 고품질 지향의 축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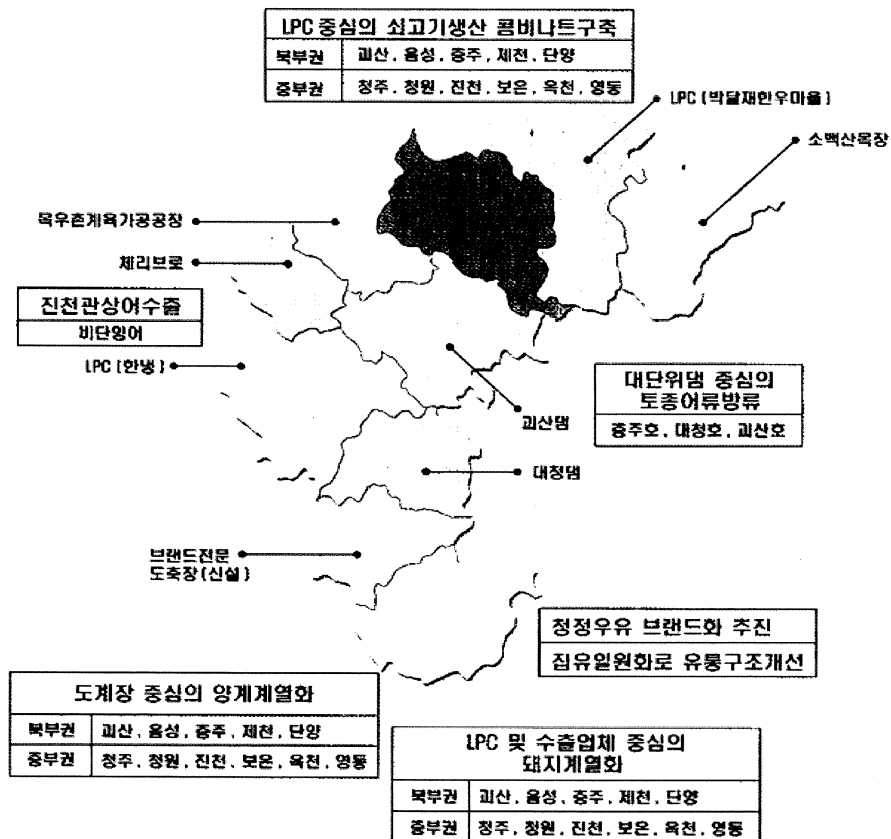
- 고품질 지향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는 고품질 생산기술의 개발·보급과 함께 조사료 다량 급여 및 종축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통단계에서는 생산된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냉장유통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고, 위생적인 생산을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체도를 도입하여야 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고급육 전문도축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분류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품질유지 제고와 유통채널도 다양화함으로써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하고 소비 단계에서는 기업적 판매개념을 도입하고 적거래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임.

〈표 II-3-14〉 고품질 축산업 육성 방안

축산업	육성 방안
한육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중심의 쇠고기 생산 콤비나트 구축 · 번식지대와 비육지대 구분 육성 · 브랜드전문 도축가공장 육성 설치
낙농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 생산지원, 집유 일원화체계 구축 · 소비지 공동배송체계 구축 · 청정이미지의 우유브랜드화 및 생산기술 보급
양돈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사육두수의 조절, 단계별 우수도축공장의 건설 ·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한 양돈 단지화 추진
양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육가공 공장을 이용한 양계산업의 진흥, 물류센터 건설 · 조합과 민간의 완전계열화로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브랜드 육성 및 수출 촉진



〈그림 II-3-2〉 축산업 육성 방안

□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추진

- 내수면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댐자원을 이용한 수자원 조성과 치어 방류, 수정란 이식, 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어자원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종어종의 보존 및 방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르는 어업육성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전문어업인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양식어종 연구로 신소득원을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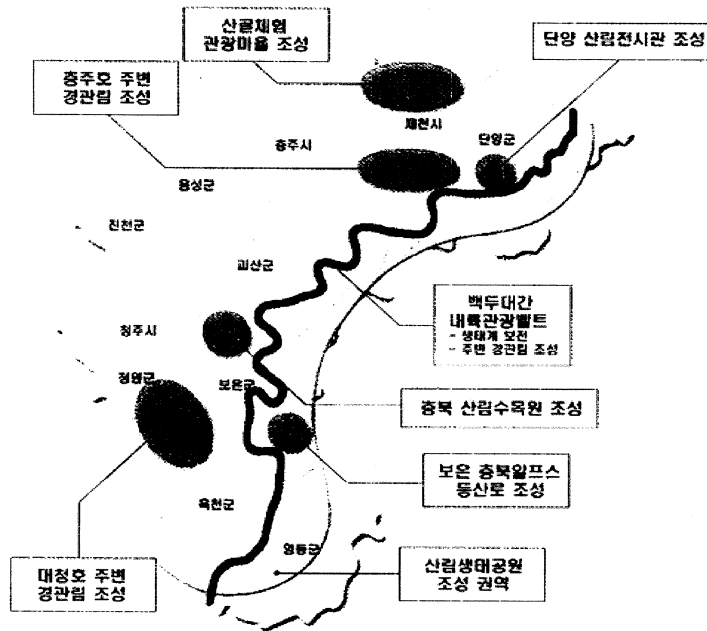
6. 산림의 생태공원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백두대간의 중심지대로서 관광, 문화자원과 다양한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충북임업의 특성과 이점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CIP개념에 입각한 권역별 광역 산림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함.

〈표 II-3-15〉 산림의 생태공원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방안

구 분	방 안
CIP개념에 의한 산림생태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산림생태공원 조성권역의 지정과 계획 수립 • 백두대간 내륙순환관광벨트 주변 생태계보전 및 경관림 조성 • 대청호, 충주호 주변 수변 풍치 및 경관림 조성 • 충북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 충북 북부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 자연학습 및 산림전시관 조성 • 충북 알프스 등산로와 연계한 산촌 진흥 및 소득화
생태계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유지·보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 생태적으로 건전한 보속(保續)생산형 산림생산구조 정비 • 산림생물 유전자원 보전과 우량종묘 공급기반 조성 • 과학적인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첨단 산림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공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기반 구축 • 사유림의 경영기반 조성과 협업경영의 활성화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임산물 소득증대 • 농림축산 혼합 산림농업 육성과 주민소득증대 • 21세기형 첨단 생명·환경·산림산업 육성

제2부 부문별 계획



〈그림 II-3-3〉 산림생태공원 조성

7. 생태 · 체험관광농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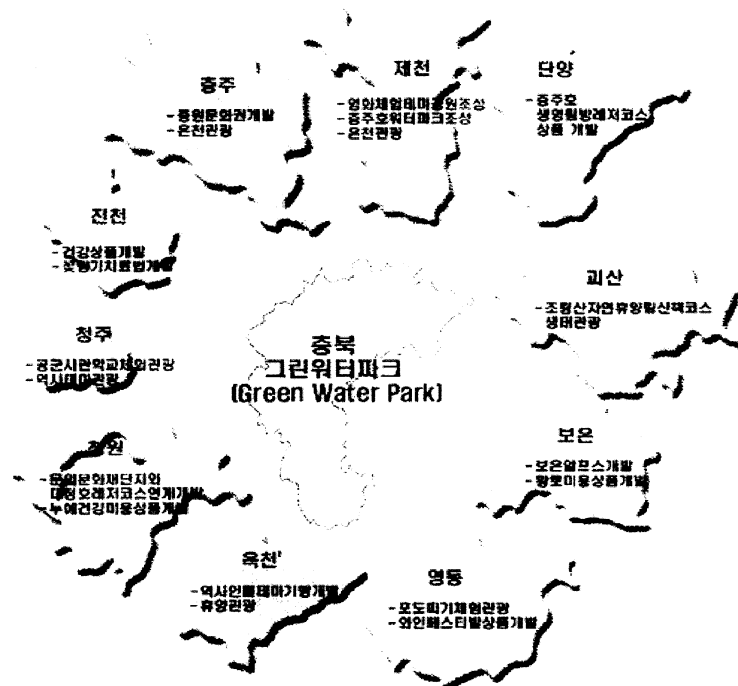
-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내륙순환관광벨트와 연계한 1+3차 산업을 육성하고 각 관광벨트별 지역적 특성과 특산품을 연계 · 판매함은 물론, 지역문화 이벤트 행사와 지역특산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이벤트를 추진함.
- 전원휴양단지, 21C형 종합관광농원, 주말체험농장의 확대 등을 통하여 도시민들에게 전원적 분위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제공함.
-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농촌과 도시지역이 일체라는 공동체 의식이 고취 될 수 있음.
- 자연생태 관광지구 : 전원주택단지 조성, 휴양실버타운 조성, 전문 동호인촌 조성
 - 민박마을 조성

구 분	내 용
목 적	· 농촌의 빼어난 자연경관지역에 민박 수요의 충족 및 도시 · 농촌간 교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지원대상	· 민박을 목적으로 하고 마을당 5호 이상 농가 참여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국고 용자 및 자담(용자 70% 자담 30%) · 지원내용 : 주택 개보수

제3장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녹색관광(Green Tour) 프로그램 개발

구 분	내 용
목 적	· 농업적인 유인요소(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쉼터)를 활용하여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킨 새로운 농업상품으로 개발·육성
대상품목	· 4개 분야(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쉼터 등)
개발유형	· 5종(체험형, 구매형, 휴양형, 식도락형, 종합형 등)
개발방법	· 농업관련시설과 관광지를 접목하여 명소화
지정관리	· 지역대표성이 있고 명성이 높은 우수사업장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관심유발 이벤트 행사 추진
지원대상	· 자기소유 토지에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로서 3호 이상 농가 공동참여 ·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국고용자 및 자담(용자 70%, 자담 30%) · 지원내용 : 농장조성, 숙박 및 편의시설



〈그림 Ⅱ-3-4〉 그린워터파크 구상도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3-16〉 농업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 및 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주곡안정 생산과 경쟁력 확보	생산단지의 규모화	· 우량농지보전,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밭기반정비
	품질향상 및 홍보	· 농기계구입지원확대, 신품종개발,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유통차별화
	농가소득안정	· 쌀용도의 고급·다양화, rpc 설치확대 및 전문가양성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	·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 조성, 공동브랜드, 대외적인 홍보전략, 품질인증제 확대
	수출산업화의 촉진	· 수출전략거점단지 조성, 수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수출마인드화, 해외시장개척
	기술집약적 산업화	· 농업기술의 개발 상용화, 시설자동화사업, 전문작목반 육성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확충	생산지원기반의 조성	· 농업인력의 정예화, 특성화대학지원, 종자은행 운영확대, 농업정보화사업
	유통물류시설의 확충	· 농산물도매센터 확대, 도농간자매결연 확대, 직거래 확대, 농산물유통시설의 단계화
	농특산품의 홍보확대	· 공동브랜드 확대, 농특산물축제의 대중화, 농산물전자상거래
환경친화성 농업의 육성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	· 친환경농업신기술의 개발, 농업환경변동 모니터링, 토양자원종합관리기술 개발, 식물생태 및 토양연구, 농업환경 정보화
	친환경농업정책의 추진	·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육성, 직접지불제 확대, 환경농업 교육장 설치
고품질지향의 축산·내수면 어업 추진	축산업의 육성	· 쇠고기생산 콤비나트 구축, 브랜드전문 도축기공장 설치
	내수면 어업 활성화	· 토종어종 방류로 자연생태계 보존, 전문어업인 육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 산림생태공원 조성, 산림생산 유전자 보전, 생명·환경·산림산업 육성
생태 및 체험 관광농업 육성	자연생태관광지 개발	· 전원휴양단지, 종합관광농원, 주말체험농장, 민박마을
	자연휴양단지 조성	· 전원주택단지, 휴양실버타운, 전문동호인촌

제2편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충북 건설

제 4 장

제1절 전망 및 특성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제3절 세부추진계획

제4장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중복 건설

제1절 전망 및 특성

1. 산업전망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을 새롭게 개편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기술의 도입은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원으로서 개인, 기업, 산업,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에의 기여도가 매우 큼.
-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 노동과 자본 같은 물질 생산요소 보다는 지식이라는 생산요소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라고 함.
- 지식이란 인간에 체화된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습득되어진 경험이나 노하우 등과 같은 실용적인 기술·지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식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라 하고 있음.

□ 지식기반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지식기반산업이란 시장수요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융합이라는 즉 지식의 적극적인 활용에 기반을 둔 산업을 말한다.
- OECD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또는 새로운 기술의 투입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정의하고 R&D 활동이 활발하거나 지식기반경제가 대두하게 된 핵심기반기술로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또는 정보통신기술이 체화된 제품의 투입비중이 높거나 고숙련 인력의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제2부 부문별 계획 ■

2. 산업특성

1) 제조업

-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제조업을 살펴보면 전국의 지식기반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 기준으로 약 3.4%로 충북의 전국 대비 제조업 점유율(3.4%)과 같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충북지역 전체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8%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상당수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II-4-1〉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제조업 현황

구 분	제조업내 점유비	지식기반 제조업 구성비	지식기반 제조업 점유비	전국지식기반 제조업구성비
정밀화학	8.6	18.0	8.6	11.0
메카트로닉스	5.5	11.5	3.7	16.3
전자정보통신기기	16.7	34.9	6.8	27.1
정밀기기	2.8	5.9	5.3	5.8
우주항공	-	-	-	0.7
생물	2.5	5.2	4.2	6.5
신소재	9.9	20.7	4.1	26.7
원자력	0.0	0.0	0.6	0.2
환경	1.8	3.8	0.6	5.7
지식기반제조업계	47.8	100.0	3.4	100.0
충북 제조업 계	100.0	-	3.4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8.

- 충북지역 지식기반제조업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전자정보통신기기(34.9%)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소재(20.7%), 정밀화학(18.0%), 메카트로닉스(11.5%)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갖고 있음.
- 각 업종별 전국 지식기반제조업에서 충북지역 지식기반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밀화학(8.6%), 전자정보통신기기(6.8%), 정밀기기(5.3%), 생물(4.2%), 신소재(4.1%), 메카트로닉스(3.7%) 등의 순으로 충북지역 지식기반제조업 전국점유비중(3.4%)보다 높게 나타남.
- 충북지역 지식기반제조업의 특화계수는 1.34이고 변이할당분석 결과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등 지역의 주력산업으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업종별로는 정밀화학,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산업 등의 특화도가 높고, 이 중 신소재산업을 제외하고는 변이할당분석결과도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및 순효과 모두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식기반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음.

제4장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신진중흥 건설

〈표 II-4-2〉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제조업 특성

산 업 명	특화계수	변이할당분석(1995-1998)		
		산업구조 효 과	지역할당 효 과	순효과
정밀화학	2.54	539	2,185	2,724
메카트로닉스	0.65	-440	-480	-920
전자정보통신기기	1.69	1,911	1,620	3,531
정밀기기	1.57	159	2,208	2,367
우주항공	0.00	0	0	0
생물	1.24	55	624	679
신소재	1.20	282	-2,046	-1764
원자력	0.00	-5	-13	-18
환 경	1.02	188	664	852
지식기반제조업계	1.34	1,969	4,147	6,11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5, 1998.

2) 서비스업

-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살펴보면 전국의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 기준으로 약 2.8%로 충북의 전국 대비 전체 서비스업 점유율(2.9%)에 비하여 다소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하여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비효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표 II-4-3〉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구 분	서비스업내 점 유 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구 성 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점 유 비	전 국 지식기반 서비스업 구 성 비
정보통신서비스	0.7	2.8	2.6	3.1
금융·보험	7.0	27.7	2.9	27.2
소프트웨어	0.1	0.4	0.3	2.3
데이터베이스	0.0	0.0	0.6	0.0
컨설팅	0.5	2.0	1.5	3.4
엔지니어링·연구개발	1.1	4.3	1.9	6.9
광고	0.2	0.8	2.0	1.1
산업디자인	0.0	0.0	0.7	0.0
교육서비스	10.3	40.7	3.6	31.8
의료	3.0	11.8	2.7	12.3
방송	0.3	1.2	2.9	1.2
문화산업	2.1	8.3	2.2	10.7
지식기반서비스업계	25.3	100.0	2.8	100.0
충북 서비스업계	100.0	-	2.9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8.

제2부 부문별 계획

- 충북지역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교육서비스업(40.7%)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보험(27.7%), 의료(11.8%), 문화산업(8.3%)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각 업종별 전국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충북지역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교육서비스(3.6%), 금융·보험(2.9%), 방송(2.9%) 등의 업종이 충북지역 지식기반서비스업 전국점유비중(2.8%)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충북지역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성은 특화계수가 0.97이나 변이할당분석결과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어 최근 들어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지역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산업디자인과 교육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 등이 특화도가 높으면서도 변이할당분석결과 플러스로 나타나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광고, 의료 등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음.

〈표 II-4-4〉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특성

산 업 명	특화계수	변이할당분석(1995-1998)		
		산업구조 효 과	지역할당 효 과	순효과
정보통신서비스	0.89	524	-75	450
금융·보험	0.99	-130	11,629	11,499
소프트웨어	0.09	88	-31	57
데이터베이스	0.21	-16	-28	-44
컨설팅	0.51	130	124	253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0.65	-64	508	444
광고	0.68	-85	98	12
산업디자인	4.02	-10	350	340
교육서비스	1.23	984	-18	966
의료	0.94	1,294	1,667	2,961
방 송	0.99	106	-4	102
문화산업	0.76	193	-854	-661
지식기반서비스업 계	0.97	2,452	13,366	15,819

자료 : 통계청, 사업재기조통개조사보고서, 1995, 1998.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적 여건 양호 · 청주국제공항 역할 증대 · 전문인력의 확보 용이 · 양호한 산업집적기반 조성 	강 점	약 점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고급교통체계 확충 ·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 · 국제교류기반의 확대 · 수도권의 지속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산업연계 미흡 · 지식기반지원체계의 취약 · 인접권과의 연계기능 미흡 · 개발규제지역 산재 · 국토 주요개발축상 제외 ·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 · 무질서한 난개발 우려 · 자치단체간 과다경쟁 	

2. 전략과제 도출

□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무한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선도거점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함.

□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의 선정·육성

- 21세기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요과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산업의 질적 구조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산업을 미래산업기술과 구조에 적합하고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전략산업 중심으로 육성하여야 함.
-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지역의 잠재력과 향후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전망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임.
- 전략산업은 미래산업으로서의 성장잠재력과 지역적 경쟁력을 갖추 수 있어야 하며 지역에 산업기반을 지니고 고용 및 부가가치의 주요 창출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정보·첨단기술산업의 육성과 신기술 창업지원

-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 통신 및 첨단기술 등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중소규모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기업가정신을 제고시켜야 함.
- 정보·통신, 첨단기술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함.

□ 산업군집의 형성촉진 및 산업네트워크 구축

- 지속적인 기술혁신, 시장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간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도모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간 협력과 제휴를 통하여 개별기업이 지닌 핵심역량을 강화토록 하여야 함.

제3절 세부추진계획

1. 제조업과 주력업종

1) 국토내륙중심 산업집적지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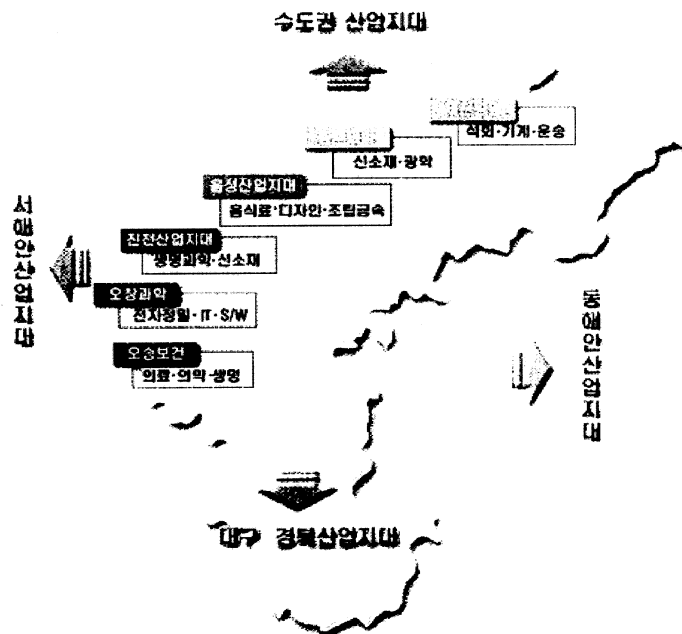
-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내에 산업군집이 형성되는 산업집적지를 활성화시켜야 함.
- 충북지역은 지역내 오창첨단산업단지과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등이 조성 중에 있으며 주변에 각종 산업단지가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산업단지내 입주기업들과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산업집적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청주권의 경우 정밀화학, 의료, 전자, 통신, 정밀기기 등 고도의 지식과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대덕연구단지에는 정밀화학, 신소재, 정밀기계 등 충북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과학기술인력이 입주해 있음.
-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경기 동남부지역(여주, 이천, 용인)과 구미지역의 전자산업지대와 충주지역의 첨단산업단지 등을 연계할 경우 우리나라 국토중심내륙산업벨트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동·서해안산업경제권과 수도권 및 영남권 등으로 그 파급효과는 매우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제4장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충북 건설

- 따라서 청주·대전권, 중부내륙권(이천~충주~구미, 경기남부~충남북부~충북서북부지역)간의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권역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권역내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효과와 전·후방연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산업벨트의 구축에 따른 집적효과가 충북지역 산업발전의 보조축이라 할 수 있는 보은~옥천~영동지역의 농공단지과 개발촉진지구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연구가공공장 및 영동지방공업단지 등으로 파급되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X자형 첨단산업벨트

- 동서 : 서해안신산업지대 - 대덕연구단지 - 충북첨단산업벨트 - 동해안신산업지대
- 남북 : 서울 - 이천 - 충주 - 구미(중부내륙고속도로변 전자관련산업단지)
- 충북 : 제천산업(석회·기계·운송) - 충주과학(항공·신소재·광학) - 음성니트과학(섬유·디자인) - 진천산업(생명과학·신소재) - 증평과학(비금속광물·과학음료·자동차부품) - 오창과학(정보통신·반도체) - 오송보건의료(의료·의약·생명공학)
-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 등 R & D기능 연계, 산·학·연·관 공동 R & D 기능 육성



〈그림 II-4-1〉 첨단지식산업벨트

제2부 부문별 계획

-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생물·건강산업 중심지)
 - 자연과 인간이 융합하는 국내 최대의 생명과학산업 거점으로 육성
 - 보건의료과학단지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국가공단 조성사업의 가속화
 - 메디컬센터, 메디컬아카데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유치, 미국 국립보건원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와 자매결연 추진
 - 한미의학포럼, 건강(Health)올림픽아드 등 생명과학분야 이벤트를 적극 유치
- 오창과학산업단지(정보통신기술산업 중심지)
 - 전자·정보통신산업 중심의 산업기능과 연계하여 정보화의 거점으로 육성
 -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비즈니스 관련시설 유치
- 항공우주산업육성 : 에어로 인노센터(Aero-inno Center) 조성
 -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여 미래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항공우주산업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산업집적지 조성
 - 비행교육사업, 경항공기 조립 생산, 비행기 사용사업, 항공 EXPO



〈그림 11-4-2〉 Two Core Golden Triangle 개념도

제4장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중복 건설

□ 외국인 전용공단의 조성

- 오송 및 오창산업단지내에 해외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유치경쟁국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보다 경쟁력있는 개발추진체제를 갖추어야 함.
- 세제혜택이나 토지공급가격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고 유치조건의 선정에 있어도 유치대상업종이나 기업별로 차별화전략을 제시함.
- 초기단계에서는 외국기업체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단지 조성의 목적과 가장 잘 부합되는 전략적 목표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 국제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조성 및 건축 등 개발전차간소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도로·용지 등 기반시설 지원, 투자제한의 폐지, 근로조건 등의 특례적용, 통관절차 등 교역절차와 관세완화, 행정의 One-Stop서비스 등의 제공과 같은 제도적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계획입지의 유도

- 개별입지의 집산화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출의 규모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공장배출 공해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음.
- 개별입지에 대한 건축·공공시설 비용·환경시설·입주업종 등 관련 제반시설기준을 가능한 한 계획공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함.
- 개별입지를 가능한 한 억제하고 가능한 한 기존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활용하여 입주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 토지용도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지 않은 개발이익에 따른 개별입지의 경우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제반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과감한 정비와 함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용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별입주한 기업체에 게 분배시킬 수 있는 시설부담금제도를 도입함.
- 외국인 투자업체들을 현재 집체된 농공단지로 유도하기 위하여 무상임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폐업률이 높은 도시인접지역의 농공단지에 벤처기업의 유치를 촉진함.

□ 기존공단의 활성화

- 경기침체에 따른 부설기업들의 퇴출이나 한계기업들의 해외이전 등과 같은

제2부 부문별 계획 ■■■

제조업 공동화 현상의 발생시 공동화에 건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 유치·발굴이 필요함.

- 뉴메뉴팩처링은 다품종소량 생산형의 소프트화된 제조업으로서 업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공동경영자원을 축적한 다각화된 경제성에 도전함.
- 지연산업이나 하청기업 등에서도 등장하며 기술적으로 하이테크만이 아니라 중·저급의 기술도 창조적으로 응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적극 지원 육성하여야 함.
- 뉴메뉴팩처링의 전개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문화 업태의 유통업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등 유통채널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

※ 뉴 메뉴팩처링의 특징

- 중견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음
- 창조활동을 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올림
- 고객의 잠재적 욕구를 발굴하고 틈새시장을 확보
- 새로운 마케팅의 전개
- 경영진에 비제조업의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
- 유연한 조직

□ 자유기업지구 및 고용촉진지구 설치

구분	자유기업지구	지역고용촉진지구
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에 대한 기업유치와 입지의 효율화 및 신속화 · 지방의 기업입지상의 불필요한 규제 의 일괄적 철폐 · 지방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 부여 · 미국과 영국의 Enterprise Zone Program 개념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산업의 고도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숙련 노동력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 지방에 중저기술 기업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 지방에 입지하는 중저기술 기업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 부여 · 사회적 소외의 제거에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는 사회포용의 산업정책 · 미국의 Empowerment zone / Enterprise community program 개념의 도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절차 및 내용 · 승인 요건 · 입주기업에 대한 유인수단 · 행정, 개발, 토지이용, 건축 등의 규제완화 · 자유기업지구 입주기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절차 및 내용 · 신청 및 승인요건 · 정부지원 · 재정, 금융, 세제상의 유인책 · 행정, 개발, 토지이용, 건축 등의 규제완화 · 지역고용촉진지구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지속적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의 순환적 시스템인 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임.
- 산업의 지식집약화와 과학기술의 산업화에 공헌하는 혁신체제는 상이한 혁신형태를 갖는 산업군집과 지역적 과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군집(regional industry cluster)을 상호 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는 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과학기술체계,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전문화된 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지역의 고유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식기반경제 환경에 적합한 경쟁정책과 규제환경, 교육훈련체계, 정보통신인프라, 제품시장환경, 요소시장환경 등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충북지역의 경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과 오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내 대학교와 태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인력,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며 향후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특화기술 개발사업 추진

-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각종 공공·민간 연구소의 유지와 과학기술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특성화된 연구개발기능을 형성함.
 - 지역적인 정체성(Identity)을 갖는 특화기술과 특화산업의 창출·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와 중장기적인 산·학·연·관 협동연구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함.
 - 지역내 연구개발인력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고급 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함.
 - 각 기술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평가를 철저히 하여 이를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성공과 실패에 따른 인센티브를 공정하게 집행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함.
 - 지역산업구조를 탄력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나 국가 산업정책의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함.
- ※ 연구개발과제 선정 고려사항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2부 부문별 계획 ■■■

- 생활환경, 보건위생 등 주민복지에의 기여정도
- 실행 가능성과 빠른 자금회전, 법령상의 수입 확보 가능성, 채산성, 지방 재정 확충효과

3) 지식기반자원의 확충과 네트워크 형성

- 충북지역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원인으로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지원해주는 지식기반자원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지식기반시설의 확충도 시급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것임.
- 현재 추진·실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술이전센터, 비즈니스서비스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서비스시설이 설립되고 있으나, 이런 지원기반이 지역의 경제구조전망과 기업의 수요 등 지역경제의 미시적·거시적 목표에 적합하게 운영되는가가 중요함.
- 기존 지원기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원의 명확한 목표 즉 적실성, 전문성, 연속성, 지역별 차별성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활용이 저조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지역의 기술, 인력, 기반시설 등과 같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정책들을 통합·조정하여야 함.
- 지역의 지식기반자원들에 대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원부족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여야 할 것임.
- 기업간 정보나 기술의 공유 및 협력, 지원기관 등의 생산적인 상호교류와 같은 적절한 활동을 유도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지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개발,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과 같은 지역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만한 기술투자 등의 선도방안을 마련함.

□ 지역 인적자원의 육성

-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인력양성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의 산업개발계획은 국가의 산업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본근간으로 하고 국가정책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산업개발계획은 국가의 산업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본근간으로 하고 국가정책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함.
- 지역별로 선정된 국책공과대학, 과학영재교육센터 등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와

제4장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중추 건설

연관된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이들 고급교육기관의 효율화와 내실화방안을 마련함.

- 고급교육기관을 통하여 배출된 인적자원과 지역내 산업간의 유기적인 인력 교류체계가 중요하며 또한 기존 산업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

□ 해외인적자원의 유치

- 인재를 양성하는 비용보다 인재를 유치하는 비용이 더 적게 소요되므로 양성된 인력을 인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산업계의 수요진작을 통해 해당지역은 물론 타지역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함.
- 지역내의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해외벤처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과학기술인력의 유치나 산업체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른 국내외 고급인력의 연계활용을 검토함.
- 도내 기업체 취업희망자에 장학금 지급, 연구직·기술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 취업박람회 개최, 산업체 복지시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통하여 고급인력의 지역내 정착기반을 조성하며, 외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인 채용지원기구를 설치함.

□ 인적자원의 교류확대

- 지역의 인력개발은 지역의 인력수요를 반영하되 모든 인력을 지역에서 조달하는 체제보다는 인력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범지역적인 인력의 외부조달체제를 구축함.
- 지역인적자원의 해외연수·파견제도를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외의 최신연구 및 산업동향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킴.
- 또한 주요 대학 및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인적교류의 확대를 통한 지역내 지식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인적자원의 Data Base화

- 인적자원의 지역Data Base화는 먼저 지역내 대학과 연구소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자원의 이력을 자료화(Data Base)함.
- 지역출신 인적자원과 국내외 고급인력들에 대한 정보화는 물론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은행 등과 연계하여 인적자원의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산·학·연·관 연계성 제고

-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및 관리가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혁신주체간의 연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연구·교육·훈련에 있어서 산·학·연·관 협조체제를 높이는 것은 지식분배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 산·학·연·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수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기관의 설립, 금융·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증진 등임.
- 산·학·연·관의 연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학기술산업단지를 조성·활성화하는 방법임. 과학기술단지는 규모와 기능에 따라서 사이언스 파크, 테크놀로지 파크, 기술집적도시로 나뉨.

〈표 II-4-5〉 제3섹터형 재단법인의 기능 및 사업

구 분	기 능 및 사 업
기관	· 지역협력연구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 : 과학기술처가 1995년부터 시행한 지역의 비교우위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자원을 연결시켜 지방특화산업 육성과 지방대학 연구활성화 도모
설립	· 대학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움 설립 : 통상산업부가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공과대학의 기술개발 잠재력 활용
제도적 지원	· 협동연구, 협동교육과정 등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 · 지역내 협동연구에 의한 결과가 상업화되었을때 이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실시
인력교류 증진	· 국책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한 학점취득 의무화 · 겸임교수제, 겸임연구원제의 실시, 기술지도 등 인력교류 확대

- 과학기술단지는 조성 및 운영의 주체에 따라 대학주도형, 대학주도-지자체 지원형, 국가주도형, 지자체주도형, 제3섹터형, 민간주도형으로 분류됨.
- 제3섹터형은 지자체, 민간, 대학,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이 출자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유형으로 지역사회의 결집된 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4) 벤처기업의 창업과 산학연 연계체계의 내실화

- 충청북도는 대학의 풍부한 고급기술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신소재, 신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협력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매년 협약체결) 단위이면서 도내 대학과 대학원 7개 이상의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사업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및 기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중점적인 연구과제로는 신소재, 신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
- 충북지역의 특허출원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산·학·연 공동개발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됨.
-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자와 기업체간의 피드백(feedback)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상호 신뢰속에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을 적극 추진함.
- 연구자 특히 대학교수들의 경우 현장감각이 떨어져 기술개발은 가능하나 상품화하기에 관련한 경우 등과 같이 현실성 없는 이론적 기술개발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체의 경우도 기술개발관련 기업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함.
- 국가지원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우 상당부분 기업체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술개발의 위험성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경우 새로운 아이템을 요하는 기술개발의 경우 KAIST와 기업체, KAIST와 대학교수, 또는 KAIST와 대학교수 및 기업체 등이 처음부터 공동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신기술개발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 국가지원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서류관리로 개발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과생적인 기술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총액개발지원금제도 등의 도입으로 과제수행과정상에는 탄력적인 운영권한을 부여하고, 기술개발의 최종 성과품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과정과 함께 일정한 성과를 이룬 기업이나 연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4-6〉 지역공동연구개발 현황

연도별	대학수	참여기업	연구과제	사업비(백만원)
1994년	2	23	23	400
1995년	3	38	38	677
1996년	4	47	47	873
1997년	5	65	65	1,174
1998년	6	80	80	1,567
1999년	8	100	100	1,963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5) 중소기업의 육성

□ 협동화단지 육성

-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추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표 II-4-7〉 협동화단지 육성방안과 전략

방 안	전 략
입주유도	· 협동단지 입주업체의 장점을 제시 · 입지 및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 공동수주를 위한 전산화 및 자재관리 합리화
홍보강화	· 도·시군이 부품수요업체에 대한 연결지원 및 홍보 · 단지내 홍보 및 수주를 전담하는 부서 필요 · 단지홍보 팸플렛 및 홍보물 배포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중소기업청 무료제작)
산학관협력	· 새로운 가공기술 접목 및 개발(신소재, 가공방법, 품질향상기법, 비용절감 방안 등의 제시 및 공동연구 활성화)
설비재배치	· One Stop 작업이 가능토록 단지내 설비 재배치 · 특화된 제품군의 전문적인 가공
조직운영	· 협동화단지 운영체제의 전환(조합형태 등) · 단지내 종합행정지원 관리와 정보관리, 회계관리의 일원화 ·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행정지원	·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 외부 홍보 및 수주연결 지원 · 규제완화, 관심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지원 · 분산된 환경유해 업종의 조속한 입주를 위한 행정지원
자금지원	· 시설 및 기계 구입자금 지원(지역 금융기관 연계) · 타 시·도의 사례 등을 통한 지자체의 지원계획의 합리화

제4장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중복 건설

□ 육성자금확대

-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신규 투자금융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함. 충북은 1990년 이후 전국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이 제일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예비자금과 기술개발자금 등의 수혜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지역에 뿌리내린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자생력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
-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대기업 협력, 창업조성, 기술지도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함.

□ 합동직업훈련제도 도입

-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유사한 업종간 합동직업훈련을 위탁 실시하여 중소기업체들의 인적자원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
- 구직·구인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능인 우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
- 지역인력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도내 소재 각급 학교 출신자이거나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도내직업훈련원에서 배출되는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역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

〈표 II-4-8〉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

구 분	내 용
경영기획지원	중소기업경영지도, 정보지원 등
기술지원사업	산학연컨소시엄 형성 지원, 시험검사 및 인증지원사업, 퇴직기술자 및 원로봉사단 운영, 중소기업 기술현장지도 등
벤처기업 육성 창업지원사업	소프트창업보육사업, 신기술 및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창업교육 등
인력지원사업	인력은행 운영, 산업체인력 교육훈련, 유휴인력 지원, 인력 및 조직관리진단 등
중소기업 종합애로 상담	자금, 기술, 인력, 정보 등에 대한 애로 지원, 중소기업애로 상담실 운영, 공장설립 대행지원 등
중점적인 활동수행	· 기술개발 : 자본설비, 정보시스템, 연구기술인력 등의 유기적인 관계 · 기술인력의 연계화 : 선진외국기술도입, 과학기술전문가 초청,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공동개발 및 연구협력체계 구축

제2부 부문별 계획 ■

□ 공동연구개발기반구축

- 과학기술발명에 대한 마인드 확산과 신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북과학기술발명품진시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지역내 4개 대학(충북대, 청주대, 충주대, 세명대)의 과학기술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결함은 물론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함.

□ 기술 및 해외정보 제공

-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특허, 실용신안, 공업규격, 신기술개발동향, 과학기술문헌, 무역동향, 품질정보, 과학기자재, 과학기술 및 해외시장 동향 등 각종정보를 제공함.
- 특허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특허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지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
- 산업과학관의 설치, 과학기술역사 및 기술개발 사례집 발간, 세미나 개최,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 과학기술 유공자 포상 등과 같은 과학기술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홍보 및 판로개척

- 중소기업 상품의 카탈로그(catalogue)와 홍보용 VTR제작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지역유명인사 TV광고 등을 통한 홍보기능을 강화함.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는 물론 도내 기업들의 중소기업제품 중간재로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기업간 수직적·수평적 결합도를 제고함.
-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및 공예품 경진대회를 각 지역별 문화예술제와 연계하여 개최함.
- 해외시장개척단과 해외 유명박람회 등에 수시로 참여하며 도내 중소기업체가 참가하는 충청북도관을 설치하여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고 지역상품의 수출활로를 모색함.

2. 지역자본시장의 활성화

1) 지역개발자금 조성

-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자본동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채수익률의 현실화가 시급함. 공영개발단과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각종 지역개발 투자에 수익 채권화된 지방공채를 발행함.
- 지방공채에 대한 이자소득 감세조치와 발행 및 인수업무에 지방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재원을 조달함은 물론 지역개발에 대한 공채발행은 지방금융기관의 수익성 동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여신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자원배분이 가져올 수 있는 비효율성을 방지하여야 함.
- 지방의 공적연금 및 의료보험조합기금,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의 기금, 일반기업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자금이 지역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되어야 함.
- 이러한 자본시장이 육성됨으로써 자금공급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신탁수신금, 은행신탁계정, 민간직접투자분 등이 지역에서 유용되어 지역자본회전율을 높이고 실물부분의 발전을 촉진할 것임.
- 지방투자신탁회사의 설립, 중소기업의 사채발행, 지방채에 대한 일반공모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업입지개발, 택지개발, 교통·통신개발 등에 지방공채의 현실화를 유도함.
- 지역금융권을 형성하고 지방자본시장 육성, 지역개발금융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어 지역자금의 역내유통과 축적을 제고시킴.

2) 민간투자자본 유치

- 자본시장의 완전개방화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금융기관들은 동폐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의 선진 대형금융기관들이 몰려오고 있어 자본시장에 외국의 단기 유동성 자본들이 우리의 자본시장을 위협하고 있음.
- 유동성이 큰 단기자본들은 지역산업부문에 직접 투자되기에는 매우 큰 한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선진금융기관들을 통한 자본공급 역시 매우 불안하고 제약조건이 까다로울 것임.
-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한 중북지역의 경우, 이러한 자본시장변화 속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효율적임.

제2부 부문별 계획 ■■

- 지속적으로 국내외의 민간자본 등과 같은 투자자본을 지역내 유치할 수 있는 자본투자유치기획단을 발족하여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정책금융자본 유치

- 지역의 산업개발정책시 국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일치하면서도 지역내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으로 국가의 각종 정책자금을 원활하게 수용하여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함.
- 연구개발, 기술기능인력 양성,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전환, 해외진출 등은 장기저리의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금융지원이 필요함.
- 『과밀부담금』 수입재원이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수입재원 등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산업육성지원기금으로 활용함.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1) 공격적인 국제통상 전개

□ One-Stop Total 통상서비스체계 구축

- 지역산품의 수출에 관한 연구·개발단계에서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함.
- 충청북도,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국제통상관련 업무에 있어 각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함.
- 국제통상지원센터(CBITAC)활성화, 국제통상실무협의회 활성화, 가칭 충북통상선립 등을 통한 공격적인 지역국제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 지역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지역산품의 해외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수출화 사업을 촉진하며, 주요 수출목적시장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수집을 통하여 생산에서 가공 및 포장 수출단계별로 각 시장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함.
 - 해외시장 판로개척 : 통상축진단(해외시장개척단파견) 운영,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등 해외시

제4장 21세기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신진중흥 건설

장 개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수출경쟁력 확보 : 수출기업화사업,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 알선, 충북의 주요특산품(Core Products) 목록제작, 해외홍보용 배넌제작, 수출 전문홍보지 광고지원, 국제통상아카데미 운영, 해외시장 정보제공,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의욕 고취 및 애로타개 산업 추진
- 수출기업의 인터넷 무역지원 : CIBITAC 구축,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수출유망상품 발굴 유명 사이트 홍보, 인터넷무역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통·번역센터 운영, 민간전문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2)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외국인의 투자를 지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제도의 정비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유치상품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됨.
 - 외자유치 지원체계 확립 :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운영, 외국인투자유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충북서울사무소 외자유치 전담운영, 투자유치 해외 마케팅추진 조직 구축, 외국인 투자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지원체계의 확립
 - 외자유치 관련산업 : 외국인 투자유치 내상 상품개발, 투자유치 홍보비디오 제작, 투자유치안내 소책자 제작,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정보망 구축 등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개발 및 홍보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유치 설명회 추진, 중앙단위 투자유치 프로그램 적극 활용, 기존 외국투자기업 지원, 국제적 이벤트 행사 추진사업 지속 추진

3) 국제교류 협력의 내실화

- 국제교류사업은 지역간 인적 및 물적 교류를 통한 교류지역간 상호 경제적인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등을 통한 양 지역간 상호 이해관계를 통한 지역간 유대증진 등이 해당될 것임.
- 국제화 시대에 도단위 뿐만 아니라 시군 농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의 해외 유사지역등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구함.
 -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 : 자매결연지역의 단계적 확대, 경제협력 동시 확충 등
 -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 : 지역특산품 전시·판매행사 추진, 외국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 추진, 지역차원의 민간 상호교류사업 지원, 공무원 파견 연수 지속 추진, 청소년·스포츠 교류, 국제지문관의 적극 활용 등

제2부 부문별 계획 ■■■

- 통상교류 확대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강화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언어원별 연구동호회 운영, 충청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활성화

〈표-Ⅱ-4-9〉 산업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 및 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국토내륙중심 산업집적지의 형성	첨단산업벨트 구축	· 중부내륙신산업벨트, X자형첨단산업벨트, 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 조기 완공, 외국인전용공단 기반구축, 계획입지 유도
지속적인 지역혁신체계 의 구축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 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산학연연계체계 강화, 지역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지식기반자원 확충과 네트워크 형성	지역인적자원의 육성	· 특성화대학, 과학영재교육센터 내실화,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
	해외인적자원의 유치	· 해외우수인력 유치 확대, 외국투자기업유치 활성화
	인적자원의 교류확대	· 해외연수 및 파견제도 확대, 공동프로젝트 개발
	인적자원의 지역 DB화	· 지역내외 과학기술인력의 DB화, 인적자원의 지식네트워크, 지역협력연구센터설립, 산학연 연계성 제고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확대	지역컨소시엄운영 내실화	· 지역컨소시엄사업 지속 확대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확충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 육성자금 확대, 공동연구개발기반 구축, 기술 및 해외정보 제공, 합동직업훈련제도 도입, 홍보 및 판로개척
지역자본 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자금 조성	· 지방공채발행(지방투신 설립유치, 지방채 일반 공모제 등) 확대, 지방공공기관자금의 지역자본시장 참여 확대
	민간투자자본 유치	· 자본투자유치기획단 운영
	정책금융자본 유치	·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공격적인 국제통상 전개	· 원스톱(One-Stop)서비스체계 구축, 지역산업의 수출화 촉진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 외자유치지원제도의 정비, 유치상품의 발굴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	·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 통상교류 확대를 위한 인적·물적기반 강화

제2편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제 5 장

제1절 현황 및 전망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제3절 세부추진계획

제5장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제1절 현황 및 전망

1. 정보화

- 인구 100인당 PC보급률을 보면 충북은 6.45대를 보여 전국 12위로 타지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충청북도에서 E-mail은 인구100인당 3.6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전국 순위 12위로 상당히 낮은 보유율을 보임.
- 또한 인터넷 이용자는 100인당 11.16인으로 전국 10위, 이용시간은 1일 0.7시간으로 이용자수도 적고 이용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충북지역의 정보화현황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함.

〈표 II-5-1〉 충북의 정보화 현황

구분	기준	충청북도 평균	전국순위
PC보급률	100인당	6.45대	12위
E-mail	100인당	3.62인	12위
인터넷 이용자	100인당	11.16인	10위
인터넷 이용시간	1일	0.7시간	16위

자료 : 한국전산원, 정보화통계집, 1999.

- 지역별 디지털화지수를 서울 100 기준으로 볼 때 전국평균 41.99에 비해서 충북은 22.23으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설비지수의 경우는 전국평균이 48.73인데 비하여 충북은 28.93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활용지수 또한 전국평균이 36.89인데 17밖에 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Ⅱ-5-2〉 충북의 디지털화 수준

구분	지역별 디지털화지수	설비지수	활용지수
서울(기준)	100.00	100.00	100.00
전국(평균)	41.99	48.72	36.89
충북	22.23(7)	28.93(6)	17.00(9)

- PC이용자수와 PC통신 이용자수는 남성이 62.7%와 66.4%로 여성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PC이용자수와 PC통신 이용지수를 살펴보면 충북은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임.

〈표 Ⅱ-5-3〉 PC통신 이용자 수

(단위 : 명)

구분		PC이용자	PC통신이용자	PC이용자 100인당 PC통신 이용자 수
합계		12,100,114	6,017,849	50
성별	남성	7,471,096	3,996,333	53
	여성	4,629,018	2,021,516	44
연령별	10대	3,892,199	1,809,417	46
	20대	4,539,876	2,769,469	61
	30대	2,394,845	1,052,883	44
	40대	1,022,457	303,704	30
	50대	250,737	82,378	33
거주지역별	서울	2,983,455	1,685,325	56
	부산	1,207,799	562,438	47
	대구	813,225	374,404	46
	인천	760,814	346,594	46
	광주	490,993	231,647	47
	대전	406,058	236,428	58
	울산	442,507	246,004	56
	경기	2,102,794	1,026,551	49
	강원	382,662	176,632	46
	충북	283,513	156,953	55
	충남	310,173	185,441	60
	전북	401,287	172,647	43
	전남	340,480	101,016	30
	경북	480,936	198,702	41
	경남	566,779	253,919	45
	제주	126,637	63,150	50

주 : PC통신이용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PC통신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3세에서 59세까지의 인구

제5장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시설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일반전화 보급현황에서, 충북지역의 전화시설 회선수와 가입자수는 787천 회선 및 660천명으로 전국 3.3%의 비중을 차지함.
- 충북지역의 PCS가입자는 61천명 수준으로 전국의 2.5%, 무선호출가입자는 138천명으로 전국의 1.8%, PC통신가입자는 전국의 2.1%를 전하고 있음.
- PC통신가입현황을 보면 61%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충북을 비롯한 그 외 지역은 2~4%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간 정보격차의 축소가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5-4〉 시·도별 전화 및 PC통신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일반전화		PCS가입자	지역무선호출	PC통신 가입자율
	시설수(회선)	가입자수			
전 국	24,172,403 (100.0)	20,066,140 (100.0)	2,500,837 (100.0)	7,604,001 (100.0)	100.0
수도권	11,626,264 (48.1)	9,626,274 (48.0)	1,447,074 (57.9)	4,967,606 (65.3)	60.9
부산·경남 (울산)	3,855,798 (16.0)	3,279,792 (16.3)	322,386 (12.9)	991,048 (13.0)	14.0
대구·경북	2,648,785 (11.0)	2,180,768 (10.9)	224,041 (9.0)	495,780 (6.5)	7.0
광주·전남	1,706,515 (7.1)	1,381,619 (6.9)	137,036 (5.5)	351,312 (4.6)	3.0
대전·충남	1,607,060 (6.6)	1,329,711 (6.6)	153,997 (6.2)	352,735 (4.6)	4.0
전북	929,261 (3.8)	787,977 (3.9)	82,358 (3.3)	147,639 (1.9)	2.1
충북	787,170 (3.3)	659,553 (3.3)	61,489 (2.5)	137,511 (1.8)	2.0
강원	744,189 (3.1)	602,132 (3.0)	55,228 (2.2)	107,081 (1.4)	2.0
제주	267,361 (1.1)	218,314 (1.1)	17,228 (0.7)	53,289 (0.7)	1.0

주 : 전국 무선호출 가입업체(제2사업자)제외, * 예는 기간가입자 4.0% 면도포함
 자료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8

제2부 부문별 계획 ■

2. 지역내 기업의 정보화 수준

- 지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전국 평균 47.5에 약간 하회하는 43.7을 나타냄
- 이는 강원과 전남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서울, 수도권, 충남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지는 수준임.

〈표 II-5-5〉 지역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전국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47.5	54.5	42.3	47.9	21.5	43.7	50.6	46.7	41.8	45.4

주 : 전국에서 13위 수준, 울산, 강원, 전남을 제외한 최하위권

3. 지역별 홈페이지 보유

- 도내 홈페이지 보유율은 총조사업체 2,944업체중 12.4%에 해당하는 366개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청주, 음성, 진천, 청원 등의 보유수가 높게 나타났고, 증평, 단양, 보은은 낮은 보유수준을 보임.
- 이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전자상거래나 기업의 홍보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함.

〈표 II-5-6〉 도내 기업의 홈페이지 보유율

시·군	조사업체	보유업체	시·군	조사업체	보유업체
청주	380	53	영동	94	8
충주	254	24	진천	447	74
제천	140	5	음성	562	82
청원	593	64	괴산	95	17
보은	68	7	단양	52	3
옥천	217	18	증평	42	11
합계	조사업체 : 2,944, 보유업체 : 366 (보유비율 : 12.4%)				

4. 정보화 관련 산업기반

1) 충북의 산업정책

- 정보화 관련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송~오창~진천~음성~충주~제천을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함.
- 전자, 정보, 신소재산업의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보건, 의료산업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거점으로, 산업정보통신산업(IT)과 생물산업(BT)을 전략 산업화함.
- 오창과학산업단지내 3만평 규모의 벤처 임대공단을 조성하여 첨단 벤치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산업 창업기반

- 충북에서의 정보산업 창업기반은 센터수가 총 16개소로 중소기업청이 13개소, 산업자원부가 2개소, 정보통신부가 1개소인.
- 입주업체수는 총 122개로 중소기업청에 86개, 산업자원부에 20개, 정보통신부에 16개가 입주하고 있음.

〈표 II-5-7〉 정보산업 창업기반

지정기관	계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센터 수	16	13	2	1
입주업체	122	86	20	16

주 : 대부분 지역 대학내 위치, 1999~2000년 사이에 13개소 설립

5. 정보화에 대한 도의 강력한 정책추진

- 전국에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목표로, 2000~2005년까지 6년간 2단계로 강력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사업계획은 6대 분야 23개 사업과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2000년 추경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도민 인터넷 접근기반 구축 - 3개 사업, 8개 세부사업
 - 전 도민 인터넷 활용능력 증진 - 3개 사업, 7개 세부사업

제2부 부문별 계획

- 지역내 인터넷 콘텐츠 확충 - 3개 사업, 7개 세부사업
- 도내 인터넷 활용분 조성 - 4개 사업, 8개 세부사업
- 도가 인터넷 활용을 선도 - 6개 사업, 13개 세부사업
- 지역내 기반조성사업 - 4개 사업, 7개 세부사업

6. 지식유통자원

- 지식유통자원 중 일반적인 지식의 지표로 명시되어 있는 DB관련 현황을 보면 자료처리와 데이터베이스 경우 수도권지역 집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사업체수 64.2%, 종사자수 83.0%), 충북지역은 사업체수는 1.3%, 종사자수 0.3%을 비율을 나타내 전국대비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외부지역에서 생산되어진 지식을 지역내로 유입 내지는 파급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내에서 창출된 지식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을 나타냄.

〈표 II-5-8〉 DB관련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총 괄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충 북	6(1.3)	16(0.3)	3(1.6)	4(0.1)	3(1.2)	12(0.6)
전 국	447	5,392	190	3,422	257	1,970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9.

- 충북의 경우 지식전달수준을 나타내는 전화시설수와 전화가입회선수 모두 전국점유비중이 3.0%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수는 2.3%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5-9〉 전화시설과 전화가입회선 및 인터넷

(단위 : 전화선, 천명, 명, %)

구 분	전화시설수	전화가입회선수	인터넷도메인수
충 북	759(3.1)	612(3.0)	9(2.3)
전 국	24,455	20,089	387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9. 한국인터넷정보센터, 1998.

- 또한 매스미디어 관련사항을 살펴보면 영화방송의 경우 업체수 2.9%, 종사자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뉴스제공 업체수는 3.6%, 종사자수는 1.8%로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5장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표 II-5-10〉 매스미디어

(단위 : 개, 명, %)

구 분	총 괄		영화방송		뉴스제공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충 북	1,329(2.9)	2,808(2.4)	1,327(2.9)	2,793(2.4)	2(3.6)	15(1.8)
전 국	46,114	116,909	46,059	116,074	55	83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준통계조사보고서, 1999.

- 지식의 상업화지표 역시 수도권 집중도가 심한 가운데 충북지역의 정보통신 관련 업체 상황을 보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사업체수 3.7%, 종사자수 7.2%, 정보통신 서비스업 사업체수 2.5%, 종사자수 2.1%, S/W 컴퓨터관련업 업체수 0.9%, 종사자수 0.2% 및 벤처기업체수 3.7%로 나타났다.

〈표 II-5-11〉 정보통신

(단위 : 개, 명, %)

구 분	정보통신기 기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S/W 컴퓨터 관련업		벤처기업 업체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충 북	155(3.7)	18,034(7.2)	14(2.5)	2,553(2.1)	22(0.9)	82(0.2)	166(3.7)
전 국	4,205	249,054	558	119,287	2,526	51,250	4,457

자료 : 통계청, 정보통신산업통계보고서, 1999.

제2부 부문별 계획 ■

제2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BER KOREA 21 · 국가정보통신기간망 구축 · 컴퓨터 이용능력 향상 · 지식기반사회 구현 · 정보화사회의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네트워크 미비 · 도시구조와 정보망간 부조화 · 국가기간산업의 입지 회피
강 점	약 점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정보통신 기반 구축 · 국토중심부 위치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접근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이용자 부족 ·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 · 인터넷 사용자 인식부족

2. 전략과제 도출

□ 정보화를 통한 열린행정 실현

-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행정의 서비스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화를 추진함.
- 행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시스템 및 처리절차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를 추진함.
- 조직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인 개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식축적과 정보공유를 정보화의 목표로 설정함.

□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회복

- 기존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확보와 함께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조를 조정함.
- 정보의 산업화를 진행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창업보육, 교육전문단지의 조성 등을 병행하여 실시함.
- 정보산업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정보화물 통한 균형발전 촉진

-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주민을 정보화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주민이 정보화의 추진주체가 되고 이를 촉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 상대적으로 참여 여건이 열악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정보화 정책을 수립함.
- 기존의 정보화가 기술주도의 추진으로 실질적인 참여주체인 지역주민의 외면을 받아온 점을 거울삼아,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정보방을 구축함.
- 지역주민의 수요를 상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화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순기능적인 순환고리를 형성함.

제3절 세부추진계획

1. 정보화를 통한 열린행정 실현

1)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효율화

□ CIO 직제 도입

- 지역내 대학과 연계하여 CIO 육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CIO제도의 도입은 정보화여건이 성숙된 시·도중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단체에 확대·도입하도록 함.

〈표 11-5-12〉 지방자치단체 조직내 CIO직제 도입방안

구 분	도 입 방 안
제 1안	기획관리실에 CIO기능을 부여하여 정보화 기획기능 강화
제 2안	정보화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별도의 상위부서를 신설하여 CIO기능 부여
제 3안	현행 정무 부단체장을 정보화 부단체장으로 변경

□ Case Manager 직제 도입

- 팀제도보다 일보 발전된 제도로서, 기존의 직렬방식의 업무처리를 팀 중심의 병렬처리를 거쳐 1인 내지 소수의 다기능 요원이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임.

제2부 부문별 계획 ■

- 민원행정 부문에 우선 집중 : 행정업무 가운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 부문에 집중하여 한사람 혹은 소수의 인원이 관련업무 가치연쇄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DB화하고, 업무처리과정을 단위업무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단위업무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업무흐름의 원활화를 실현함.

2) 전자지방정부의 구현

□ 정보화를 전제로 한 조직 재구축(BPR)

- 지금까지의 분업화 형태의 관료제 조직에서 탈피하여 '흐름경영(flow management)'이 실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됨.
-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 재구축(BPR)은 그 자체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대략 7가지 측면(7S)에서의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함.

〈표 II-5-13〉 업무프로세스 재구축(BPR) 고려사항

구 분	고 려 사 항
전략 (Strategy)	과거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서 데이터베이스(DB) 기반의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거쳐 통신망을 활용한 '연결의 경제(Economies of Networking)'로의 전략전환
조직 (Structure)	과·부제 중심의 수직적 조직을 팀 중심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재구축하여 직렬식 업무처리(serial processing)를 동시공학을 적용한 병렬식 업무처리(parallel processing)로 전환
제도 (System)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참여의식과 조직의 여유창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청사내 정보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임.
직능 (Skill)	일선 업무들을 관장하는 하위직으로부터 업무분장 중심의 단 기능수행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다기능 수행 능력을 배양함
조직원 (Staff)	과거의 생산성 위주의 수직적 사고에서 창의성을 위한 수평적 사고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함.
조직문화 (Style)	처벌중심의 문화에서 권장 중심적 문화로 근본적인 조직문화의 전환을 위해 실적 위주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함.
공유가치 (Shared Value)	조직원의 조직 몰입도를 증대시키고, 팀 중심 네트워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원 모두의 공동가치를 형성함

□ 전사적 정보시스템(ERP) 구현

- 민간 조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원조달에서부터 제품 출하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가치연쇄를 지원하는 전사적 정보시스템(ERP)을 구축함.
- 이의 실천을 위해 먼저 프로세스 중심적 관점에서 조직 진단을 시행하고, 현행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도출하여, 개선된 프로세스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업무의 전산처리를 가능케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
 -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화벽(firewall)을 이용하여 인터넷 환경하에서의 인트라넷 구축

□ 문서작업 감축 조례(Paperwork Reduction Act) 시행

- 문서업무 간소화를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대폭적 개선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자원의 유효 관리는 행정조직의 내적 진력화는 물론 민간의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임.
- 문서감축조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문서 대체적 정보기술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방향 제시
 - 전자문서의 공식화와 대민 공개의 범위
 - 각 행정기관의 내부 평가시 문서감축 성과 반영
 - 전자문서 작성의 책임, 실명제 도입 등

□ 광역정보센터(RIC) 구축

- 가상정보센터(Virtual Information Center) 개념 도입 :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 추진조직은 시군 단위지역에 구성하며, 호스트 시스템은 전문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북 최대 도시인 청주에 설치하고, 각 단위지역정보센터에는 호스트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설치함.
- 정보센터의 계층구조화 : 현재의 데이터 갱신은 센터의 단말기에서, 시스템 갱신은 호스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망을 구축함.
- 지역정보센터는 정보 유통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문인력을 결집하여 이들을 통해 정보화를 추진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기업들의 정보·전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주하여 벤처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읍면동사무소의 '정보접근창구(CAP)'화

- 정보화가 성숙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등 최종 단위행정사무소의 운영 개념 및 기능적 역할을 '가상(假像)'의 개념이 도입된 기초지역정보센터로 전환함.
- 기존의 민원서비스 기능과 함께 '인터넷 카페' 형태의 정보접근창구로 재구성하고 충북도청 지역기간망과 연결하여 주민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역내외 정보를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여건상 PC 및 주변기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주민들을 위해 컴퓨터 공동활용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서 정보 기기의 이점을 제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어촌 마을 정보이용센터'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토록 함으로써 이를 지역정보화의 전초기지로 활용하여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축진을 도모함.
- 정보접근창구로서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창구로서의 기능까지 함께 수용함.

□ 광역정보센터(RIC)와 정보접근창구(CAP)간 정보통신망 구축

- 각 단위지역마다 설치한 정보센터간의 독자적인 운영은 시스템 개발투자의 중복과 독자 사업추진에 따른 분할손실 등의 분원적인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대민을 위해 설치한 RIC와 CAP간의 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개발의 효율성을 높임.
- RIC와 CAP간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정보소재의 정확한 파악, 정보의 입수, 분석 및 가공 처리하여 네트워크간 온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처리의 편리성을 꾀함.

□ 정보심부름센터(IDC) 운영

- PC통신이 가능한 주민은 인터넷으로,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전화, FAX 등 기존 수단으로 민원서류 발급, 학습 및 연구, 기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체제를 구축함.
- 접수된 정보요구사항을 인터넷, DB, 문헌 등 각종 검색수단을 동원하여 주민이 요구한 날짜에 맞추어 배달하는 인적 정보채널을 구축함.
- IMF체제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출 미취업자 및 실업자들을 활용하여 정보 입수 채널을 구축하고, 성과급으로 이들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함.

제5장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인터넷, PC통신망에 탑재되어 있는 국내외 각종 정보원(情報源)의 소재를 DB화하여 정보검색의 신속성을 기하고, 검색된 내용들은 별도의 DB에 저장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DB화함.
- 정보검색원은 CAP에 상주 혹은 시간제로 근무토록 하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토록 CAP와 정보검색원간 전용망을 구축함.

□ 행정정보시스템 확충

- 정보 공유를 통한 새로운 정보가치 창출과 업무간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흐름 경영’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함.
- 먼저 프로세스 중심적 관점에서 조직 진단을 시행하고, 현행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프로세스 모형을 도출함.
- 개선된 프로세스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업무의 정보처리를 가능케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
-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이용하여 인터넷환경 하에서의 인트라넷을 구축함.

2.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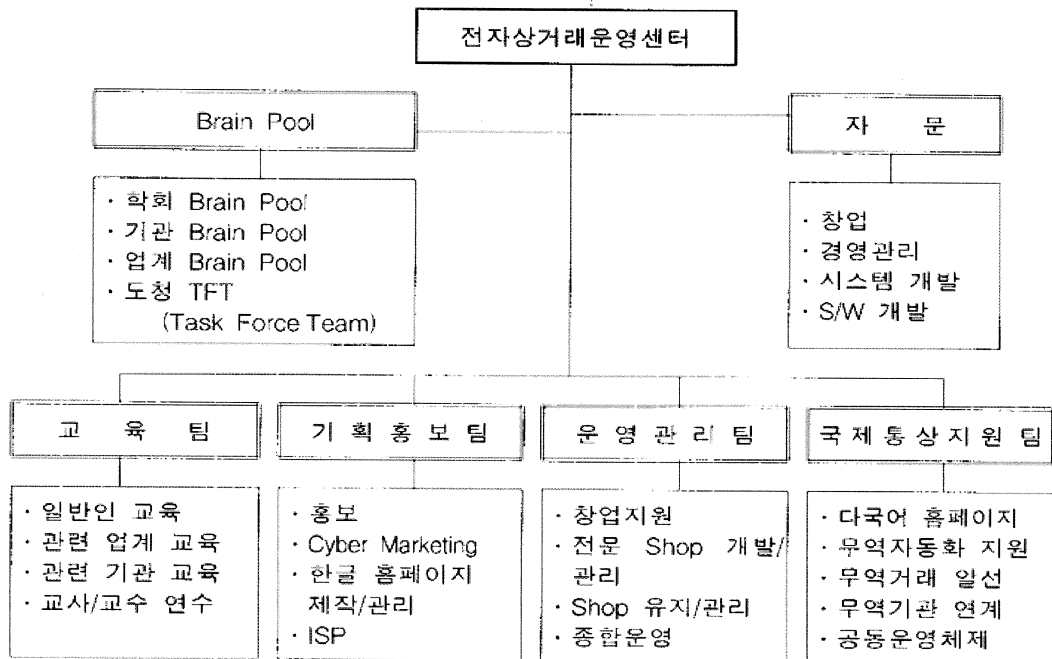
1)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전자상거래운영 활성화

-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는 최근 최종소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수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이러한 현안들을 연구하고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 및 지원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업체의 대응전략 모색과 공동대처를 위한 산·학·관 협력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 『지역생산품 유통시스템(CAPECS)』의 운영 활성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모칭, 그리고 대학이 협력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중북원 EC/RC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지원사업을 유치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EC/RC 계획에 참여한 대학에 설치하되, 지역의 대학 간 컨소시움으로 운영함.
- 단순한 온라인 주문거래 방식이 아닌 지역업체간 공동 마케팅에 의한 신규 시장개척이 가능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지역기업의 공동출자와 자치단체의 보조를 통해 공동 운영기반을 구축하며
 -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공동 브랜드 활용과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체 및 제품의 선정과 품질관리 기법을 적용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함.



〈그림 II-5-1〉 전자상거래운영센터의 모형

□ 가상기업 (주)충북 설립

- 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 금년 7월 개발이 완료된 『지역생산품 유통시스템 (CAPECS)』의 기능을 전자상거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보완하여 가상기업의 운영기반을 확보함.
- 제3섹터의 운영전담회사 구성 : 공공기관의 행정력 및 재정적 안정성과 민간 조직의 탄력성 및 역동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사형태의 전담운영조직을 구성함.

□ 지역산업·경제 DB 구축

- 지역의 기업체정보를 비롯한 지역산업·경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구축 혹은 분산자료의 통합제공 방안 마련은 자료의 가용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가장 빠른 방안이며 축적된 자료의 가공을 통한 지역기업의 정보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데이터베이스 축적의 주체는 지역의 유관기관과 산업·경제 관련 도·시·군의 행정조직 등이 자료의 생산자 및 1차 수집자가 되며,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은 정보기술 활용능력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광역정보센터가 통합하여 수행함.

〈표 Ⅱ-5-14〉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단계별 목표설정 및 수행

단계	목표설정 및 수행
초기구축단계	산재된 자료의 분석과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구축 항목 선정 및 1차, 2차 자료수집과 적합한 변환을 통한 저장
안정운영단계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갱신과 신규수요 발굴에 따른 항목 세분화
가치창출단계	축적된 자료를 통한 예측정보와 해석정보의 제공

□ 기업경영지원센터 설립

- 핵심 부문을 제외한 여타 부수적 기능은 외부 위탁(Outsourcing)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위 ‘핵심역량경영(Core Competence Management)’이라 지칭되는 최신 경영기법중 하나이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들도 다소의 시차는 있으나 이러한 추세와 함께 하게 될 전망이다.
- 전통적 기업의 지원부문들을 연구,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대학내에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대학의 경영연구소 산하에 기업의 지원기능 분야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함.
 - 현행 ‘국제교역지원센터’와 같이 기업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능별 지원부서를 도청내에 구성하여 대학의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와 기업, 그리고 도청간 삼각 협력체제를 구축함.

□ 중소기업 정보화 창업지원

- 산업기술정보원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 또는 자체구축 DB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산업 네트워크, 산업정보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산업정보 인프라를 구축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통신판매, 원자재·제품 가격동향, 공동구매시스템, 기업지원정보, 기업체 현황 등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정보교육센터, Tool 및 S/W보급교육, 생산·경영관리 자동화, 정보의 검색·관리·활용능력 배양, 정보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함.
- 소프트웨어산업 예비창업자에 대한 저비용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지원, 정보기반지원, 인력양성 및 재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지식정보산업단지 구축

- 세계경제의 지식화 글로벌화에 따라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기업과 사회경쟁력의 최우선 결정요소가 되고 있음.
 -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지식정보산업단지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 지역에 비해 그 타당성이 높음.
-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위치한 오창 인근지역은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효율적인 인구분산을 통한 수도권 기능완성화가 기대되어 지역개발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음.
- 지정학상 청주공항, 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근접성이 매우 높아 교통과 산업의 상승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역임.
-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건립될 종합정보센터는 초고속망 및 각종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정보통신운영센터, 충북정보망 구축, 창업보육센터 등의 연계로 인한 인력수요의 확대와 창출을 꾀함.

□ S/W 벤처임대공단

- 현재 정부부문의 벤처기업의 성공여부는 점차적으로 불투명하여 업체들의 기대나 평가 또한 대체로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한 입지조성 방식이 요구됨.
- S/W 벤처기업의 경우는 생산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결되어야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집적성이 요구됨. 따라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중소S/W 벤처기업들의 입주를 도모하고, 산업분야를 전문화할 수 있는 벤처임대공단의 개발을 필요로 함.
- 벤처기업공단의 입주업체 선정시 기술수준에 치중하여 기업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S/W 연관업체를 선정함.

□ S/W 벤처기업 육성기금

- 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수준의 생산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소수준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수적이다.
- 벤처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우수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은 벤처기업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2) 지역산업구조의 선진화, 고도화 달성

□ 단지형 텔레포트(TELEPORT) 구축

- 정보통신 수요의 폭증, 글로벌화에 의한 통신범위의 확대, 통신의 탈국제화 등 사회적 요인과 통신기술의 혁신 등 기술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텔레포트는 낙후지역 개발적 차원이나 도시기능의 확대 차원에서 선지함.
- ‘청주미디어밸리’를 단지형 텔레포트로 성장·발전
 - ‘청주미디어밸리’가 위치한 오창 인근지역은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효율적 인구 분산을 통한 수도권 기능 활성화가 기대되어 지역개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음.
 - ‘청주미디어밸리’는 지정학상 청주공항, 고속도로, 고속선철 등 주요 교통로와의 근접성이 매우 높아 단지형 텔레포트로 진화시킬 경우, 교통과 통신의 상승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역임.
- ‘청주미디어밸리’내 건립될 광역종합정보센터(RIC)는 초고속망 및 각종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통신운영센터, 선도시험망, APII 본부(계획), 창업보육센터 이외에도 위성 지구국과 지역광역망의 인터페이스 설비, 교환설비, 제어용 컴퓨터 등을 추가하여 텔레포트의 핵심인 텔레콤센터로 발전시킬.
- ‘청주미디어밸리’내 20만평 부지에 건립될 소프트웨어파크에 연구개발 시설 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처리시설들을 추가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오피스 파크로서의 기능까지 추가하여 텔레콤센터와의 연동을 통한 국제교역이 가능토록 함.
- 충청북도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제3섹터의 운영전담회사를 구성하여 텔레포트의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하고 통신서비스로부터 얻는 과실금 공유, 물류 VAN서비스 역시 동 회사가 그 역할을 맡는다면 민간 업체의 참여유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제2부 부문별 계획

□ 지역 VAN 구축·운영

- 충청북도의 지역개발사업(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청주농산물 분류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농어촌특산단지, 청주국제공항 등)과 기능적 상승작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의 연계개발 필요성이 있음.

□ 정보통신 교육단지

- 정보통신 산업은 기술·지식집약적 산업이며, 이는 경쟁력 우위의 원천이 천 연자원이거나 기계장비가 아닌 인간의 창의력과 전문지식임을 의미함.
- 정보통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보통신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적 교육기관은 부족한 실정임.
- 또한 현재 국내대학은 교육기관으로만 간주되었고 지식창출 기능은 미흡한 실정으로 전문적으로 정보통신교육을 위한 단지의 육성이 필요함.

3) 농촌경제 활성화 - 선진 영농 구현

□ 영농기술정보시스템 구축

- 현재까지 추진된 대부분의 농업정보화 사업은 제품의 판매를 효과적으로 지원 하는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종자 개발, 생산체계, 수입·지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계시스템, 가축질병진 단, 방역, 사료배합 등에 관련된 영농기술정보시스템의 제공은 미비한 실정임.
- 단순자료의 검색보다는 상호간의 연계성을 염두에 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사례 해결과 축적을 병행함.
 - 정부에서 추진중인 농업정보화 사업의 영농기술 관련정보의 중계역할을 수행하고 충북도의 농업관련기관 등이 연합하여 체계적인 기술자료를 축 적함.
 - 영농조합 및 학계의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기술자문단을 구성하 여 영농관련 기술의 온라인 상담이나 사례중심의 질문과 대답 등을 운영 하여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함.
- 작물의 상태와 변화를 단순한 문자정보가 아닌 멀티미디어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공하며, 영농조합의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여 영농 관련 기술이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 영농소프트지원센터 설립

-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농관련 소프트웨어의 무료 개발공급을 위한 영농소프트지원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이 단순한 업무의 대체가 아닌 현행업무의 비생산적 요소를 제거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BPR개념의 도입으로 관리 프로세스를 혁신함.
- 개인, 기업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경우 농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추구하며, 온라인을 통한 관리가 가능한 각종 생산관련 소프트웨어나 공동활용시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시스템의 네트워크컴퓨팅 기반으로 설계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함.

4) 정보화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

□ 충북 역사·문화 DB 구축

- 충북지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편람 제작 및 배포는 도민의 지역 소속감과 정주성 제고를 도모하고 지역의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우선 문화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향토학자 등 지역 역사 및 문화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통신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 역사·문화찾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미술가, 삽화 및 만화가, 산업디자이너 등을 동원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부합되는 캐릭터와 로고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난합과 지역 홍보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함.
- 문화의 상품화를 추진하여 이미지가 부각된 내용을 인터넷에 탑재함으로써 지역생산물 및 관광자원과 문화를 결합한 '문화마케팅'을 적극 추진, 이와 함께 CD-ROM 등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한 대량 제작·배포를 병행 추진함.

□ 가상 고인쇄박물관 건립

- 청주에 고인쇄박물관이 이미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고분서 '직지' 찾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널리 홍보하여 프랑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가 보물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여론 조성은 충북인의 사명임.
- '고인쇄 문화의 체험'이라는 주제 하에 간접경험이 가능하도록 가상현실(3D)을 기반으로 가상고인쇄박물관 구축하고 직지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직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식별방법 등을 제시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국내외 고인쇄문화 연구자들의 가상연구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전세계 고인쇄문화 연구자들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가상 내륙호수생태 전시관 건립

- 충청북도는 대청호, 충주호 등 내륙 호반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리고, 호반의 수질 및 생태계 보호와 함께, 내륙호반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내륙호수박물관을 설치함.

5) 지역특화도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구현

□ 권역별 특성 DB 구축

- 권역별 정보화는 권역별 특성에 따른 정보수요 및 정보생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권역별 중핵도시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수요 및 요구에 대한 수집 가공이나 서비스 개발 등은 독자적인 조직(예, 광역정보센터)에서 수행함으로써 통합의 효과를 높임.

□ 충북 웹진(Webzine) 발간

- 지역현안 등의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방송 및 정보원천인 공공기관이나 주민 등이 참여하는 종합지역매거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를 구성함.
- 참여기관간의 가상 사설망 구축, 콘텐츠의 확보와 이해관계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정책의 홍보, 의견조율, 시민참여의 공간이 어우러진 참여형 잡지를 지향함.

3. 정보화를 통한 균형발전 촉진

□ 여성정보화추진단 발족

- 각종 여성단체를 활용하여 가정주부를 위시한 여성을 정보문화 확산의 모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가정주부 등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민의 생활에 민감한 각종 정보에 가장 긴밀히 접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조직에 대한 몰입성(충실도)이 높음.

제5장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또한 가정주부 등 여성은 차세대 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자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정보소의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음.
- 정보문화운동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사업 내용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설정하되,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국에서 PC를 제일 잘 쓰는 충북도민'을 지향, 지역대학과 연대하여 체계적 교육실시
 - 1인 1 전자우편(E-Mail)주소 갖기
 - 지역 농산물 통신통매운동 등

□ 정보놀이방-돌리하우스 설치

-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탁아소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유아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연구의 활발한 진행 및 실제 적용사례가 늘고 있음.
- 자치센터화 과제와 연계하여 주민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놀이방을 설치하고 유아용 컴퓨터 및 유아교육용 멀티미디어 CD-ROM 등을 도입하여 놀이문화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함.
- 공공건물에 우선 적용 후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우, 제반 장비와 기술 등을 일반 유아교육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정보사회 동점을 위한 기반 확대 차원으로 실시함.

□ 노인의료구급시스템 구축

- 전통적인 충효사상의 퇴색 및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 혹은 집단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사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인비율은 극히 낮은 실정임.
-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의료구급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환자의 상태별 최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분산시스템 지원함.
 - 응급처치, 환자 후송, 치료간 체계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유무선 연결체계 구축

□ 인력마케팅시스템 구축

- IMF 체제하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업 대책과 여성 유휴인력 등의 중개 및 알선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

제2부 부문별 계획 ■■■

- 또한 농촌자원봉사, 컴퓨터교육봉사, 선거운동봉사, 노인봉사 등 각종 자원봉사자의 앞선은 지역간, 계층간 화합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한 사회기여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됨.
- 이에 국내(도내)는 물론 해외를 겨냥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력마케팅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우선 도 차원에서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이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주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구인과 구직, 자원봉사 등 인력 수요와 공급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정보통신망에 탑재하고, 인력중개 사후관리용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제 3 편

민족생태공원의 「관광충북」

제3편 민족생태공원의 「관광충북」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제 6 장

제1절 현황 및 전망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제3절 세부추진계획

제6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제1절 현황 및 전망

1. 중원문화권의 위상

- 금강수계와 한강수계가 맞닿아 있고 백두대간을 등지고 있는 중부 내륙의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권 중원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음.
- 중원문화권의 특성과 그를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이 미약하며, 이로 인해 인접한 나 문화권에 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표 II-6-1〉 중원문화권의 특성

구분	특 성	내 용
이 념 특 성	일반대중 중심의 일상생활 문화적 성격	· 전국 5대 문화권 가운데 유일하게 왕조생활중심의 개념인 고급문화적 성격이 아닌,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문화 중심의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수도(首都)적 성격이 아닌 부도(副都)적 성격
역 사 특 성	오랜 생활중심의 문화 발전적 성격	· 대부분 다른 문화권이 특정시기에 국한된 왕조중심의 한정 된 시대개념으로 설정된 반면, 중원문화권은 오랜 생활중심 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녹아들어 생성된 문화 발전적 개념 으로 설정되어 있음. - 세계 최대 규모의 수양개 선사유적 : 선사문화의 중심지 - 충주 주변의 고려 문화재 : 고려시대 지방문화의 중심지 - 세계 最古의 금속활자본 : 고인쇄문화의 중심지 - 우수한 철제 공예문화 : 철기문화의 중심지 - 동학, 의병, 독립운동 : 근현대 민족운동의 중심지 - 정지용·홍명희와 같은 문학인 : 근현대 문학의 중심지 등
사 회 특 성	주변문화를 포용하는 융합문화적 성격	· 중원문화권의 경우 국토내륙 중심부에 위치하여 선사시대부 터 하나의 생활중심권역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변의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체화된 독특한 융합 문화적 특성을 발현하고 있음. - 충북의 문화권역에는 다양한 각종 문화유적들이 신재 - 전국 문화권의 요소들이 모두 내재된 생활문화 유적 잠재
경 제 특 성	외부교류가 역동적인 문물교류 문화적 성격	·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인해 전국 어느곳에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결절기능을 담당하여 예로부터 수로와 사통팔달의 자 연도로를 통한 외부와의 교류가 매우 빈번하였던 지역임. - 남한강과 금강을 이용한 수운(水運)의 역할과 기능, 국토 연계형 교통요지 - 예로부터 물류길을 활용, 사람과 물자의 왕래 빈번

제2부 부문별 계획

- 중원문화권의 문화예술 특성과 그것의 현재적 표현이 부족한 결과 지역문화 예술의 정체성이 도민들에게 제화되어 생활문화화 되지 않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이 특정 단체나 예술가·전문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민 주체의 문화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충북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됨.
- 중원문화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이 필요함.

2. 문화예술인프라

- 문화예술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일반공연장과 소공연장은 모두 민간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문화예술시설이 대부분 청주, 충주, 제천 등 시급도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군단위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최근에 지어진 문화예술공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기존 시설이 협소하거나 낙후되어 있으며, 장비 역시 문화예술행사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2000년대는 문화의식의 고도화와 적극적인 문화복지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생활권역에서 기본적인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문화의집 등)이 완비되어야 함.

〈표 II-6-2〉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분포

(1998년말 현재)

구 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청원	진천	괴산	옥천	음성	증평	단양	영동
공연시설	7	1	1	1	0	0	0	1	0	1	0	1
전시시설	12	5	6	3	5	2	3	2	2	0	2	2
지역문화복지시설	4	0	3	0	5	9	12	1	1	2	2	2
문화보급전수시설	3	3	1	1	0	1	1	1	1	1	1	2
도서관	1	3	4	1	2	1	1	1	2	1	2	1
계	27	12	15	6	12	13	17	6	6	5	7	8

- 문화예술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부재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전문인력을 네트워크화하고 힘을 결집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절대 필요함.

3. 문화행사

- 충북문화사업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발전이지만, 기존 틀과 의례적 행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 역시 문화제·민속·미술·음악 중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

〈표 II-6-3〉 1998년도 문화예술행사 행사별 지원액

행 사 명		기 간	주관단체	지 금 액 (백만원)				개최 지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96.2	48	210.8	37.4	
국제 행사	아홉의 용머리 대청호	8. 8	한국자연환경예술협회	24		24		청원
	국제환경 미술제	~ 8. 31						
전국 단위 행사	전국대학무용제	10. 6	무용협회	15	3	12		청주
	제3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0. 14	문 화 부	32		16	16	밀양
	제5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10. 17	문 화 부	12.8		6.4	6.4	밀양
	제16회 전국연극제 참가	10.28	연극협회	11.2		11.2		순천
		~ 11.13						
	제7회 전국무용제 참가	9. 16	무용협회	11.4		11.4		전주
도단위 행사	제16회 충북연극제	6. 30	연극협회	3.6		3.6		청주
	제23회 충북미술대전 및 미술작품 순회전	5. 26	충북예총	10.2		10.2		청주
	제40회 충북예술제	10.19	"	48		48		도내
	'98 사진영상의해	1월	사진작가협회	24		24		청주
		~ 12월						
	제7회 충북무용제	6. 13	무용협회	3		3		청주
	청소년야외음악회	6. 9	충북예총	40	10	30		청주 충주
	7. 3							
	중앙문화프로그램 활용	12. 14	"	20	20			청주
		12. 18						
	청소년 음악제	12. 18	보 은 군	20	15		5	보은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10. 23	청 원 군 충북예총	18		8	10	청원
	제16회 충북대표향토축제	12. 20	충북예총	3		3		청주

자료 : 道政白書, 충청북도, 1998.

제2부 부문별 계획

- 지역과 지역민이 주체가 된 창의적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낮고, 그 결과 지역문화의 잠재력을 일깨워 새로운 문화 창달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의례적·획일적 문화행사에 치우친 결과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와 비교우위의 문화경쟁력을 갖추지 못함.
- 도내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열고 있는 지역축제의 내용이 주민화합과 관광축제 중심의 획일적이고 소비문화 위주이며 일회적인 이벤트성에 치우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화비전을 위한 문화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호 분산적·일회적·즉흥적·고립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기획, 지원, 총괄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표 II-6-4〉 충북의 주요 지역축제 개최현황

축제명	주최기관	목 적
충북예술제	예총충북지회	주민화합
청주시민의날 행사	청주시	주민화합
우록문화재	예총충주지부	주민화합
충주(수안보) 무술축제	충주무술축제추진위원회	특수목적
양성온천축제	양성온천관광협의회	관광축제
수안보온천제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관광축제
녹색도시문화 축제	환경문화예술추진위원회	특수목적
제천의병제	제천의병기념사업회	특수목적
청원군민의날 및 문화재행사	청원군체육회	주민화합
속리축전	보은문화원	주민화합
속리산단풍축제	보은군	관광축제
지용제	옥천문화원	주민화합
중봉충렬제	옥천문화원	주민화합
난계국악축제	난계기념사업회	특수목적
생거진천화랑제	진천문화원	관광축제
괴산문화제	괴산문화제추진위원회	주민화합
무영제	음성문화원	특수목적
설성문화제	설성문화제추진위원회	주민화합
소백산철쭉제	소백산철쭉제추진위원회	관광축제
단양온달문화축제	단양온달문화축제추진위원회	주민화합
증평문화제, 증북인삼축제	증평문화원	주민화합, 특산물 판촉
제천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전국산악등반대회추진위원회	관광축제, 생활체육
박달가요제	제천시	관광축제

4. 문화행정

- 충청북도 문화진흥국에서 문화 및 관광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나, 최근 폭증하는 문화예술행사와 다양한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수용할만한 체계적인 조직기능이 미약함.
- 충청북도와 시군 자치단체간 사업배분의 기준이 모호하며 명확한 업무분담 기준이 없음.
- 문화예술행정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전문직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 결과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문화정책 기획력이 크게 떨어짐.
- 문화예술정책을 기획, 집행,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현재 충북지역 문화예술 지원은 충청도청 문화관광 문화예술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행정부서의 한계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도내의 문화예술행사는 단체·기관별로 독립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며, 그 과정에서 인력과 재정 낭비가 많고 장기적인 비전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충북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의 수립과 지원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분야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됨.

제2부 부문별 계획 ■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역문화유산의 분포 · 깨끗하고 순박한 청정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미약 · 중원문화권 위상과 전망 미약 · 주체적인 창의력 부족 · 지역경제의 재정력 취약
강점	약점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사업과 지역여망 가시화 · 덜 훼손된 자원의 개발잠재력 · 중부권 중핵지대로 급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외간 지역이기주의 표출 · 지역문화경제의 경쟁력 상실 · 사회인프라 환경의 시너지 결핍

2. 전략과제 도출

□ 중원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중원문화의 역사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지역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오늘에 되살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중원문화권 재정립, 지역박물관 특성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을 보다 많이 발굴·보존·계승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기존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문화산업화를 적극 모색해야 함.
- 또한 전통문화가 사장되지 않고 도민들의 생활문화에 투영되어 도민 주체의 전통문화 계승과 창조가 가능하도록 지역축제, 테마문화특구 등과 연계하여 일체화되도록 하여야 함.

□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을 양대 산맥으로 한 문화예술단체는 자발적인 운영의 합리화는 물론 문화예술공간과 운영주체의 난위를 장르별로 전문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제6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문화예술단체는 창작과 발표공간의 장르별 전문화와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장점을 발휘하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성화하고 재원을 확충하며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전하에 제도적인 문화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급변하는 문화지형에 역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문화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또한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끊임없는 문화산업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문화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문문화기관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은 “충북문화비전 21”에서 제시된 ‘충북문화재단’ 설립이 가장 바람직함.

□ 문화 향수기회의 확대

-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형편과 문화향수의 접근이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과 소외계층들의 문화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지역실정과 정서에 맞는 소규모의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곳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야 함.
- 도민들의 문화창조력을 제고하고 올바른 문화소비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행사를 올바르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는 지역문화의 잠재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문화예술 소비자층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문화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임.
- 지역 문화예술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계층별, 주요 직종별, 단체별 문화 특성과 욕구를 결합하여 각각의 지역 문화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문화예술창작과 향수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이는 더 나아가 주체적인 도민의식과 긍정적인 자기 문화인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지역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제2부 부문별 계획 ■

□ 충북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세계화

- 충북의 문화예술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기본개념하에 지역의 문화예술을 산업과 문화상품에 연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체계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가장 충북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이벤트나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여야 함.
- 보다 입체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찾으려는 새로운 관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와 자연환경 자원을 입체화하여 복합적인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유무형의 문화재는 물론 의·식·주와 관련된 민속 및 생활문화, 디자인, 전설 등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함.
- 충북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를 위해 다각적인 국제적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정보와 문화재, 그리고 인력과 행사 등의 교류는 물론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적극 끌어들이어 지역문화교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제3절 세부추진계획

1. 중원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1)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

□ 문화재 및 문화유적의 보존·정비

- 우리 조상의 얼과 삶의 숨결이 담긴 귀중한 유산인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정비·보존·전승하기 위해 관리중인 문화재(417점)중 건조물, 기념물, 향교, 고가옥 등 노후·퇴락 진행이 비교적 빠른 것부터 우선 보수·정비를 추진함.
- 향토의 얼을 선양하고 개성있는 지역문화로 발전시킴으로써 역사의식 함양 및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틀 마련하기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 실태조사계획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함.
-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안내판과 설명문 실태를 파악, 연차별로 특성있는 문화재 안내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 문화유적의 체계적 발굴조사

- 개별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체계화하며 발굴된 유적지와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발굴종합계획서를 수립함.
-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 발굴과 보호를 전담할 가칭 '충북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함.

□ 중원문화의 발굴과 전승 및 활용

- 급격히 사라지는 향토민속을 발굴·보존하며, 민속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우리 것을 소중히 아끼는 문화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생활문화역사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장기적인 보전차원에서 도내 중고교 학생중심의 청소년민속예술제를 개최함.
- '한국의 옛 인쇄문화' 독일 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자문회의 청주 개최, '한국의 옛 인쇄문화' 영국 전시 등을 통해 "직지"를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직지"의 세계문화유산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함.
- 진천 비프네칼에 허준 공덕비와 기념주막을 건립함.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을 중심으로 매년 3개 작품씩 선정하여 전통민속예술작품으로 보존·육성하고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수교육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함.
- 현재 특색있는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을 전통민속마을로 지정해 육성·지원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종합적인 마을 조사(마을 유래, 지명, 민속, 가옥 등)를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함.

〈표 II-6-5〉 전통민속예술작품 선정·보존 현황

연도별	작 품 명
1992년	충주 양전명소오룡굿, 보은 흰돌물다리기, 음성 거북놀이(3)
1993년	청원 낭성 산판소리, 영동 길쌈놀이, 충주 탄금대방아타령(3)
1994년	청주 강서 농자놀이, 영동 설계리농요, 단양 매표민요(3)
1995년	충주 목계 별신굿, 제천 두학농악, 청원 강외 동평들노래(3)
1996년	청주 웃다리농악, 보은 속리산탐돌이(2)7
1997년	진천 용신놀이, 음성 거북놀이(2)
1998년	충주 탄금대 방아타령, 영동 길쌈놀이, 단양 매표민요(3)

자료 : 道政白書, 충청북도, 1998.

제2부 부문별 계획 ■■■

□ 지역박물관의 확충과 특성화

- 인구 9만명당 1개 이상을 원칙으로 '1시군 1박물관(문학관·미술관)' 운영원칙 하에 기존의 시군 향토자료전시관(10개소)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역사·문화자료의 특색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토의 일을 선양하고 지역내 문화유적을 관광 자원화함.
- 시군 향토자료전시관·박물관(문학관·미술관)을 특성화하거나 지역특성을 살린 전문박물관을 건립하고, 학예사 등 전문직 확보와 전문성 보장으로 내실있는 전시관을 운영하여 시·군간 전시관 또는 박물관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유도함.
 - 단양 : 석회석·시멘트박물관 및 선사박물관
 - 진천 : 천박물관 및 고전문학관
 - 옥천 : 근현대문학관
 - 영동 : 국악박물관
 - 청주 : 항공역사박물관
 - 괴산 : 유교박물관
 - 보은 : 불교박물관
 - 제천 : 농업박물관 및 한의학박물관
- 전시관 확대운영의 근간이 되는 향토사료 수집을 지역 문화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시된 사료는 시대별 특징을 살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함.

□ 중원문화권의 위상 재정립

- 중원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발굴·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8~2002년 제2차 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충주 무암리 고분군, 보은 삼년산성, 진천 삼용리 백제요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특히 중원고구려비 등 지역내 산재해 있는 고구려문화를 중심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부각시킴.
- 청주 동헌, 보은 장내리 동학유적, 괴산 우암송시열유적, 진천 김유신탄생지의 사적공원 조성 등은 제3차 문화권정비사업으로 추진함.
-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및 세계문화 탐방공간으로 진천·충주 등지에 문화관광촌을 건립함.
-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받아 답석문내관을 연차별로 간행하고, 지역사료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 CD-ROM 및 역사문화지도를 제작함.

제6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2001년까지 자료수립을 마친 뒤 연차적으로 충북의 문화총서를 간행하고 충북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중원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2) 지역정체성 확립

□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충북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1C의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충북학연구소를 운영 활성화함.
- 매년 충북학총서를 간행하는 한편, 대외학술활동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지역정체성 찾기에 이바지하도록 함.
- 충북학사료실 운영활성화를 통해 2003년부터 명실상부한 충북자료센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충북역사자료관’으로 확대 개편함.
- 도사편찬위원회 기능을 겸하는 한편, 충북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를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함.

□ 도사 편찬

- 충청북도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성찰하기 위해 도사편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
- 다른 시도의 경우 별도의 도사편찬위원회(道史編纂委員會)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학연구소가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위임함.
- 원활한 도사 편찬과 충북의 어제와 오늘을 밝혀줄 ‘충북역사자료관’을 건립함.

□ 지역정체성 찾기

- 시군을 기본단위로 내고장 바로알기 운동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충북인의 얼을 실생활에 접목시킨 조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거나 인터넷 게재, 교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함(충북학연구소 담당).
 - 도 및 시·군, 교육청, 시민단체에서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 추진
 - 행정기관 : 운동추진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 도민홍보 및 교육
 - 교육청 : 초등학교 교재에 “충북인의 얼” 과목편재 등 학생교육
 - 시민단체 : 운동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도민운동사업)

제2부 부문별 계획 ■

- 도의 이미지와 명예를 높여준 전국적으로 알려진 역사인물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물을 선정, 도민의 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충북의 이미지 제고함(충북학연구소 담당).

2.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1)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

- 기존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의 보존 및 계승과 예술교육·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충북 주민의 문화복지를 제고하고 지역예술진흥의 기반을 마련함.
- 충북의 문화유산지표를 작성하여 충북 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함.
 - 작성대상 : 문화재정,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공연단체, 문화소비 등
 - 작성방법 : 문화관련 전문기관의 조사, 분석자료에 의한 발전지표 작성
 - 추진일정 : 2002년 지표조사를 거쳐 2003년 발전지표 작성
- 해당 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문화관광부와 국고보조 협의, 연차적으로 시·군 단위 1개 문화예술회관을 원칙으로 확충 또는 신규 건립하고 각종 문화시설에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함.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공간으로 매년 읍면동사무소 및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 읍·면·동 단위 1개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및 전문문화시설 조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도 차원의 폐교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함.
- 각 문화단체별로 운영중인 문화학교를 양성화하고 학교별 운영 평가를 통해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회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킴(재정지원, 행정지원).
- 인구 6만명당 1개 도서관을 원칙으로 기존 도서관을 확장하거나 신규 건립하여 도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함.

□ 문화예술인과 단체 및 행사 지원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예산, 기금 등 공공재원의 확대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역량

제6장 전통문인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을 제고하며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극대화함.

- 문화예술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를 장기적으로는 '충북문화재단'에서 총괄 지원함.
-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층을 조성하여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함.

2) 문화재정 확대

□ 도 문화예술기금의 확대와 운영개선

-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정 토양이 되는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도 문화예술부문의 예산점유율을 2008년도까지 5.0% 선에 이르도록 매년 일정비율씩 상향조정함.
-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그를 통한 충북도민의 문화향수 폭을 넓힘.
 - 중앙문예진흥기금 보급대상인 시지역 이상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의 입장료 부가보급을 지역문예진흥기금으로 활용함.
 - 1995년 이후 중단된 도재정에서의 문예진흥기금 출연을 부활함.
 - 도지정문화재 관람료와 도립공원 입장료의 5%를 도가 보급하여 문예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 지역 문화예술인과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은행과 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우리 문화사랑통장'이나 '우리 문화사랑카드'를 도입하여 이자발생액의 1%를 문예진흥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 확충된 문예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재원으로 활용함.

□ 지역연고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촉진

- 지역연고기업체와 지역문화 발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각 시·군의 기업체대표, 지역기관단체장, 지역문화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충북기업매세나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
- 기업이 이미지 제고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문화단체와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화사업의 재원을 확보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지역문화예술사업에 지원의사가 있는 기업을 지역문화단체와 결연하도록 하여 공식적인 결연행사를 갖도록 함.
- '충북기업메세나협의회'에 참여한 기업이나 결연기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지역문화상품 제조 등 기타 유인책을 강구함.

3) 문화재단 설립

□ 문화재단 운영

- 충북지역 문화예술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문예기관을 설립함으로써 21세기 충북문화예술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충북문화재단'은 충북문예진흥기금을 종자금으로 삼아 문예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 2001년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문화유산 보존 및 개발 지원, 예술인·단체 지원, 예술관객 지원, 문화예술행정 전문인력 연수,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시설 지원, 문화교류 지원, 문화정보화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3. 문화 향수기회의 확대와 문화산업 육성

1) 문화 향수기회의 확대

□ 충북문화정보센터 운영

-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지역문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충북 문화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2002년까지 각종 문화시설에 사이버공간을 마련함.
 - 2002년 이후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주민단체로 전환하며, 행정기관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참여와 창조력을 제고시킴.
 - 장기적으로는 '충북문화재단' 등이 통합 관리함.
-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문예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수혜의 폭을 극대화함.
 - 도의 행정자료실, 충북학연구소 자료정보실 등 기존 시설을 도 단위의 문화정보센터로 육성함.
 - 충북의 역사문화를 DB로 구축하고 첨단 미디어를 활용하여 충북 고유의

제6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홍보를 위해 2001년 6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함.

□ 문화의 거리 확대 조성

- 지역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투영하여 지역 전체의 생활문화적 정체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를 확대 조성하고 문화 도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에는 특성에 맞는 시설물을 건립하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며 야외에 놀이공간을 조성
 - 그 주변에 각종 문화공간을 집중 배치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하며 특색있는 문화이벤트를 개발
 - 비조성된 시군에도 연차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
- 문화 거리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함.

〈표 II-6-6〉 문화의 거리

지 역	내 용
청 주	· 청주 성안길 일선당서점 ~ 국민은행(400m) · 청주 흥덕사지 ~ 인공폭포 ~ 예술의 전당 · 청주 흥덕사지 ~ 운천동사무소
충 주	· 충주 명동거리 (국민은행 건너편 골목 입구 ~ 하천복개 주차장)
제 천	· 제천 구정병원 ~ 중앙로 약국 (차없는 거리 200m)
청 원	· 대청호반을 연계한 문의문화재단지, 청소년수련관 일대
괴 산	· 인산리 벽초 홍명희 생가 및 제월리 고가 일대
진 천	· 김유신생가 ~ 길상사 ~ 보탑사(통일대탑) ~ 이상설생가 연계지역
음 성	· 무영로(이무영생가주변), 설성공원 ~ 문화원 연계지역
보 은	· 삼년산성 ~ 장내리 동학유적 ~ 삼가저수지 주변 일대, 오장환생가
옥 천	· 옥천 구읍 삼거리 ~ 수북리 (지용로 4km) · 옥천 지용생가 ~ 옥천향교 ~ 옥영수여사 생가 (1km)

2) 문화유산의 활용

□ 문화관광상품 개발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자연자원과 문화유산,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다양한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충청북도의 이미지인 '청풍명월'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문화상품 디자인전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 역사의 특수성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을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있는 공예 문화상품 개발
- 매년 '충북문화상품기획전'을 개최하여 우수상품 개발촉진과 문화상품에 대한 생산업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
- 시지역 및 주요관광지 등의 우수관광상품판매업소에 문화상품전시판매소를 지정하여 문화상품전시판매장을 개설

〈표 II-6-7〉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탐사 루트

구 분	내 용	비 고
선 사 고 대 문 화 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수양개, 금굴유적 • 옥천 청동기 고인돌유적 • 청원 두루봉동굴 유적 • 종원고구려비-장미산성-중앙탑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박물관과 연계
유 교 (선비) 문 화 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문화의 꽃 '직지' • 지역별 향교 및 서원 탐방 (보은대성전, 화인향교, 지역유도회) • 화양서원 중심의 송시열 유적 (정몽주, 조광조, 이이, 김장생, 김집, 송시열, 이항로, 유익선, 최익현으로 이어지는 조선유학의 대계보) • 특색있는 지역 향교축제 및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인쇄문화의 의미 재현 • 선비문화재현 및 체험 • 충청도 양반문화 체험 • 가문의 조상뿌리찾기 운동 • 전통 예절교실, 붓글씨
불 교 문 화 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리산 법주사 중심의 조계종 사찰 • 단양 구인사 천태종 • 진천 연곡리 보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륵신앙 • 승속불이(僧俗不二) 사상 • 한국의 목탑양식 재현
기독교 문 화 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풍 천주교성지, 진천 배터성지, 제천 배론성지 및 음성 꽃동네 • 광혜원, 청주 성공회성당 • 청주 제일장로감리교회, 옥천 하동교회, 청풍교회, 괴산 추산감리교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지순례 • 근대초기 교회의 교육사적 의미파악
통 일 문 화 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통일의 염원을 그린 국민성지로 개발·육성 • 김유신 탄생지, 길상사, 태령산 태실 등을 '삼국통일의 진원지'로 재조명 • 김유신탄생지-화랑벌에 이르는 '화랑로' • 동상, 교육장, 공연장, 승마장, 통일의 문, 국궁장, 극기훈련장, 전시관, 통일등산로 등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6월 국가사적지(414호) 지정 • 김유신탄생지-화랑벌 21Km를 '화랑로'로 개발 • 독립기념관 및 이상설생가 연개 • 보탑사, 연곡리 백비, 농다리, 송강사 등 유적지

제6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통문양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동시에, 매년 새로운 문화상품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고 결과물을 도내 기업 등에 제공함.
 - 공모내용 : 충북의 전통과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화상품 디자인
 - 대상품목 : 전통문화상품류, 생활문화상품류, 첨단문화상품류, 여행문화상품류, 아트문화상품류, 기타 환경문화 상품류
 - 입선작 특전 : 상품 개발비 지원
 - 공모전 개최방법 : 격년제로 개최(제1회 2001년)
 - 우수상품 특전 : 육성자금 지원

□ 테마투어코스 개발

- 도내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주제별, 시대별로 특성있게 분류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문화관광도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확대 유치를 도모함.

〈표 II-6-8〉 주제별 문화기행 루트

구 분	내 용	비 고
음식문화 기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물기행 : 옥천영동포도, 충주사과, 음성고추, 단양마늘, 제천약초, 진천청결미, 괴산 청결고추, 보은대추 등 · 음식기행 : 진천 초평 봉어찜 등 · 샘물기행 : 속리산 삼파수, 충주 달천, 제천 정방사 석간수, 초정약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시식·시음장 설치 · 전국 제일의 생수기행
근대문화 기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 옥천 정지용, 진천 조명희, 영동 권구현, 진천 조벽암, 충주 권태응, 정호승, 보은 오장환 등 · 소설 : 청원 김기진, 진천 조명희, 괴산 홍명희, 음성 이우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문학의 거두 시인 정지용과 소설의 홍명희를 중심으로 한 한국 근대문학의 성지로 인식시켜 지역의 이미지 고양
사랑문화 기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과 두향 ·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 박달도령과 금봉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문화예술단체와 연계
국악문화 기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 난계, 충주 우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제 개최시 적극적 홍보
온천문화 기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안보, 능강 돈산온천 · 단양 유황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요양 프로그램 개발 · 청원 초정약수목욕 연계
백두대간 기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요양 프로그램 개발 · 소백산군, 도솔산군, 황정산군, 대미산군, 조령산군, 백화산군, 대야산군, 속리산군, 용문산군, 황악산군, 삼도봉산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적 산악개념 이해 · 가족단위 산행의 최적지 · 정맥과 대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분계개념 파악
산성문화 기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 상당산성, 보은 삼년산성, 단양 온달산성, 제천 덕주산성, 음성 망이산성, 옥천 고리산성, 충주 장미산성, 진천 대모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화제, 봉수로와 연계 · 정북리토성 및 상주 견원산성과 연계

제2부 부문별 계획 ■■

- 유·무형 문화재와 문화유적지를 지역별, 주제별, 시대별로 분류하여 이를 도내 접근도로망, 항공망, 철도 등 교통여건과 주변 관광지 등을 연계하여 주제별로 테마관광코스를 지정함.
- 도 및 시·군에서 발간하는 관광안내책자(지도), 문화재소개 책자 등에 필히 수록하는 한편 이들 테마관광코스를 충북학연구소에서 매년 간행하는 기행총서에 반영, 책자로 간행 배포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체계를 마련함.

□ 문화산업 육성

-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점 육성함.
 - 문화관광산업 : 산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축제 적극 육성(청주인쇄출판박람회, 청주항공엑스포, 청주공예비엔날레, 각 시군 특산물축제)
 - 직지를 바탕으로 청주 인쇄출판산업 육성
 - 지식정보산업
 - 교육문화산업 : 음반, 영상산업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3) 지역문화이벤트 특성화

□ 향토문화축제의 활성화

- 기존 향토문화축제를 지역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축제의 특성화,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축제의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자원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축제를 통한 충북문화의 정체성 찾기에 기여함.
- 매년 향토축제 백서 및 평가보고서 간행, 이를 통해 축제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차별 지원하고, '충북지역 축제 자문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축제에 대한 평가·기획·자문 및 도 차원의 축제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함.
 - 기존 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작업을 통해 새로운 향토문화축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중점육성 축제(청주인쇄출판축제, 청주공예비엔날레,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 수안보온천제, 옥천지용제, 제천의병제, 음성무영제, 단양온달문화축제, 영동난계국악제)는 전국 규모의 특색있는 축제로 육성
 - 매년 우수 문화축제는 도 중점육성 대상 축제로 지원 확대

제6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국내외 문화교류 확대

-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세계적 차원의 문화교류 확대와 체계화를 통해 지역문화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충북문화의 국내외 위상을 제고하여 충북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행사에 타지역 주민과 세계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꾀함.
- 매년 충북지역에서 열리는 타지역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순회공연 및 전시를 선정해 지원하고, 특히 국제문화행사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를 적극 지원함.
- 위 사업은 충북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이를 통해 총괄 추진함.

〈표 II-6-9〉 문화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 및 목표	전략과제	세부 추진사업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지역정체성 확립	· 중원문화권의 위상 재정립 ·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 ‘내고장 바로알기’ 등을 통한 지역정체성 찾기 추진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	· 문화유적의 체계적 발굴조사 ·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 및 활용 · 지역박물관의 확충과 특성화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 · 문화예술인과 단체 및 행사 지원
	문화재정 확충	· 도 문화예술기금의 확충과 운영개선 · 지역연고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촉진
	문화재단 설립	· 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문화재단 운영방향 구상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와 문화산업 육성	문화 향수기회의 확대	· 문화의 거리 확대 조성 · 충북문화정보센터 운영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상품 개발 · 문화산업 육성 · 테마투어코스 개발
	지역문화이벤트 특성화	· 향토문화축제의 활성화 · 국내외 문화교류 확대

제3편 민족생태공원의 「관광충북」

인간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제 7 장

- 제1절 전망 및 특성
-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 제3절 세부추진계획

제7장 인간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제1절 현황 및 전망

1. 관광자원 현황

1) 자연관광자원

- 충북은 약 470개소(국립공원 3, 호수 2, 지정관광지 19, 자연동굴 4, 관광자원 22, 문화재 420)의 자연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음.
- 충북의 관광지 지정현황은 1999년 6월 현재 총17개소로 전국대비 9.7%, 지정면적은 전국 총 지정면적(183,685km²)의 26.3%(48,381km²)로 전국 최고 비중을 차지함.
- 1999년 현재 전국적으로 총 19개 지역에 2,755.19km²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은 2개 지역(속리산, 수안보)에 52.97km²가 지정되어 전국대비 1.9% 비중을 차지함.

〈표 II-7-1〉 충북지역의 관광지 지정현황

관 광 지	지 정 현 황
국 립 공 원	전국은 20개 지역에 6,473km ² , 충북은 3개 지역 888.4km ² 로 13.7% 차지
도 · 군립공원	전국은 51개소에 1,055.7km ² 를 지정하고 있으나 충북은 전무한 상태
온천지구지정	전국 109개소 47,099.5천평, 충북은 10개소 5,719천평으로 12.1% 차지
관 광 농 원	전국은 397개소, 충북은 34개소로 전국대비 8.6% 차지
자연 휴양림	전국은 75개소(123,907ha), 충북은 6개소(1,765ha)로 1.4% 차지

2) 인문관광자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충북의 지정문화재는 총 413건으로 전국대비 총 7,575건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충북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 문화예술축제는 1999년말 현재 67건으로 각 시 · 군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에 편중되어 개최되고 있음.

제2부 부문별 계획

- 개최목적별 : 특수목적(12개), 주민화합(20개), 관광축제(21), 산업축제(14)
- 축제개최 평간예산규모 : 155.4백만원
- 축제당 참가연인원평균 : 약 33,000명

〈표 II-7-2〉 문화재 지정현황

(1999년 3월 31일 현재)

구 분		전국(A)	충북(B)	B/A(%)
총 계		7,575	413	5.4
국가지정문화재	소 계	2,633	113	4.3
	국 보	302	10	3.3
	보 물	1,293	43	3.3
	사 적	412	13	3.1
	사 적 및 명 승	9	1	11.1
	명 승	8	-	-
	천 연 기 념 물	402	23	5.7
	중요무형문화재	110	2	1.8
	(보유자)	261	3	1.1
	중요민속자료	234	21	8.9
지방지정문화재	소 계	3,419	274	8.0
	유형문화재	1,725	173	10.0
	무형문화재	217	6	2.8
	기념물	1,206	86	7.1
	민속자료	271	9	3.3
문화재자료		1,500	26	1.7
전통건축물·보존지구		23	-	-

자료 : 문화관광부, 1999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9.

〈표 II-7-3〉 충북지역의 명소·명품현황

구 분		명 소	명 품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추술
	충주시	수안보온천	사과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월악산 고본주
	청원군	문의문화재단지	배
	보은군	법주사	대추
	옥천군	장계국민관광지	포도
	영동군	천태산(영국사)	곶감
	진천군	백곡저수지	자석벼루
	괴산군	화양구곡(화양등계곡)	청결고추
	음성군	무곡전적 국민관광지	고추
	단양군	단양팔경	방곡도자기

자료 : 한국관광공사, 우리고장 명소와 관광명품, 1999 내부자료.

3) 관광관련 산업

- 2000년 1월 현재 충북도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여행업체는 모두 191개업체로서 전국대비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충북지역의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5개(전국대비 1.1%), 국외여행업 62개(전국대비 2.4%), 국내여행업 124개(전국대비 4.3%)로 대부분 영세규모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출혈경쟁이 심한 편임.
- 1999년 6월말 현재 전국의 관광호텔업 등록업체는 총 456개소에 47,486개의 객실이 등록되어 있고, 충북지역에는 총 20개 업체에 1,256개의 객실이 등록되어 전국대비 4.4%,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7-4〉 충북의 관광호텔 이용현황

객실 평균이용률	전국은 59%, 충북은 35%로 저위, 특급호텔은 전무
외국인관광객 객실이용률	전국은 45%, 충북은 15%에 불과(주로 2등급 호텔 이용)
객실이용률 추이('86~'98)	전국평균 63.9%, 충북평균은 53.7% 수준에 불과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1998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75개소에 18,843개의 객실이 등록되어 있는데, 충북의 경우에는 현재 5개 업체에 673개의 객실이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수요유발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함.
- 충북지역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혀 없으며, 유원시설업 11개소와 관광편의시설업으로서 관광식당업이 4개소가 있어 관광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과 편의시설업이 매우 빈약함.

〈표 II-7-5〉 자치단체별 관광사업체 현황

(2000년 1월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여행업	2,057	355	296	156	231	229	54	667	182	191	239	291	254	276	295	218	5,991
관광숙박업	99	56	25	11	10	26	7	53	57	22	14	14	20	45	28	45	533
관광객이용시설업	51	15	0	2	0	1	0	15	7	0	1	0	0	13	2	20	127
국제회의업	34																34
카지노업	1	1		1					1					1		8	13
유원시설업	12	16	12	16	7	7	4	45	23	11	13	13	8	10	13	4	214
관광편의시설업	293	61	32	12	29	35	11	172	13	4	3	30	4	32	20	38	789
특별회원	26	9	3	1	6	1		8	5	1	2	5	1	7	3	3	81
총 계	2,573	513	369	199	283	299	76	960	288	229	272	353	287	348	361	336	7,782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체 통계 현황 대부자료, 2000.

제2부 부문별 계획

4) 관광지원기반

- 문화관광지원 기반시설로서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박물관은 192개, 미술관은 4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충북지역의 경우는 박물관이 11개로 5.7%, 미술관이 1개로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7-6〉 시도별 박물관·미술관 현황

(1998년 12월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박물관	57	8	5	3	5	10	1	19	12	11	13	10	5	13	13	7	192
미술관	12	2	1	2	2	2		10		1	2		3	1	1	2	41
합 계	69	10	6	5	7	12	1	29	12	12	15	10	8	14	14	9	233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인삼, 1999.

- 각종 지역의 문화자료나 유물 등을 전시해 놓은 개관전시관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모두 59개소가 개관하여 운영·건립 중에 있으며,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전국대비 6.8%를 차지하는 총 4개의 전시관이 개관 운영되고 있음.

〈표 II-7-7〉 개관전시관 현황

(1998년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시관	4	1	-	2	-	-	-	8	1	4	7	5	11	6	9	1	59

주 : 건립 중에 있는 것도 포함.

자료 : 문화관광부, '98년 청소년 백서, 1998. 12.

2. 관광객 이동현황

- 충북지역을 찾고 있는 관광객 이동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현재 16,402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북관광객의 내·외국인별 비중(1999년)은 내국인 98.4%, 외국인 1.6%
 - 최근 7년간(1993~1999년) 관광객 증감률은 전체 연평균의 0.6%씩 증가(내국인 0.5%, 외국인 14.0%)
 - 최근 7년간(1993~1999년) 계절별 증감률 : 봄철 1.6%, 여름 0.6%, 가을 0.7%, 겨울 -1.4%씩 증감
- 1999년 현재 계절별 관광객들의 계절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겨울철을 제외하면 각 계절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제7장 인간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표 II-7-8〉 관광객의 계절별 분포현황

구 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광객 분포	26.7%	32.8%	27.9%	12.6%
내 국 인	26.5%	32.8%	28.0%	12.6%
외 국 인	33.6%	30.1%	19.4%	16.9%

- 충북지역의 관광권역별 관광객 이동현황에서는 1999년 현재 청주·속리산권을 찾은 관광객이 27.0%를 차지하고 있고, 충주호권을 찾은 관광객은 73.0%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충주호권이 절대다수의 관광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관광객의 지역별 점유비율을 살펴보면, 1999년 현재 충주시가 전체관광객의 27.7%, 단양군이 24.8%, 제천시가 12.5%, 보은군이 10.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음성군은 0.7%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임.

3. 관광환경 전망

1) 사회구조 변화와 관광형태 변화

- 향후 21세기에는 사회경제환경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환경의 변화로 지역의 관광환경도 예전과 달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충북의 지역관광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조류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표 II-7-9〉 관광환경 전망

부문	변 화 형 태	관 광 환 경 의 변 화
사 회 구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회 도래 · 지방자치의 성숙 · 인구구조의 변화 · 도시화의 급진전 · 자유시간 증대 · 휴가제도의 정착 · 의식구조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시간증대, 자연접촉 증대, 인간성 회복 · 관광개발이 지역경제발전의 주요수단으로 등장 · 가족중심의 활동 증대, 실버산업 성장 등 · 주말, 공휴일의 대규모 여가활동 증대 · 도시내 주변지역의 여가공간 및 시설개발 증대 · 주당 근로시간 감소, 주 2일 휴무제 정착 · 여가와 일을 동시에 중시, 개성화, 자기계발 등
레 저 패 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대적 → 동태적 · 집단 → 개인, 가족 · 소비적 → 생산적 · 금전적 → 시간소비적 · 무계획적 → 계획적 · 자연적 → 복합지향적 · 계절편중형 → 계절평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적 이동레저활동 증대 · 소규모적 다양한 레저활동 증대 · 종합시너지 창출형 레저활동 증대 · 참여형, 자기중심형 자유시간 활동 증대 · 생활학습지향형, 체험형 레저활동 증대 · 패키지형 관광레저활동 증대 · 전천후형 관광레저활동 증대
관 광 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관광산업의 경쟁심화 · 기존 관광산업의 분화, 발전 · 관광산업의 주력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 종합규모화, 전략산업화 · 신규업종출현, 종합레저기업 등장 · 관광상품시장 및 지언관광산업 급성장

제2부 부문별 계획 ■

2) 미래 관광경쟁 요소와 지역관광개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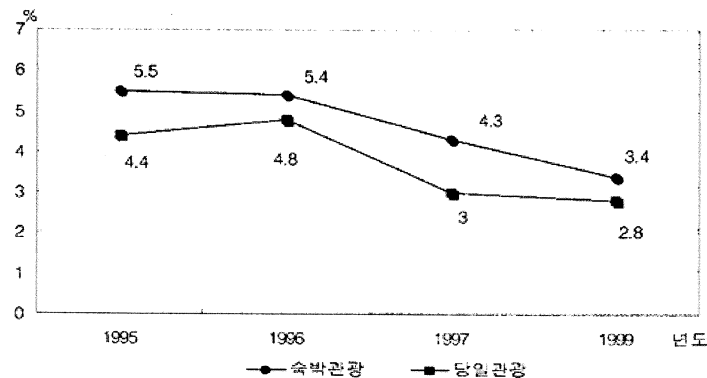
- 충북지역관광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의 개발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관광경쟁요소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자세를 지향해 나가야 함.

〈표 Ⅱ-7-10〉 미래 관광경쟁 요소와 관광개발형태

지역 잠재력	미래경쟁요소	개발형태
개발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의 편리성 · 개발의 잠재성 · 투자의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중심의 사회인프라 확충 ·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개발 · 지역의 경제적 실리성 확보
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발유형 차별성 · 심미적 감동성 · 상대적 우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접목의 차별적 특화개발 · 관광수요변화 중심의 개발 · 고급화, 전문화 경영 및 개발
지역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의 우수성 · 디자인의 참신성 · 자원확보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격의 관광개발 · 보다 새로운 관광 상품개발 · 지역자원의 생산적 활용
수용 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의 다양성 · 관광서비스의 현대성 · 관광시설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 지역자원의 개발 · 관광인력의 전문화 · 관광의 네트워크 시스템화
홍보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이미지의 부합성 · 의미전달의 확실성 · 이용대상 수용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관광 CI 전략의 도입 · 특화된 의미부여 개발 · 이용계층별, 주제별 테마화 개발
지역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의 고유성 · 자원의 문화적 우수성 · 의미전달의 가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요소의 관광이벤트화 · 문화요소의 기념상품화 개발 · 지역문화의 새로운 창조 개발

3) 관광객 행태

- 국민관광실태조사 결과(1999년)에 의하면, 충북지역은 숙박 및 당일관광 여행목적지로서의 점유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충북지역이 관광목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Ⅱ-6-1〉 여행목적지로서의 충북지역 점유비중

제7장 인간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 충북의 경우 최근 지역의 관광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기반 인프라를 배경으로 관광숙박시설과 다양한 관광시설이 확충된다면 향후 관광목적지로서의 전국대비 점유 비중이 점차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II-7-11〉 1999년 국민관광실태

구 분	관 광 특 징
목 적 지	· 숙박관광은 강원도 1위, 경북 2위, 경남 3위 · 당일관광은 경기 1위, 경북 2위, 경남 3위
여 행 일 수	· 연간평균 7.58일(숙박 3.84일, 당일 3.74일) · 숙박관광일수는 1박 2일, 2박 3일이 가장 많음
교 통 수 단	· 자가용 선호(48.6% 이상)
숙 박 형 태	· 여관, 민박, 콘도미니엄, 일반호텔 선호 증가
연 간 1 일 여 행 경 비	· 총비용 약 24.4만원(숙박관광 평균 약 12.9만원, 당일관광 평균 약 11.5만원)

자료 : 한국관광공사, 1999년 국민여행실태조사, 2000.

4) 관광수요

- 관광산업은 국제수지의 개선, 고용 및 재정수입 증대, 관련산업의 발전 및 지역개발의 촉진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세계화·정보화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국제관광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II-7-12〉 외국인 관광수요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7	2010	2020	연평균 증가율(%)	
						1997-2010	2010-2020
동북아	일 본	1,460	1,676	3,152	4,199	4.85	2.86
	중 국	43	214	1,056	2,246	12.3	7.55
	대 만	211	104	147	202	2.66	3.18
	홍 콩	71	97	258	421	7.52	4.90
	소 계	1,785 (60.3)	2,091 (53.5)	4,613 (53.7)	7,068 (51.3)	6.09	4.27
미 국		325 (11.0)	424 (10.9)	719 (8.4)	1,116 (8.1)	4.06	4.40
기타지역		849 (28.7)	1,393 (35.6)	3,253 (37.9)	6,803 (49.4)	6.52	7.38
합 계		2,959 (100.0)	3,908 (100.0)	8,585 (100.0)	13,781 (100.0)	6.05	4.73

자료 : 국토연구원,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 2000.

제2부 부문별 계획 ■■■

- 외국인 관광수요는 1997년 현재 3,908천명에서 2020년에는 13,781천명으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5.4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가별로는 중국의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여 1997년 현재 97천명에서 2020년에는 2,246천명으로 연평균 13.7%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중북지역으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중국과 일본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관광상품과 패키지 등의 개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중북지역의 숙박관광은 1997년 현재 797만명으로 전국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일관광은 전국의 5.6%를 차지하여 총 1,943만명의 내국인 관광수요를 보임.
 - 2020년에 중북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관광여행자수는 3,74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II-7-13〉 내국인 관광수요전망

(단위 : 만명, %)

구 분		1997년	2010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1997-2010	2010-2020
숙박 관광여행	전 국	-	18,390	21,636	2.4	1.8
	충청권	2,814	3,692	4,356		
	충 북	797	1,046	1,234		
당 일 관광여행	전 국	20,428	33,004	44,929	4.7	3.6
	충청권	4,048	6,521	8,867		
	충 북	1,146	1,846	2,511		
국민관광 이동총량	전 국	34,418	51,394	66,565	3.8	2.9
	충청권	6,862	10,213	13,225		
	충 북	1,943	2,892	3,745		

자료 : 국토연구원, 충청권 공동발전방향 연구, 2000.

- 관광수요의 점유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중북 중남부지역에 위치한 청주·속리산권역은 20~25%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호권역은 75~8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려하고 다양한 자연자원 보유 · 우수한 중원문화유산 다수 분포 · 입체적 관광교통 연계 양호 · 국토중심부에 위치 접근성 양호 · 국토내륙 신 산업지대로의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유인 거점 기반시설 미흡 · 관광의 정책적 배려와 투자 빈약 · 관광지원간 연계 보완체계 미흡 · 관광상품화 미흡, 서비스 취약 · 지역문화관광의 정체성 미약
<div>강점</div>	<div>약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관광수요의 양적인 증대 · 관광이용 패턴의 질적 변화 예상 · 국내외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 관광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부각 · 지방 및 중앙의 관광개발의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관광산업 육성 경쟁심화 · 경관훼손·문화정체성 훼손 우려 ·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난 개발 우려 · 관광객의 관광선호도 다양화 · 경쟁지역 관광집중투자, 공격경영
<div>기회</div>	<div>위협</div>

2. 전략과제 도출

□ 어드벤처형 관광개발의 추진

- 관광개발의 윌링리조트화
 - 충북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4차 국토계획의 내륙순환관광벨트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간 협력사업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
 - 차별화되고 특화된 다양한 관광메리트 시설을 도입
-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명소이미지화
 - 충북의 영동에서부터 단양에 이르는 297km의 내륙순환 관광도로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충북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명소로 육성
 - 충북관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복합레저공간의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
- 관광특구 및 개발촉진지구의 육성
 -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차별적인 메리트의 확보 및 특화개발 전략의 접목을 통한 관광특구의 육성과 관광전문도시 육성 및 개발촉진지구내 관광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제2부 부문별 계획

○ 테마형 신규관광지의 개발

- 테마형 신규관광지의 개발과 관광지간의 연계를 통하여 충북관광의 메리트를 확보

□ 지식기반형 관광산업의 육성

○ 외래관광객의 계층별 수용능력 확대

- 다양한 유형의 호텔·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계층별 수용능력을 확대
- 녹색관광을 통한 농촌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

○ 관광비즈니스사업 육성

- 관광관련 사업의 육성을 통하여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공항관련 관광비즈니스를 적극 육성하여 지역내 파급효과 제고

○ 관광서비스기반 확충

- 교통망 및 수단의 연계 강화와 업체간의 경쟁·협력을 통한 관광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 서비스 기반 확충

□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 충주·단양·청풍지구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을 전개하여 국제적인 내륙호반 관광명소화를 추진

○ 관광비수기 관광의 활성화

- 각종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야경관광 사업의 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관광비수기가 없는 충북관광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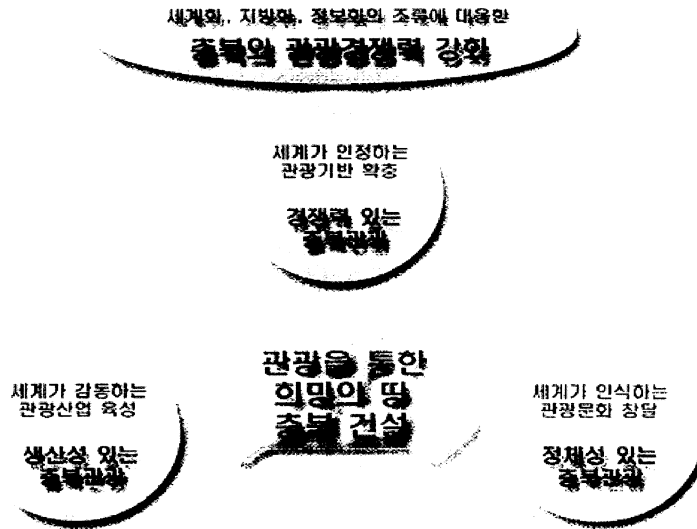
○ 관광홍보 및 마케팅 체계의 개선

- 전문화된 지역 관광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전문인력과 지역 이미지 요소를 활용한 관광 상품화개발과 전략적 판촉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관광안내체계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
- 경쟁력 있는 신소재형 관광사업아이템으로 다양한 관광 특수시책사업을 전개

○ 관광조직 보강과 관광투자 촉진

- 실질적인 관광증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협회의 운영 활성화를 추진
- 지역주민 공모주 발행, 관광투자자유지구 선정 및 옵션투자의 활성화 등과 같은 관광재원조달 및 투자촉진 방안을 강구

제7장 인민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그림 Ⅱ-6-2〉 충북관광의 장기발전 구상

제2부 부문별 계획

제3절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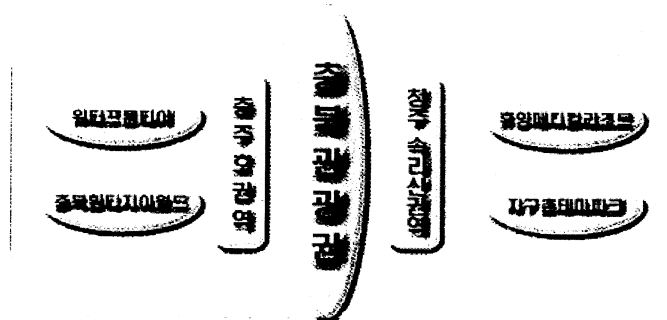
1. 어드벤처형 관광개발의 추진

□ 관광개발의 윌링리조트화(Willing Resort)

- 기존관광지의 개선 및 보완
 - 기존의 지정관광지에 대한 확대개발 및 시설보완 개발을 추진하면서 도내 6대 거점관광지의 집중개발을 통해 파급효과를 확산시키 나가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특성화와 내실화를 도모
 - 이와 함께 괴강지구, 계산지구, 구병산지구, 차곡지구 등을 신규 관광지로 지정 개발하여 차별화 특화된 관광개발을 추진

〈표 II-7-14〉 기존 및 신규관광지 특화방향

기존 및 신규 관광지		자원의 성격	차별적 특화방향
기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달지구 · 단양팔경지구 (천동, 고수, 다리안) · 청풍·교리·능강지구 · 수안보온천 지구 · 충온·능암·돈산지구 · 칠금지구 · 무극지구 · 만취산지구 · 수옥정지구 · 속리산지구 · 장계지구 · 양산팔경(송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탐방형 · 자연탐방·자연휴양형 · 역사·호반·산악형 · 온천휴양형 · 온천휴양형 · 온천휴양형 · 전적교육장형 · 레포츠휴양형 · 가족휴양형 · 가족휴양형 · 수변위락형 · 수변휴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권역 2개 위락기지 -충주호권 · 워터프론티어 충북한타지아월드 -청주·속리산권 · 휴양 메디컬 리조트 지구촌 테마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지구 · 괴강지구 · 차곡지구 · 구병산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탐방형 · 가족휴양형 · 가족휴양형 · 산악휴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대 거점 38개 지구 -아간위락관광지구 -수변위락관광지구 -문화위락관광지구 -첨단위락관광지구 -역사위락관광지구 -자연위락관광지구



〈그림 II-6-3〉 충북관광권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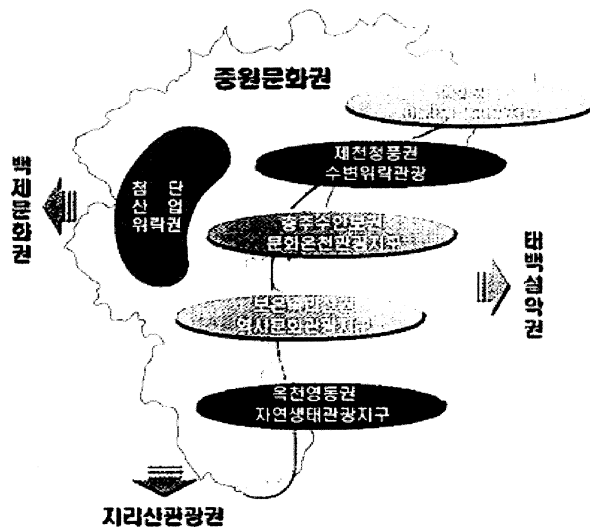
제7장 인간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족 조성

○ 거점 관광지의 지구별 테마화

- 제4차 국토계획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사업을 감안한 내륙순환관광벨트의 거점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
- 이를 위해 충북도내 6대 관광거점별(단양권, 제천청풍권, 충주수안보권, 청주청원권, 보은속리산권, 옥천영동권 등 6개 권역)로 차별적인 지구 지정제도 도입
- 내륙순환관광벨트의 기능은 단순히 지역내 관광지간의 연계차원에서가 아닌 인접된 지역간 협력을 통하여 인접 수도권, 충청권, 중부내륙권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

〈표 II-7-15〉 거점 관광지의 지구별 테마

권역	중심도시	테마 지구명	개발방향
단양권	단양읍	야간위락관광지구	· 야간동굴개장 · 수변거리축제
제천청풍권	제천시·청풍면	수변위락관광지구	· 수경공원 · 수상레포츠기지
충주수안보권	충주시·수안보	문화온천관광지구	· 돛온천장 · 수안보마술축제
청주청원권	청주시·오송	첨단위락관광지구	· 오송보건의료신도시 · 오창과학산업단지
보은속리산권	괴산읍·속리산	역사문화관광지구	· 속리산도미노홀 · 기업연수타운
옥천영동권	옥천읍·영동읍	자연생태관광지구	· 산간휴양마을 · 물한생태공원



〈그림 II-6-4〉 충북 6대 기점 관광개발 구상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7-16〉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수 도 권	한강벚길 700리 탐방코스 개발, 공동 홍보물 제작, 청소년 문화탐방 등
충 청 권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충청권 역사가도』 사업 추진
중부내륙권 (3도 관광지대)	광역권개발사업 추진, 공동이벤트 개발, 지역협력모델사업 추진
5도 관광지대	내륙관광루트 공동개발, 다양한 체험관광 특화사업 개발

-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제적 위락단지 구축
 - 충북권에 규모의 경쟁력이 있는 국제적인 관광위락기지의 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관광 소권역별로 테마중심형의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개발을 추진

□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명소이미지화

- 내륙순환관광도로의 정관연출
 - 지역별로 다양한 꽃길 조성 및 계획된 가로수조경 등으로 지역의 이미지가 살아나도록 관광정관디자인계획을 통한 개발구상을 추진
 -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테마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고 종합휴게소, 향토음식, 토종특산물 등을 육성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며, 지역경제에 과급효과를 줄 수 있는 지역특화시설을 다양하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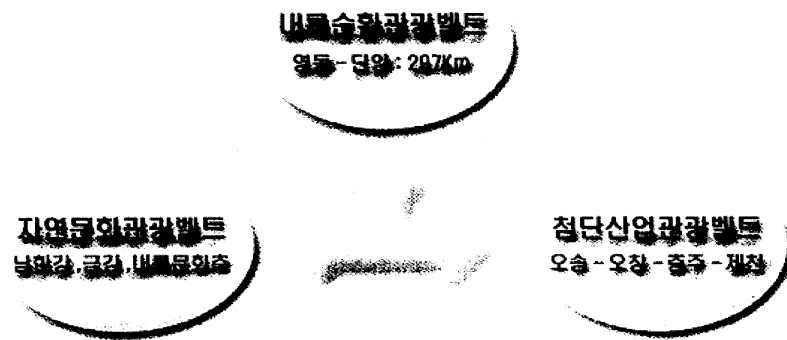
〈표 II-7-17〉 내륙순환관광도로 관광명소 이미지화 사업

지 역	사 업 내 용
단 양 군	단양활공장 조성, 천쪽꽃동산, 소나무가꾸기사업, 간이산림욕장, 온달관광지개발, 도담삼봉지구관광개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관광도로변 조경수식재, 벚꽃 나무동산조성, 관광수변공원조성, 수석공원조성, 야생조수관람장
제 천 시	특색조림 가로수길, 생악제조재배단지, 덕주산성복원, 한수 문화마을 조성, 월악유스호스텔건립, 약초재배단지조성, 덕주, 미륵사사찰 보수
충 주 시	미륵사지정비, 명소화특색조림, 미륵리도요지정비, 주말농원조성, 향토음식촌 조성, 수안보지구관광개발, 가로수길 조성
괴 산 군	수옥정관광지조성, 특색조림, 꽃동산조성, 사담관광농원조성, 조령민속공예촌 조성, 가로수길 조성, 허브농원조성, 옛돼지마을 조성, 은어양식시범육성, 후평숲 개발, 용추폭포 개발, 도원성미술관 조성, 쌍곡쉼터 조성
보 은 군	살구나무가로수길 조성, 정이품송조형물설치, 환경친화형 쉼터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정이품송주변꽃길조성, 문화마을 조성, 한우식판장 설치, 속리산조각공원
옥 천 군	가로수길 조성, 벚나무가로수길 조성, 농특산물직판장, 호도나무단지, 자연휴양림(곤룡재, 명티리 등)
영 동 군	향토음식마을 및 쉼터, 포도단지 시설현대화, 관광휴게소, 감나무가로수길, 야생꽃길 조성, 자연휴양림(용화)

제7장 인간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 기능별로 잘 짜여진 지역관광 연계망 구축

- 충북의 핵심적인 관광발전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내륙관광순환도로와 더불어 미래 첨단산업벨트와 지역문화유산의 연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테마형 관광벨트의 조성과 효율적 연계망을 구축



〈그림 II-6-5〉 지역관광 연계망 구축

□ 관광특구 및 개발촉진지구 육성

○ 관광특구의 활력회복

- 지역고유의 잠재자원을 적극 활용하거나 창조적이고 매력있는 매머드급의 축제개발로 병실상부한 관광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충북도내 관광특구간 연계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남부권의 속리산관광특구는 불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며 전통문화의 차별적 개발을 추진하고, 중북부권의 수안보 관광특구는 온천·중원문화자원 중심의 차별적 개발을 추진
- 이를 위해 속리산을 배경으로 보은대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보은상징관광도로”를 조성하고, 수안보지역은 “수안보 세계마술축제”를 개최토록 하며, 온천수를 주제로 한 온천수박물관, 온천식물원 등 다양한 시설개발을 유도

○ 개발촉진지구 관광사업 추진

-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관광의 활성화 및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신규로 단양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관광전문도시로 육성

제2부 부문별 계획

-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시설설치와 사업추진 시에는 주변의 환경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친화적 형태로 개발하되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

〈표 II-7-18〉 테마형 관광특구 개발

속리산 관광특구	수안보 관광특구	단양관광특구(후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무속인 대축제 -8도 풍물굿 · 보은대로 이미지 구축 -보은상징 관광도로 조성 · 불교미니엑스포 -미니불교 박람회 등 · 참여형 관광마당 -속리산 탐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안보 세계마술축제 -국내아마추어마술대회 -국내프로마술대회 -세계아마추어마술대회 -세계프로마술대회 · 세계 기인열전 축제마당 -세계의 진기명기 -세계 기네스대회 · 온천수가공 택배사업 -온천수 가공판매 -식료용,치료용,미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북부 관광위상 확립 - 태백, 경북과의 경쟁력 확보 · 외래관광객 유치전략 차원 - 단양문화관광 확립 · 단양 야경가꾸기사업 연계 - 전천후 Full Time 관광 · 고수대교 전구로드쇼 조성 - 야경관광 명소화사업 ·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 선사문화체험프로그램 · 사계절 레포츠휴양 - 래프팅, 패러, 서바이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고모형 · 도미노홀 놀이공원 · 지구촌 그랜드 명품전 · 보은대로 명상길 코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수식생원, 자연 에너지관 · 남한강 어드벤처 조성 · 충주호야경 선상관광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담삼봉지구 신비효과 연출 · 국제활공대회 정기 개최 · 테마형 관광도로 조성

〈표 II-7-19〉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

지구	보은개발촉진지구	영동개발촉진지구	제천개발촉진지구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타운 건설 · 신정관광지 개발 · 구병산 관광지 개발 · 삼년산성 복원사업 · 속리산 스키장 건설 · 북암 연수원 건설 · 동학 기념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류 유스타운 건설 · 백화산 관광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 리조트단지 건설 · 제천 골프클럽 건설 · 금수산종합연수타운 · 청풍 허브랜드 조성 · 한방약초타운 건설

□ 테마형 신규관광지의 개발

○ 정풍랜드

- 단양팔경, 월악산, 수안보온천을 포괄하는 충주호 관광권역의 거점도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북아시아 지역을 시

장원으로 하는 세계적 규모의 주제공원을 유지함.

- 현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천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연계된 종합형 리조트 단지로 개발하고, 특히 충주호의 수면을 이용한 수상레포츠 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활용함.

○ 자연사박물관

- 주변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활용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수안보 온천지역과 월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제공하여 관광명소화를 추진함.
- 학생들의 현장교육을 위한 수학여행단과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지로서의 관광코스로 연계 개발함.
- 희귀한 자연사자료를 활용하여 자연사박물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교육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자연현상 및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함.

○ 충주온천 종합휴양단지 조성

- 현재 독일 테라바트사와 (주)한독스와 합작형태의 공동개발로 투자방향서와 함께 가계약이 이루어진 충주 연수지구에 종합온천휴양레저타운을 조성토록 함.
- 본 사업지구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되 분명한 정체성이 부각되는 테마구성을 통한 복합형 온천휴양관광지구로 개발해 나가도록 함.

○ 조정지구(물의 메카)

- 조정지구 내에는 물과 관련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심 지역에 '조정마당' 및 '새종수 중앙광장'을 건설하고 물 관련 테마파크(Water park)를 조성하며, 남사면 북쪽 임야지역에 허브원(Herb Garden)을 조성함.
- 주변의 '윤보의 집', '난 명예연구소', '손병희선생 유허지', '한봉수선생 묘소', '윤관장군 영당' 관광자원과 '구녀성' 등 역사문화 유적지를 정비, 복원하여 역사탐방 및 등산코스로 활용함.

○ 충주호 주변의 친수형 관광지조성

- 충주호 주변은 수자원 및 상수원보호차원에서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을 위한 모델사업개발과 함께 "환경모범관광지 지정제도"를 도입토록 함.

○ 지역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중소규모 테마공원 조성

- 지역의 잠재적 특성과 자원 및 문화적 정서를 고려한 각종 중소규모형 테마파크를 조성함.

○ 농촌지역 『경관보전 시범지구』 지정·개발

제2부 부문별 계획 ■

- 남부지역 과학영농특화지구 내 대청댐 및 금강분류 주변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농업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관보전 시범지구』를 지정함.
 - 『경관보전 시범지구』는 자연환경이 수려하면서도 일반적 영농경영으로 인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농촌지역에서 자연환경과 경관 및 농업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미래산업 부문임.
 - 시범지구는 관광객의 접근성, 토질, 경사, 일조량 등 자연여건, 수종, 입목상태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식재하는 식물의 파종 및 개화시기, 수확 후 용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식물을 선정함.
- 단양 시멘트 개발지 신소재 관광개발사업 허가 건의
- 단양 매포 일대는 전국 시멘트생산량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생산거점 지역으로서 국가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략적 재화(시멘트)를 생산을 위해 심각한 자연파괴와 비산먼지, 분진 등 대기오염의 발생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향후 채굴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즉 국가 기간산업의 원동력인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이라는 부의 영향을 감내한 국가공공재 공급기능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 시멘트생산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환경요소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신소재 관광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선행적으로 적극 모색하여 대안산업을 사전에 강구토록 함.

중소규모 테마공원 조성

- | | |
|-------------|-----------------|
| ▪ 단양 도자체험파크 | ▪ 무극 금광빌리지(박물관) |
| ▪ 괴산 기업연수타운 | ▪ 증평 인삼가공타운 |
| ▪ 제천 한방휴양타운 | ▪ 청원 초정약수광장 조성 |
| ▪ 영동 국악체험타운 | ▪ 오송 실버메디컬센터 조성 |
| ▪ 충주 백건체험타운 | ▪ 옥천 바이오체험농장 |
| ▪ 보은 명상체험파크 | ▪ 진천 화랑정신체험파크 |
| ▪ 청주 밀레니엄타운 | ▪ 문의 야외환경미술광장 |

2. 지식기반형 관광산업의 육성

□ 외래관광객의 계층별 수용능력 확대

- 다양한 유형의 호텔·숙박시설의 확충 강화
 - 국내외 유명호텔업체와 충북지역업체와의 체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기존시설 개선과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특급호텔을 유치함.
 - 향후, 첨단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교류 증대에 직설히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회의숙박시설인 『컨벤션 리조텔』 건설을 계획하여 유지함.
 - 이용도가 높은 다양한 형태의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외래관광객 수용능력 개선 및 『녹색관광』형 관광시설 확충
 -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문화자원 및 휴양림 등을 활용 자연친화형의 산촌관광체험마을을 조성토록 함.
 - 충북관광의 이미지개선과 노후화된 관광숙박업소의 적극적인 시설개선 유도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함.
 - 지역별 민박 네트워크(일명 『충북하우스』)를 구축하여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노하우의 습득, 비용의 절감, 공동홍보 등을 추진함.
 - 농·산촌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에서 체재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색관광』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테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함.
 - 기타 가족단위 여행객 및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중소규모의 가족휴양촌을 건립하고, 농촌지역의 폐교나 미활용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브랜드화 된 『충북관광하우스』나 『관광여행자의 집』을 조성함.

□ 관광서비스기반 확충

- 관광 관련업·여행업에 대한 “(가칭)충북관광대상” 포상제도 도입으로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업체간 협력 파트너쉽이 가능하도록 “지역관광컨소시엄” 구성함.
 - 충북관광 BEST 10(음식, 숙박, 편의시설, 관광지) 선발 → 인증서 발부, 세제혜택
- 기존 교통수단과 신규 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하여 충북관광교통의 다층적 입체화 및 풀타임(Full Time) 운영전략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방안을 구축함.
 - 장기적으로 광역 헬리부어의 개발을 통하여 고급관광객을 흡수 : 『헬리포트 건설』

제2부 부문별 계획

- 광역연계교통망을 구축하고 수륙양용 경비행선(충주호) 및 충주호 유람선 투어개발
- 셔틀버스 운영 및 관광교통업의 육성으로 시티투어 개발 및 주요 관광지 간 연계교통 확충
- 기타 관광전용철도 렌트카,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함.

□ 관광비즈니스사업의 육성

○ 관광편의 시설업의 확대개발

- 관광이용·편의시설업을 육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함.
 - 월드레스토랑, 외국인전문음식점, 전통음식점, 한방음식점, 향토음식점 등
 - 대륙별 진미식, 세계각국 전통식, 한국전통식, 한방건강식, 퓨전식 등
 - 요리시식 프로그램의 적절한 접목으로 식도락가 및 주부관광객 유치
- 쇼핑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관광지별로 『모델하우스형 관광쇼핑몰』을 조성하여 운영함.
 - 관광개발 거점지역에 『관광전문 쇼핑박물관』건설 및 유치 ⇒ 각종 관광 기념상품 종합전시판매 홍보
 - 유형의 차별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계절별 수요차별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관광 쇼핑점의 활용도 적극 모색 : 『관광쇼핑모델하우스』

○ 공항관련 관광비즈니스 육성

- 청주국제공항을 배경으로 인바운드업무 위주의 여행업종과 『공항비즈니스 사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실익이 지역 내로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관광기획이벤트업 : 틈새비즈니스로 히트할 수 있는 여행상품 기획 모집 대행업
 - 각종 샘플(Sample)구매 대행업 : 신상품 개발을 위한 국내외 유관상품구매 대행
 - 국제행정서비스업 : 외국인 바이어를 위한 모든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관리대행
 - 기타 공항주차 대행업, 헤드 헌트(Head Hunt)업, 포트 부 도어업 등의 육성

제7장 인간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족 조성

〈표 II-7-20〉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항활성화 방향	공항역세권의 관광개발 검토사업
세계가 인정하는 관광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주세공원 건설 · 관광홍보강화 · 세계유수호텔 유치 및 체인화 · 관광전문인력 확충과 기능확보 · 광역관광벨트 구축과 연계교통망 일체화 형성 · 컨벤션리조트센터 · 중원경 테마공원 조성
세계가 감동하는 관광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리조트 건설 · 공항비즈니스사업 육성 · 충북 레고도미노홀 건설 · 로멘토피아관 건설 · 고급관광유람선 운행(주야운행) · 신규 관광교통업 육성(관광목선·모노레일·헬리포트·수륙양용 경비행선 등) · 월드레스토랑빌딩 건설 · 기획관광상품 건설 · 포리스토피아관 건설
세계가 인식하는 관광문화의 창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방안 모색 · 매머드 관광이벤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쇄문화축제, 세계불교엑스포, 청소년 가면·보디페인팅 축제 등 ·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모색(축소·상징모형상품, 지역문화체험투어 등) · 국제교류활성화 및 충북관광문화사절단 구성 운영 · 관광문화체험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관광 스페셜투어, 양반골투어, 효도촌투어, 생태학습 투어 등

3.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 충주호권의 충주, 제천, 단양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특화사업으로 집중 개발해 나가면서 지역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을 전개하여 국제관광명소화를 추진함.
-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관광중심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육성 테마지구에 적합한 관광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

제2부 부문별 계획

충주 지구

- 충주읍 아도별자 조상
- 수인동 충렬유자 유물자
- 충주 전통 유물 유물

충	-정동호반 수경고사 충수 왕 보지정포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율 향상 충수 왕	-도담삼봉지구 신촌 요괴연출	단
주	-금수산 세계산악축제	충수 왕	-신단양 관광랜드 조성	양
지	-만남의 관광 수석조각 공감 조상	충수 왕	-군북동굴 계곡관광 설치	지
구	-안동읍배장 설치	충수 왕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및 시설개선	구

〈그림 II-6-6〉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 관광비수기 관광의 활성화

- 관광비수기 및 야경관광 개발사업 추진
 - 지역의 정서와 풍광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조형·음악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다양한 야간불거리 및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함.
 - 도심지 명물 시티투어의 개발 및 야경연출 수변가로길 개발 등
- 역사·문화·예술·체육을 접목한 축제 개발 활용
 - 청주랜드, 상당산성사적공원, 청주역사박물관 조성 등을 통한 명소화사업 추진
 - 옛 문헌이나 학자의 고증을 거친 충북 고유의 자원발굴을 통한 축제를 개발하거나 가족단위 및 청소년단체 관광객을 위한 체험관광기회를 확대함.
 - 속리산 산신제(동국여지승람)를 전국 무속인 축제로 확대 개발하여 이벤트화
 - 청풍 일원의 방상축제, 철인3종 경기 등을 관광이벤트화
 - 전통무술인 백전 및 태권도를 활용한 관광이벤트 확대
 - 관광레저스포츠 이벤트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 화공장, 강미행장, 산악자전거도로(MTB), 래프팅 등
 - 중국 및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Fam Tour을 통해 도내 관광지 및 관광상품의 소개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선호시설을 적극 확충
 - 충북의 자연과 문화, 충북의 산하 등을 소재로 한 전국작품공모전을 실시
 - 관광비수기 타개를 위한 전국여행사를 통한 설명회 및 관광객유치 보상제 실시를 검토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소재발굴을 추진함.

제7장 인간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 생태, 전원관광 이벤트 : 산나물 채취, 다슬기 잡기, 마늘쫑 뽑기 등
- 진기명기축제 : 마술·기능보유자 초청시연, 관광객 장기자랑 등
- 농특산품 판매이벤트 : 복숭아, 수박, 포도, 송이, 사과, 버섯, 마늘 등
- 요리실습 이벤트 : 동광숙성반찬, 절임류 등의 음식프로그램 실습 등
- 문화체험 이벤트 : 선사시대 원시인들의 생활체험, 양반체험, 장군체험 등

〈표 II-7-21〉 비수기 및 성수기 관광객 유치촉진 방안

요소별	비수기 대책	성수기 대책
가격	· 숙박, 관광, 교통, 토산품, 시설이 용료 등의 가격 할인 · 회의, 연수, 친목 등 계절성을 덜 받는 계층에 대한 기간내 할인	· 동기간중 권역내 숙박, 관광교통, 토 산품 등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
수요	· 계절영향을 받지 않는 이벤트중 특색있는 관광행사 개최 · 연수, 친목,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한 관촉활동 강화 · 기긴내 이용은 가격할인과 여유 있는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을 강조(매스컴 적극활용)	· 행사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야간 등 한 가한 시간대로 크게 분산하는 한편 평일 행사의 적극적 유도 · 방문 예약제를 도입하여 관광객 집중 조절 · 권역내 산재하는 시설의 예약, 접수 상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관광객 의 방문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의 흥 보강화
시설	· 동계 스포츠관련 시설 및 각종 휴양시설을 적극 유치 · 각종 시설의 복합이용 및 전천 후 시설도입 · 관광지, 거점도시 주요시설의 야 간조명 관광시설 보강	· 성수기 방문객이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간이시 설 설치 제고 · 각종 시설의 복합이용 및 전천후 시 설도입을 상향조정
인력	· 월별로 관광객 방문의 차이가 크므로 일용직 비율의 탄력적 운용	· 관광객의 일시적 집중현상에 따른 일 용직 채용예산의 상향조정 · 일용직 구성은 지역민 또는 대학생의 적극적인 아르바이트 유도

□ 관광홍보 및 마케팅 체계의 개선

- 전문화된 지역 관광인력의 육성
 - 지역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인력의 프로화, 남당공무원의 전문화, 도민의 안내요원화가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도민의 관광안내요원화를 위해 공공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자격연수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공인의 『지역관광안내원 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지역 “문화관광해설가”를 적극 양성하여 활용토록 함.
 - 도내 실업제 고등학교에 관광과를 신설하거나 관광고등학교를 건립하고, 관광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광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지역관광정책의 전문적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충북의 관광·문화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단법인) 『충북관광문화정책연구소』의 건립을 검토함.
- 이미지 요소와 전문인력의 활용
 - 지역문화와 인물, 전설 등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상품의 디자인 이미지 상품화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함.
 - 충청광역권의 “대청호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공동관광이벤트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홍보함.
 - 관광안내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하여 외래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타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함.
 - 예약네트워킹이 결합된 풀-서비스(Full-Service)를 실시
 - 외국어 구사 관광안내요원의 확충과 배치를 확대
-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관광 안내체계의 구축
 - 지역별, 관광지별 안내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활동을 인증하는 “지역관광안내 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 관광편의를 지역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각 자치단체의 봉사활동주체들의 활동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별, 관광지별 전문안내원으로 육성하여 “지역전문가이드 홍보요원”으로 활용함.
 - 주요지역의 관광안내소에 시네마(Cinema)형 『관광미디어-믹스(Media-Mix)관』을 설치하여 관광홍보와 광고의 과급효과를 제고시킴.

〈표 II-7-22〉 연령별 및 대상계층별에 따른 개선방안

대상별	개선방안	관련시설
청년층	· 활동적이고 모험적이며 저소비형 관광시설의 도입 · 지적 호기심, 협동심 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설확충	· 하이킹, 사이클링, 보트, 심신단련시설, 야영장, 박물관, 공연장 등
청장년층	· 휴양위주의 고액소비형, 고급관광시설의 적극 도입 · 운동, 오락 및 야간 관광시설의 확충	· 골프장, 스키장, 카지노, 수상유람선, 음식점 등
노인층	· 요양 및 휴양이 가능한 관광시설 도입 · 자연에 동화된 장기체재를 대상으로 한 유양시설 조성	· 노인휴양촌, 의료요양 관광시설, 산림욕장, 산책로 등
가족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 및 교육·문화시설 개발 · 가족이 연령층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도입	· 오토캠핑장, 각종박물관, 역사관, 공연장, 주제공원, 눈썰매장 등

제7장 인간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 관광객 유치촉진 계획

- 충북관광협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지역별 관광협회의 활성화를 도모
- 충북관광의 차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광여행자의 집』, 『지역문화 관광교류센터』 등을 건설함.
- 농촌지역 폐교나 미활용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전천후 전계층 안전관광 도모를 위한 『관광여행자의 집』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함.
- 최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있는데, 공공용지 등에 『지역커뮤니티센터』의 조성을 통해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관광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 관광관련 민·관 협의체 성격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체계 강화를 강화함과 동시에 『충북관광문화사절단』의 구성과 파견으로 관광수요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감.

○ 관광기념품 마케팅 방안의 적극적인 강구

- 지역관광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관광기념상품의 다양한 개발을 위한 “충북관광기념상품 공모전”의 개최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아이디어 기획전” 개최토록 함.
- 관광상품 공모전이나 아이디어 기획전에 입상한 작품을 중심으로 이벤트 개최시 기획상품 판촉전을 개최하고, 대내외적 경쟁력이 인정되는 관광상품은 충북지역의 관광벤처기업으로 지원 육성책을 강구토록 함.

□ 관광조직 보강과 관광투자 촉진

○ 관광협회의 운영활성화 추진

- 도 단위 관광협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4개 팀의 실무 부서를 운영하여 충북관광의 종합적인 지원관리 및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광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함.
 - 제1단계 : 관광협회의 실질적인 기능 보강차원에서 총무팀, 교육지원팀, 사업운영팀, 종합홍보안내팀 등의 4개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함.
 - 제2단계 : 관광협회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이를 확대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충북관광공사』형태로의 발전을 계획함.
- 관광협회의 회원업체들의 회원 분담금을 현실화하고 회원의 권익증진 및 위탁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

○ 관광 재원조달 및 투자촉진 방안의 강구

- 지방화·세계화·정보화·문화화 등 시대적 환경변화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발체계와 추진조직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투자기회 및 경영능력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함.
- 지역주민 공모주 발행검토

제2부 부문별 계획 ■■

- 지역주민 공모주 방식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관광개발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재원으로 활용함.
- 권역관광개발 관련 지역주민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채 형태의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주식적 성격의 공모주 발행형식이 바람직함.
- 관광투자자유지구 설정 및 유선투자의 활성화 방안
 - 충북관광의 세계적 명소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관광기업이나 투자가의 직접자본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충주호권역과 청주·속리산권역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충북관광투자 자유지역』을 설정하고 자치단체차원의 투자홍보를 적극 전개함.

〈표 II-7-23〉 관광 자원조달 및 투자추진 방안

구 분	세부추진전략
직접투자 계획수립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로의 연계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개발사업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유관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우선적 개발 · 기존 및 신규관광지내 각종 시설의 직접개발 및 기능복합화 계획으로 불요불급한 투자를 사전 억제
단계별 효율적 개발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사업 공영개발로 선도투자용 공공재원 확보 · 관·민간 및 기업간 효율적 협동체계 강구 · 관광거점 및 대표적 관광휴양시설의 우선개발 도모 · 관련사업 P·R 마케팅 적극 실시
민자유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 민간투자가 최대 발굴 (대기업·중소기업, 지역향토기업 및 주민 참여 개방) · 각종 규제완화, 개발인센티브 적극제공(행정, 금융, 세제지원 등) · 투자 선호시설 적정 반영(숙박시설, 골프장, 상업시설 등)
개발역기능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 최소화 · 지역민 재산피해 최대억제(적정 보상대책 강구) · 지역민 개발참여 기회 확대(토지소유자 포함) · 개발이익 지역환수 적극 유도(공영개발기법 적극 활용) · 관광휴양시설 개발과 지역생활 환경개선사업 연계 추진

〈표 II-7-24〉 관광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어드벤처형 관광개발 추진 · 충북지역관광의 세계명소화	관광개발의 월령리조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동굴개장 운영 · 청풍호 수경공원 조성 · 속리산 레고도미노홀 건설 · 생태체험공원 조성 · 내륙순환관광벨트 구축·육성 · 관광매력시설 도입 · 충북한타시아월드 조성 · 워터프론티어 조성 · 휴양 메디칼리조트 건설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명소 이미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순환관광도로 이미지화 사업추진 · 내륙순환관광권의 상호 연계 · 관광도로 경관디자인계획 추진 · 복합입체형 관광벨트 구축 · 백두대간 한상관광열차
	관광특구 및 개발촉진지구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리산특구 활성화 · 수안보특구 활성화 · 단양관광특구 지정개발 ·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 · 온천수 식생원 조성 · 도담삼봉신비효과 연출 · 불교성물조각 놀이공원 · 남한강 관광순환도로변 명소화 사업
어드벤처형 관광개발 추진 · 충북지역관광의 세계명소화	테마형 신규 관광지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한방타운 조성 · 증평인삼타운 조성 · 영동국악타운 조성 · 옥천 바이오 체험농장 · 진천 화랑정신 테마파크 · 청풍랜드 조성 · 자연사박물관 건립 · 오송메디칼타운 조성 · 신무극금광타운 조성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7-24〉 관광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계속)

방향·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지식기반형 관광산업 육성 · 충북지역관광의 주력산업화	외래관광객의 계층별 수용능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관광활성화 추진 · 관광업 체인화 사업 추진 · 충북형 가족휴가촌 건설 · 수안보 관광컨벤션텔 건립 · 관광쇼핑타운 건설 · 국제컨벤션센터 건설
	관광비즈니스 사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비즈니스사업선정 · 지역관광컨소시엄 구성 · 관광기획이벤트업 육성 · 샘플구매 대행업 육성 · 관광쇼핑산업 육성 · 관광쇼핑박물관 건립 · 관광인큐베이터 시스템 구축 · 관광상품개발 기획단 운영 · 관광캐릭터 개발사업 육성 · 온천수 택배사업 육성 · 관광기념상품 제조업 육성 · 관광이벤트대행업 육성 · 주문관광쇼핑업 육성
	관광서비스 기반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유람선 투어 · 셔틀버스 운영 · 수상관광 래프팅사업 추진 · 수륙양용 경비행선 도입 · 관광모노레일 건설 · 관광헬리포트 건설 · 관광 경비행기 운행 · 충북관광인센티브정책 전개 · 충북관광대상제도 도입 · 캐릭터관광기념품 개발 · 퍼니빌리지 건설 · 패키지형 체험투어 실시 · 오토빌리지 건설 · 한국전통생활 체험관 조성
지식기반형 관광산업 육성 · 충북지역관광의 주력산업화	관광서비스 기반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레스토랑 건설 · 충북관광문화사절단구성운영 · 충북관광 엔트리 선발 · 공항연계 관광패키지화 추진 · 컨벤션 리조트 건설 · 비즈니스센터발딩 건설 · 국제관광마케팅 추진 · 매머드 빅이벤트 추진

제7장 인간 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표 II-7-24〉 관광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계속)

방향 및 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지역관광홍보 및 마케팅강화 · 충북관광서비스의 세계일류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치 종점육성지구 지정개발 · 수안보 마술축제 개최 · 문화관광권 종합개발추진 · 중앙탐 어드벤처 조성
	관광비수기 관광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명물 시티투어 개발 · 야경 수변가로 개발 · 관광테마이벤트 개발 · 외국인 팸투어사업 · 미래문화 체험관광 추진
	관광홍보 및 마케팅체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관광 CF제작 방영 · 자치단체장 투어개발 · 관광정보 지원체계구축 · 전문관광가이드 제도도입 · 테마 미니박물관 조성 · 관광 CIP전략추진 · 외래관광객 유치촉진 계획수립 시행 · 관광미디어-믹스관 설치 · 관광여행자의 집 설치 · 야경 관광이벤트 활성화 사업추진 · 충북관광공사 설립 · 국제홍보교류전 순회개최 · 국제관광마케팅 강화
	관광조직 보강과 관광투자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협회 업무기능보강 · 잠재투자가 발굴 · 관광개발 인센티브제 도입 · 민자유치 활성화 · 관광세 신설 · 주민공모주 발행 ·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지정개발 · 국제관광투자 합작사업 추진

제 4 편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복」

제4편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복」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복의 실현

제 8 장

제1절 지역현황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제3절 세부추진계획

제1절 환경·생태·농업·관광·문화·체육·복지

제1절 지역현황

1. 자연환경 현황

- 도내 자연환경의 현황은 2D·3P((2 Dam & 3 national Park)로 특징 지을 수 있으며, 이는 대청댐·충주댐과 소백산·월악산·속리산국립공원 및 그 주변 지역을 말함.
- 충북의 호수의 현황을 보면, 총 저수용량 2,750m³, 유역면적 6,648km²의 충주댐과 각각 1,490m³, 4,134km²인 대청댐 및 발전전용 소형댐인 괴산댐이 있음.

〈표 II-8-1〉 충북의 호수 현황

구 분	댐 명	준공년도	총저수량 (백만m ³)	용수공급량 (백만m ³)	연간발전량 (천KW)	유역면적 (km ²)	위치
다 목 적	충주댐	1986	2,750	3,380	844	6,648	충주
	대청댐	1957	1,490	1,649	1,649	4,134	대전
발전전용	괴산댐	1981	15	-	2.6	-	괴산

- 충북은 소백산(1987년 12월 14일 지정), 월악산(1984년 12월 31일 지정), 속리산(1970년 3월 24일 지정)으로 대표되는 3개의 국립공원이 있음.
- 충북의 국립공원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7.6%이며, 전국 육상 국립공원면적(3,823.65km²)의 14.8%에 이르는 567.77km²가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淸風明月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음.

〈표 II-8-2〉 충북의 국립공원 면적

(단위 : km²)

구 분	합 계	충 북 지 역	기타지역 (경북)
계	888.40	567.77	320.63
소 백 산 국립공원	320.50	148.19(단양군 148.19)	172.31
월 악 산 국립공원	284.50	206.70(단양군 63.32, 제천시 111.30, 충주시 32.08)	77.80
속 리 산 국립공원	283.40	212.88(괴산군 140.32, 보은군 72.56)	70.52

주 : 월악산국립공원에는 「자연공원법」 제 25조에 의거 3,172km²의 공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999,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1999, 국립공원관리공단.

제2부 부문별 계획 ■■

- 자연환경에서 중요한 항목인 하천은 총 유로연장이 2,372.2km, 하천별로는 직할하천 9개소 306.6km, 지방하천 13개 202.4km, 준용하천 166개로 1,863.2km를 차지함.
- 하천연장으로 볼 경우, 충북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비중이 각각 10.7%, 15.3%로 전국에 비하여 높음.

〈표 II-8-3〉 충북의 법정하천 현황

(단위 : km, %)

하 천 별	전 국		충 북		하천연장 대 비
	개소수	하천연장	개소수	하천연장	
계	4,001	30,416.20	188	2,372.20	7.8
직할하천	83	2,858.30	9	306.60	10.7
지방하천	66	1,319.50	13	202.40	15.3
준용하천	3,852	26,238.40	166	1,863.2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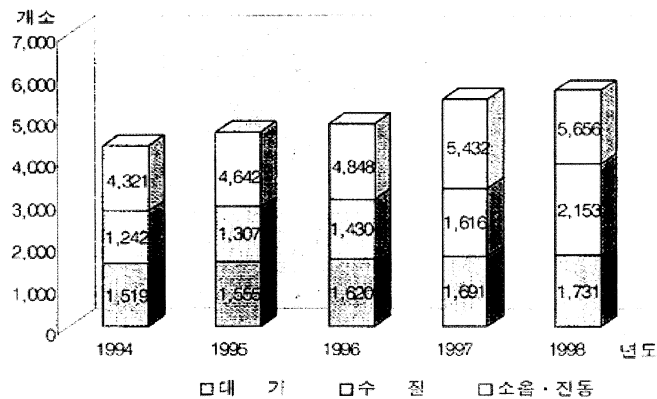
- 충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은 789,832km²로 도 전체 면적의 10.63%를 차지하며 전국의 7.07%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높음.
- 충청북도가 1996년~2000년간의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 숲 조성사업은 맑은 물,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주는 기본적인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2000년부터는 “새천년 숲자 숲” 조성사업으로 변경,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생명의 숲 조성 추진실적은 크게 기념나무, 수액채취, 마을나무조성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그중 기념식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2. 생활환경 현황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 인간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의 배출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항목별로 보면,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점증, 소음·진동시설은 1998년에 급감한 반면, 수질오염 배출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 실현



〈그림 Ⅱ-8-1〉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

2) 상수도 보급

- 충북의 상수도 보급률은 1992년 58.6%에서 1998년말 현재 68.1%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85.2%)보다 낮은 상태임.
- 충북의 1인1일 상수도 급수량은 1992년 331ℓ에서 1998년말 현재 350ℓ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395ℓ)보다는 적음.

〈표 Ⅱ-8-4〉 상수도 현황

구 분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총인구 (천명)	1,405	1,427	1,458	1,489
급수인구(천명)	824	883	946	1,014
보 급 률(%)	58.6	61.9	64.9	68.1
시설용량(천톤/일)	418	431	443	541
1인1일급수량(ℓ)	331	387	366	350

자료 : 충청북도, 환경백서, 1999.

3) 하수도 보급

- 충북의 하수도 보급현황은 1992년 30.9%의 보급률에서 1998년말 현재 59.6%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65.9%)보다는 낮은 상황임.
- 충북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에서는 1992년 151천톤/일 규모에서 1998년말 현재 432천톤/일로 증가하고 있음.

제2부 부문별 계획 ■■■

〈표 II-8-5〉 하수도 현황

구 분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총인구(천명)	1,405	1,427	1,458	1,484
처리인구(천명)	434	615	797	885
보급률(%)	30.9	43.1	54.6	59.6
시설용량(천톤/일)	151	218	273	432

자료 : 환경통계연감,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및 충청북도 환경백서(1999).

4) 재해현황

○ 풍수해

- 본 도의 강수량은 1,174~1,300mm으로, 연강수량이 많은 곳은 소백산맥으로 인하여 지형적 강우의 영향을 받는 제천(1,284mm)과 보은(1,250mm)이며, 바다와 거리가 멀고 평야지대인 충주(1,162mm)와 청주(1,216mm)는 다소 작음.
- 1998년 8월 도내에 내린 집중강우로 충북지역 10개 시·군에서 2명이 사망하였고, 주택 1,746동, 농장지 1537.45ha가 침수되었으며, 이재민이 1,017명 발생하였음.
- 1998년말 현재 수해에 따른 피해액은 약 14,415만원이며 홍수로 인한 시설물 등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8-6〉 충북의 풍수해 현황

(단위 : 명, ha, 천원)

구 분	사망 및 실종	이 재 민	침 수 면 적	피 해 액					
				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1993년	-	29	-	1,480	67	0.7	2.2	769.5	640.7
1994년	1	362	1,454	52,766	147	27	5,404	46,744	444
1995년	4	1,287	7,719	73,532,372	71,209	10,585	12,685,248	57,135,583	3,629,747
1996년	1	48	719	2,155,378	1,268	-	344,581	1,786,543	22,986
1997년	8	71	2,265	32,628,517	62,964	26,381	4,244,981	28,079,800	214,391
1998년	2	1,029	3,332	144,150,887	229,830	1,578	16,419,964	117,211,993	10,287,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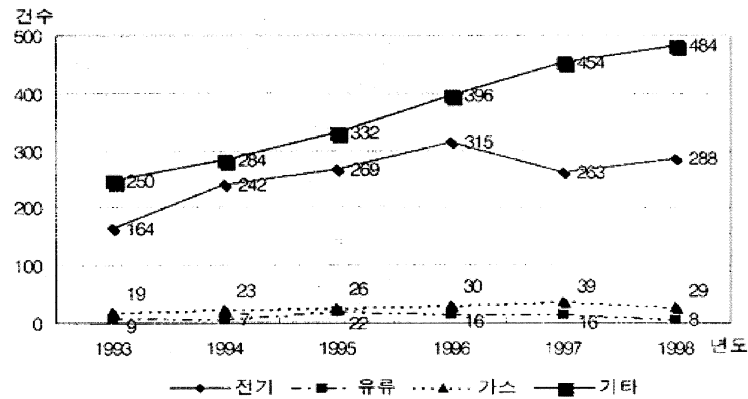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1999.

○ 화재

- 충북도의 화재발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이용도상의 혼재 등 전반적인 장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임.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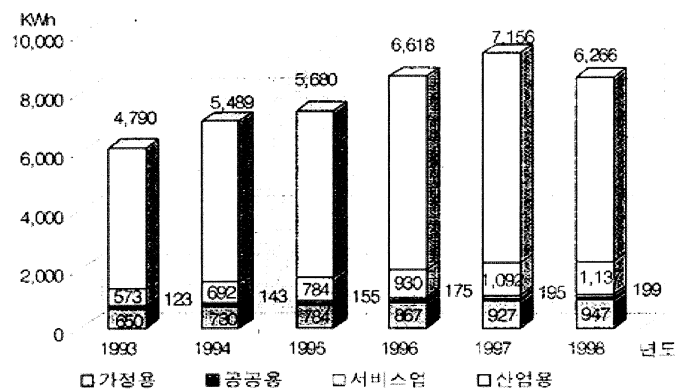
- 1998년말 현재 화재 원인별 발생률을 보면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난로, 가스로 인한 화재가 3.5%, 기타로 인한 화재는 4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1993~1998년간 화재발생 증감률을 보면, 1993년 599건에서 1998년 1,069건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2.3%씩 증가함.



〈그림 II-8-2〉충북의 연도별 화재발생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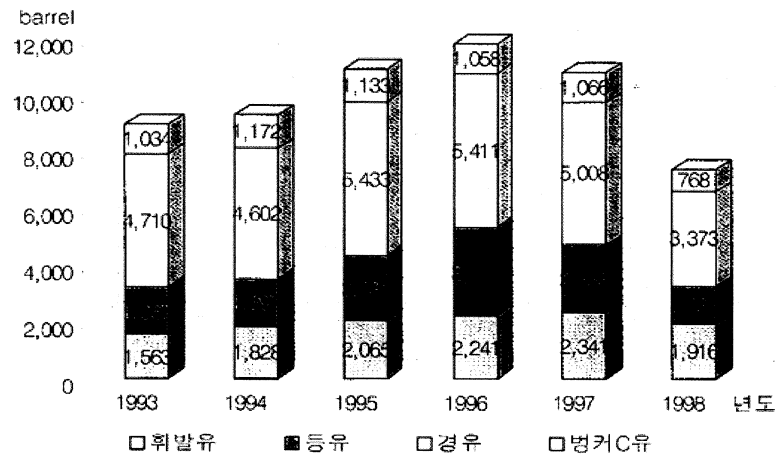
5) 에너지 관리 현황

- 충북도의 지난 5년간의 전력사용량은 평균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적은 전력사용량을 보인 이유는 제조업과 광업분야에서의 전력사용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그림 II-8-3〉용도별, 연도별 전력사용량

제2부 부문별 계획



〈그림 II-8-4〉충북의 석유류 소비량 추이

- 경기회복의 가시화와 절약의 인식부족으로 소비심리가 점차 증가하여 에너지 과소비 성향이 팽배하고 있음.
- 정기의 점차 회복으로 인하여 산업용, 수송용 등 산업활동 증가에 따른 유류 사용 대폭증가로 에너지 사용의 급상승이 예상된다.

〈표 II-8-7〉충북의 연도별 전력사용 현황

(단위 : KWII)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1993년	6,136	650	123	573	4,790
1994년	7,054	730	143	692	5,489
1995년	7,403	784	155	784	5,680
1996년	8,590	867	175	930	6,618
1997년	9,370	927	195	1,092	7,156
1998년	8,549	947	199	1,137	6,266

자료 : 충북통계연보, 1999.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 2D·3P(대청·충주댐, 소백·월악·속리산 국립공원)의 환경자원 보유	· 국립공원, 댐 등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국가소유 및 관리로 인한 법적규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청풍명월의 자연환경 보유 · 격자형 고속도로망의 도내 지역 통과로 접근성 향상	· 국내외적 환경보전 압력과 국제통상규제 확대 · 지방자치시대 민선자치단체장에 의한 무계획적 지역개발 우려

주 : 2D·3P(2 Dam & 3 national Park)란 대청·충주댐과 소백·월악·속리산국립공원 및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전략과제 도출

□ 청정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환경 보전

- 『새천년손자술』 조성운동, 『산간계곡수 보전운동』, 기업의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3대 도정 중점시책으로 추진함.
- 자연재해 예방, 수자원 확보,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단절된 녹지부분에 연결통로를 건설하거나 복원하고 생물서식공간(Biotope)을 조성함.

□ 도민에게 쾌적성을 보장하는 생활환경 보전

- 청정연료 확대보급, 공단그린벨트 조성, 환경전광판의 설치와 정보제 실시, 「차없는 거리」운영 확대 등 사업을 전개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
- 환경기초시설 확충, 농촌지역의 상·하수도 보급, 고도처리시스템 도입, 상하수관거 정비, 수질오염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통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화, 부식성 폐기물의 퇴비화, 재활용성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이용을 통하여 발생폐기물의 감량화, 최종 매립폐기물의 최소화를 달성하고 발생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추진함.
- 도심지역에서의 경유기 사용 금지, 수면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제한 등으로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함.
-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고밀도의 도시지역과 여유있는 전원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생활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형 도농통합생활권을 구축함.
-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수지, 하천, 둔치, 도랑 등 친수성 생활공간에 쾌적성, 안전성, 생태성, 경관성을 확보하며, 농촌지역에 『정관보전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친환경적 생활공간을 확보함.
- 도민에게 맛있고 안전한 상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생활용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며, 효율적 관리계획을 수립함.

□ 지역별 환경실천계획 수립 시행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 제 28장에 의거 충청북도에 서 작성한 도민의 환경실천계획인 『청풍명월 21』을 수용하는 기초 자치단체 별 환경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함.

□ 도내 입지 산업시설의 환경오염관리

- 도내에 입지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설에 대하여 입지에 따른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배출에 따른 환경기준과 관리를 강화함.

□ 도내 환경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확대

- 초정약수, 석회석자원 등 지역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이용을 확대함.
-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법적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댐용수 등 수자원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 공유자산화를 추진함.

□ 자연재해 예방 및 에너지 관리 방안

- 풍수해, 화재, 건축물 붕괴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인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 생활 및 산업시설에서 필수적인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 및 에너지 절약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함.

제3절 세부추진계획

1. 자연환경 보전

1) 녹지조성

□ 새천년손자숲 조성

- 국·공유림 등 공공용지를 이용하되 각 시군별로 『모델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조성하고, 조성된 숲의 관리는 지역개발 및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사업추진방식 : 현금보급, 조림수기증, 지방채발행, 공적부담 방식의 병행 실시
- 식수지역 선정시, 광합성 등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풍향을 고려하는 등 자연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추진함.
 - 도시의 서~북 방향지역에는 침엽수종, 남~남서 방향지역에는 활엽수종 식재
- 출생, 결혼, 회갑, 생일, 입학, 졸업, 승진, 수상 등 기념식수를 권장하고, 도시지역 공원에 장미, 복단 등으로 꽃동산을 조성하고 하천의 분치 등에 연꽃못을 조성함.

〈표 II-8-8〉 충청북도의 권장수종

권장수종 (총 11개 수종)	복자기, 고로쇠, 자작, 단풍, 거제수, 철쭉, 구상나무, 층층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살구나무
--------------------	--

□ 1사1산1하천 가꾸기

- 도내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함.
- 조림사업에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건물에 조림실적을 차감하는 연계제도를 시행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1사1산1하천 가꾸기 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평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하여 장려
-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 선정시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에 기업의 조림실적을 포함함.

□ 기업의 조림사업 참여 유도

- 『炭素稅(carbon tax)』 시행 이전에, 심은 나무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 또는 호흡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허용하는 총량규제제도를 실시함.
- 제도의 시행이전에 기업의 조림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참여실적을 앞당겨 인정하는 사전실적 인정제도를 실시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기준 이외에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이산화탄소”를 포함시키는 법적 보완조치 필요

2) 자연환경 관리

□ 산간계곡수 보호

- 1996년 10월 지정된 충주시 9, 제천시 20, 청원군 1, 보은군 7, 옥천군 2, 영동군 15, 진천군 1, 괴산군 13(중평 1포함), 단양군 10개소 등 총 78개소(262.8km)의 맑은 계곡수를 보호함으로써 수질보전의 기초를 삼고 자연 농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함.
- 보호대상 산간 계곡수의 정기적 수질검사·휴식년제 실시, 안내판·차단막 설치, 명예감시원(과수꾼)제도를 활용함.
- 산간계곡 또는 하천의 지류가 유입되는 일정 지점에 오염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수질오염원을 제거하고 청정수에서 서식하는 보호어종을 방류함.
- 유역면적이 넓고 잘 보전된 산간계곡수는 추후 주변지역에 상수만을 공급하는 『상수전용댐』 건설지역으로 활용함.

〈표 II-8-9〉 오염정화 식물 및 청정수 보호어종

구 분	내 용
오염정화 식물	물버들, 연꽃, 미나리, 부평초, 부레옥잠 등
청정수 보호어종	산천어, 가재, 얼묵어, 버들치, 미유기, 뱀장어, 증타리, 새우 등

□ 야영 및 취사행위 제한

- 심산계곡에서는 피서를 위한 야영과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하천기에는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한하여 야영을 허가함.
- 불법야영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하천기에는 행기 등 침단장비를 동원하여 철저히 관리함.
- 댐 등 폐쇄성 수역과 국립공원 등 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 청정수계에서의 불법적 “야영행위 금지” 조항을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하고 조례로 규제함.

□ 국립공원 관리

- 연중 국립공원 등에 출입하는 자가용 차량에는 소정의 입장료 이외에 환경오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자연공원의 휴식년제를 도입·시행함.
- 국립공원의 관리권과 댐 또는 하천용수의 소유 및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관토록 정부에 건의함.

□ 그린네트워크 구축

-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개발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서 국토공간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식생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생태적으로 건전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공동체를 건설함.
- 『그린네트워크』 사업은 생물서식공간(Biotope) 조성과 생태계 연계(Eco-Bridge)사업을 통한 생태마을(Eco-Village) 조성사업, 자연토양의 보전과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 유도사업, 도심의 수변공간 조성 및 시설물의 녹화사업 등을 통한 생태도시(Green City) 조성사업을 포함함.
 - 「민족생태공원」인 백두대간을 살리고 연결된 생태통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촌, 산·하천 등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계획
 - 『그린네트워크』란 상대적으로 녹지, 하천 등 자연공간이 부족하고 도민 대부분의 생활공간인 도시지역과 대청·충주댐 및 소백산·월악산·속리산 국립공원을 단절되는 부분 없이 연결하는 도시와 자연공간의 연계사업
 - 도내 도시지역의 기존 하천부터 점차적으로 계획하여 쾌적성과 자연성이 조화되는 자연형 하천(Eco-River)으로 개선.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단절된 녹지부분에 연결통로를 건설하거나 원상태로 복원하고 도심지역에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함.

제2부 부문별 계획

국토적구성요소	생태통로 (Eco-Corridor)
산	-백두대간생태계 연계 (Eco-Bridge)
도	-도시생물서식공간 (Bridge)건설
시	-도시수변공간조성 및 건물녹화사업
야	-자연형하천 (Eco-River)유형 개선
천	
평	-자연통로의 복원과 유수침투유도 사업
야	

〈그림 II-8-5〉『그린네트워크』구성요소와 추진사업

□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함.
- 철새도래지, 동식물 서식지, 녹지공간 등 주요한 생태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호계획을 수립, 환경조례로 관리함.
-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동식물을 조사하여 “충청북도 관리 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
- 하천 생태공원 조성 및 자연사 박물관 등 환경교육원을 건립하여 적극 활용하고 자연연구로(Natural Trail)를 조성함.
- 시군별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전대책 수립, 세계유산기구 가입,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삼림 보전, 동식물의 서식지화를 통하여 생태계를 유지함.

〈표 II-8-10〉충북의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종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종	총 43종
--	-------

3) 생태공원 및 생물서식공간(Biotope) 조성

- 단양, 제천, 충주, 괴산군, 보은, 옥천, 영동군 등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지 않은 국립공원지역 등 청정지역에 일정지역을 자연·하천생태공원, 산간계곡수보호사업 등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함.
- 하천 주변의 자연소류지 또는 도시 주변의 저수지 중에서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을 선정하여 자연생태공원 또는 생물서식공간(Biotope)을 조성함.
- 대상지에는 물벼들, 연꽃, 부레옥잠, 미나리, 부평초 등 수생식물을 심거나 물고기, 자라, 방개 등을 서식시키고, 새 또는 야생동물이 도일 수 있는 시설을 주변에 설치함.
- 하천에는 어도(魚道)를 확보하고 도로, 대규모 택지 및 공단개발 등 개발사업에는 친환경적 요소인 동물이동통로, 생물서식공간을 확보, 조성함.

2. 생활환경 보전

1) 대기환경 개선

□ 청정연료의 확대 보급사업

- 주거밀집지역에는 LPG 또는 LNG 등 청정연료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보일러 등 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원의 부하량을 저감하며,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함.
- 공단 등 산업시설에도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청정연료의 사용을 권장·지원함.
- 배양열 급탕 및 난방시설의 보급을 추진하고 지원함.

□ 공단 그린벨트 조성

-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변 도시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단 외곽지역에 일정폭(5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조성함.
- 완충녹지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가중나무,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등 활엽수로 조성하되,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함.
- 완충녹지는 신규공단의 조성시에는 공단내 녹지 또는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제2부 부문별 계획 ■

하고 기 조성된 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공원으로 조성함.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국가에서 측정 관리하던 대기오염측정망 4개소(청주 2, 충주 1, 제천 1)를 2001년부터 지자체로 이관·운영함.
- 폭넓은 대기오염측정을 위하여 2005년까지 7개소의 측정망을 확충·설치함.

□ 환경전광판의 설치와 경보제 실시

- 시민의 통행이 많은 도시지역 간선 도로변에 시간별로 대기환경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함.
- 도민들이 대기오염의 불법 유출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 신고전용전화(128번)의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신고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함.

〈표 II-8-11〉 환경오염 신고 전용전화 신고요령

128전화 신고처	· 도청 환경과, 시·군·출장소의 환경보호·관리과 · 주간 : 상황실, 야간 : 당직실
-----------	---

-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SO₂, 분진, 오존(O₃)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환경기준과 현재의 오염정도를 비교하여 표시하고,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함.
 - 오존경보 발령 : 환경부장관이 지역을 지정, 도지사가 발령
 - ※ 청주시 사례 : 금강환경관리청→충청북도→청주시→동사무소(행정방송)
 - 청주시 오존경보제 시행(1998년부터)기간 : 6. 1 ~ 9. 30
 - 오존경보제 발령기준 : 주의보 0.12, 경보 0.3, 중대경보 0.5ppm 이상

□ 『차없는 거리』 운영 확대

- 사람의 통행이 많은 중심상업지역의 거리를 중심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정, 확대하고 『차없는 거리』를 운영함.
- 『차없는 거리』는 도로별, 계절별, 요일별, 시간별로 구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운영하고 연도별로 확대함.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도시지역에서는 청주시의 성안길, 예술의 전당·흥덕사지 주변 등과 같이 사람의 통행이 많고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의 거리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차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함.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 실현

- 지구의 날(4월 22일), 세계환경의 날(6월 5일), 오존층 보호의 날(9월 16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12월 29일) 등 환경보전을 기념하는 날에는 도시 전체 또는 도심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차없는 날』을 운영함.

〈표 II-8-12〉 대기환경개선 정책 목표 및 수단

정책목표	정책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약 · 대기오염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연료의 확대 보급, 대체연료 개발 · 공단 등 주변지역에 교목 완충녹지 조성 · 고효율의 냉·난방기기 운용 및 청소주기 엄수 · 풍향을 고려한 공단 입지 ·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 · 에너지절약 캠페인의 지속적 전개 · 차량 배기가스, 소음 등 지역(충청북도) 대기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 · 대기오염 실명제도 시행

2) 수질환경 개선

- 남한강수계의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일부 등에서는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50%인 목표등급 달성도를 2010년에 70%로 높임.
- 금강수계의 청주시, 청원·진천·음성군 일부 등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오염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이므로 현재 15%정도인 목표등급 달성도를 2010년에 40%까지 높임.
- 한강과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통하여 도평간 현재 약 30% 정도인 하천수질 목표등급 달성도를 2001년 약 35%, 2006년 약 43%, 2010년 약 53%정도까지 향상시킴.
- 1997년 현재 COD 기준으로 II등급을 나타내는 충주호, 대청호, 괴산호의 수질을 2006년까지 I등급으로 향상시켜 환경기준의 목표등급을 유지함.
- 총질소 기준으로는 현재 V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급 외의 심각한 부영양화 단계에 있으므로 질소와 인의 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공정의 시설을 확보함.
- 충주호 및 대청호의 상류지역 유역면적 내에서의 오염부하량이 큰 농축산업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경영기법을 도입하도록 정책을 수립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환경기초시설 확충

- 수질오염의 점오염원(point source)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 및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함.
- 간이오수처리장은 소규모의 경우 처리효율이 높은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로 전환하며 수질개선사업의 신규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
- 2002년까지는 현재의 도시지역 또는 호소의 상류 읍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보급하고,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된 읍·면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함.
- 분뇨처리장은 유입수 농도(100mg/ℓ 내외)의 설계농도(200mg/ℓ) 유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인근에 입지시키고, 분뇨를 전처리한 후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시킴.
- 축산폐수처리장은 축산협동조합 등과 협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일정 규모이상으로 건설하며 생산된 퇴비는 축협을 통하여 판매함.
-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면소재지의 주변지역 또는 산간 농촌의 상류지역에는 생활하수와 분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을 설치함.
- 신축 건물에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주택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의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함.
- 농촌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보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보전기금에서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

〈표 II-8-13〉 오수처리시설의 연차적 보급계획

구 분	보 급 내 용
1997년 7월1일 이후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 설치되는 식품점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을 위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설치
1999년 1월1일 이후	특별대책지역,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및 지하수보호구역 등에 설치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 설치
2002년 1월1일 이후	전국적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모든 건물 기타 시설물에 설치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농복 실현

- 우수처리시설은 주요 하천의 이수를 감안, 하수 또는 분뇨처리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부터 공급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의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의 순위를 감안한 청정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급함.

□ 수질보전 인센티브제도 시행

- 환경기초시설에 의한 점오염원(Point Source)의 수질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규제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산시설이나 농원, 임업 등 토지이용으로 인한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부터의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불이용 부담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수질보전 인센티브로 지원함.
- 수질보전인센티브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일본의 『비와호(琵琶湖)종합개발 특별조치법』으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국가 또는 수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상류의 법적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한강 및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콘도미니엄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은 우수배출 기준을 BOD기준 10mg/ℓ으로 강화함.
- 한강과 금강수계 지역은 「팔당호동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 및 「대청호동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보완하며, 오염총량관리제 또는 연차적·지역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함.

□ 수질관리시스템의 구축

- 지남의 관광행태 및 관리체계에서는 폐쇄수역인 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에는 상업시설은 물론 광산, 석재 및 모래채취, 가축사육 등 일체의 산업활동과 낚시, 야영 등 관광활동을 제한함.
- 호소 또는 하천변에 지역주민의 자본에 의한 관광단지의 건설을 허가하여 환경관리기사를 상주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최우선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함.
- 호소 또는 하천변에서의 낚시행위는 지정낚시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충분한 환경관리비용을 포함하는 『이용자부담금』을 징수하며, 오폐수를 배출하는 가정, 단체, 기업 등 점오염원(point source)의 확실한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심명제』를 실시함.
- 비허가지역인 호소 및 하천에서의 순환 및 수질오염감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2부 부문별 계획 ■

『환경감시원』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관광단지의 운영권자에게 관리·감독권을 부여함.

- 관광단지의 개발조건에는 발생하수의 100% 고도처리 및 중수도시설에 의한 재이용으로 방류수의 발생량과 오염농도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하수관거의 정비와 하폐수의 고도처리를 실시함.
- 공급되는 상수의 절약율 가격정책(상수도 요금의 적정수준 인상), 세제상 혜택(수도사용량의 누진과세) 등의 정책을 통하여 하·폐수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하고, 각 수계의 수질개선을 저감시키기 위한 부자재원으로 활용함.
- 광역상수도 상수원지역 등 이수의 목적상 시급한 수질보전을 요하는 경우에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전제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총량규제제도를 시행함.

〈표 II-8-14〉 수질환경개선 정책 목표 및 수단

정 책 목 표	정 책 수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 · 오염된 상수원의 수질 개선 · 안전하고 맛있는 상수 공급 · 사용수의 효율적 처리 · 용수공급 시스템의 현대화 · 경제적인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 환경용량 범위 내 개발 · 점오염원 관리 · 비점오염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 수질보전인센티브제도 시행 · 정수 및 급배수시스템의 개선 · 고도처리 시스템의 도입 · 중수도 시스템의 조기 도입 · 상하수 관거의 정비 ·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 · 총량규제제도 시행 · 수질오염실명제 실시 · 친환경농업 실시 및 두방류식 전환 · 경적 축산농법 보급

3) 폐기물의 적정처리

□ 폐기물 처리계획

-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처리되고 있으며, 1998년 1,142.5톤/일, 1999년 1,282.3톤/일 규모임.
- 1인 1일 발생,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은 총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1994년 1.21kg이던 것이 1995년 0.93kg, 1996년 0.96kg, 1997년 0.82kg, 1998년 0.77kg, 1999년 0.86kg 수준으로 연도간 차이는 있으나 감소 경향임.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정정중복 실현

- 1999년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매립 61.5%, 재활용 32.9%, 소각 5.6%이며 재활용과 소각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향후 처리계획은 재활용과 소각률을 향상시켜 목표년도인 2020년의 매립률은 30%로 낮추고 재활용 45.0%, 소각 25.0%로 늘림.
- 이를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시급 이상의 도시에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함.

〈표 II-8-15〉 폐기물 처리계획

구 분	1998년	1999	2004년	2010년	2020년
발생량(kg/인·일)	0.77	0.86	0.80	0.78	0.75
재활용율(%)	29.1	32.9	35.0	40.0	45.0
매립률(%)	66.9	61.5	55.0	45.0	30.0
소각률(%)	4.0	5.6	10.0	15.0	25.0

□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처리

- 순수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화를 추진하고,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은 전량 수거하여 아파트난지의 난방열 공급, 유리온실, 플장 등에 온수를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하여 에너지절약을 도모함.
- 시군간 광역소각장 설치로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효율 확보 및 경제성을 확보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함.
- 가연성폐기물도 저온상태에서는 다이옥신, 퓨린 등 고독성(高毒性)·발암성 물질이 발생하므로 소각온도를 1000℃ 이상의 고온으로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소각 전에 완전히 건조시킴.
- 연소방법에 따른 소각처리방식의 종류는 상연소식(床燃式=스토카식), 유동상식(流動床式), 회전식(回轉式=로타리 킬른식), 액상분무식(液狀噴霧式), 건류(乾溜)가스式 등이 있으나, 국내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일반적인 소각방식은 스토카식임.
- 스토카식 소각로의 연소실 구조는 음식물쓰레기 등 고수분함량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폐비화방안이 시행되는 경우에 폐기물의 이송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방향이 같은 형식으로 발열량이 상당히 높은 폐기물처리에 적합한 병류식(並流式) 연소실을 채택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최근, 스토카식이 지니는 10% 정도의 최종 잔류재와 다이옥신 발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일 지멘스사가 개발한 『열분해 용융방식』을 일본이 도입, 소각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열분해(용융)방식은 쓰레기를 잘게 절단하는 전처리절차를 거쳐 450℃의 열분해드럼에서 소각한 후, 발생한 열분해카본은 1,300℃의 고온으로 연소, 분해시켜 다이옥신의 발생을 차단하고 최종 배립폐기물량이 0.5%로 적으며 에너지회수율이 25%정도로 높음.
- 소각처리방식의 선정은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성상과 소각으로 인한 2차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다이옥신 저감 대책

- 다이옥신은 소각과정에서 PVC 등 염소화합물과 수분함량이 높은 쓰레기가 투입되거나 1년에 한번 내부청소를 위하여 운전을 정지하는 경우 등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발생함.
- 다이옥신과 퓨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전연소로 미연탄소의 발생을 줄이고, 300℃에서 fly ash의 체류시간을 짧게 하며, 불연물을 소각 전에 분리수거하여야 함.

〈표 II-8-16〉 다이옥신의 주요국 규제기준

다이옥신 규제기준	한국(서울시)=독일	일본 (배출 권장치)	미국 (배출허용기준)
	0.1~0.5ng/m ³	0.5ng/m ³	5~75ng/m ³

주 : 한국은 50톤/일 이상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기준이며, 신설시설은 0.1ng/m³ 이내, 기존시설의 경우는 2003년 6월 30일까지는 0.5ng/m³,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0.1ng/m³ 이내임.

□ 부식성쓰레기의 퇴비화

- 부식성쓰레기는 지역별로 배출, 수집, 운반, 처리상의 전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사료화·퇴비화·유기산발효화를 추진함.
- 부식성쓰레기를 퇴비화방안은 현재의 분리수거 방식을 『부식성 또는 퇴비성』과 『가연성』, 『불연성』 및 『대형쓰레기』로 구분, 배출·수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유기산발효화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C/N비(탄소/질소의 비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 실현

을)가 낮아 질소, 인 등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에 대한 고도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외부탄소원으로 공급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하는 처리방식임.

- 퇴비화과정의 홍보·교육·견학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 좋은 환경의식 제고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퇴비화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나 운영·관리상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단체와 분업화를 추진하고 재정·지원함.

□ 재활용 및 재이용 촉진

- 폐자원의 재활용과 재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는 재활용 및 재이용 산업에 대한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재정지원과 가격을 매개로 하는 시장기구를 활용함.
- 가구, 의류, 용기, 헌책 등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주부클럽, 반상회, 바자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람이 재이용할 수 있는 재이용시스템을 계획함.
-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성 상품에는 모든 부품의 수명, 사용횟수, 사용연한을 기록, 색깔로 처리하여 재이용 또는 재활용이 용이토록 배려함.
- 페플라스틱, 빈병, 신문용지, 고철 등 재활용성 폐기물은 원지하게 분리수거하여 배출-수집-운반-재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시스템(쓰레기『재활용 종합센터』) 추진함.
-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시장경제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 『환경신문고(128 신고전화)』의 운영을 강화하여 도민의 감시활동을 강화함.

〈표 II-8-17〉 폐기물의 적정처리 정책 목표 및 수단

정 책 목 표	정 책 수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폐기물의 감량화로 자원절약 · 최종 매립폐기물의 최소화 · 생활환경의 쾌적성 확보 · 경제적인 처리기술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신문고 운영 · 성인이 솔선수범하는 환경교육 · 쓰레기 재활용종합센터 건립 ·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처리 · 다이옥신 저감대책 · 부식성폐기물의 퇴비화 · ISO-14000의 획득과 지원 · 폐기물 배출 실명제도 시행

제2부 부문별 계획 ■

- 건설폐기물의 단순 매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여 자원화를 추진함.

4) 정온(靜穩)한 생활환경 유지

□ 도시소음 저감대책

- 도심 또는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차량의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건설용 중장비,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을 제한하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활공해를 방지함.
-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공공도서관 등 정온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는 투시성 재질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조망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
-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 지정시 주거지역에 중소공장과 상업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준공업지역』을 신중히 지정하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활공해를 예방함.
- 도시소음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가 보행도로 등에 도로포장재를 개선하고 투수성 포장재료로 전환하여 시공함.

□ 공항소음 저감대책

- 항공기로 인한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영향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최소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면시간대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등 공항의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함.
- 비행기의 항로를 가능한 한 인구밀집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까운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이륙시 최소의 동력을 사용하는 등의 항공기 조종방법을 구사함.
- 공항주변 정비계획, 도시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소음영향지역에 불류단지 등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유도·배치함.
- 수출용 화훼, 과수 등 농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소음에 의해 기능을 해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항공기소음 영향권역에서의 주거단지 이전대책과 직접 영향권역내의 토지배입을 추진하여 녹지대 등 소음으로 인한 완충지대(緩衝地帶)를 단계적으로 정비함.

〈표 II-8-18〉 청정한 생활환경 유지

정 책 목 표	정 책 수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한 도시의 생활환경 유지 · 공항주변의 항공기로 인한 소음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에서의 차량 경음기 사용 금지 · 대형 화물차량의 도심통행 제한 · 도로변 투시성 재질의 방음시설 설치 · 수면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제한 · 공항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토지이용

5) 도농통합생활권 구축

□ 도농간 생활공간 공동이용

- 농촌과 도시를 하나의 연계된 생활권으로 계획하여 농촌에는 교육, 문화, 의료, 스포츠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녹지, 숲, 수변환경 등 자연환경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도농통합형 환경보전형 시스템을 구축함.
- 지속가능한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주변에서 고밀도화를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도농간 생활공간 공동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함.
- 『도농간 생활공간 공동이용사업』은 농촌과 도시를 병행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환경정책으로 도농간 생활환경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환경공동체를 만드는 일종의 사회계획임.
- 추진방법은 휴인과 방학기간 또는 휴가철에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생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임.
- 본 사업의 장점은 연중의 생활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연환경적 특성과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 우위부분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의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됨.

〈표 II-8-19〉 농·도시지역간 상대적 우위항목 비교표

구 분	농 촌 지 역	도 시 지 역
중심산업	1차산업	2~3차산업
주된 공급상품	농산품	공산품
상대적 우위부분	자연환경, 호·도덕교육, 휴식공간 등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스포츠 등

제2부 부문별 계획

6) 친환경 생활공간 확보

□ 도심내 친수환경 조성

- 콘크리트의 주거공간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 정서적으로 매마른 도시민에게 친수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심하천에 수변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함.
- 도시지역에 대표적인 하천의 일정 구간을 정하여 불고기의 서식을 촉진하고 물벼룩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휴식, 관찰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함.
- 조성된 수변공간에는 의자, 식수대 등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주변 및 기존의 교량에 입체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야간 휴식공간으로 활용함.
- 기존의 도시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적인 수로 등을 근시안적인 교통해소책으로 복개할 것이 아니라 자리나는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원으로 활용함.
- 도시 주변의 지수지 중에서 농업용 지수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을 선정하여 자연환경의 『생태공간』 또는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함.

〈표 II-8-20〉 도시하천에서의 친수활동

주 활동 장 소	활동 분류	주요 활동
수 면	수면위에서의 활동	수운, 낚시, 뗏목띄우기, 유람선항해, 요트, 수상스키
둔 처 (고수부지)	전통적인 활동	축제, 꽃놀이, 불꽃놀이
	훈련	수방훈련 등 제(諸)훈련
	레크리에이션 활동	신보, 연날리기, 피크닉, 캠프
	운동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	테니스, 축구, 족구, 배구, 배드민턴, 일광욕, 산보, 조깅
	평탄한 지형을 이용한 활동	모형자동차경주, 연날리기
	넓은 지형을 이용한 활동	골프연습, 연설회
제 방과 둔 처	집단적 레크리에이션 활동	집단계임, 운동회
	관찰, 관람	사진촬영, 자연관찰, 사람들의 활동관찰
둔 처와 수면	채취활동	곤충채집, 암석채취, 식물채취
	호름을 이용한 활동	방생, 종이배띄우기
	상업활동	수상 및 수변레스토랑, 물건판매
	수면을 이용한 활동	낚시, 수영, 세탁

자료 : 서영기술훈, 도시하천 생태환경조성기법연구, 1996, p. 12.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정정충복 실현

- 선정된 저수지에는 연꽃, 부레옥잠, 미나리, 부평초 등 수생식물을 심거나 불고기, 자라, 망개 등을 서식시키고 새 또는 야생동물이 보일 수 있는 시설을 주변에 설치함.
- 하천사업에 의해 발생한 잔여지나 구 하천부지의 지하에 매설되고 있는 대규모涵管(700mm이상) 및 압거를 가능한 도로면 시설녹지대에 개거화하여 수변공간으로 활용함.
- 주변이 조용하게 될 수 있는 공간, 생물체 등 살아있는 자연과 만날 수 있는 장소,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을 보존·복원하며 지역의 특성을 디자인에 연계시켜 고향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함.
- 주택단지로부터 친수공간에 접근할 때에 빠르고 알기 쉬운 접근로를 계획하고 친수공간의 출입로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친수공간을 도시방재의 거점으로 활용함.
- 도심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및 도로, 주택건설 등 포장물과 우수유출량 증가 및 유입수량 감소로 인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의 파괴를 최대한 억제함.
 - 주요 도심하천인 무심천, 충주천, 장평천 등의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는 물론 도심내 수변공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함.

□ 농촌지역 『경관보전 시범지구』 조성

- 남부지역 과학영농특화지구 내 대청댐 및 남강분류 주변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농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관보전 시범지구』를 지정함.
- 『경관보전 시범지구』는 자연환경이 수려하면서도 일반적 영농경영으로 인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농촌지역에서 자연환경과 경관 및 농업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미래산업 부문임.
- 『경관보전 시범지구』는 작약 등 약초식물, 배설 등 유용(有用)식물, 국내외 허브식물, 복화 등 일반작물을 식재하되, 식물의 특성을 연구·분석하여 개화시기, 농산물 출하시기, 꽃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식재면적과 위치를 계획함.
- 시범지구는 도로 등 관광객의 접근성, 토질, 경사, 일조량 등 자연여건, 수종, 입목상태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식재하는 식물의 과종 및 개화시기, 수확 후 용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식물을 선정함.
- 식재하는 식물은 한약재료로 이용되는 작약, 복란, 치자, 석류, 도라지, 생강, 감초 등 약초식물, 배설 등 과실나무, 토란, 복화, 배밀, 자주감자 등 일반작

제2부 부문별 계획

물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재배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수립함.

7) 안전한 상수공급

□ 상수도 보급계획

- 1998년 현재 68.1%인 충북의 상수도 보급률을 2004년에 78%, 2010년 83%, 목표년도인 2020년에 88%까지 향상시켜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급수문제를 해결함.
- 1998년 현재 도시지역 84%, 군지역 42%인 보급률 수준을 2010년에 도시지역 90%, 군지역 60%, 2020년에는 도시지역 95%, 군지역 75% 이상으로 향상시킴.
- 1998년 현재 350ℓ인 충북의 1일 1인당 급수량을 2010년 380ℓ, 2020년에는 400ℓ로 향상시킴.

〈표 II-8-21〉 상수도 보급계획

구 분	1998년	2004년	2010년	2020년
보 급 륜 (%)	68	78	83	88
총 인 구 (천인)	1,489	1,556	1,741	1,823
급수인구 (천인)	1,014	1,214	1,445	1,604
1일1인당 급수량(ℓ)	350	360	380	400

□ 용수수요 전망

- 1998년 현재 충북의 연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1일 최대수요는 462천톤/일에서 2004년 770천톤/일, 2010년 937천톤/일, 2020년 1,134천톤/일로 전망됨.

〈표 II-8-22〉 용수수요 전망

(단위 : 천톤/일)

구 분	1998년	2004년	2010년	2020년
합 계	462	770	937	1,134
생 활 용 수	403	568	714	834
공 업 용 수	59	202	223	300

주 : 수요전망은 1일 최대 수요량이며, 생활용수에 대한 일최대 급수량계수로 1.3을 적용함.
자료 : 행정자치부, 「중·장기 지방상수도 종합계획-1997~2012-」, 1998.

□ 시설용량계획

- 1단계 목표년도인 2004년에는 522천톤/일(광역 149천톤/일, 자체 373천톤/일), 2단계 목표년도인 2010년에는 1,148천톤/일(광역 766천톤/일, 자체 381천톤/일)을 공급함.
-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총 1,250천톤/일(광역 850천톤/일, 자체 400천톤/일)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시설용량계획을 추진함.
- 이러한 시설용량계획은 1998년의 여유율이 11.5%, 2004년 18.7%, 2010년 18.3%,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19.2%로 증가하여 어느 정도의 정기변동과 생활의 질 향상에 의한 용수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II-8-23〉 시설용량계획

(단위 : 천톤/일)

구 분	1998년	2004년	2010년	2020년
공 급 합 계	522	948	1,148	1,250
광 역	149	572	766	850
자 체	373	376	381	400

자료 : 행정자치부, 『중·장기 지방상수도 종합계획-1997~2012』, 1998.

□ 용수공급 계획

- 대청댐 II단계 광역상수도(시설용량 98만톤/일, 사업비 4,802억원, 사업기간 1995~2001년)에서는 청주시, 청원군 및 충남 조치원읍,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임.
- 대청댐 II단계 광역상수도 중 충북에는 442천톤/일로 청주시 201천톤/일, 청원군 18천톤/일, 오창과학산업단지 79천톤/일, 오송신도시 54천톤/일, 보건의료과학단지 90천톤/일이 공급될 예정임.
- 충주댐 광역상수도(시설용량 25만톤/일, 사업비 1,544억원, 사업기간 1994~2000년)에서는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출장소 등의 6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임.
- 대청댐 III단계 광역상수도(시설용량 30만톤/일, 사업비 2,325억원, 사업기간 2007~2013년) 사업에서는 청주시, 청원군 및 충남 등의 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임.
- 충주댐 II단계 광역상수도(시설용량 15만톤/일, 사업비 약 1,500억원 추산, 사업기간 2005~2008년) 사업에 의하여 충주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출장소 등의 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임.

제2부 부문별 계획 ■■■

〈표 II-8-24〉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구 분	시설용량 (만톤/일)	사업비 (억원)	기 간	급 수 구 역	비 고
대청댐 II 단계	98	4,802	1995~2001	청주, 청원 및 충남	시행중
충주댐	25	1,544	1994~2000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및 경기(안성, 이천군)	시행중
대청댐 III 단계	30	2,325	2007~2013	청주, 청원 및 충남	건교부 확 성
충주댐 II 단계	15	1,500	2005~2008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및 경기(안성, 이천군)	건교부 검토중

자료 : 충청북도, 환경백서, 1999. 일부수정.

- 도시 및 농촌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사업계획(1998~2007년)에 의하여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총사업비 5,048억을 투자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확장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임.
-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및 취·정수장 개량 등의 사업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구역 및 배수관 개량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취·정수시설, 송·배수관, 배수지 등의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 농촌지역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시설의 개량사업을 실시하며, 부영양화 되어 가는 원수의 수질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정수처리시설을 고도처리공정으로 개선함.
- 오염되지 않은 상류지역에 중소규모의 상수전용댐을 건설하여 농촌지역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할 계획임.
-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상수도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사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함.

□ 상수도 관리계획

상수도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 안정적이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자원의 확보
-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한 수돗물 이용효율의 극대화
- 보급률 향상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의 확충
-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처리시설의 고도화
- 유수율 향상 등 경영체계의 개선
- 간이상수도시설의 개선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 실현

- 위생적이고 맛있는 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청댐, 충주댐을 중심으로 하는 상수원수의 확보에 노력하여 21세기 불부족에 대비하며, 중수도를 확대보급하고 절수설비를 의무화하여 절수유도형 수도요금제도를 실시함.
- 단계적인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계수시설, 정수장, 상수관로 등 상수도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고, 상수원수를 호소 등 폐쇄수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처리시설의 고도화를 추진함.
- 상수공급관련 경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처리수의 송·배수 및 급수과정에서 누수량 저감을 통한 유수율(有收率) 향상, 단계적인 수도사업의 민영화 추진, 기술개발 및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함.
-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시설의 개선에 노력하여 위생적인 상수의 공급계획을 추진함.
- 용수에 대한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하여 수도요금의 누진제도를 확대하고, 단계적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을 마련함.

8) 위생적 하수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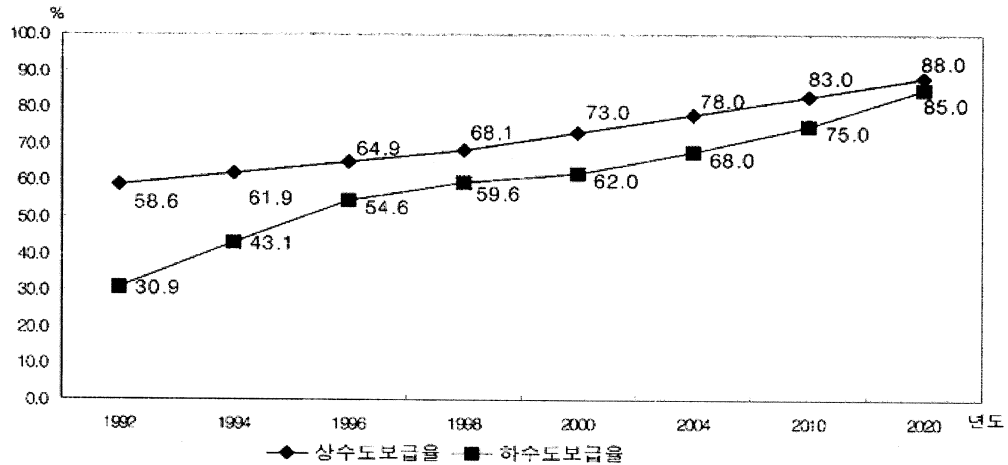
□ 하수도 보급계획

- 1998년 현재 처리인구 기준으로 59.6%수준인 하수도 보급률을 2004년에 68.0%, 2010년 75%, 2020년에 85%까지 향상시켜 한강 및 금강수계에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크게 저감시킴.
- 1998년 현재 시지역 84.1%, 군지역 19.4%인 하수도 보급률 수준을 2020년까지 시지역 98%, 군지역 81% 이상으로 향상시킴.
- 하수관거의 철저한 시공과 정비를 통해 노후화 및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공공수역으로의 오수 유출, 하수처리시설로의 불명수(不明水) 유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함.

〈표 II-8-24〉 하수도 보급계획(처리인구 기준)

구 분	1998년	2000년	2004년	2010년	2020년
보 급 률(%)	60	62	68	75	85

제2부 부문별 계획



〈그림 Ⅱ-8-6〉 상·하수도 보급계획

□ 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

- 계속사업으로 10개소(정주·충주·제천·영동 증설, 옥천 이원, 진천, 괴산, 음성 급왕, 단양 내포, 보은 내속리)에 사업비 238,602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223.6천톤/일을 계획함.
- 신규사업으로 6개소(주덕, 송학, 미원, 복일, 단양Ⅱ, 증평Ⅱ)에 사업비 100,072백만원, 시설용량 33천톤/일을 계획함.
- 수안보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시설의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14천톤/일의 처리용량으로 회전원판법에 의한 2차 처리에 이어, 3차(고도)처리로 활성탄여과시설(5.4천톤/일 규모)을 설치하여 충주시의 상수원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저감시킬 계획임.
- 중장기사업으로 수계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와 인의 제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 하수처리장의 개선 및 신설을 통하여 고도처리공정으로 전환함.
- 1996년말 현재 전국의 중수도시설은 30개소, 공급용량 138천톤/일이며, 36개소가 시공 또는 계획중에 있으나 충북에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확대함.
- 시가지화된 인구밀집지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농촌지역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이용하여 분산처리함.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정정중복 실현

-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민자유치에 의한 시설의 설치, 민간위탁 운영 등의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여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함.

〈표 II-8-25〉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구분	처리장명	시설용량 (천톤/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처리방식	비고
합계	16개소	256.6		334,994		
계 속 사 업	소계(10개소)	223.6		238,602		
	청주증설	130	'93~2000	93,264	표준활성	
	충주증설	25	'98~2001	27,019	"	
	제천증설	35	'96~2000	21,033	"	
	옥천 이원	5.4	'98~2001	5,822	"	
	영동증설	1.2	'99~2002	8,700	"	
	진천	8	'94~2000	21,332	산화구법	
	괴산	4	'94~2000	16,149	"	
	음성 금왕	6	'97~2001	19,477	DNR-3	
	단양 매포	5	'98~2002	13,000	SBR	
신 규 사 업	보은 내속리	4	'98~2002	12,806	"	
	소계(6개소)	33		100,072		
	충주 주덕	2.3	2000~2003	12,852	실시설계	
	제천 송학	1.7	2000~2002	5,000	"	
	청원 미원	1	2000~2002	4,980	"	
	청원 북일	7	2000~2002	23,960	"	
	단양 증설	6	2000~2003	18,510	"	
	증평 증설	15	2000~2003	34,770	"	

자료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불관리과.

□ 하수도 관리계획

하수도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 보급률 향상을 위한 하수관거, 펌프장 및 처리시설의 확충 및 정비
-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추진
- 중수도의 보급 확대
- 효율적인 처리계통 확립
- 전문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분류식에 의한 하수관거, 차집관거, 펌프장 및 처리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추진함.
- 하류지역의 이수는 물론 대청댐, 충주댐과 같은 폐쇄수역의 호소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 인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고도화를 추진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귀중한 환경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대형시설부터 중수도시설을 의무화하고 보급을 확대함.
-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악취공해와 침수 등 도시방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하수의 배수와 처리계통을 확립함.
-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인 처리를 위하여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함.

3. 지역환경계획 수립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 21』 제 28장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청풍명월 21』 내용을 수용하여 『지방의제 21』 계획을 수립함.
- 『지방의제 21』 계획에는 『청풍명월 21』에서 제시한 계획구상, 환경계획, 추진계획, 환경보전 생활실천 항목 외에 각 지역의 환경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환경실천계획을 작성함.
- 『지방의제 21』 계획에는 시·군민이 출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과정부터 시민대표와 환경관련 단체를 참여시켜 실천력을 제고시킴.
- 연차적 계획으로 도청, 시·군청 및 산하 단체와 사업소는 친환경적 행정을 위한 『ISO14001』 인증을 획득, 충북도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충청북도를 『환경수도(環境首都)』로 지정·홍보함.
- 자치단체 및 산하 사업소가 국제환경 경영인증을 획득하면 그 효과는 친환경적 경영으로 인한 비용절감, 도내 생산 농수축산품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8-26〉 도내 『지방의제 21』 작성 현황

자치단체명	지방의제 21 명칭	작성 년도
충청북도	○ 『청풍명월 21』	1997
청주 시	○ 『푸른 청주 21』	1997
제천 시	○ 『청정 제천 21』	2000
청원 군	○ 『그린 청원 21』	2001
보은 군	○ 『청정 보은 21』	2000
옥천 군	○ 『늘푸른 향수옥천 21』	2000
영동 군	○ 『맑고 푸른 영동 21』	2000
진천 군	○ 『생거진천 21』	2001
괴산 군	○ 『아름다운 괴산 21』	2000
음성 군	○ 『맑고 푸른 음성 21』	2000
단양 군	○ 『푸른 단양 21』	2000

4. 산업시설의 오염관리

- 시군 자치단체별로 당해 지역에서의 제조업시설에 대한 업지상의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수계, 토양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업지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고시함.
- 지정된 업지지역에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고도처리를 의무화함.

〈표 II-8-27〉 도내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지역 지정

지 역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청주시		영운,금천,용암,산남,미평,분평,수곡,신촌,방서,동막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충주시	주덕읍, 증민·목벌·상모·동량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2003년부터 전지역 → 청정지역
제천시	고명·두학동·청풍·수산·덕산·한수·백운·금성면	“ ”	“ ”
청원군	내수읍, 문의·가덕·남일·북이·오창·미원면	현도·강외·옥산·강내·남성면	“청정,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보은군	전역		
옥천군	전역		
영동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영동읍	
진천군	초평·백곡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괴산군	연풍·철성·청천·불성·감물면	“ ”	
음성군		전역	※2003년부터 한강수계 일부지역 → 특정유해물질배출 시설 입주금지
단양군	매포읍,대강·가곡·영춘·어상천·적성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2003년부터 전지역 → 청정지역

- 주: 1)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불문하고 자연공원법 제 4조~제 6조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수로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하고, 하수도법 제 2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나”지역을 적용한다(공원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경우에도 “나”지역을 적용).
-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비목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1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신규 산업시설의 입지시 종합환경오염도를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도를 초과하는 업체의 입지를 제한함.
- 시설입지와 운영을 계획내용과 연계시킴으로써 ‘계획수립 →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 계획승인 → 개발 → 운영 → 환경지도’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확인행정으로 「선계획·후개발」의 개발원칙을 견지함.
- 입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입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하여 검토결과를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관리 감독함.

5. 지역환경자원 관리

1) 초정약수 『세종수』의 국보지정

- 초정약수는 약수의 효험과 세종대왕이 60일간 머무르신 역사적 사실 등을 고려, 『세종수』로 명명하여 고유명사화 함으로써 그 상품적 가치를 제고시킴.
- 『세종수』는 약수로서의 효험은 물론 약수를 음용한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인물의 중요성 등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충북지역의 보물임.
- 『세종수』는 구녀성의 진실에서 유래하는 아홉명의 선녀와 세종대왕의 흉상을 건립, 선녀와 대왕이 하사하는 세종수를 관광객이 받아 음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수를 신성화, 가치화하고 『세종수』는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역사적 이미지를 제고시킴.
- 『세종수』는 『문화재보호법』 제 4조(보물·국보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조 2(국보)의 5(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에 의하여 국보(國寶)로 지정함.
- 『세종수』는 마네담을 다량 함유한 광천수로서의 특성과 역사성에 비추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함.
- 『세종수』는 현재의 탄산수 전국 판매방식을 전환하여 초정에서만 마실 수 있게 관리하고 판매시에는 크리스탈병에 담아 현지에서 고급 특산품으로만 판매함.

2) 수자원의 관할 자치단체 『공유자산화』

- 램의 상류지역 주민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산업 및 환경정책적 측면에서의 법적 규제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정정중복 실현

인한 기회비용임.

- 경제·사회적 피해에는 안개일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과수를 포함하는 농작물의 수확감소, 호흡기 질환자의 증가, 전파 및 통신장애, 교통사고의 나발 등 다양함.
- 수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에는 하류지역의 이수를 위한 각종 환경기조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약품비, 전기요금 등 제반 정상적 정비를 포함함.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보상관계를 모델화하면, 자연환경적 여건상 개발조건이 불리한 이른바, 선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외부효과가 큰 수자원 등 국가공공재 안정적 공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종 법적 규제로 경제·사회·문화적 피해를 받고 있는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하여는 제정보전차원에서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함.
-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호소의 수자원은 환경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수면의 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함.
- 호소수 등 수자원의 관할 자치단체 「공유자산화」는 하천 및 호소의 소유는 국유로 하되 지수된 수자원의 소유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임.
- 공유수면의 관할 자치단체 「공유자산화」가 실현되면 수자원의 품질에 따른 가격이 결정되는 등 수질을 둘러싼 시장기구의 내부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수질보전이 가능해짐.



〈그림 Ⅱ-8-7〉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및 보상 모델

제2부 부문별 계획

3) 도내 북부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 도내 북부의 제천시와 단양군에는 전국 최고의 석회석 매장지역으로 석회석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지역의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바람에 의한 흙먼지의 비산 및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등 물리적, 자연적 환경문제가 심각함.
- 특히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병 및 체토 등 농산물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과학적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가 시급함.
- 산림훼손 후 채굴에 따른 환경대책은 채굴완료 후 환경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여 개발면적을 최소화하는 한편, 채굴이 완료된 석회석광산의 지표면에는 경계림을 조성함으로써 무분별한 환경파괴에서 완벽한 생태계 복원에 이르는 전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석회석박물관(가칭)' 등을 건립하여 새로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함.
- 단양군 배포읍 일대는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생산거점 지역임.
- 시멘트는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재화임.
- 국가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전략적 재화(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자연파괴와 비산먼지, 분진 등 대기오염의 발생을 감수해야 하며, 채굴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즉 국가 기간산업의 원동력인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이라는 부의 영향을 감내한 국가공공재 공급기능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 시멘트생산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파괴된 자연환경의 회복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카지노 등 새로운 첨단 관광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6. 재해 및 에너지 관리

1) 재해관리

☐ 정책방향 및 시행계획

- 풍수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 실현

- 인명중시의 재해관리체계 확립
 - 계절별 피해발생 원인에 따른 대피계획 수립
 - 기상특보에 따른 권역별, 단계별, 계획적 대피
 - 재해위험지역의 시설별 대피계획 수립
 - 수해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치수대책 강화
 - 수해위험이 높은 하천변에 대해 우선적으로 친변을 정비하고 수고 조절기능을 갖는 시설을 설치
 - 전 주기공간의 하수도 보급에 앞서 하수의 배수능력을 제고
 - 치수안전도 향상
 - 도로 등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지하 하천 방식의 하수시설 정비를 추진, 배수시설 점검·정비
 - 우수유출 배제시설의 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 수해대책 및 침수피해 예측체계 확립
 - 홍수피해 조기정보 시스템의 확립
 - 지역안정성을 향상시키며 불연도시 건설
 -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불연화 사업을 전개하고 오픈스페이스 확보
 -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지구를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시가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
 - 도시방재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심지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도로 등)의 부족현황 파악후 부족지역부터 우선 정비
 - 주민에 대한 방재활동을 강화하고 피난 재해민의 안전 확보
- 모든 재해로부터의 예방사업을 추진함.
- 재해예방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장기계속공사를 위한 긍정적 수방대책 강구
 - 국가사업계획과 연계된 지방비 부담액은 적기에 확보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증진
 -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방재정책 전환
 - 완벽한 복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피해의 재발 방지 노력
- 방재체제를 강화하고 전문화함.
- 광역적인 방재활동체계를 정비하고 시설의 내실화 도모
 - 방재를 위한 통합 종합거점시설을 확보하고 정보통신망 정비
 - 소방서, 소방파출소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방화관련시설 정비
 - 노후화가 현저한 경찰서, 소방서 등은 개축 정비
 - 방재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 적절한 응급 대책 수립을 위한 신속한 정보체계 확립
 - 최신 기술정보 관리체계의 적용을 통한 피해 판독, 응급복구 등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확립

제2부 부문별 계획 ■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시설의 관로 정비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소방행정 서비스를 공급함.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방력 확충
 - 군단위 소방서 및 읍·면단위 소방파출소 신설
 - 현재 2교대 근무방식을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
 - 화재진압체제의 효율화 추진
 - 차량위주 진압체제에서 소화전 위주 진압체제로 전환
 - 도시 소방차량의 소형화, 농촌지역의 소방차량 대형화 소방력 전환
 - 소방집사의 과학화와 인력의 전문화 양성
 - 전문적인 소방집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요원 확보
 - 소방집사 장비의 현대화 추진
 - 민간 자율방화관리시스템 구축
 - 도민을 위한 인명중시체제로의 긴급구조대책 추진
 - 119구조구급대 역할 증대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 도모
 - 도민에게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수립
 - 119구조구급대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도 직할 119구조대·소방항공대·대청, 충주호 수난구조대 설치
 - 119 위성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최첨단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각종 재난·재해 상황을 인터넷 초고속 전산·통신망을 이용 정보수집, 분석관리
 - 위성정보통신망인 『국가안전정보 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소방서비스 제공

2) 에너지 관리

□ 정책방향 및 시행계획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함.
 - 전도민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
 - 부문별로 에너지 소비 10% 이상의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 공공기관의 에너지 및 물자 소비절약 등 예산절감시책을 적극 추진
 - 행정기간의 에너지 절약 솔선 실천으로 유관기관 참여 및 확산을 유도
 - 대형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 여부를 확인, 점검

제8장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 실현

- 공공기관의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촉진
-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
- 수송부문 에너지에 대한 수요관리를 강화함.
 - 운송경비 절감을 위하여 경차보급을 활성화하고 자가용승용차 이용 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
 - 물리적 수송수요 억제정책, 경제적 부담부과 정책, 제도적 규제대책, 대중교통수단 육성정책, 에너지 절약형 운행습관 유도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함.
 -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므로 지역적으로 열병합발전 방식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개별기업에서는 재환용 및 에너지 절약형 기기설치를 유도
- 도시가스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값싸고 사용이 편리하며,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가정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향상과 대기환경을 보전
 -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는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점차 읍단위 도시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확대

□ 대체에너지원 개발

- 세계 석유의 가채년수는 44년, 석탄은 174년, 천연가스는 57년으로 추정되고 있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의 연구개발을 촉진함.
- 무한대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에너지, 풍력을 이용한 발전과 운수 이용 등 무공해로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표 II-8-28〉 정부의 10대 대체에너지 분야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10개 대체에너지 분야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이용기술, 소수력(小水力), 풍력, 수소에 너지, 연료전지, 조력(潮力)
--------------------------------------	--

- 원자력, 화력, 수력으로 대표되는 전기의 고효율 저장장치를 개발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함.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안전하게 보관,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하는 처리수를 소수력(小水力: Small Hydro-power)으로 제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에너지원으로 활용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표 II-8-29〉 환경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목표	전략과제	세부 추진사업
자연환경 보 전	녹지조성	· 새천년송자숲 조성
	자연환경 관리	· 산간계곡수 보호 · 농업용 저수지 『생태교육장』시범사업 · 자연생태공원 (영동, 옥천, 진천 등) · 생물서식공간(Biotope) 조성 · 자연과의 친환경적 만남의 공간 조성 · 꽃(장미, 목련, 목단, 목화)동산 조성 · 환경교육의 장 『비지터센터』건립 · 도시지역 간선도로변 2출발 가로수 식재 · 자연사박물관 건립
생활환경 보 전	대기 개선	· 환경전광판 설치 · 공단그린벨트 조성 · 도시지역 공원(애임), 조성 · 청정연료 확대보급 · 대기 자동측정망 설치
	수질 개선	· 수질 자동측정망 설치 · 도시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 연구 · 하수처리장 슬러지의 퇴비화방안 연구
	폐기물 적정 처리	·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처리 · 다이옥신 저감 대책 수립 연구 · 부식성쓰레기의 퇴비화 · 쓰레기재활용 종합센터 건립 · 재활용 및 재이용 촉진
	친환경 생활공간 확보	· 도심내 친수환경 조성(제오개용수개발사업 등) · 『경관보전 시범지구』조성 · 교량 야간조명 시설
	안전한 상수공급	· 대청댐 II·III단계 광역상수도 추진 · 충주댐 I·II단계 광역상수도 추진 · 정수처리시설의 고도화 추진 · 간이 상수도 시설의 개량
	위생적 하수처리	· 하수처리시설 건설 ·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추진 · 중수도 보급 확대
지역환경 계획 수립	시·군별 환경계획	· 시·군별 환경실천계획 수립 · 도의 『환경수도』지정
산업시설 오염관리	환경관리 강화	· 토지이용 규제강화 · 환경기준 강화
환경자원 관 리	지역환경자원 이용	· 조정약수 『세종수』의 국보지정 · 수자원의 관할 자치단체 『공유자산화』 · 석회석자원 개발지 관광자원화 추진
재해 및 에너지 관 리	재해 및 에너지 관리	· 재해관리 기반 강화 · 에너지 관리 · 대체에너지원 개발

제4편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복」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제 9 장

- 제1절 현황 및 전망
- 제2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 제3절 세부추진계획

제9장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제1절 전망 및 특성

1. 충북의 토지이용현황 및 문제점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 1998년말 현재 충북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7,432.8km²로 용도지역별 지정면적은 도시지역 670.3km²(9.0%), 준도시지역 76.3km²(1.0%), 농림지역 3,813.8km²(51.3%), 준농림지역 2,082.9km²(28.0%), 자연환경보전지역 789.7km²(10.6%)로 되어 있음.
- 수도권인 경기도 경우 도시지역의 비율이 23.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근 충남의 경우 도시지역이 8.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전용도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도시적 토지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의 면적은 충남이 34.23%, 경기도가 32.4%로 충북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의 도시지역은 23.5%로 높게 나타났음.

〈표 II-9-1〉 충북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km², %)

구 분	면 적(km ²)						증감률 ('93~98)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행정구역 면적	7,436.029	7,436.029	7,434.301	7,433.365	7,433.066	7,433.088	-0.040
용도지역 지정면적	7,436.029 (100.00)	7,436.029 (100.00)	7,434.301 (100.00)	7,433.365 (100.00)	7,433.066 (100.00)	7,433.088 (100.00)	-0.040
도시지역	655.949 (8.82)	656.683 (8.83)	656.766 (8.83)	660.148 (8.88)	660.492 (8.89)	670.335 (9.02)	2.193
준 도시 지역	62.895 (0.85)	64.832 (0.87)	66.911 (0.90)	71.369 (0.96)	74.507 (1.00)	76.336 (1.03)	21.371
농림지역	3,594.710 (48.34)	3,594.408 (48.34)	3,835.945 (51.60)	3,833.326 (51.57)	3,831.617 (51.55)	3,813.773 (51.31)	6.094
준 농 림 지 역	2,329.772 (31.33)	2,328.449 (31.31)	2,083.115 (28.02)	2,078.690 (27.96)	2,076.618 (27.94)	2,082.898 (28.02)	-10.596
자연환경 보전지역	792.703 (10.66)	791.657 (10.65)	791.564 (10.65)	789.832 (10.63)	789.832 (10.63)	789.746 (10.62)	-0.373

자료 : 충청북도, 도정백서, 각년도

제2부 부문별 계획

-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5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998년 현재까지 충북도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은 증가한 반면,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도시지역 토지이용

□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시(3), 읍(12), 면(31)의 46개 지역이며 이 지역의 전체면적은 644.20km²로 충북도 면적(7432.8km²)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9-2〉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의 현황

(단위 : 명, km², %)

구분		1988년	1993년	1998년	증감률		
					'88~'93	'93~'98	'88~'98
도시 계획 구역	계획인구	1,086,414	977,870	1,578,440	-	-	-
	계획면적	616.60 (100.00)	636.81 (100.00)	640.93 (100.00)	3.28	0.65	3.95
용도 지역 별 면적	주 거	56.13 (9.10)	63.79 (10.02)	67.87 (10.59)	13.65	6.40	20.92
	상 업	7.14 (1.16)	8.14 (1.28)	8.58 (1.34)	14.01	5.41	20.17
	공 업	12.17 (1.97)	19.17 (3.01)	21.05 (3.28)	57.52	9.81	72.97
	자연녹지	472.36 (76.61)	497.01 (78.05)	503.69 (78.59)	5.22	1.34	6.63
	생산녹지	68.80 (11.16)	45.80 (7.19)	41.70 (6.51)	-33.43	-8.95	-39.39
	보전녹지	0.00 (0.00)	0.78 (0.12)	0.79 (0.12)	-	1.28	1.28
미 지 정		0.00 (0.00)	2.12 (0.33)	0.52 (0.08)	-	-75.47	-75.47

자료 : 통계청, 충북통계연보, 가년도.

- 도시화율은 73.8%로서 약 110만명이 도시계획구역에 거주하고 있음.
- 용도지역별 면적은 주거 67.9km²(10.6%), 상업 8.6km²(1.3%), 공업 21.1km²(3.3%), 자연녹지503.7km²(78.6%), 생산녹지 41.7km²(6.5%), 보전녹지 0.79km²(0.1%)임. 특히, 녹지지역 총면적은 546.2km²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85.2%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지역의 녹지지역 지정율은 85.2%로서 충남의 72.8%보다 12.4%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지역의 면적비율은 경기도(2.2%)와 충남(5.5%)의 중간치를 나타내고 있음.

제9장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 1988~1998년 기간중 주거 및 상업용지는 각각 20.9%, 20.2% 증가한 반면, 공업용지는 73.0%의 증가율을 보였음. 그러나 같은 기간 생산녹지는 39.4% 감소하여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대부분이 생산녹지의 전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개발제한구역

- 1998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충북 총면적 7,432.8km²의 3.2%에 해당되는 236.7km²가 지정되었음. 이 중 180.1km²는 청주권에, 나머지 56.6km²(군북 : 22.1km², 군서 : 7.6km², 현도 : 26.9km²)는 대전권에 포함되었음.
-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49.1%인 116.3km²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논이 21.8%로 전체 지정면적의 51.7km²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개발제한구역에는 총 32,401건의 시설이 있으며, 이중 주거시설은 23,860건으로 전체 시설의 73.6%, 농림수산업 시설은 7,084건으로 전체 시설의 21.8%를 차지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고 있는 시설 중 광공업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1993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광공업시설은 1993년 대비 -27.3%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청주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면 해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성평가검증을 2000년 말까지 완료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거쳐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 또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청원, 진천, 음성, 괴산, 보은, 증평출장소를 포함하는 광역청주권이 독자적으로 권역이 설정(2000. 10. 9)되었는 바, 청주권 주변 그린벨트의 개발압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대전권 그린벨트지역에 일부 포함된 청원 및 옥천의 그린벨트 지역은 취락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 도내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존치하되, 취락이 있는 지역은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해제방안을 검토함.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9-3〉 개발제한구역 이용 현황

(단위 : 천, %)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총 계	28,904 (100.00)	29,041 (100.00)	29,034 (100.00)	29,120 (100.00)	32,147 (100.00)	32,401 (100.0)
주 거 시 설	20,974 (72.56)	21,004 (72.33)	20,952 (72.16)	21,044 (72.27)	23,846 (74.18)	23,860 (73.6)
농림수산업 시 설	6,592 (22.81)	6,661 (22.94)	6,709 (23.11)	6,766 (23.23)	6,911 (21.50)	7,084 (21.8)
공 공 시 설	845 (2.92)	857 (2.95)	860 (2.96)	858 (2.95)	887 (2.76)	917 (2.8)
부 락 공 동 시 설	288 (1.00)	303 (1.04)	293 (1.01)	250 (0.86)	282 (0.88)	314 (0.9)
광 공 업 시 설	66 (0.23)	66 (0.23)	70 (0.24)	63 (0.22)	48 (0.15)	48 (0.1)
사 회 복 지 시 설	120 (0.42)	125 (0.43)	118 (0.41)	115 (0.39)	107 (0.33)	109 (0.3)
기 타	19 (0.07)	25 (0.09)	32 (0.11)	24 (0.08)	66 (0.21)	69 (0.2)

자료 : 통계청,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 도시계획미집행 시설

- 1999년말 기준, 충청북도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면적 비율은 46.6%로 매우 부진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은 공원이 41,545천㎡로 62.2%, 도로가 17,005천㎡로 25.5%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시설이 전체 미집행 면적의 8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10년 미만의 시설면적이 23.6%, 2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면적이 5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원, 녹지 등 19군데는 30년 이상의 미집행 시설로 분석되었음.
-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법(2000.7.1)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충북도는 이에 대한 존치여부 및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이 시급함.

3)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실태

□ 준농림지역

- 최근 6년(1994~1999년)동안 충청북도의 준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약 38.82km²이며, 이중 공장용지 및 축산단지 조성,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등으로 형질변경된 면적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비율이 29%로 타 용도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들은 준농림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
-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등 도시화용지로의 형질변경은 1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시설들이 도로변이나 농촌지역의 농경지에 들어서 농촌의 자연경관 파괴 및 주변취락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대형건물로 인한 시각적 차단으로 전형적인 농촌경관의 스카이라인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충청북도 창업공장의 용도지역별 입지상태를 분석한 결과 창업공장(1987~1999년) 2,247개중 84.7%의 업체가 개별입지형태를 띄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대부분 준농림지역에 건설되었음.
- 이 법은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설치를 촉진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법으로서 농촌지역에서의 개별입지를 허용하고 난개발을 유도하는 모태가 되고 있음.
- 이와같이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별한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소규모 개별입지의 공장들을 계획중인 사업단지로 유도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개발촉진지구

- 1995년 「지방중소기업육성및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지역에는 보은군에 135km², 영동군에 128.5km² 규모의 남후지역형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었음.
- 이 지역에서 시행된 개발촉진지구사업에 투자는 국비는 2000년말 기준 보은군에 236억원, 영동군에 96억원이 투입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음.
- 당초 두 지역에 5년간(1995~1999) 약 9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00년 말 기준, 약 36.6%인 332억원이 투자된 상태이며 1998년

제2부 부문별 계획 ■

이후 IMF의 영향으로 민자유치는 전무한 상태임.

- 2000년은 지표에 대한 새로운 작업을 실시하는 시점(매 5년마다)으로 보은과 영동 이외에도 충북의 난양 및 괴산군지역이 낙후지역형으로 지정 받도록 추진중에 있음.
- 한편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로 사업계획을 작성 완료한 제천지역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전략 수립방안을 강구해야 함.

〈표 II-9-4〉 개발촉진지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km)	총 사업비	기투자	2001계획			2002 이후
					소 계	국 비	지방비	
보은	소 계	12.0	42,744	23,605	19,139	19,139	-	-
	누청~신정	7.0	36,336	17,575	18,761	18,761	-	-
	길항~구터	1.5	1,977	1,977	-	-	-	-
	구인~장재	2.2	3,014	2,636	378	378	-	-
	삼년산성	1.3	1,417	1,417	-	-	-	-
영동	소 계	21.6	48,043	9,618	19,213	19,213	-	19,212
	마산~우매	6.9	17,300	4,530	6,385	6,385	-	6,385
	구촌~시금	12.8	26,043	1,398	12,323	12,323	-	12,322
	설계~화동	1.9	4,700	3,690	505	505	-	505

2. 토지이용 수급 전망

1) 수요추정

- 서해안 산업지대와 환동해권 산업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북지역은 수도권과 영·호남권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입지적 장점과 국토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융합지역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세계화와 남북교류 확대 등의 추세로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분남지역으로서 청주국제공항 및 중부권내륙화물기지 등의 활성화를 통한 중부권 국제관문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정부와 중부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가 남북을 관통하고, 건설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동서를 연결하며, 고속철도가 오송을 경유하고 청주국제공항의 위상제고 등 고속·고급교통수단의 발달로 산업입지의 최적지로 부각될 것임.

제9장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건설 등으로 신첨단기술 및 지식산업 입지여건이 양호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오송신도시의 건설이 필요함.
- 차령산맥지역은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수도권과 중부권의 휴식지대로 개발이 가능하고, 소백산맥지역은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레저, 위락적 수요 및 차량관련 용지와 같은 미래형 문화관광산업을 위한 수요증대가 예상됨.
- 주곡위주의 농업활동이 위축되고 소재, 고급기호식품, 특용정제작물등 경제성 높은 농업활동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논외 밭으로의 전환가능성이 증대되며, 농업부문에서 대규모 영농규모를 필요로 한 것임.
- 주택용지에 대한 수요 추계는 인구 및 주택수요 전망치를 토대로 하였으며 도내의 신규주택은 2000년 16,400호(총 45만호), 2010년까지 190,700호(총 64만호), 2020년까지 102,400호(총 74.3만호)가 각각 공급되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주택 1호당 택지 원단위(비수도권 138.6㎡/호)를 적용한 결과 추정된 충북의 신규주택용지 소요량은 계획기간내 약 42.8㎢의 주택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공장용지에 대한 소요량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27%)을 고려하여 전망하였으며, 공장용지의 조성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경우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조성 및 입주가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는 일정량의 공장용지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목표연도까지의 공장용지 수요는 약 100㎢로 추정함.
- 공공용지 소요량 추정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등에 참여될 토지수요를 통해 전망되며, 목표연도까지 필요로 하는 공공용지는 약 284.5㎢로 추정됨.
- 기타용지의 소요량 추정은 체육시설용지, 유원지, 묘지 등을 추계대상으로 전망하였으며, 목표연도의 소요량은 약 41.2㎢로 추정됨.

〈표 II-9-5〉 용지별 토지수요 전망

(단위 :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주거용지	123.1	139.1	149.5	156.7	163.6
공장용지	48.9	80.8	96.7	100	100
공공용지	191.7	211.6	233.5	257.7	284.5
기타용지	24.7	28.1	31.9	36.3	41.2
합 계	388.4	459.6	511.6	550.7	589.3

제9장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 목표년도까지 소요되는 약 100km²의 공장용지는 사업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26km²의 용지에서 공급될 전망이며, 나머지 74km²의 공장용지는 현재의 준농림지역이 새로운 법에 의하여 용도가 재편되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공급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등 공공용지와 관광휴양지, 체육시설용지, 묘지 등 기타용지는 목표년도까지 약 326km²가 필요하며, 이는 도내 전체지역에서 균형있게 공급될 전망이다.
- 목표년도의 총 토지수요는 약 590km²로 추정되며, 이의 공급을 위해서는 준농림지역에서의 가용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있음.
- 현재 충청북도내 준농림지역의 면적은 2,080.5km²이며, 최근 6년간(1994~1999)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형질 변경면적은 38.82km²에 달하고 있음.
- 이와같은 추세는 새로이 입법예고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토지이용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부족한 토지의 공급은 비도시지역에서만 수요량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지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이전적지 등을 활용한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도시지역내 개발가용지조사를 통해 도심주변의 황폐화된 시가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밀집지역, 주공혼재시가지 등의 낙후된 기존시가지에 대한 계획적 정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제2질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외 과밀억제정책(공장총량제, 준농림지 제조업 공장 설립제한) ·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 부각 · 토지시장의 개방화(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가용토지확대 · 개발촉진지구의 신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한 토지이용규제(담주변, 국립공원 등) · 준농림지역 토지이용밀도 강화 · 민간업자의 도시개발건의권 부여에 따른 난개발 · 개별법에 의한 소규모의 산발적 공장 및 주거단지 입지가능
<div>강점</div> <div>기회</div>	<div>약점</div> <div>위협</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중심부 입지 · 양호한 산업 직접 기반조성 · 자연경관을 활용한 효율적 토지이용 가능 · 저렴한 지가, 풍부한 용수, 낮은 인구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거점(growth pole) 도시의 부재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확대로 개발경쟁 심화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개발능력 미성숙으로 무계획적 토지이용우려 · 입지여건상의 지역경제 과실이 대전권으로 유출

2. 전략과제 도출

1) 개발과 보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권에 포함되는 1시(청주시), 5개군(정원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1출장소(증평출장소)의 토지이용계획은 본 계획에서 제시될 개발축, 녹지축, 교통축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개발용도와 보전용도의 구분 원칙을 설정함.
- 청주권 및 대전권(정원, 옥천)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은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건축밀도를 고려하고, 특히 대전권 도시계획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옥천 및 정원 일부지역그린벨트에 대하여 취락밀집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함.
- 각 기초단체별, 용도별, 소유주별 산지현황을 조사하여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남한강과 금강의 상류지역, 충주댐과 대청댐의 수계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수원의 관리 및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방안을 추진함.
- 도내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존치하되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해제방안을 검토함.

2)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 최근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은 도시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난개발의 전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토지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준농림지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나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의 적성평가와 아울러 이를 토대로한 규제강화(개발밀도, 토지이용) 및 개발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3) 중부권 첨단산업지대로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 서해안 산업지대와 환동해권 산업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북은 수도권과 영·호남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기능분담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및 중부권내륙화물기지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중부·경부 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교통의 결절지로서 접근성이 유리한 점을 고려한 산업입지계획을 마련함.
-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한 중부권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신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함.
- 오송신도시는 택지공급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특성있는 기능중심(보건의료)의 신도시로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범도시를 개발함.

제3절 세부추진계획

1. 합리적 토지이용규제제도의 마련

- 충청북도는 시·군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과 일관성을 갖는 통합적 광역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광역적 차원의 토지이용관리를 수행함.
- 무분별한 개발허가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서까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개발허가를 연동화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함.
- 준농림지역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입지한 도내 전역의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집단지화 방안을 강구함.
- 공공재 성격의 개발제한구역, 산림지, 댐 및 국립공원 지역 등 개발규제대상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상제도를 확립함.
- 도 단위에 지방심의기구를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개발 인·허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문화, 환경,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타 용도기능의 침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확립함.

2. 잠재적 가용토지자원의 계획적 관리

- 준농림지역의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토대로 용도지역을 재부여하고 이 지역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작성하여 지역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준농림지 난개발과 같이 국토공간의 파행적 토지이용을 유발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과산제도를 적용하여 기초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계획권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준농림지역의 관리 및 공간계획 분야의 관리수준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함.
- 통합시는 다양한 이질적인 공간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목표를 이원화하여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은 모도시의 토지이용목표와 일치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농업생산과 자연보전에 토지이용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수급을 조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가용지에서의 건축밀도(용적률과

건폐율)는 기존의 도시지역보다 하향조정 하며, 기존 도시지역(built up area)의 건물군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재편함.

- 확인적인 규제나 개발허용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제약이나 난개발을 방지하는 보완적 제도로서 도시 및 농촌 또는 군부지역내의 소단위 지역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체계를 도입함.
-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규제 완화를, 공해를 유발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장을 조성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제한하는 등 지역별 차등규제 방안을 마련함.

3. 토지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기 구축된 GIS자료를 이용, 토지이용관련 공간 정보와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역계획·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관리 등의 작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국가단위사업의 수용 및 토지시장의 개방화에 대비,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토지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별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함.
- 중·단기적으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장기적으로는 지적·임야도·지하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함.

4. 다양한 토지개발수법을 이용한 시범도시 및 시범지구 계획

- 토지개발계획과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시설을 연계한 정보화 신도시를 건설함.
- 도시개발법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계획함.
- 배후농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 소도읍 개발사업을 추진함.
- 농촌지역 도로변 불량건물개량, 가로환경정비 중심의 개발사업을 추진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표 II-9-6〉 토지이용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 및 목표	전 략 과 제	세부추진사업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토지이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권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검증 · 청주시 개발계획수립(도시기본계획/재정비/지적고시) · 광역권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충북지역 유치시설의 검토 ·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옥전 및 청원 취락밀집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산림면적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지·공유지·군유지 등 산지현황 및 산지이용 수요조사
	댐 및 국립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규 제방식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전수조사 ·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방안 모색
개발가용 토지자원의 확대	개발가용 토지자원의 체계적 조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토지이용체계 재편작업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수립 · 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지역의 설정 및 준농림지역의 관리지역으로의 편입
	토지의 집약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가용지 위주로 권역별 단위계획수립
	토지자원의 효율적·체계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계획조정(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지역) · 개발계획에 의한 계획적 개발유도(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농어촌산업지구) · 시·군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수립에 맞는 조례 제정 방안
토지수급의 균형유지	토지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국유지·공유지·군유지의 실태조사 · 토지이용현황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기구축된 GIS를 이용,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 2단계개발촉진지구지정 추진(단양, 괴산)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 이용·관리 체계 구축	특색있는 시범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신도시의 시범도시화(생명과학도시) 추진 · 청주시, 충주시의 시범지구 및 시범단지의 개발 · 유엔인간정주센터(Habitat)가 관심을 갖는 도시선정작업(재천시) · 읍급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원도시의 개발
	농촌지역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권개발사업(면단위지역) · 문화마을조성사업(면단위지역) · 오지종합개발사업(낙후농촌지역) · 신촌종합개발사업(산촌지역)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종합정보시스템개발(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 · 장기적으로 지적·임야도, 지하정보를 추가하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제4편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북」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제10 장

- 제1절 주거 환경
- 제2절 보건의료환경
- 제3절 사회복지시설
- 제4절 교육·체육

제1절 주거환경

1. 현황 및 전망

1) 주거현황

□ 주택보급률

- 충북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1998년말 기준, 약 90%를 보이고 있으며 시부(市部)가 평균 86.4% 인 반면, 군부(郡部)는 평균 100.6%를 보이고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Ⅱ-10-1〉 주택보급의 추이

(단위 : 호, %)

구 분	가 구			주 택			주 택보 급 률		
	1990년	1995년	1998년	1990년	1995년	1998년	1990년	1995년	1998년
전 국	11,361,096	12,975,291	-	7,160,386	9,204,929	-	63.0	70.9	-
충청북도	354,193	407,976	471,831	268,915	339,194	422,652	75.9	83.1	89.6
시 부	전 국	8,468,468	10,046,351	-	4,646,241	6,562,695	-	54.9	65.3
	청주시	116,864	151,220	175,932	68,004	108,220	134,355	58.2	71.6
	충주시	32,058	60,838	68,340	22,450	51,993	61,336	70.0	85.5
	제천시	25,304	40,012	46,397	17,087	34,262	43,097	67.5	85.6
군 부	전 국	2,892,628	2,928,940	-	2,514,145	2,642,234	-	86.9	90.2
	청원군	29,162	31,336	39,395	26,776	29,505	43,148	91.8	94.2
	보은군	14,915	14,001	15,057	13,461	13,080	14,677	90.3	93.4
	옥천군	18,206	18,326	20,147	16,131	16,981	19,658	88.6	92.7
	영동군	19,058	19,009	19,954	16,938	17,507	19,360	88.9	92.1
	진천군	13,523	15,599	19,324	11,988	14,260	21,825	88.6	91.4
	괴산군	24,090	14,233	15,750	21,168	13,628	16,705	87.9	95.7
	음성군	19,410	22,246	27,828	16,900	20,696	25,262	87.1	93.0
	증원군	17,739	-	-	16,431	-	-	92.6	-
	제천군	10,336	-	-	9,808	-	-	94.9	-
	단양군	13,528	12,396	13,495	11,773	11,132	13,975	87.0	89.8
	증평(출)	-	8,760	10,212	-	7,930	9,254	-	90.5

주 : 주택보급률(%) = (주택/가·구) × 100

자료 :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1995.

2)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내부자료.

제2부 부문별 계획

- 특히 주택부족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충북의 수위도시인 청주시가 23.6%, 충주시 10.2%, 증평출장소 9.4% 등이며, 군부의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등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의 주택보급률 상승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른 빈 농가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주거형태

- 주거형태는 1998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이 전체의 56.7%, 아파트 3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단독주택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는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고밀도 주거형태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주거지의 고밀화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주택유형에 대한 아파트의 비중은 1990년 대비 도내평균 25.3%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시군별로는 청주시 30.1%, 진천군 27.0%, 청원군 26.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은군과 단양군의 경우는 각각 4.6%, 5.8%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지역내 시·군의 주거문화 차이를 보임.

〈표 II-10-2〉 형태별 주택현황

(단위 : 호, %)

구분	계	단독주택	아 파 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내의 주택
1990년	268,915 (100)	213,181 (79.3)	34,791 (12.9)	10,965 (4.1)	929 (0.3)	9,409 (3.5)
1995년	339,194 (100)	198,679 (58.6)	108,090 (31.9)	18,401 (5.4)	1,209 (0.4)	12,815 (3.8)
1998년	422,652 (100.0)	239,698 (56.7)	161,554 (38.3)	15,301 (3.6)	6,099 (1.4)	-

주 : ()안은 전체 주택에 대한 해당 주택유형의 차지 비중

자료 :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1995.

2)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1999.

□ 점유형태

- 충북의 주거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의 경우 1990년 82.6%에서 1995년 78.2%로 4.4% 감소한 반면, 전세가구는 6.9%에서 10.6%로 증가하고 있음.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표 II-10-3〉 주거 점유형태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1990년	268,915 (100)	222,146 (82.6)	18,423 (6.9)	10,972 (4.1)	6,366 (2.4)	11,008 (4.1)
1995년	339,194 (100)	265,185 (78.2)	36,087 (10.6)	22,066 (6.5)	4,224 (1.2)	11,568 (3.4)

주 : ()안은 전체 주택에 대한 점유형태별 비중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1995.

□ 미분양 주택

- 2000년 기준, 충청북도의 미분양 주택은 전체 6,071가구이며 이중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341가구로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음.
- 미분양 주택중 전용면적 18평(60㎡)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5,120여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이 4,037가구로 77.6%를 나타내고 있어 소형 임대아파트가 미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주민들의 아파트 선호에 대한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청주, 충주, 제천 등 시급도시와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있어 각종 공장이 입지해 있는 진천 및 음성지역에서도 미분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10-4〉 총괄현황

(2000년 4월 기준)

구분	총계(호)	미분양 주택 현황					
		공공부분			민간부분		
		소계	아파트	기타	소계	아파트	기타
계	6,071 (2,267)	5,341 (1,986)	5,329 (1,975)	12 (12)	730 (281)	729 (280)	1 (1)
전용60㎡이하	5,119 (1,700)	4,921 (1,697)	4,909 (1,685)	12 (12)	198 (3)	198 (3)	
전용60㎡초과 85㎡이하	731 (519)	420 (289)	420 (289)		311 (229)	310 (229)	1 (1)
전용85㎡초과	221 (48)				221 (48)	221 (48)	

주 : ()안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현황을 나타낸 것임.

제2부 부문별 계획 ■

□ 주택공급

- 충북은 2000년까지 총 16,400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94.2%로 높이며, 임대주택을 8,890호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분화율을 조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도시근교에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의 공급으로 도심지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0년 이후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음.
- 택지개발사업은 총 28개지구 4,220천평으로 기개발된 사업지구가 23개지구 2,878천평, 개발 중에 있는 사업지구는 5개지구 1,342천평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20개지구 3,110천평으로 17개지구 2,544천평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3개지구 566천평이 개발 중에 있음.

〈표 II-10-5〉 택지개발 관련사업 계획

구분	지구명	시행자	면적 (천평)	사업 기간	총사업비 (억원)	지구지정 (사업결정)	사업 시행인가	비 고
택지개발	용암2	토지공사	493	1996~2001	4,000	1992. 9. 4	1996.12. 6	공사중
	개신	주택공사	140	1996~2000	1,258	1995. 2.24	1996. 7. 8	공사중
	가경4	주택공사	170	1997~2002	1,498	1996.12. 5	1997.10.31	실시계획중
	강서1	청주시	180	1998~2001	1,292	1997. 7.28	1998. 6.22	실시계획중
	산남3	토지공사	359	1999~2003	2,870	1994. 3.15	1999. 3. 9	실시계획중
	계		1,342	1996~2003	10,918			
토지구획정리	연수	토지조합	159	1995~1999	223	1992.10.12	1995.12.27	공사중
	봉명·신봉	청주시	268	1997~2001	552	1996. 4.18	1997. 8.19	공사중
	중평	중평(출)	139	1997~2000	237	1996.11.26	1997. 8. 7	공사완료
	계		566	1995~2001	1,012			

자료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내부자료(2000)

□ 재건축

- 2000년말 기준 재건축사업추진현황을 보면 1개지역 완료, 2개지역 시행중, 3개지역이 미착수 상태에 있음.

〈표 II-10-6〉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구 분	조합수	대지면적 (천평)	주택호수(천호)			지 구 당 평균면적 (평)	지 구 당 평균호수 (호)
			기존	공급	비율(%)		
계	6	81,656	4.019	6.451	161	13,609	1,075
완료	1	0.525	0.030	0.069	230	525	69
시행중	2	5,560	0.409	0.652	159	2,780	326
미착수	3	75,571	3.580	5.730	160	25,190	1,910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1989년에 입법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충북에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32개 지구(청주 7, 충주 13, 제천 12)로 약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음.
- 2000년에는 청주와 충주 각각 2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되며 2004년까지 추가로 17개의 지구가 지정될 예정임.

〈표 II-10-7〉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대 상			추진 실적(1989~1999)							
	지구	사업량	사업비	지구	사업량	사 업 비					
						계	교부세	양여금	재특	도비	시비
계	53	657	81,157	32	456	50,091	5,302	1,033	12,983	6,677	24,096
청주	17	106	26,686	7	66	11,586	803	96	2,871	1,451	6,365
충주	24	429	37,592	13	268	21,626	2,491	798	5,234	3,127	9,976
제천	12	122	16,879	12	122	16,879	2,008	139	4,878	2,099	7,755

2) 주택수급의 변화와 전망

□ 주거임지환경의 변화

- 시급도시
 - 주거지개발은 개발축과 도시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교통·통신의 발달은 도심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가속시켜 직주분리현상을 촉진시킬것으로 예상됨

제2부 부문별 계획 ■■■

- 그린벨트의 조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도심주변지역에서 전원주택의 개발 가속화 예상
- 읍급도시
 - 인구 및 산업의 유치, 농촌인구 유입 등으로 성장압력이 증가되고, 도시별 주택산업의 육성정책에 따른 도시성장은 주거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읍급도시 주변의 준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 농촌지역
 - 농산품의 고부가가치화, 관광농업화,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물 재배 등으로 농업의 구조적 개편과 더불어 주변 모도시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도·농간의 기능적 통합현상이 기대됨.
 - 농촌마을의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이농으로 인한 공가·폐가가 늘어나며,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법적인 조건하에서 경치가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전원형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정됨.

□ 주택 수요구조의 변화

- 가구분화현상의 가속화는 주택의 양적 수요를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됨.
- 소비구조의 고급화는 규모 및 주거환경, 옥내외시설 등 주택의 질적 측면에서 고도화될 것임.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사이버 아파트 및 주택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
- 도심내의 고밀도 아파트보다는 도시 주변지역에서의 전원형 단독주거지에 대한 수요급증이 예상됨.
- 지역간·도시간 인구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임대주택 및 복신자주택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10-8〉 충북 인구 및 가구변화 전망

(단위 : 천명, 천호, 명)

구 분	1998년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인 구	1,489	1,520	1,624	1,741	1,781	1,823
가 구	480	507	560	622	660	701
가구당 인원	3.1	3.0	2.9	2.8	2.7	2.6

□ 주택시장전망(2000년)

-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불안요인, 특히 경기회복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불안요인으로 경제정책기조의 변화가능성(경기부양→긴축·금리안정→상승)이 있으나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주택경기도 회복세가 지속·확산 될 것이나 주택수요 패턴의 변화,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지역별, 주택규모별, 주택유형별 회복의 정도나 속도의 차별화 현상이 지속될 것임.
- 향후 주거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변화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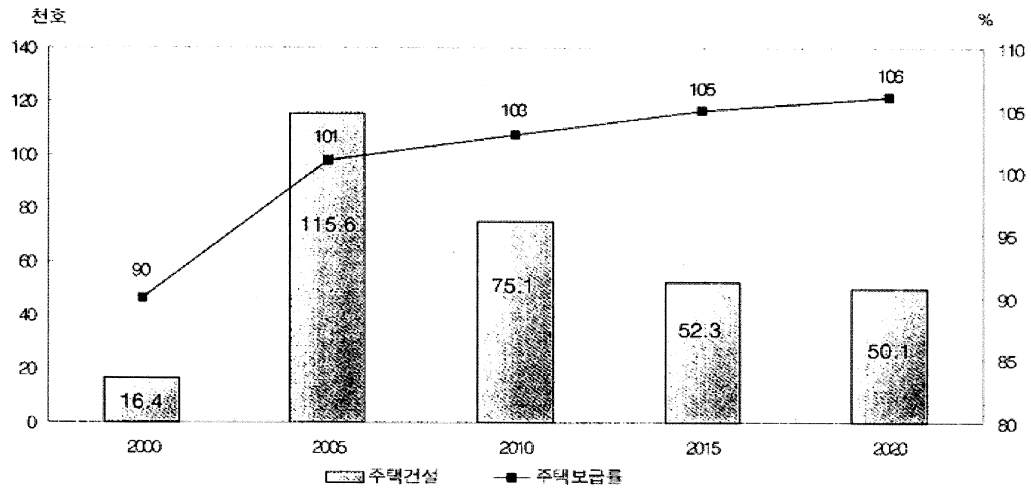


〈그림 Ⅱ-9-1〉 주거부문의 여건변화

□ 주택수급 전망

- 전국적으로 2000~2020년간 총 770만호(연평균 3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2002년 100%, 2020년에는 106%이상으로 제고시킴.
- 이에 따라 도내의 신규주택공급은 2000년 16,400호(총 45만호), 2010년까지 190,700호(총 64만호), 2020년까지 102,400호(총 74.3만호)가 각각 공급되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제2부 부문별 계획



〈그림 II-9-2〉 충북의 주택용지 수급전망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이후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속적인 시행 · 2004년까지 17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지정 예정 · 도심내의 고밀도 아파트보다는 도시주변지역에서의 전원형 단독주거지에 대한 수요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른 공가(空家)의 급속한 증가 · 전세가구의 증가로 이사철 전세가격 상승 우려 · 소형 임대아파트의 미분양 현상 · 지역내 시·군의 주거문화 차이 큼
강점	약점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2000~2020년간 총 7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2020년에 106%이상으로 제고 · 사이버 커뮤니티의 등장으로 기존의 이웃의 개념이 변화하고 주택의 탈공간화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녹지공간 확보 등을 추진 · 주택수요 패턴의 변화,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지역별, 주택규모별, 주택유형별 회복의 정도나 속도의 차별화 현상 지속

2) 전략과제 도출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거계획

- 21세기 충북 주거복지수준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치단체별 또는 특정지역내에서 주거단지 차별에 따른 별도의 계획을 수립·운영하여 효율적인 주거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주거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북의 독자적인 장단기 계획을 수립·실천하되, 공공계획은 기본적인 지침만 설정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부문에 위임함.
- 수려한 자연·인문환경 및 관광자원을 고려한 전원형 주거를 개발함.

□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의 개발

- 환경친화적인 개발수법에 기초한 노후 불량주거단지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기존의 택지개발지구 및 예정지구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설계 등의 기법을 응용하여 편익 및 미관을 증진함.

□ 살기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 재래식 주택개량차원에서 벗어나 집단마을정비 형식의 전원도시화 방향으로 추진함.
- 질서하게 산재된 농촌주택을 집단화하여 도로, 통신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및 문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외의 수요를 겨냥한 전원주택단지 개발함.
- 농촌주택에 도시적 편리성을 감안한 주택을 개발·공급하고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보급하여, 주택신축 용자금과 부지매입자금 등 농촌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확충함.

□ 특수시책사업

-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주택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주택사업을 시행함.
- 첨단통신이 구비된 '스마트하우스'의 도입 및 재택근무 활성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확충사업을 시행
- 고령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실버타운 및 양로단지를 개발함.
- 충북의 제도권 주택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며, 소비자 및 생산자 금융을 활성화할 다양한 기법을 개발함.

3. 세부추진계획

1) 21세기 선진국형 「신주택정책」을 마련

- 주택정책의 기초를 『내집 마련』위주에서 『살기 좋은 우리동네』정책으로 전환
-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자원절약적·환경친화적 주택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함.
- 서민주택공급을 증대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주거복지지표 및 최저주거기준(minimum housing standard)을 개발함으로써 서민주택공급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달성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2000. 9)에서는 4인 가족 기준 최저주거기준을 37㎡로 설정하고 2010년 50㎡, 2020년 60㎡로 유도하고 있음.
- 중저층의 고밀도 주택과 1인 가구·노인가구·장애인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함.

2)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커뮤니티 창출

- 재개발·재건축시 주변기반시설의 수용용량 및 시설확충계획을 고려하여 적정개발밀도를 유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함.
- 도시주변의 불량주거지 및 열악한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함.
- 재건축이 어려운 고층아파트의 체계적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화함.

3) 전원주택단지의 개발 및 다양한 주택모형의 개발

- 농촌주거환경개선은 농촌지역이 담당할 공간적 기능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구별되게 설정하고 개발의 내용도 차별화 함.
- 공간(빈집)의 증가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집중하고 있는 노령층 및 귀향 계층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취락 정비와 개선을 도모함.
- 취단농업, 시설원예, 축산, 과수 등의 영농유형에 부합되는 새로운 주거환경의 조성과 기존 마을의 공간구조를 재편함.

4) 주택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신주택사업의 시행

- 충북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캠핑단지(Camping Park) 및 레크리에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이선 차량(Recreation Vehicle)단지를 개발함.

- 고유의 전통 한옥단지, 초가단지, 황토흙집단지 등의 차별적인 주택사업을 전개함.
- 사이버 주택, 환경친화적 주택 등 고품질의 주택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주택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저층의 고밀도 주택과 1인 가구·노인가구·장애인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함.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10-9〉 주거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 및 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거계획	21세기 선진국형 「신주택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의 기초를 『내집 마련』 위주에서 『살기 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 · 자원절약적·환경친화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을 확충 · 고령화 대비 실버타운 및 양로단지 개발 · 서민주택공급 증대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주거복지지표 및 최저주거기준을 개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전원형 주거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려한 자연환경 및 관광자원을 고려한 별장형 주택단지 조성 · 지역출신 예술인을 이용한 예술인촌 건설 · 캠핑단지(Camping Park) 및 레크리에이션 차량(Recreation Vehicle)단지를 개발 · 전통한옥단지, 초가단지, 황토흙집단지 사업추진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개발	새로운 커뮤니티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급도시의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오래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 첨단생명과학도시내 디지털 네트워크 하우스정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지구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성 있는 주거단지 창출
살기좋은 농촌주거환경 개선	전원주택단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택을 집단화하여 사회간접자본 및 문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 수도권외 수요를 겨냥한 전원주택단지 개발
	다양한 주택모형의 개발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가구의 주민구성요소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모형의 개발·보급 및 공가 활용 · 농촌주택기능에 도시적 편리성을 감안한 주택 개발·공급 및 에너지절약형 주택 보급 · 농촌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확충
특수시책사업	주택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신주택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ber 주택, 환경친화적 주택 등 고품질의 주택을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한 「주택인증제」 도입 · 중저층의 고밀도 주택과 1인 가구·노인가구·장애인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 재건축이 어려운 고층아파트의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강구

제2절 보건의료환경

1. 현황 및 평가

1) 보건의료 지표

- 충북도내 병상수가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병상당 인구수가 91명으로 호전됨.
- 의료인 1인당 인구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의 경우 모두 적어져서 의료환경의 개선을 보여줌.

〈표 II-10-10〉 보건·의료 지표

구 분		현황	계획지표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10년	2020년
병상수	병상	8,401	10,100	10,900	11,400	11,900	12,400	15,000	20,000
의사수	명	1,118	1,300	1,500	1,600	1,800	2,000	2,500	3,000
1병상당인구수	명	173	160	139	135	130	125	116	91
의사1인당인구수	명	1,302	1,157	1,003	961	860	778	696	608

주 : 인구수는 충북도내 1998년 현재 1,456천명 기준임.
자료 : 1998년 현황 「충북통계연보」, 충청북도, 1999.

2) 현황

□ 사업현황

- 충북의 1999년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로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에 따르고 있음. 즉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호가 필요한 모든 150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그 목표를 '도민건강 수준향상'에 두고 있음.
- 사업의 추진방향은 첫째, 신속, 정확, 친절한 대민 보건의료 봉사행정 구현, 둘째, 보건기관 현대화로 지역간, 계층간, 의료시혜 불균형 해소, 셋째, 주민의 기대충족과 21세기 보건사업의 기틀확립에 두고 있음.
- 역점을 두는 추진사책으로는 첫째, 주민의료시혜향상, 둘째, 건강증진사업, 셋째, 의·약 업무관리, 넷째, 전염병 예방관리, 다섯째, 정신보건사업, 여섯째,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에 두고 있음.

제2부 부문별 계획 ■■■

□ 보건의료기관

- 충북 보건의료시설의 현황을 보면, 주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지역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보건기관은 총 270개소로서 시·군 단위에 보건소 11개소,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 97개소, 마을 단위에 보건진료소 162개소가 있음.

〈표 Ⅱ-10-11〉 보건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계	270	11	97	162
청주시	3	1	-	2
충주시	30	1	13	16
제천시	20	1	8	11
청원군	38	1	14	23
보은군	24	1	9	14
옥천군	30	1	8	21
영동군	29	1	10	18
진천군	14	1	6	7
괴산군	30	1	12	17
음성군	27	1	8	18
단양군	22	1	7	14
증평출장소	3	-	2	1

자료 : 「충북통계연보」, 충청북도, 1999.

- 특히 보건기관의 경우 1998년에는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를 청주시보건소 흥덕출장소, 괴산군 부흥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승격하면서 2002년까지는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증평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하고 보은군에 속해있는 외속, 마로, 단부, 삼승의 보건지소, 회남, 회북의 보건지소를 통합하며, 시설 장비 및 인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일반병상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재원일수는 일반병상이 0.66일이고 정신병상은 0.64일임.
- 정신병상의 경우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에 따라 향후 정신보건시설로부터 탈원화된다면, 1999년의 2,370 병상으로부터 약 10%의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며, 2002년에는 2,500 병상이 남게 됨.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표 II-10-12〉 병상수급 현황과 추계

구분	재원 일수	병상수				비고
		1996년	1998년	1999년	2002년	
일반병상	0.66	4,093	4,171	7,389	8,900	
정신병상	0.64	1,197	1,328	2,370	2,500	1999년 음성병원 500병상추가

비고 : 「지역보건의료계획(1999-2002년)」, 충청북도, 1999. 제작성.

- 이 밖에 1999년말 의료기관은 총 1,034개소로서 종합병원 10개소, 병원 16개소, 의원 584개소, 치과병(의)원 221개소, 한방병원(의)원 194개소, 부속의원 4개소, 조산소 5개소이며, 그밖에 정신병원 4개소(1,898병상)와 정신요양시설 4개소(정원 1,040명)가 있음.

□ 보건인력

- 보건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예방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의사를 배치하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에는 독거노인이나 방문간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가정간호사를 41명 배출함.
- 의료인력의 배치는 1980년 12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의사인력은 공중보건의로사로 충원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원은 시·군에서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임용하고 있음.

〈표 II-10-13〉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의료 기사	의 무 기록사	약사
6,469	1,257	256	229	19	1,508	1,952	1,132	44	72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2000.

〈표 II-10-14〉 보건소 인력

합계	공 중 보 건 의					보 건 진 료 원
	소 계	전 문 의	일 반 의	치 과 의	한 방 의	
407	251	111	77	57	6	156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2000.

제2부 부문별 계획 ■■■

□ 보건의료사업별 현황

-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목표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음. 따라서 모든 영역의 현황 파악보다는 복지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증진사업, 보건소 현대화사업, 정신보건사업, 응급체계구축사업으로 국한함.
- 의료보장 차원에서 의료보호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은 8가지로써 질병예방, 예방접종, 영유아건강진단 등임.
- 특수질환인 에이즈, 결핵, 마약중독, 전염병, 노인치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는 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줌.
- 건강검진사업으로는 지역보건계획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암 검진을 15,000명 정도 실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요원에 대한 사업은 청소년 성교육교관, 전문가정간호사, 마을건강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음.
- 시설지원보강사업은 나환자, 정신질환자,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 등을 하고 있음.
- 특히 1999년에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지소)의 신·증축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청주, 옥천, 영동, 보은, 충주 등 5개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음.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표 11-10-15〉 1999년도 보건의료사업

(단위 : 백만원)

시책 방향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도 민 건 강 중 진	의료보호진료비지원	11시군	27,993	
	실명예방사업	30명	11	
	에이즈감염자치료비	2명	10	
	결핵관리사업	1개소	8	결핵협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암검진 사업	866명	46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	2명	2	
	전염병환자격리수용치료	171명	27	
	나양로수용시설 생계비	32명	31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	193명	68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940명	5	
	가족계획 시술비	534명	2	
	피임약제기구 구입	578명	2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	5명	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11,647명	151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230명	17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37,018명	161	
	예방접종사업비	54,950명	180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	57,810명	15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개소	7	충광농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7개소	1,312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1개소	448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177	시설·장비 현대화
	수돗물불소화 사업	1개소	100	청주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개소	265	시설·개보수
	나이동 진료사업비	1개소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궁암, 유방암 검진사업	14,000명	329	
	예방접종(일본뇌염 등)	20,670명	65	
	가정간호사 양성교육비	8명	7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비	7개소	329	117,401명 진료
	무료돌니사업	100명	30	

비고 : '99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 보건과.

제2부 부문별 계획 ■ ■ ■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기관 진료기능 강화 ·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보건인력의 지속적 증가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서비스관리체계 미흡 ·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및 투자 빈약 · 보건기관 이용률 저조 · 응급의료센터 부족
<p>강점 기회</p>	<p>약점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국민보건복지비전 → 의료보 험제도내실화, 국민의료기반의 확충 · 사회보험 통합운영 : 효율성 증진 · 지자체의 도민평생건강관리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인구의 증가 : 만성퇴행성질환자 증가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욕구 다양화 · 의료보호예산의 증가 · 정신의료, 요양시설 수용인원 과다

2) 전략과제 도출

☐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 도민의 질병을 효율적으로 예방·치료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보건소(지소)의 역할 확대 및 건강검진사업 적극적 실시로 자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함.

☐ 보건소의 기능보강과 현대화

- 다양해지고 증대하는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사업

-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실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 확대 설치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을 신규 설치함.

☐ 장애예방 및 의료재활사업

- 선천성 장애예방사업으로서 보건소에서 정신지체아 발생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함.

- 보건소의 장애인 의료재활 담당 기능을 3개소에서 시범실시하고, 중증장애인 방문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장비를 구입함

□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충북대학병원에 설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지정 운영하되, 응급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구조·처치교육을 실시함.

3. 세부추진계획

1) 도민의 건강증진확충 및 운영활성화

-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방진료 운영과 물리치료실 확충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함.
- 도내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규모의 「국제 보건산업박람회」 행사를 개최함.

2) 보건(지)소 증·개축 및 장비의 현대화

- 보건소의 기능을 평생진료센터로 전환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증·개축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도민의 진료수준 향상으로 지역간, 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기반을 갖추어야 함.

3) 건강검진 확대

-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30대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발생을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4) 정신보건시설 확충

-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여 나아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노력함.

5) 의료체계 구축

-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센터를 생활권의 병원에 연계하여 지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제2부 부문별 계획

〈표 II-10-16〉 보건의료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 및 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과 즉시성 확보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재수립 · 한방진료실 확대 13개소 · 물리치료실 확대 44개소 → 75개소(2004년) · 체력검진센터 설치 및 확대 · 방문간호사업의 강화 · 저소득 건강검진사업의 강화 : 위암 시범 실시(2000년) → 고혈압, 당뇨, 10대 암 확대(2004년) · 국제적 규모의 행사 개최
	보건소의 기능 보강과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된 보건소의 증·개축 · 진료장비 및 기구의 보강 · 전산화를 통한 건강정보 제공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보건시설의 확충 1개소 → 3개소(2004년) · 정신요양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 4개소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정 0개소 → 1개소(2004년) ·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 0개소 → 4개소(2004년) · 응급의료지정 병원 12개소 → 15개소(2004년) · 구급장비 보강지원

제3절 사회복지시설

1. 현황 및 평가

1) 사회복지시설 지표

- 함께 더불어 잘사는 복지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 실직자의 자활·자립기반 조성, 계층별 복지환경 개선,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건전한 가정 및 아동보육 등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 1998년의 각종 복지시설 현황은 2020년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시설의 경우 모두 2 배이상 확충되어 질 높은 복지충북이 실현될 것임.

〈표 II-10-17〉 사회복지시설 지표

구 분	현황	계획지표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10년	2020년
아동복지시설	8	-	-	-	-	-	-	8
노인 시설	15	-	20	25	30	33	40	50
장애인 시설	18	20	25	30	35	42	47	55
부랑인 시설	2	-	-	-	-	-	-	2
정신질환시설	7	12	15	20	25	31	35	40
모자 시설	2	-	3	-	-	4	-	5
사회복지관	8	10	12	15	18	21	25	30

주 :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계획」, 충청북도, 1999 제작상.

2) 현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지원

- 1998년 충청북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844명으로 이중 세분하면 거택보호대상자 18,057명, 자활보호 30,634명, 시설보호인원은 5,153명임. 이는 충북도내 인구 1,492,077명의 3.6%에 해당함.

〈표 II-10-18〉 199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구 분	계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충 북	22,348	53,844	10,712	18,057	11,594	30,634	42	5,153

자료 : '98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국

제2부 부문별 계획 ■

〈표 II-10-19〉 1998년도 충청북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사업

(단위 : 백만원)

시책방향	시책내용	1998년도 사업	대상	예산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시책의 내실화 총 7사업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13,649명	19,74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자립지원	4개사업	5,257
	보호시설 총 7사업	시설보호자생계비 지원	5,236명	5,791
		보호시설운영비 지원	42개소	10,180
	이용시설 총 8사업	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	8개소	1,034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지원	3개소	1,057

자료 : '98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국

“충청북도 사회복지예산 현황”, 충청북도 내부자료, 1998. 12. 31.

□ 사회복지부문별 현황

○ 아동생활시설

- 충북의 1999년 아동복지 사업은 ‘아동의 건전육성’과 ‘아동의 안전보육’사업으로 구분됨.
- ‘건전육성사업’은 주로 취약 아동의 보호사업에 치중해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세대보호사업을 실시함.
- ‘아동의 안전보육사업’은 교육시설 운영비 지급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의 보육료 지원사업 등을 실시함.
- 아동복지시설은 2개소의 영아원과 5개소의 육아원, 그리고 부랑아 및 자립시설이 1개소씩 있음.
-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의 대부분은 1950년대에 설립되어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총 799명의 아동을 103명으로 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1인당 7.7명을 보호하는 셈임.

〈표 II-10-20〉 아동복지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허가년도	소재지	운영법인	정원	직원수
아	영아원	충북희망원	1948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112	26
		제천영육아원	1976	제천시	종교재단	77	17
	육아원	충북육아원	1955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105	10
		성화원	1952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75	7
		해능보육원	1952	청원군	사회복지법인	105	12
		음성향애원	1952	음성군	사회복지법인	90	9
		영실애육원	1956	옥천군	사회복지법인	105	8
동	부랑아시설	현양원	1975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100	12
자립지원 시설	현양자립생활관	1992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30	2	

주 : 정원총수는 799명, 직원총수는 103명, 직원 1인당 보호아동수(정원기준)는 7.7명임.

자료 : <http://www.provin.chungbuk.kr>, 1999.12.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 노인복지

- 충북의 노인인구는 전국 평균의 6.84%보다 1.56%가 높은 8.4%로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가족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매노인이 1,009명으로 집계되어 앞으로 이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전체노인 가운데 0.6%만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99.4%의 노인은 일반가정이나 독거노인의 형태로 생활하고 있음.
- 지역사회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들이 안심하고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임.

〈표 II-10-21〉 노인인구와 주거형태

65세이상 노인수	주 거 형 태 별			100세이상 노인수
	일반가정	독거노인	시설보호	
124,974	114,913 (91.9%)	9,300 (7.4%)	761 (0.6%)	67

주 : 1999. 1. 1. 기준 : 충북 총인구 1,484,429명(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8.4%)

- 노인복지 생활시설은 크게 양로원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는데, 양로원은 1944년도에 설립된 충북양로원을 비롯하여 5개 시설이 있으며, 요양시설 역시 총 5개소로 주로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설립되었음.
- 노인복지시설 역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종교재단에서도 참여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의 정원은 총 855명에 133명의 직원이 종사하며 직원 1인당 보호노인의 수는 6.4명으로 아동시설과 비교해 적은 편임.

〈표 II-10-22〉 노인생활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허가 년도	소재지	운영법인	정원	직원수
노 로 원 시 설	충북양로원	1944	괴산군	사회복지법인	60	6
	청주양로원	1978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50	6
	충북양로원	1994	음성군	사회복지법인	50	6
	성심양로원	1981	청주시	종교재단	80	7
	은혜의집	1995	청원군	종교재단	50	8
요 양 시 설	청원요양원	1986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80	16
	성암안식원	1989	보은군	사회복지법인	50	8
	초정치매요양원	1998	청원군	사회복지법인	75	22
	꽃동네(노인요양)	1987	음성군	종교재단	300	41
	성보나베틀라	1991	제천시	비영리법인	60	13

주 : 정원총수는 855명, 직원총수는 133명, 직원 1인당 보호아동수(정원기준)는 6.4명임.

자료 : <http://www.provin.chungbuk.kr>, 1999.12.

제2부 부문별 계획

○ 충북의 보지 및 납골 시설 현황

- 도내 보지 및 납골 시설은 매장 9개소, 화장장 2개소, 납골당 4개소가 있으며, 화장장의 경우 충주와 제천에 각 1개소씩 있으며, 그 외 지역에는 전무한 형편임.
- 납골 시설의 경우 9,720기를 봉안할 수 있으며, 납골당은 청주 1개소, 충주 2개소, 청원 1개소로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납골시설이 전혀 없음.

〈표 II-10-23〉 지역별 보지 및 납골시설

구 분	매 장			화장장	납골당		
	개소수	공 설 지	사 설 지	개소수(화로수)	개소수	총봉안력	납골기수
충북(1998)	9	5	4	2(7)	4	9,720	5,489

자료 : 「충북통계연보」, 충청북도, 1999.

○ 장애인복지

- 장애인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3월말 기준으로 29,698명으로 충북도내 인구의 약 1.6%에 해당됨. 이는 1998년 12월 31일 20,502명의 등록장애인과 비교해 9,646명이 늘어난 것임.
-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일반인보다 평균적으로 열악한 실정인기에 이에 필요한 생계보조를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 부모로서 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장애인 생계보조 및 자활지원사업이 절실함. 특히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에 용자 등의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 근로직업재활시설 현황을 보면, 충북도내 모두 11개소로서 10개소의 보호작업장과 1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보호작업장은 앞으로 3년 안에 장애인근로시설로의 전환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도내 1급 장애인은 2,853명으로 이 중에서 약 25%에 해당되는 713명 정도는 집에서 순회재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됨. 현재 2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역시 지역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확충이 필요함.
- 장애인생활시설이 충북도내 허가시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장애인생활시설은 1950년대 후반 충북광화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설립되어 왔으며,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 역시 사회복지법인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몇몇 종교재단이 참여하고 있음.
 - 장애인생활시설의 총 보호정원은 1,806명으로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과 비교해 매우 많지만,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은 모두 378명으로 직원 1인당 담당자수는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보다 적은 4.8명임.

〈표 11-10-24〉 장애인보호시설 현황표

구 분		시설명	허가 년도	소재지	운영법인	정원	직원수
장 애	재	충북광화원	1958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100	26
		요셉의집	1973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170	30
		보람근로원(동산)	1998	청원군	사회복지법인	112	9
	활	송덕재활원	1981	충주시	사회복지법인	160	27
		살레시오 집	1994	제천시	종교재단	91	16
		세하의집	1987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32	19
	시	성심농아원	1971	충주시	종교재단	180	32
		성보나의집	1990	청원군	사회복지법인	35	17
		성심맹아원	1975	충주시	종교재단	110	23
인	요 양 시 설	청산원	1973	옥천군	사회복지법인	220	27
		마리아의집	1990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100	26
		이하의집	1995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56	20
		나눔의집	1985	충주시	사회복지법인	100	34
		꽃동네(장애인)	1990	음성군	종교재단	300	60
		소망원	1992	청원군	임의단체	40	12

○ 기타 사회복지 생활시설

- 기타 사회복지 생활시설로는 여성시설과 부랑인시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있는데, 부랑인 시설과 정신질환시설은 각각 2개소와 4개소로 그 숫자면에서는 적은 편이나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함.
- 모자복지시설은 모자보호를 위한 성가마을과 미혼모를 위한 자모원이 있는데, 이 두 시설은 모두 1990년대 초반에 허가를 받은 시설들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 성가모자원의 정원은 가구를 기준으로 44가구인데 1가구 평균 3명이 입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132명의 정원을 갖는 셈이고 자모원은 5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어 약 180여명이 이들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2개의 부랑인 시설은 모두 1980년대에 허가받았으며 꽃동네에 있는 부랑인 시설은 총 8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시설 규모이므로 이를 포함 2개 시설에서 총 1,020명의 도내 부랑인들을 수용할 수 있음.
- 직원 수는 35명으로 직원 1인당 29.1명을 돌보는 셈인데 다른 시설과 비교해 1인당 보호인원은 많지만, 많은 부랑인이 정상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 1인당 보호인원만으로 보호노동의 부담이나 보호의 질을 비교하기는 어려움.
- 한편 정신질환자시설은 1970년대와 1980년에 걸쳐 허가받은 4개의 시설이 있으며, 이 4개의 시설에서 총 1,100명의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직원수는 75명으로 직원 1인당 평균 14.7명을 돌보게 됨.

제2부 부문별 계획 ■

〈표 II-10-25〉 모자복지·부랑인·정신지체생활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허가 년도	소재지	운영법인	정원	직원수
모 자 복 지	요보호	성가마을	1991	청주시	종교재단	132	4
	미혼모	자모원	1993	청원군	종교재단	50	6
	부랑인	성덕원	1982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170	10
		꽃동네(부랑인)	1984	음성군	종교재단	850	25
정 신 지 체 환 자	요	영생원	1973	옥천군	사회복지법인	360	21
	양	부활원	1979	옥천군	사회복지법인	180	16
	시	상록원	1986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160	13
	실	꽃동네(정신질환)	1985	음성군	종교재단	400	25

자료 : <http://www.provin.chungbuk.kr>, 1999.12.

○ 사회복지시설의 분포현황

- 충청북도 도내 사회복지허가시설은 육아시설 등의 생활시설 42개소와 사회복지관 등의 이용시설 14개소를 포함하여 총 56개의 허가시설이 있음.
- 도내 무허가시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도내 56개 시설은 전국 1,383개 허가시설의 약 4.0%를 차지함.

〈표 II-10-26〉 사회복지(허가)시설의 유형별 분포

(단위 : %, 개소)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 계
충청북도	75.0 (42)	25.0 (14)	100.0 (56)
전 국	69.4(960)	30.6(423)	100.0(1,383)
전국대비충청북도	4.4	3.3	4.0

주 : 충청북도의 경우 노인재가복지센터 1개소 포함. 전국분포에는 재가복지센터 미포함.
충청북도는 1999년 12월 현재, 전국은 1998년 12월 현재 자료임.

- 충북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생활시설이 75.0%를 차지하면서 전국 평균 69.4%보다 조금 높고, 이용시설의 분포는 25.0%로 전국 평균 30.6%보다 적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장애인복지시설이 19개소로 전체의 33.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이 21.4%(12개소), 아동복지시설이 16.1%(9개소),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14.3%(8개소), 정신질환자시설이 7.1%(4개소)이며 기타 부랑인시설과 여성복지시설이 각각 2개소씩 분포하고 있음.
- 전국의 분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충북 사회복지시설의 분포는 정신질환자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아동, 노인, 여성,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표 II-10-27〉 사회복지시설의 대상자별 분포

(단위 : %, 개소)

구 분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	부랑인	여성	지역 주민	합 계
충청북도	16.1 (9)	21.4 (12)	33.9 (19)	7.1 (4)	3.6 (2)	3.6 (2)	14.3 (8)	100.0 (56)
전 국	19.7 (272)	27.3 (378)	18.8 (260)	3.1 (43)	3.1 (43)	4.8 (67)	23.1 (320)	100.0 (1,383)
전국대비 충청북도	3.3	3.2	7.3	9.3	4.7	3.0	2.5	4.0

주 : 충청북도의 경우 노인재가복지센터 1개소 포함, 전국분포에는 재가복지센터 미포함.
충청북도는 1999년 12월 현재, 전국은 1998년 12월 현재 자료임.

- 시군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를 보면, 전체 56개 사회복지시설 중 39.3%에 해당하는 22개 시설이 청주시에 밀집해 있으며, 다음으로 제천시와 청원군에 각각 12.5%(7개소), 충주시와 음성군에 각각 10.7%(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진천군과 단양군, 영동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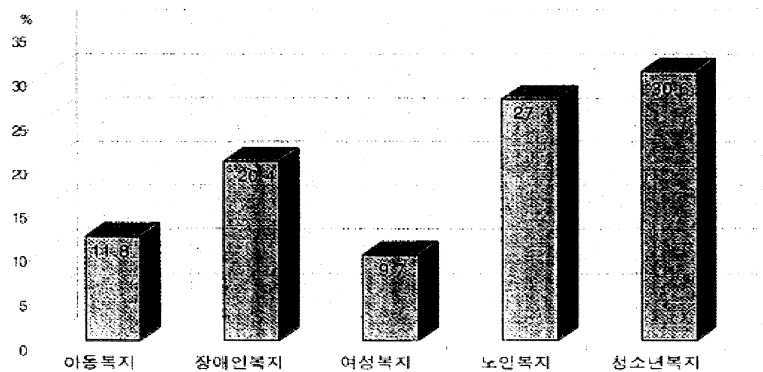
〈표 II-10-28〉 사회복지시설의 시·군별 분포

(단위 : %, 개소)

구 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합 계
시설 유형	생활 시설	33.3 (14)	9.5 (4)	11.9 (5)	16.7 (7)	14.3 (6)	2.4 (1)	2.4 (1)	9.5 (4)	100.0 (42)
	이용 시설	57.1 (8)	14.3 (2)	14.3 (2)	-	-	14.3 (2)	-	-	100.0 (14)
대 상 자	아동	55.6 (5)	-	11.1 (1)	11.1 (1)	11.1 (1)	-	-	11.1 (1)	100.0 (9)
	노인	41.7 (5)	-	8.3 (1)	16.7 (2)	16.7 (2)	8.3 (1)	8.3 (1)	-	100.0 (12)
	장애 인	26.3 (5)	26.3 (5)	21.1 (4)	15.8 (3)	5.3 (1)	-	-	-	100.0 (19)
	여성	50.0 (1)	-	-	50.0 (1)	-	-	-	-	100.0 (2)
	지역 주민	50.0 (4)	12.5 (1)	12.5 (1)	-	-	25.0 (2)	-	-	100.0 (8)
	부랑 인	50.0 (1)	-	-	-	50.0 (1)	-	-	-	100.0 (2)
	정신 질환	25.0 (1)	-	-	-	25.0 (1)	-	-	50.0 (2)	100.0 (4)
	합계	39.3 (22)	10.7 (6)	12.5 (7)	12.5 (7)	10.7 (6)	5.4 (3)	1.8 (1)	7.1 (4)	100.0 (56)

제2부 부문별 계획

- 사회복지대상자별 시설분포를 살펴보면, 청주시에는 아동, 노인부터 부랑인이나 정신질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자를 위한 시설이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지만, 충주시에는 6개 시설중 5개소의 장애인시설이 집중되어 있음.
 - 제천시 역시 장애인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7개 시설중 4개소), 옥천군에는 정신질환시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3개소 중 2개소).
 - 청원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단양군, 영동군은 사회적 요보호자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사회복지관이 없음.
- 이와 같은 행정지역별 분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편중,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미보장,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관의 부재라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21세기 충청북도 비전』설정을 위한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중 가장 부족한 것에 대해 청소년복지시설 30.6%, 노인복지시설 27.4%, 장애인복지시설 20.4%, 아동복지시설 11.8% 등으로 나타남.



〈그림 II-9-3〉 사회복지시설중 가장 부족한 것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정원 및 현원

- 충청북도 생활시설의 정원(1999년 12월 홈페이지 자료 기준)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자, 부랑인 시설을 포함하여 총 4,240여명에 이릅니다.
- 이 시설들의 정원을 몇 개의 규모별로 재분류하자면 3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아동시설 1개밖에 없으며, 정원이 200명 이상이 되는 곳은 노인시설 1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가 있음. 한편 정신질환자 시설 2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6개소, 그외 51-100명 규모의 시설이 전체의 1/3을 차지하며, 101명이상 200명 규모의 시설 13개소 그리고 31-50명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인 시설 8개소가 있음.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 대상자별로 보았을 때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질환자시설에서 대규모 시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입소 현원은 정원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생활시설의 정원을 기준으로 30명 이하의 소규모시설이 1개소에 불과하였으나, 등록되지 않는 시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4개소임.
- 전체 시설의 42.9%에 해당하는 18개 시설이 51-1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규모화는 주로 아동시설과 노인시설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랑인시설과 정신질환시설은 여전히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표 II-10-29〉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정원

(단위 : %, 개소)

구 분	30명이하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이상	합 계
아 동	11.1(1)	-	44.4(4)	44.4(4)	-	100.0(9)
노 인	-	40.0(4)	50.0(5)	-	10.0(1)	100.0(10)
장 애 인	-	20.0(3)	33.3(5)	33.3(5)	13.3(2)	100.0(15)
여 성	-	50.0(1)	-	50.0(1)	-	100.0(2)
부 랑 인	-	-	-	50.0(1)	50.0(1)	100.0(2)
정신질환	-	-	-	50.0(2)	50.0(2)	100.0(4)
합 계	2.4(1)	19.0(8)	33.3(14)	31.0(13)	14.3(6)	100.0(42)

〈표 II-10-30〉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현원

(단위 : %, 개소)

구 분	30명이하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이상	합 계
아 동	-	-	77.8(7)	11.1(1)	-	100.0(9)
노 인	20.0(2)	40.0(4)	30.0(3)	-	10.0(1)	100.0(10)
장 애 인	-	20.0(3)	46.7(7)	26.7(4)	6.7(1)	100.0(15)
여 성	50.0(1)	-	50.0(1)	-	-	100.0(2)
부 랑 인	-	-	-	50.0(1)	50.0(1)	100.0(2)
정신질환	-	-	-	50.0(2)	50.0(2)	100.0(4)
합 계	9.5(4)	16.7(7)	42.9(18)	19.0(8)	11.9(5)	100.0(42)

○ 이용시설

- 도내 대표적 이용시설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임.
- 이용시설은 재가 장애인, 재가 노인, 지역빈곤계층 등이 이용해야 하므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분포함.
- 그러나 대부분 청주, 충주, 제천의 도시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제2부 부문별 계획

- 이용시설은 노인복지시설 2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를 포함하여 총 14개소가 있으며, 이들 이용시설에 총 201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음.
- 이용시설 경우에는 생활시설과 같이 법정 정원이 없어 시설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생활시설이 일정한 공간에 수용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이용인원이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1999년 12월 현재 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은 노인시설 5,432명, 장애인시설 15,870명, 일반 지역주민 41,300명을 포함 한달에 총 6만2천6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원 1인당 약 300명을 관리하고 있음.

〈표 II-10-31〉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허가 년도	소재지	운영법인	이용인원 (월)	직원수
노인 시설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	1998	청주시	비영리법인	5,000	6
	청주재가노인복지센터	1997	청주시	기타	432	7
장애 인 시설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1990	충주시	사회복지법인	4,000	30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1998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2,000	9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1996	청주시	종교재단	4,870	32
	청주베다니센터	1989	청주시	임의단체	5,000	20
지역 주민	청주사회복지관	1988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1,200	10
	청주종합사회복지관	1988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7,500	15
	증평종합사회복지관	1991	괴산군	사회복지법인	3,500	9
	충주종합사회복지관	1993	충주시	사회복지법인	6,000	21
	용암종합사회복지관	1995	청주시	사회복지법인	12,000	16
	삼보복지관	1996	괴산군	사회복지법인	2,500	5
	산남종합복지관	1991	청주시	종교재단	1,100	10
	제천종합복지관	1994	제천시	종교재단	7,500	11

주 : 제 이용인원은 월평균 626백명, 직원총수는 201명으로, 직원 1인당 약 300여명이 시설이용을 받고 있음. 이용인원은 각 이용시설에 진화할 통해 확인한 인원이며 이용인원에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음.

자료 : <http://www.provin.chungbuk.kr>, 1999.12.

○ 이용시설의 평균이용인원

- 이용시설은 시설규모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방법에 따라서도 이용인원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현재 도내 14개 시설중 이용인원이 월 평균 500명 미만인 곳은 노인재가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복지센터 한 곳뿐인 실정임.

- 이 시설은 다른 이용시설과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도내 1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자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킨다면 얼마든지 이용인원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타 복지관 형태의 이용시설중 6개 시설(42.9%)은 월평균 1천명에서 5천명정도가 이용하는 곳이고, 5개 시설(35.7%)은 5천명에서 1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2개 시설만이 월평균 이용인원 1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표 II-10-32〉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월평균 이용인원

(단위 : %, 개소)

구 분	500명미만	1000~4999명	5000~9999명	10000명이상	합 계
노 인	50.0(1)	-	50.0(1)	-	100.0(2)
장 애 인	-	75.0(3)	25.0(1)	-	100.0(4)
지역주민	-	37.5(3)	37.5(3)	25.0(2)	100.0(8)
합 계	7.1(1)	42.9(6)	35.7(5)	14.3(2)	100.0(14)

주 : 노인이용시설에는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재가복지센터 포함.

○ 민간자원의 활성화

- 충북의 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고, 또한 충북 각 지역의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2,296명이 활동하고 있음.
- 한편 시·군단위로 조직된 범죄예방자원봉사선도위원, 충북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관리체계는 행정자치부(새마을자원봉사센터), 문화관광부(청소년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재가복지봉사센터,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법무부(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행정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일관성, 체계성, 효율성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

〈표 II-10-33〉 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자 현황

(1998년 6월 10일 현재)

기관명	복지관	노인 이용시설	특수 교육기관	양로 시설	미인가 시설	사회 복지단체	장애인 시설	정신 질환 시설	모자 시설	영유아 시설	계
시 설 수	9	3	7	5	4	5	7	1	2	5	48
봉사자수	884	233	368	441	374	4,629	343	5	5	306	7,588

제2부 부문별 계획 ■

○ 미인가시설 현황

- 1998년 7월 개정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이나 임의단체의 시설들도 사회복지시설을 인가에 의해 설립·운영하게 되어있으므로 미인가시설도 공식시설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현재 충청북도에 신고된 미인가시설은 32개소이고 생활하고 있는 수용인원은 6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시설구비 정도나 종사자 구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 사회복지 전문인력 배출 가능 • 한반도 융합문화의 거점 (융합의 공동체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공급위주의 양적 관리 • 낙후된 사회복지시설 환경 • 시설의 전문인력 부족 • 지역주민의 보수적 성향
<div>강점</div> <div>기회</div>	<div>약점</div> <div>위협</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정책 수립 • 탈시설화로 지역사회중심서비스 • 인간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 : 요보호대상자의 증가 • 소비적 사회복지인식 팽배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확보

2) 전략과제 도출

□ 생산적 복지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
 - ‘생산적 복지’이념에 입각한 소득보장
 - 사회복지전문인력 확보와 재교육
 - 각종 관계기관과 연계 통한 행정체계 구축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 자활센터의 설치 및 취약계층 자립도모
- 사회복지 재원확보
 -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이전금 확대
 - 사회복지비 지출 우선순위 상향조정
 - 사회복지관련 목적세 검토 등 독립재원의 확충

□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건전 육성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21세기를 앞두고 새롭게 개정된 국가정책의 방향에 충실하면서 지역복지 욕구에 충실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함.
 - 아동의 권리 및 인간다운 삶 보장
 - 아동의 건전육성
 - 아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장인 가정의 양육능력 지원·강화
 - 아동생활에 적합한 장으로서의 지역사회환경 조성
- 청소년복지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2002년도에 종료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완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역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함.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확대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체제 구축
 -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 노인의 평생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복지의 욕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과 취업활동 보장
 - 장애노인을 위한 시설서비스 및 재가서비스를 확충
 -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일상생활정보 및 상담
 - 장묘시설의 확충 및 건전한 장묘문화 보급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강화

-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편의시설, 고용,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함.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탈시설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 강화
 -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역적 균형발전

□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의 확대 및 교육기회확대를 통한 여성인력 양성
- 노인, 장애인 여성 대상의 복지 서비스 향상
- 일반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장려
- 성·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제2부 부문별 계획 ■■■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 민간자원 확충 및 자원봉사의 통합관리를 통한 민간복지 활성화를 유도 함.
 - 자원봉사통합관리체계 확립
 - 각종 자원봉사단체의 연계망 구축을 통한 민간활력의 극대화 도모

☐ 복지시설 및 인력확충

- 전문성 향상과 one-stop 서비스 개념 도입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 함.
 - 사회복지 공공부문 인력의 효율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3. 세부추진계획

1) 생산적 복지

☐ 기초조사 및 욕구조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원천이 됨.

☐ 기초생활보장기금 확대 조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 생활보호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 생업자금 융자

- 자립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실을 감안한 생업자금 융자가 이루어져야 함.
- 실사를 통한 지원·관리·지도·위원회를 통하여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일정비율을 선정하여 자활기반이 될 적정규모의 자금을 지원함.

☐ 자활센터의 설립

-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활센터를 운영함. 자활센터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자로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씩을 설립하여 민간이나 사회복지단체나 기관에 위탁·운영함.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 취약계층의 자립도모를 위한 재할지원 실시. '생산적 복지'이념에 입각한 탈의존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증진시키고, 근로능력 보유·유지를 위해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고용 및 창업과 직업재활을 지원함.

□ 근로연계 행정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함.
- 근로동기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

□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기능보강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미설치 시군지역 및 과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함.
- 개관후 5년이 경과한 복지관 및 기타 필요한 복지관, 노후복지관과 기능전환이 필요한 복지관 시설을 보강함.

□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충

- 적절한 인력배치로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
- 연4회의 정기적인 재교육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양질화를 추진함.

2) 아동·청소년 복지

□ 다양한 보육욕구에 대처하는 특수보육시설의 확충

-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내 영아보육 및 장애아 전담보육, 장애아 통합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방과후 보육 등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를 지원함.

□ 아동보육서비스의 확대

- 도 단위의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상담서비스 및 보육시설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지원함.

□ 아동상담소 설치 확대

-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1개소씩 공립아동상담소를 설치하여, 문제아동의 상담, 감별, 조치 등의 전문적 서비스기능을 수행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아동수당제 도입

- 중앙정부의 아동수당제도 도입계획에 따라 충북도의 자체사업인 결함가정아동보호사업을 아동수당제도로 전환하여 실시함.
-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1단계로 결함가정아동보호사업을 아동수당제도로 전환하고, 2단계로 중앙정부의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실시

- 시설보호사업을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요보호 아동들이 보다 가정과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기능의 대폭전환

- 문화관광부의 5개년 계획은 2003년까지 시·군에 생활권 수련시설인 수련관을 건립하기로 함.
- 현재 충북은 6개의 수련관이 있어 6개가 추가로 건립되어야 하나 수련관의 효율적 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2개소를 확충하도록 함.

□ 유해환경감시단 설치 운영

- 유해환경과 학원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함.

□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비행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치

- 비행 예방 및 치료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비행청소년들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

3) 노인복지

□ 노인복합주거단지 조성

-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들이 살기에 적합한 노인전용 주택단지 개발공급 및 노인주거시설, 스포츠시설, 노인문화센터, 의료시설 등을 갖춘 복합주거단지, 레저단지를 겸한 모델을 개발하여 '노인전문휴양시설'의 민자유치 적극 추진함.

□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 기초자치단체와 관내의 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추진함.
- 조기퇴직으로 인한 유휴노동력 이용하고, 노인 노동력과 기업의 제휴를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추구함.
- 중앙의 종합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지부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함.

□ 치매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

- 도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매와 뇌졸중 등 중증노인 대상의 관리, 교육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필요함.
- 지역별 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 지역상담센터,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과 연계함.

□ 주간보호, 단기보호소 설치

- 일정 공간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음. 특히 주간보호는 지역사회의 경로당, 폐쇄되는 동사무소, 기타 폐쇄되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장묘문화개선

-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공공 납골시설확충, 장례식장 개선 등이 필요함.
- 현대적 시설의 화장장 확대 보급, 공공비용으로 납골당 조성, 새로운 장묘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시민 대홍보와 시민운동을 전개함.

4) 장애인 복지

□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모함.
-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장애수당의 현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애인보호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도입함.

□ 순회재활서비스센터 확충

- 재가장애인의 재활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순회재활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며 복지도우미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재활의지를 지원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 각종 공공시설 및 횡단보도 유도바닥재, 맹인용 음향 신호기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 및 내실운동을 도모함.

□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내실

-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생활안정에 노력함.

5) 여성복지

□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및 문제예방

-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전문기능을 양성함.
-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현재 20% 수준을 2004년 30%로 향상 시킴.
- 12개 여성회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을 통하여 여성취업 및 교양전문기능을 교육하며, 연중 농촌여성 교양·문화교육을 실시함.

□ 여성인력의 양성

- 여성들이 육아 및 가사와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정책 개발 등을 통한 노동공급 인프라를 구축함.
- 육아휴직제 도입 및 여성재고용장려금을 확대지급함.

□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의 실시

- 창업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자영업 아이디어와 창업절차 정보제공, 세제 및 재정 지원 실시함.

□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서비스 향상

- 장애인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 교실을 운영함.
- 방문간호사업 확대 실시로 인한 간호인 네트워크를 지원함.

□ 여성복지시설의 확충

-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해결방안으로 요

보호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하게 운영하여 복지효과를 증대시킴.

□ 여성의 사회 및 단체활동 장려

- 여성의 자아개발과 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단체활동 참여를 장려함.
- 여성의 사회참여 다양화를 위한 취미활동, 부업지도, 취업활동을 권장함.

6)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성화 기능강화

- 민간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은 자원봉사 종합행정 및 종합센터로서 각 단체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포상 및 보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조직체계의 일원화 방법으로는 지원의 체계화, 보험가입, 자원봉사 기본교육, 축제 등이 있음.
- 기본적인 업무는 자원봉사 센터기능, 자원봉사 행정조직, 자원봉사 교육센터, 포상제도의 관리처, 프로그램 개발처, 안내센터 등임.

7)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사회복지 공공부분의 원활한 추진 및 복지업무의 전문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대폭 증원 및 보수교육을 강화함.

□ 입소시설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 사회복지 입소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게 함은 물론 서비스제공을 철저히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행함으로써 행정편의, 시설운영자편의에 따른 경직된 서비스 제공 체제를 탈식함.
- 바우처제도의 적용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점차 시행폭을 확대함.

□ 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동시 추구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시설운영비의 현실화를 피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이로부터 각 시설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투명성이 발휘되도록 하며 또한 바람직한 보호양식을 정착시킴.

제2부 부문별 계획 ■

〈표 II-10-34〉 사회복지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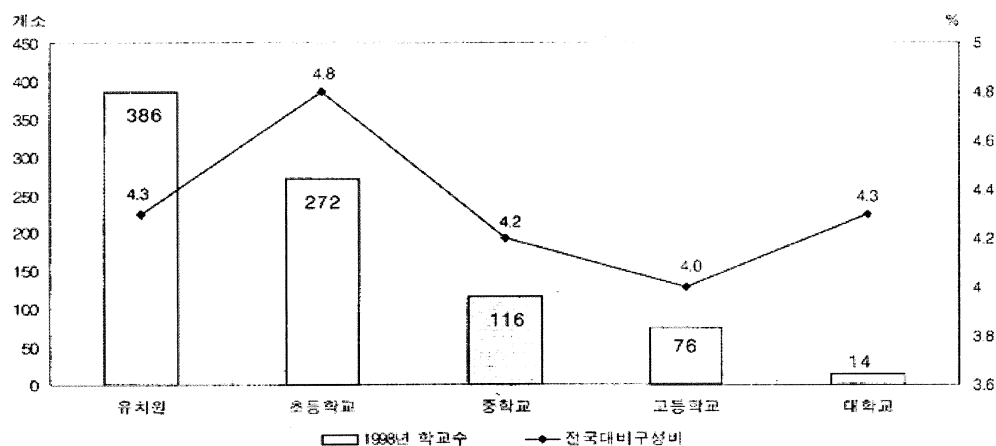
방향 및 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생산적 복지’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조사 및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 생업자금 융자 · 자활센터의 설립 : 취약계층 자립지원 · 근로연계 프로그램 개발 ·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충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건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시설의 확충 · 지역보육정보센터 건립 · 아동상담소 설치 확대 · 아동수당제 도입 · 소규모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실시 · 청소년 수련시설기능의 대폭전환 · 유해환경감시단 설치운영 · ‘쉼터’와 ‘중간의 집’ 설치
	노인의 평생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합주거단지 및 전문휴양시설 조성 ·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 치매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 · 주·단기보호소 설치 · 장묘문화 개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 순회재활서비스센터 확충 ·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내실화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및 문제예방 · 여성 창업 지원 및 정보제공 · 육아휴식 및 재고용장려금 확대 · 취약계층 여성 지원 사업 실시 · 여성복지시설의 확충 · 여성 사회 참여 및 단체활동 권장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성화 기능강화 · 각종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복지시설 및 인력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제도 도입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증원 및 보수교육 강화 · 충분한 지원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 추구

제4절 교육·체육

1. 교육·체육 현황

1) 교육

- 도내 유치원수는 1988년 367개에서 1998년 현재 386개로 10년전에 비해 5.2% 늘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꾸준히 늘어났으나, 산간지역 자연령층 인구의 감소로 초등학교수는 1988년 357개에서 1998년 현재 272개로 1988년에 비해 23.8% 줄었음.
- 1998년 충북도내 학교 수의 전국대비 구성률을 보면 초등학교가 4.8%로 가장 높고, 유치원과 대학교가 각각 4.3%씩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II-9-4〉 충북도내 학교 수

- 초등학교의 경우 1학급당 아동의 수가 대부분 50명 이하로 나타남.
- 청주시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41-50명의 아동수를 가진 학급이 630개로 나타났으며, 31-40명이 625개 학급을 차지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편임.

〈표 II-10-35〉 아동수별 초등학교 학급수

구 분	합계	아 동 수				
		20명 이하	21-30명	31-40명	41-50명	51-60
총 북	3,092	885	400	1,732	877	8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1999.

제2부 부문별 계획

- 시지역보다 군지역의 아동수가 훨씬 적게 나타나며, 도시와 농촌간의 이동현상으로 인해 청주, 충주, 제천 등지에 학급수와 아동의 수가 많음.

〈표 II-10-36〉 학생변동상황

구 분		합계	제적·중퇴 및 휴학자					유급자	복학자
			사망	질병	가사	품행	기타		
중 학교		702	16	50	201	61	374	22	259
고등 학교	일반고	348	11	32	158	13	134	1	70
	실업고	1,056	17	40	510	71	418	3	272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1999.

- 충북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70.4%가 진학(전문대학, 교육대학 및 각종 학교 포함)하여 진학률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고의 경우 93.1%가 진학을 하였으며, 실업고의 경우 진학 45.7%, 취업 43.4%로 비슷한 비율을 보임.

〈표 II-10-37〉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상황

구 분		졸업자수	진학	취업	무직	입대	미상
전 체		22,817 (100.0)	16,056 (70.4)	5,049 (22.1)	886 (3.9)	49 (0.2)	777 (3.4)
고등 학교	일반고	11,840 (100.0)	11,032 (93.1)	289 (2.4)	233 (2.0)	5 (0.4)	281 (2.4)
	실업고	10,977 (100.0)	5,024 (45.7)	4,760 (43.4)	653 (6.0)	44 (0.4)	496 (4.5)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1999.

- 도내 교직원수는 10년전인 1988년에 비하여 중학교 21.3%, 고등학교 28.3%, 전문대학이상 57.9%씩 증가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4.9%가 1988년보다 감소함.
-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998년 현재 24.2명으로 1988년보다 5.9명이 감소했고, 전국 26.5명보다 2.3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0-38〉 교사 1인당 학생 수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¹⁾	교사1인당 학생수
전국	1998	140,121 (60.3)	96,016 (52.3)	105,945 (26.0)	41,038 (13.1)	26.5
충북	1988	5,431 (32.9)	2,901 (32.3)	2,877 (15.3)	1,199 (14.5)	30.1
	1998	5,166 (48.7)	3,518 (39.9)	3,691 (22.7)	1,758 (12.3)	24.2

주: ()의 수치는 여교사 비율임.

1) 교육대학 포함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9.

- 각 학교별 급식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7.3%, 중학교는 50.4%, 고등학교는 21.6%임.
- 학생수별로는 초등학교 86.9%, 중학교 21.2%, 고등학교 7.5%로 나타나 급식 실시 학교에 비해 해당 학생의 급식현황은 더 낮게 나타난.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청원, 보은, 옥천, 진천, 음성, 괴산 등의 군지역은 재학생 모두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주, 충주, 제천 지역의 초등학교생은 82.0% 정도만이 급식하고 있어 급식을 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표 II-10-39〉 학교 급식 실시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전 체	301	121,976	117	62,116	76	70,997
급 식	293	106,054	59	13,220	21	5,325
백분율	97.3	86.9	50.4	21.2	27.6	7.5

자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1999.

2) 체육

□ 체육시설

- 충청북도의 체육시설은 등록시설과 신고시설로 구분하여, 등록시설은 골프장, 스키장 등 11개소이며, 신고시설은 1,48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제2부 부문별 계획 ■

〈표 II-10-40〉 체육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수
계	1,497개소
등록 (11)	골프장(5), 스키장(1), 빙상장(1), 승마장(1), 종합체육시설(3)
신고(1,486)	수영장(16), 체육도장(214), 볼링장(37), 테니스장(12), 골프연습장(29), 탁구장(33), 로울러스케이팅장(4), 체력단련장(104), 에어로빅장(61), 당구장(965), 눈썰매장(11)

자료 : 「충북통계연보」, 충청북도, 1999.

□ 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은 운동장 13개소(연면적 54,242㎡), 실내체육관 13개소(592,682㎡), 테니스장 6개소(32,090㎡), 수영장 3개소(2,763㎡), 사격장 1개소(93,051㎡) 등과 동네체육시설을 포함한 16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동네체육시설의 경우 1998년 10개소를 비롯하여 1990년부터 118개소가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표 II-10-41〉 공공체육시설 현황

구 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계	169	28	18	23	11	10	12	11	14	7	19	13	3
운동장	13	1	1	2	1	1	1	1	1	1	2	1	-
실내체육관	13	3	1	2	-	1	-	1	-	1	2	1	1
수영장	실내	1	1	-	-	-	-	-	-	-	-	-	-
	실외	2	-	-	1	-	-	-	-	-	1	-	-
야구장	1	1	-	-	-	-	-	-	-	-	-	-	-
싸이클경기장	1	-	-	-	-	-	-	-	-	-	1	-	-
사격장	1	-	-	-	1	-	-	-	-	-	-	-	-
국궁장	6	1	1	1	-	-	-	-	1	1	1	-	-
로울러장	실내	1	1	-	-	-	-	-	-	-	-	-	-
	실외	3	-	1	-	-	-	-	2	-	-	-	-
카누경기장	1	-	-	-	-	-	-	-	1	-	-	-	-
테니스장	6	1	1	1	-	-	-	1	-	-	1	1	-
양궁장	1	1	-	-	-	-	-	-	-	-	-	-	-
동네체육시설	118	18	13	16	9	8	11	8	9	4	11	9	2
골프연습장	1	-	-	-	-	-	-	-	-	-	-	1	-

자료 : 「충북통계연보」, 충청북도, 1999.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 앞으로 도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스포츠센터, 체력관리센터와 동네 체육시설, 천연잔디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체육시설도 지역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생활체육

-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주변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손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단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
-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은 읍·면·동별 1개 교실 이상 운영되어 187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연인원 777,169명이 참여함.
- 이 외에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충북장사씨름대회 등을 개최함.

□ 체육관련단체 지원·육성

- 우수체육인 육성 및 도민 체력향상과 명망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관련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충청북도체육회는 1946년 발족되어 경기단체 및 우수선수 육성,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 체육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998년 전액 도비로 1,904백만원이 지원됨.
- 1990년 발족된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는 33개 종북에 3,211클럽 회원 97,2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998년 국비, 기금, 도비를 포함한 419백만원이 지원되었음.

□ 각종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 1998년 충북 체육분야의 전국대회 참가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종합순위는 15위, 메달 순위 14위에 머물러 여전히 선수자원의 취약함과 실업팀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남김.
- 한편 충북에서 개최된 강기는 제37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개최, 제8회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자매도시가 스포츠 교류를 통해 충청북도

제2부 부문별 계획 ■■■

와 중국 하이룽장성과의 역도·레슬링팀 친선경기, 일본 야마나시현에 테니스팀 파견 등을 통해 선진기술과 정보 등을 교환하면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함.

2. 여건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1) 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비정신과 충절의 고장 · 인쇄문화의 발상지 · 체험학습장의 풍부 · 「충북교육비전21」 수립 · 생활체육의 중요성 부각 	강점	약점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 교육체제로의 전환 · 교육대상의 확대 ·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 평생교육체제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간 교육환경 차이 극복 · 지식위주의 교육: 체험학습부족 · 학교 도서관 규모·시설부족 · 실험실습기자재 낙후 · 체육시설의 지역간 분포 격차 큼. · 외국어 범람과 무분별한 사용 · 문화적 갈등현상 심화 ·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 예절풍조의 퇴조 · 국제적 체육행사 기반 부족 	

2) 전략과제 도출

□ 지역사회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열린교육, 평생교육 실천

- 더불어 사는 인간성 함양
 -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인간중심 사고를 고취시켜 '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자세를 길러주어야 함.
 -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바르게 이해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도록 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과학기술 및 교육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신장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 지식이 어떤 다른 생산적 요소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풍요는 지식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됨.
 - 창출되는 새로운 지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순식간에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 전파된 지식들이 인간의 경험, 가치관, 안목, 통찰, 또는 다른 지식과 만나 더 창의적이고 더 가치있는 지식으로 전환되는 시대이므로 우

리 교육이 우선적으로 창의적인 교육으로 변모해야 함.

-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확립
 -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원만하게 수렴하여 교원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의 민주적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야 함.
-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
 - 미래의 학교를 구성하기 위한 학교 규모의 적정화와 교육시설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개발·추진되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낮추고, 미래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기반 구성과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학습과 교육적인 만남을 촉진하는 쾌적하고 질 높은 학습의장이 조성되어야 함.
- 평생교육체제 구축
 -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기회의 개방, 개인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실현 요구에의 참여기회 보장,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함.
- 교육자치체제 개선
 - 지역의 교육문제를 학부모와 주민들 스스로 다루도록 하기 위한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교육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여가를 선용하고 평생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주변의 체육 공간을 대폭 확충함.
 - 체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조직을 육성·지도함.
- 지역사회체육의 진흥
 - 지역사회의 기본 체육시설 확보로 지역사회체육 진흥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지역사회체육의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체육동호인의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

제2부 부문별 계획 ■■

○ 전문체육의 육성

- 전국대회 참가 및 적극 유치(대통령배, 장관배, 협회장배 등)
-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지원 및 지역내 종목별 체육대회 수시 개최

3. 세부추진계획

1) 교육

☐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성 함양

○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 기본생활교육과 예절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 미풍양식을 계승하고 교사와의 대화 기회를 확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산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

-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킴.

☐ 과학기술 및 교육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신장

○ 새 시대를 주도하는 교육 정보화

- 학내전산망의 설치와 인터넷 전용선의 설치, 교육정보지원센터 설치 등의 정보화교육 기반을 구축함.

○ 교단 선진화 추진

- 물질 기반 조성 위에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정보화 교육력을 향상시킴.

☐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확립

○ 교원의사가 존중되는 학교 경영

- 교원들의 공동사고에 따른 민주적인 의사결정체제를 확립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교단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함.

○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는 교육을 실천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강화 및 운영위원 선진 학교 시찰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빈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으로 전환함.
- 특히, '교육에 바란다' 소리함 설치 및 교육 모니터링제 운영 등으로 의사소통체계를 원활히 하고 공동체 시민모임 활성화를 위해 운영 지원함.

□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

-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 학교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고, 사회교육시설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함.
 - 학교급식의 확대와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

□ 평생교육체제 구축

-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 사회건설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 등록제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첨단 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체제 구축, 학생의 진·편입학 허용, 전공 이수학점 축소,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추진함.

□ 교육자치체제 개선

- 기초단위 교육자치확대
 - 기초단위(시·군·자치구)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 실시함.
 - 현행 공급자 위주의 교육자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으로 주민자치에 접근하도록 함.
 - 교육자치단체가 교육 사안을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특별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진 의결기구로 발전시킴.

제2부 부문별 계획 ■

〈표 II-10-42〉 교육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 및 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성 함양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 '열린 대화방'의 운영 · '다니고 싶은 학교'의 조성 · 전통 예절실 설치·예절집 발간
	신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	· 봉사프로그램 제시 · 농촌일손돕기·이웃돕기 전개 · 고장의 인물 발굴
과학기술 및 교육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신장	새 시대를 주도하는 교육 정보화	· 학내 전산망 구축 · 인터넷 전용선 설치 · 교육정보지원센터 설치 · 단재연수원 연수 웹서버 구축
	교단 선진화 추진	· 일반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특별실 교단선진화 추진 ·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 · 실업교육체제 구축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확립	교원의사가 존중 되는 학교 경영	· 학생들의 토론문화 정착 · 민주적 의사결정체 확립 · 교단중심의 학교경영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는 교육 실천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전문성 제고 · 학교운영위원회 선진학교 시찰 · 의사소통의 원활화 추진 ·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활성화 지원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 효율적인 교육 행·재정 운영 · 학교교육비의 표준교육비 수준 지원 ·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 도시지역 과대학교 분리 · 학교시설 현대화 · 학교급식의 내실화
평생교육체제 구축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 사회건설	·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수립 · 원격교육체제 구축 ·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자치체제 개선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	· 시·군 지역 교육자치제 확대 실시 ·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 교육위원회의 기능강화

2) 체육

□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주변의 체육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정비 확충
- 지역별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제10장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 생활체육의 조직화를 위한 선수 및 경기지도자 육성 대책 강구
- 생활체육센터 건립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생활체육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육성·지도

□ 지역사회체육의 진흥

- 생활체육공간 확충 : 각 시·군의 1체육관, 1운동장, 1스포츠센터 확충을 위한 지방비 확보방안 강구
- 생활체육의 홍보 : 생활체육행사 개최, 도민 문화축제 개최,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등

□ 전문체육의 육성

- 선수 및 경기지도자 육성 : 체육장학제도 마련, 사회체육지도자 양성계획 실시 등
- 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 : 2004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표 II-10-43〉 체육부문 전략과제 설정 및 세부추진사업

방향 및 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공간의 확충	· 생활주변의 체육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정비 확충 · 지역별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체육 시책 및 프로그램 홍보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조직의 육성·지도	·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생활체육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육성·지도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역사회체육 진흥 및 체육 시설 확충	지역사회체육 공간의 확충	· 시군별 1체육관, 1운동장, 1스포츠센터 확보 · 다목적 체육관 건립 · 기존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지역사회체육의 홍보	· 생활체육행사 개최 · 도민 문화축제 개최 ·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등
전문체육의 육성	전국대회 유치	·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참가 · 국제 스포츠 교류
	선수 및 경기지도자 육성	· 우수선수 발굴 육성 · 사회체육지도자 양성계획 실시

제3부

행 · 재정 계획

제1장 행정계획

제2장 재정계획

제3부 행·재정 계획

행정계획

제 1 장

제1절 여건변화 및 현황

제2절 행정개혁모형과 전략 과제

제3절 행정개혁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제1절 여건변화 및 현황

1. 행정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 수요자 중심의 경제체제 등장

- 지금까지 정책이나 각종 행정서비스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차 지역주민들은 '행정수요의 적극적 소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요구를 제기함.
- 기존의 관리지향적이고 질서유지 및 통제지향적인 업무수행방식으로는 행정수요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 관한 기본마인드가 바뀌어야 함.
- 지방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만족을 지향하는 「고객지향적 정부(customer-driven government)」가 되어야 함.

□ 부부분의 독점성 파괴

- 공기업 및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역할영역을 시장기구와 민간부문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부혁신 운동이 하나의 정책유행(policy fashion)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점차 약화됨.
- 오늘날의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놓고 민간부분과 경쟁하는 한편,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시스템간 경쟁하는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를 혁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한편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경쟁주체로서 민간부문 또는 사회부문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상황을 맞고 있음. 이러한 「경쟁자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competitor)」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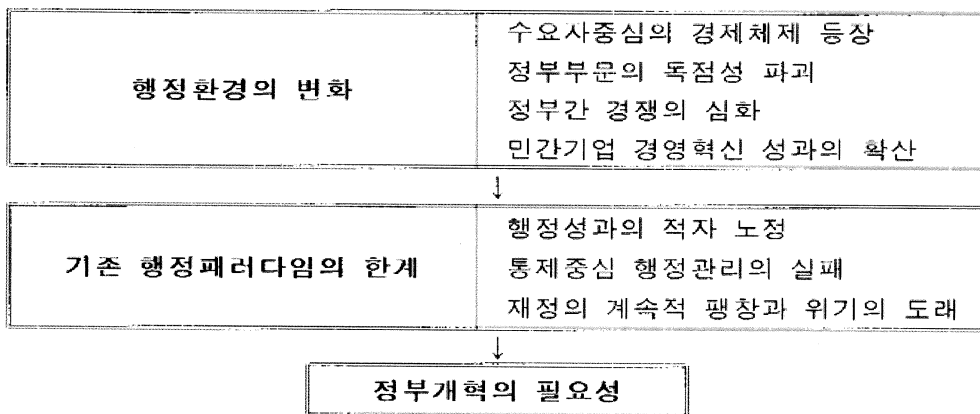
제3부 Ⅲ·재정계획

는 동시에 자율적 존재 영역이 확대되어 감.

-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의 변화와는 별도로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역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경쟁에서 낙오될 처지에 놓이게 됨.

□ 관료주의적 행정패러다임의 한계

-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 합법성 위주의 지방행정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투입과 과정에 대한 통제중심으로 행정을 관리하는 폐단을 노정함.
- 즉 투입활동과 과정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인하여 산출과 결과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관리의 실패(management failure)현상이 나타남.
- 또한 통제지향적 관리방식으로 인하여 조직내에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행정책임 풍토의 조성 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확보, 공무원들의 성취의욕 제고라는 관리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소망스러운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였음.



〈그림 Ⅲ-1-1〉 행정환경변화와 정부개혁의 필요성

2. 행정구역 현황

- 구한말인 1896년 13도제의 실시로 충청북도가 설치된 이래 1908년 충주에서 청주로 도청 이전, 1949년 지방자치법실시에 따라 청주부(淸州府)의 시(市)로의 개칭, 1956년 충주읍의 시 승격이 이루어짐.

제1장 행정계획

- 1980년 제천읍의 시승격, 1995년 충주시와 증원군 및 제천시와 제천군간 시군통합이 이루어져 현재 3시 8군의 기초자치단체로 편제되어 있음.
- 1998년말 현재 도의 총면적은 7,432.72km²로서 남한 총면적의 7.5%로 전국 9개 道 중 제주도 다음으로 면적이 작으며, 현재 도의 행정구역은 3시 8군 1출장소 12읍 91면 49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의 하위단위 중 통의 수가 해마다 뚜렷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최하위 행정단위의 분화는 주민조직의 토대를 형성하여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표 Ⅲ-1-1〉 충청북도 행정구역 현황

연도	면적(km ²)	시군(구)	읍면동				리·통		
			읍	면	동		리		통
					행정	법정	행정	법정	
1993	7,435.58	3시10군	10	93	59	136	2,674	1,383	1,569
1995	7,433.37	3시 8군	12	91	61	136	2,694	1,383	1,676
1998	7,432.72	3시 8군	12	91	49	136	2,743	1,383	1,865

자료 : 충청북도 도정백서(1998), p.20

-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평균면적은 571.75km²로 전국평균인 392.92km² 보다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데, 이는 현대행정의 광역화경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충북은 강원, 전남,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작은 인구규모인 바, 재정력 및 발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인구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통합의 효율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표 Ⅲ-1-2〉 전국대비 충청북도 행정구역 일반현황

(1998. 12. 31 현재)

구분 시도	기초자치 단체수	면적 (km ²)		인구	
		총면적	기초자치단체 평균면적	총인구수	기초자치단체 평균인구
전 국	253	99,407.90	392.92	47,173,959	186,458
충 북	13	7,432.72	571.75	1,489,361	114,566

주 :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제3부 영·재정계획

3. 행정조직 현황

1) 공무원현황

- 1998년말 현재 시·군을 포함한 도내 공무원수는 총 11,064명으로 1997년도에 비하여 1,582명(12.5%)이 감축되었으며, 시·군을 제외한 도의 공무원수는 2,464명으로 1997년에 비하여 324명(11.8%)이 감축됨.
- 이러한 감축관리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급속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으므로, 엄밀한 직무분석과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감축관리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1998년말 현재 시·군을 포함한 도내 공무원총수에서 도의 공무원은 2,464명으로 22.3%를 차지하고, 시·군의 공무원은 8,600명으로 87.7%의 비중을 보임.

〈표 Ⅲ-1-3〉 기관별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도	시군(읍면동 포함)
1996년	12,560	2,698	9,862
1997년	12,646	2,788	9,858
1998년	11,064	2,464	8,600

자료 : 도정백서(충청북도, 1998), p.109.

- 도내 총 공무원 11,064명 중 직종별로는 정무직 12명, 일반직 7,171명, 특정직(교원) 41명, 별정직 385명, 소방직 821명, 연구직 153명, 지도직 384명, 기능직 2,097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 바, 그중 일반직이 64.8%, 기능직이 19.0%의 수치를 보임.
- 시·군을 제외한 도의 공무원 2,464명 일반직이 42.8%, 기능직이 14.3% 및 소방직이 7.4%로 나타난다.
- 1999년말 현재 도내 공무원 수는 총 10,784명으로 1998년도의 11,064명에 비하여 280명(2.5%)이 감축되었는데, 도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38.8명으로 전국평균 189.5명,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평균 161.8명 보다 낮게 나타난다.
- 그러나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공무원1인당 주민수 평균을 계산할 경우 131.4명으로 충청북도의 138.8 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도내 공무원 수는 비슷한 여건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Ⅲ-1-4〉 시도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시도	공무원수	주민수	공무원1인당 주민수
전 국	250,822	47,542,573	189.5
시계(광역시)	98,864	22,949,570	232.1
도 계	151,958	24,593,003	161.8
충 청 북 도	10,784	1,497,494	138.8

자료 : 공무원수는 1999. 12. 31현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통계 :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주민수는 1999. 12. 31현재 주민등록인구수임.

- 1999년말 직종별 공무원 현원을 보면 경력직 비율이 96.81%로 전국광역시자치단체 경력직 평균 94.92%에 비하여 1.89%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력직 중 일반직이 전체 공무원의 전국평균에 비해 4.87% 높은 69.51%를 차지하는데 기인함.
- 결과적으로 타시도에 비하여 보다 일반직 중심으로 도의 인사행정이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현대인사행정의 신축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의 기본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임.

〈표 Ⅲ-1-5〉 직종별 공무원 현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계	경력직				특수경력직				
			소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소계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전 국	현원	256,426	243,393	165,746	23,344	54,303	13,033	249	7,060	1,194	4530
	비율	100.0	94.92	64.64	9.10	21.18	5.08	0.10	2.75	0.47	1.77
충 북	현원	10,873	10,526	7,558	857	2,111	347	12	311	24	0
	비율	100.0	96.81	69.51	7.88	19.42	3.19	0.11	2.86	0.22	0

주 : 1999. 12. 31 현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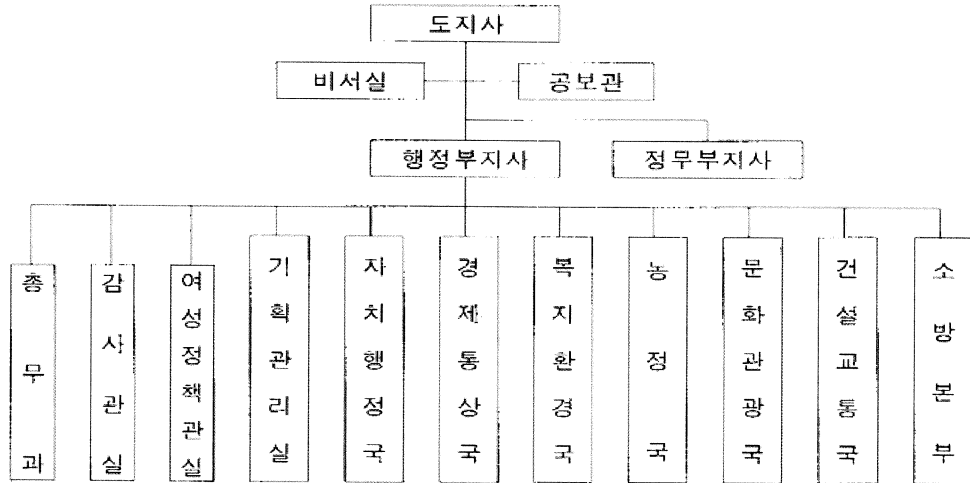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통계(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자료에서 재구성

2) 행정조직구조 현황

- 1998년말 현재 도의 기구는 8실국(1실 6국 1소방본부) 38과 10직속기관, 6사업소, 1출장소로서 1997년말에 비하여 3국 5과 1사업소의 기구가 감축됨.

제3부 행정·재정계획

- 2000년 현재는 8실국 체제하에 직속기관으로 광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있고, 충북개발사업소, 충북과학대학, 자연학습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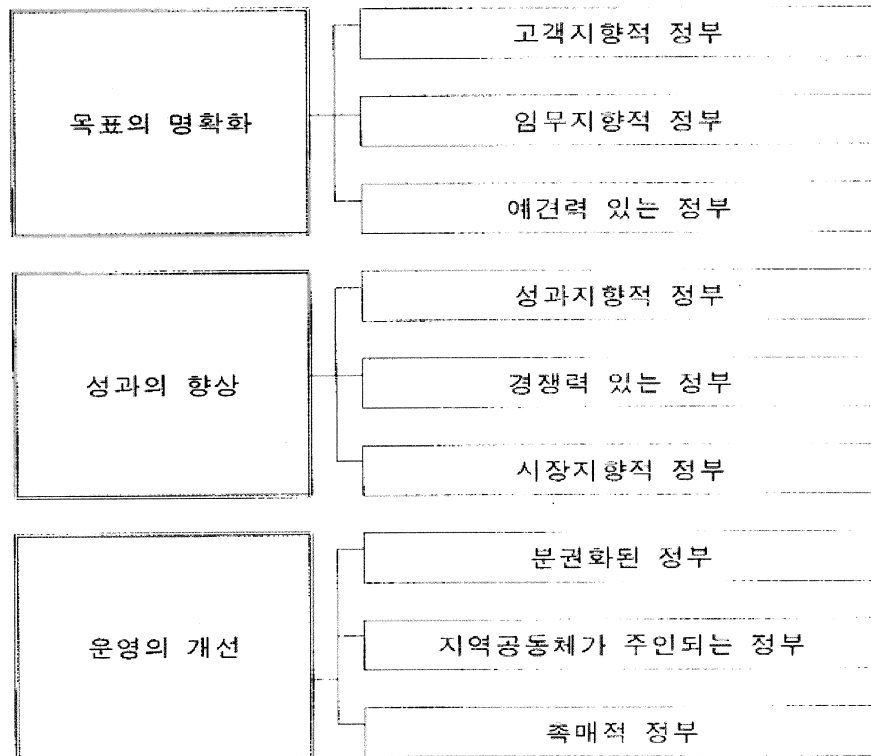
〈그림 Ⅲ-1-2〉 도 본청 기구도

- 각 지방정부는 행정자치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기에 바쁜 실정으로 각 지역사정을 감안한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은 어려운 사정에 처함.
- 충북의 경우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조직개편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함.
 -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 등과 같은 타 시도와의 상호협력체제구축에 적극 노력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제약을 배제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야 함.
 - 지방정부도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그나마 한정된 자원을 가장 우선적인 분야에 집중시켜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구축하여야 함.

제2절 행정개혁모형과 전략 과제

1. 행정개혁모형의 모색

- 현재 선진국들의 행정개혁모델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모형에 해당하는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임.
- 이 모형은 기업가정신과 기업경영적인 조직운영원리 및 관리기법을 보나 체계적으로 정부부문에 도입·접목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음.
- 이 전략의 핵심은 관료적 형식주의의 타파, 고객만족 증진, 시장기구의 활용,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 등으로 표현되는 기업가적 정신을 행정에 적극 도입 함으로써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그림 Ⅲ-1-3〉충북행정개혁모형: 기업가적 정부

제3부 행정·재정개혁

〈표 Ⅲ-1-6〉 기업가적 정부론에 입각한 충청북도 행정개혁의 원리

정 부 역 할	세 부 내 용
앞에서 끌기 보다 뒤에서 방향을 잡아 변화를 촉구하는 정부	서비스 공급자로서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
국민에 대한 봉사에 앞서 주민에게 권한을 주어 지역공동체가 주인이 되는 정부	관료적 통제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 시킴으로서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주체의 일원으로서 참여 유도
공공서비스 공급에 경쟁을 과감히 도입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칙에 매달리지 않고 시명완수를 우선시 하는 정부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
백화점식 사업열거보다는 결과를 얻는데 주력하는 성과지향적 정부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
관료들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수요를 중시하는 고객지향적 정부	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사고수습 보다 사고예방에 주력하는 예견력 있는 정부	문제발생시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 문제예방에 주력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참여와 팀웍을 중시하는 분권화된 정부	권한 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
지배에 의한 통치보다는 시장에 의한 변화를 유도하는 시장지향적 정부	관료주의 메커니즘보다는 시장기능 메커니즘을 보다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 제고

2. 행정개혁의 전략 과제

1) 기업적 경영원리의 도입

- 종전의 행정개혁논리가 주로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기업적 경영원리의 도입에 의한 행정개혁은 「행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
- 따라서 종전의 관료주의적 지방정부를 기업가형 지방정부로 전환하고, 권위주의적 지방공무원을 기업가형 지방공무원으로 변화시키고 아울러 지방화·세계화시대에 지역간, 국가간 경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제1장 행정개혁

- 이를 위해 지방정부 운영과정에 시장원리와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과 제도적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기업가적 지방경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2) 주민복지의 극대화

- 행정개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또는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는 성과지향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점에서 종전의 감축관리나 행정서비스의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 지향」의 논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3) 경제적·사회적 효율의 동시 추구

- 행정개혁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납세자로부터의 비용이라는 개념을 적당 원용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납세자의 부담 최소화 또는 동일한 부담하에서 정부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영마인드적 공공운영 및 관리 방식을 지향함.
- 지방정부의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측면의 비용효과(cost effect)개념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을 일정 제약 하에서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효율도 함께 고려해야 함.

4) 탈권력적·서비스 지향적 행정 추구

- 공권력주체로 인식되어 왔던 지방정부를 사업주체로서의 생활정부로 전환해야 하며, 또한 공급자 위주의 지방행정을 수요자 위주의 지방행정으로 전환토록 유도함.
-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존립기반을 넓히기 위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행정활동의 궁극적 지향점을 주민반쪽에 두고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확충함.

5) 잠재력발굴의 극대화 지향

- 지방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인력의 생산, 지역산업에 유용한 응용기술, 지역경제인의 경영능력, 사회간접자본, 지역금융과 지방재정, 지역경제구조, 지방정부의 질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갖추어져야 함.

제3부 행정·재정계획 ■

- 지역의 잠재력 발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닌 특성과 장점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함.

제3절 행정개혁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1. 행정조직의 체제혁신능력 확충

1)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 기존의 관리위주의 정태적인 지방정부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기대욕구 증대에 따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실현가능한 지역발전의 청사진 또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
- 지역발전의 비전은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의 변화에 부합되고, 지역공동체 이미지나 상징성으로 승화될 수 있는 미래지향성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의 장단점과 발전잠재력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어야 함.
- 지역발전비전의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이 지역발전비전을 잘 인지하고 내면화시킬 수 있는 확산전략과 기법을 활용함.

2)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신속적 조직구조 개편

- 자치단체 계층간(도-시·군간 또는 시·군-읍면동간) 기능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통합성과 자기완결성을 제고하고, 중복적인 부서조직을 단일계층 조직으로 통폐합함.
- 수평적 네트워크조직 또는 팀조직 구축의 취지를 살리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재 국-과-계의 3단계 계층구조를 축소조정하여 大局人課主義를 지향함.
- 질서유지 및 규제기능 위주의 지방행정조직을 지원기능 위주의 조직구조로 개편해야 하며, 내부관리조직은 축소하고 사업부서 또는 서비스제공 부서의 비중을 확대함.

- 1차산업관련분야, 국민운동관련분야 등의 기능최소조직 및 인력과다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며 계절적 수요, 일시적·임시적 행정수요에는 한시적 기구(task force)를 설치하거나 외주화(outsourcing)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표 Ⅲ-1-7〉 지원기능 위주의 서비스

서비스 구분	관 련 분 야
기본생활 관련서비스	행정정보화추진분야,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주택·교통·상하수도 등
사회복지서비스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행정활동, 문화·레저 관련 행정서비스, 노령인구 증가
상공행정 서비스	지역경제활성화

□ 조직학습능력의 배양

-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내부의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학습능력의 보강이 요구됨.
- 학습조직은 변화관리기능을 내재화시킨 것으로서 첫째, 조직이 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고, 둘째, 조직은 개발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셋째, 조직은 혁신하는 것을 배워야 함.
- 지방정부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사분석기능, 기획기능, 여론조사기능을 수행하는 관련부서의 신설 또는 확대개편이 바람직함.

2. 성과지향적 행정체제의 구축

1) 성과 평가제도의 확충발전

-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예산지출의 결과보다는 예산배분에 많은 관심을 두어왔으며, 그 결과 성과가 높지 않았으므로 성과지향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확보를 위한 내부실적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적절한 평가제도의 운영이야말로 정책과 행정의 질을 제고하는 전형적인 장치이므로 지방정부활동에 대한 주기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장치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후생증진 및 지방정부의 성과향상을 도모함.

제3부 행정·재정계획

2) 인센티브제도의 개발·활용

- 조직내부에 경쟁요소의 도입과 성과에 대한 차등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의성과 진취성의 발현을 촉진시켜야 함.
-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1조 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6조 2항에 의거하여 근무 성적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50~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함.
- 현재는 근무성적 평정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대상자에 맞추어 역으로 평정 결과를 부여하는 역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상여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란이 야기되거나 나눠먹기식 때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 및 기타 업무실적과 교육기회, 근무부서 선정 또는 휴가 등과 연계시키는 다양한 인센티브제의 개발이 필요함.

3) 행정절차와 제도의 개선

- 기존의 규정지상주의적 지방정부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목표지향적 조직운영 방식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해야 함.
- 축적된 규칙, 규정, 구습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여야 하며, 새로운 규정의 신설에는 일몰법(sunset law)을 적용함.
- 목표지향적 예산체제 확립을 위해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예산절약 인센티브제의 확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장치의 활성화, 구매절차의 간소화 및 권한위임을 통하여 신속하고 신속적인 행정대응을 유도함.

3. 충북의 전자행정서비스 개발

□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

- 원스톱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의 업무를 행정전산망을 통해 횡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주민·개인이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서든 해당 행정서비스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멀티서비스 제공을 의미함.
- 행정업무간 수평적 연계를 구축하여 행정내부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마련한 뒤, 한 가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내부정보는 담당부서와 상관없이 행정부 전체에서 내부적으로 생산·전달·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 제1장 행정계획

-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행정정보화의 진전으로 행정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됨으로써 행정내부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극대화되고 서비스 전달수단이 다양화되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극복이 가능해질.

□ 논스톱(non-stop)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

- 논스톱 행정서비스제도는 주민들에게 24시간 어느 때이든 편리한 시간대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시간대를 확대하여 「24시간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임.
- 논스톱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네트워크에 접속되는 행정서비스 단말기(인명 전자가판점 또는 PIT/(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Terminal)를 개발하여 청사내 뿐만 아니라, 우체국, 은행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이용도를 제고함.

〈표 Ⅲ-1-8〉 논스톱 행정서비스 방법

구 분	내 용
자동차부기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법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자동차부기에 의해 시간에 구애없이 제공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방법	PC통신이나 팩시밀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 신청·접수후 전자적 산출물으로써 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주로 증명서 교부업무 또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논의의 환기시키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증진시켜야 함.
- 행정정보공개 확대는 정보제공자인 지방정부임장에서도 인쇄물이나 사본을 대량 준비할 필요없이 업무수행과정에 전자적 입력만으로도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전자신고 및 정보수집체제의 구축

- 주민들이 도청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보고 등의 전자화·온라인화를 실현함으로써 주민편의와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
- 행정정보화 비용으로 민간부문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건의, 각종 자료조사 등도 전자화·온라인화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함.

4. 민관협력을 통한 생산성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

1)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 민간위탁의 의의와 필요성

-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경쟁입찰에 의거한 외부계약방식(contracting out)을 통해 정부기능의 시장성과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민영화의 한 형태를 말한다.
- 이러한 외부계약방식은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민간조직은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공급 결정자가 됨.
- 주로 현재 인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행정분야, 단순노무적인 업무분야 등에서 민간위탁이 확대되어 감.

〈표 III-1-9〉 민간위탁 판단기준

구 분	내 용
기술선택성의 원칙 (적정한 행정기술의 선택)	공공서비스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생산·공급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정기술을 선택한다는 문제의식과 검토자세가 필요
서비스성의 원칙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 이용자 및 공공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 국민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충을 도모
효율성의 원칙 (경제성·능률성을 제고)	경제성과 능률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효율성 제고
공정성의 원칙 (공정성을 확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정성(형평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
안전성의 원칙 (안전한 공급 확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이 축소되거나 단절되는 등 불안전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책임성의 원칙 (행정책임을 확보)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을 하였다 하여도 정부기관의 서비스 공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사무나 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
자치성의 원칙 (주민자치를 존중)	지역사회의 자치능력에 적절한 민간위탁을 추진
적법성의 원칙 (법령에 적합)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법적 흠결이 있을 경우 관련근거 규정을 보완

□ 민간위탁 대상사무

규정에서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부적합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업무 · 지도성(행정지도)이 강한 업무 · 기밀성을 요하는 업무 ·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업무 · 행정운영상 안정성과 형평성이 현저하게 요구되는 업무 ·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업무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에 대량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단순노무사무) · 고도의 지식기술 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사무(진단, 검사, 분석 등의 업무) · 상근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는 임시적인 업무(일시적 조사, 측량 등의 업무) · 번칙적 근무형태가 필요한 업무(경비, 기계보수 등의 업무) · 급여체계, 인사교류 등 인사관리상 문제가 있는 업무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업무(인건비·물건비 절감 등 경제성제고가 가능한 업무)

2) 비정부기구(NGO)의 활용방안

□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의 중요성

- 비정부기구는 순수민간조직으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자율적·자치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구로, 공공부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공공부문에 대해 시민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고 표방하며 때로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함.
- 이러한 비정부기구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표 Ⅲ-1-10〉 정부·시장·비정부기구의 특성 비교

구분기준	정부	시장	비정부기구
조직이념	사회적 합의, 국가적 목표	최대 이윤	기치 실현
행동원리	법령	경쟁	공감(네트워크)
행동특성	형평성, 책임성, 민주성	효율성, 생산성	지발성, 경쟁성
수익범위	사회전체	선택적	부분적

□ 비정부기구와 지방정부간 관계

- 비정부기구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자원부담과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분담관계를 기준으로 다음 같이 구분 가능함.

〈표 Ⅲ-1-11〉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관계 유형

기능	지방정부 주도형	중첩형	상호협동형	비정부기구 주도형
자원조달/배분	지방정부	정비정부기구	정부	비정부기구
서비스 공급	지방정부	정비정부기구	비정부기구	비정부기구

- 위의 유형 중에서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방식은 상호협동형으로, 지방정부는 재정을 책임지고 비정부기구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분담관계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 특히 비정부기구가 상당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환경행정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서 비정부기구와의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5. 경영혁신기법의 적극적 도입

1) 아웃소싱(outsourcing) 확대

-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분야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들은 기획에서 운영까지의 일체를 해당분야의 전문기업에게 발주(外注化)하는 것으로 1980년대 후반 원가절감효과를 위한 경영혁신기법의 하나로 등장함.
- 아웃소싱의 목적 : ①주력업무에 핵심역량집중, ②위험분산, ③조직의 슬림화, 유연화, ④시너지 효과, ⑤비용절감, ⑥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 ⑦혁신의 가속화, ⑧서비스 업무의 전문성 확보, ⑨정보네트워크의 확대, ⑩복지후생의 충실화, 효율화
- 대상업무로는 정보시스템 업무, 급여계산 등 운영업무, 정리업무, 인사관리, 교육훈련 등을 들 수 있음.

2)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의 적극 활용

- 장소마케팅이란 특정 장소(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지역의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하에 기업, 주민, 관광객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개발 등을 기반으로 장소상품의 가치를 상승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략임.
- 이 전략은 자본의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도시간 부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도입되어 차별화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3) 총체적 품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운동의 철저화

- 수요과약에서부터 주민만족도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의 모든 측면에서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조직역량 제고를 도모함.
- 최고관리자의 열의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교육훈련과 참여의식에 의해 개발된 조직구성원들이 합리적인 관리방식과 과학적인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고객만족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함.

4) CI(Corporate Identity)기법의 적극 이용

- 조직 스스로가 자기확인, 자기확신을 바탕으로 조직의 가치와 개성을 창출하고 그것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외부에서 바라보는 조직이미지를 향상시켜 외부의 호감과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조직의 전략기법을 말함.
- CI기법을 지방행정에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 전체, 지역자체,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인상) 정립을 통해 조직풍토를 쇄신하고,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지방 정부들은 지역의 상징이나 특산물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지역홍보 및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캐릭터 개발현황 : 서울/왕범이, 수원/화성이, 장성/홍길동, 남원/춘향이, 해남/아기공룡, 밀양/아리랑, 청도/카우와 불가, 대구/동구/갯방구, 안동/하회탈, 영월/김삿갓 등

제3부 영·재정계획 ■■■

5) 時테크 기법을 통한 효율적 행정구현

- 시간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처리시간의 단축, 시간의 창조 등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고객만족을 제고하려는 원스톱서비스, 논스톱서비스, 업무소관 및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서비스 등 경영혁신을 위한 시테크기법의 도입 필요이성 제기됨.
-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간자원관리방안으로 시간당 비용개념의 도입(직접변 비용단가), 집중근무제도(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정), 회의시간 줄이기, 보고절차 간소화 등을 들 수 있음.

6. 효율적인 광역행정체계의 구축

1)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

- 읍면동 등의 현행 지방행정구역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능력이나 주민참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나 주민생활의 편익 등의 관점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통치편의를 위한 다단계 계층과 하향적 구역으로 편제되어 있음.
- 그 동안의 국토개발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크게 변모함으로써 행정구역과 생활권 및 경제권의 불일치현상이 노출되었고, 그 결과 지방행정과 주민생활간 괴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됨에 따라 지방행정구역의 재편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일본에서는 권한 배분의 특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인 합병을 통해 인구와 도시규모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주시 통합사례에서 보듯이 효율적인 지역경영규모를 확보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노력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2) 기초자치구역의 개편방안

- 현재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면적규모는 675.7km²로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면적 428.3km² 보다 상당히 큰 규모이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의 기초자치단체 평균면적 595.4km²보다도 약 80km²가 큰 규모임.
- 그러나 1998년 현재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구규모는 134,951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인구규모 200,128명 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이며, 특별

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 기초자치단체 평균인구규모 150,135명 보다도 작은 규모를 보임.

- 최근 협오시설의 입지 및 환경오염을 둘러싼 자치단체들간의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자치단체규모의 확대가 바람직하며, 인구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자발적인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이와 같은 측면에서 1995년 1월 단행된 충주시와 증원군, 제천시와 제천군간의 도·농통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며, 향후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분체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7. 관련 법령의 검토 및 제도개선

1) 공간구조개편

□ 「지방발전촉진법」(안) 제정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초인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간의 통합을 도모하여야 함.
- 현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지방발전촉진법(안)」 제정을 유도함.

2) 교통 부문

□ 상가의 노상불법물품 인도점유 억제 및 불법 간판 정비

- 자전거 도로의 건설이 어려운 도심부의 경우는 현재 차도를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정체 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심의 경우 인도 이용을 적극유도(일본 구마모토의 경우 참조)하며, 상가의 노상 불법물품의 인도점유 억제와 불법간판의 정비를 추진함.
- 경자자동차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구리식 주차방법은 이러한 자전거 이용의 제약요인이 되므로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제3부 행·재정계획

□ 교통안전구역의 확대지정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구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확립방안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 지하도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 및 보도턱 제거와 장애인 신호체계의 법제화 추진하고, 완충녹지, 도로 중앙의 녹지대 형성 등의 녹색도로화 사업을 추진함.
- 보행전용 “불”의 확대 설치, 보행환경축의 설정·정비, 스쿨존 및 자동차 금지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함.
- 사고 많은 지역의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 및 안내표지 등 시설확충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 관련법제도의 보완 및 어린이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의 안전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은 물론 조례를 제정함.

3) 산업 부문

□ 친환경농업의 직접지불제 확대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함.
- 개별 농업인보다는 생산자조직을 우선 지원함.
 - 법적 근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 3조

□ 「열린농정협의회」 운영

- 정보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농업정책 입안·기획·집행단계에 농업인, 농업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열린 농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농업정보화, 수출농업, 유통혁신방안 등을 협의하며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농민회 등 각종 농민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

□ 「산업구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산업구조를 탄력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나 국가 산업정책의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함.
- ※ 연구개발과제 선정 고려사항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사회에의 기여도

- 생활환경, 보건위생 등 주민복지에의 기여 정도
- 실행 가능성과 빠른 자금회전, 법령상의 수입 확보 가능성, 재산성, 지방 재정 확충효과

□ 지역자본시장의 활성화 - 지방공채 발행

-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자본동원 촉진을 위해서는 공채수익률의 현실화가 시급함. 공영개발단과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각종 지역 개발 부자에 수익 채권화된 지방공채를 발행함.
- 지방투자신탁회사의 설립, 중소기업의 사채발행, 지방채에 대한 일반공모제도 등을 도입하며 공업입지개발, 택지개발, 교통·통신개발 등에 지방공채의 현실화를 유도함.

□ 지역자본시장의 활성화 - 「민간투자유치 기획단」 운영

- 지속적으로 국내외의 민간자본 등과 같은 투자자본을 지역내 유치할 수 있는 자본투자유치기획단을 발족하여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 『과밀부담금』 수입제원이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수입제원 등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산업육성지원기금으로 활용함.

4) 정보통신 부문

□ 문서작업 감축 조례(Paperwork Reduction Act) 시행

- 문서업무 간소화를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대폭적 개선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자원의 유효 관리는 행정조직의 내적 전력화는 물론 민간의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문서감축조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문서 대체적 정보기술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방향 제시
 - 전자문서의 공식화와 대민 공개의 범위
 - 각 행정기관의 내부 평가시 문서감축 성과 반영
 - 전자문서 작성의 책임, 실명제 도입 등

□ S/W 벤처기업 육성기금 조성

- 벤처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우수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은 벤처기업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제3부 영·재정계획 ■

5) 문화 부문

□ '충북역사자료관' 운영

-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충북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1C의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충북학연구소 운영을 활성화함.
- 매년 충북학총서를 간행, 10년간 100권의 총서를 간행하는 한편, 대외학술활동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도민들의 지역 정체성 찾기에 이바지하도록 함.
- 충북학사료실 운영활성화를 통해 2003년부터 명실상부한 충북자료센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충북역사자료관'으로 확대 개편함.
- 도사편찬위원회 기능을 겸하는 한편, 충북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를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함.

□ 「도사편찬위원회(道史編纂委員會)」 설립·운영

- 충청북도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성찰하기 위해 도사편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
- 다른 시도의 경우 별도의 「도사편찬위원회(道史編纂委員會)」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충북학연구소가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위임함.

□ 「역사인물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도의 이미지와 명예를 높여준 전국적으로 알려진 역사인물을 선정을 위해 「역사인물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가칭) '충북문화재연구원' 설립

-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 발굴과 보호를 전담할 가칭 '충북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함.

□ '충북기업메세나협의회' 구성

- 지역연고기업체와 지역문화 발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 시군의 기업체대표, 지역기관단체장, 지역문화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충북기업메세나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 차원에서 추진

□ '충북문화재단' 운영

- '충북문화재단'은 충북문예진흥기금을 종자금으로 삼아 문예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
- 2001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검토 및 제반사항을 진검

□ 「향토축제 백서」 및 「평가보고서」 간행

- 매년 「향토축제 백서」 및 「평가보고서 간행」, 이를 통해 축제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차별 지원하고, '충북지역 축제 자문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기존 축제에 대한 평가, 기획 자문, 도 차원의 축제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함.

□ 도 문화예술기금의 확대와 운영개선

-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정 토양이 되는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도 문화예술부문의 예산점유율을 2008년도까지 5.0% 선에 이르도록 매년 일정비율씩 상향조정함.
-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그를 통한 충북도민의 문화향수 폭을 넓힘.
 - 중앙문예진흥기금 보급대상인 시지역 이상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의 입장료 부가보급을 지역문예진흥기금으로 활용.
 - 1995년 이후 중단된 도재정에서의 문예진흥기금 출연을 부활.
 - 도지정문화재 관람료와 도립공원 입장료의 5%를 도가 보급하여 문예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
 - 지역 문화예술인과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은행과 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우리 문화사랑통장'이나 '우리 문화사랑카드'를 도입하여 이자발생액의 1%를 문예진흥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
 - 확충된 문예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재원으로 활용

6) 관광 부문

□ 「충북관광협의회」 기능 보강

- 관광객 유치촉진 계획
 - 「북관광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지역별 관광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

□ 국립공원지역 지정 운영제도의 개선

제3부 영·재정계획 ■■

- 현행 국립공원지정제도의 경우 현지 여건상 불합리한 점이 인정되고 있고, 일부지역의 경우 과다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주기적인 환경평가를 통한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토록 중앙정부에 촉구함.
- 국립공원의 무질서한 난개발 및 훼손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 지정되어 있는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개발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개발토록 하거나 국가의 공공목적을 위해 제한되고 있는 해당지역의 보상차원에서 최소한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개발자율관리구역 지정제도」 등을 적극 검토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정비토록 함.

7) 환경 부문

□ 기업의 조림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총량규제제도 실시

- 기업의 조림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炭素稅(carbon tax)』 시행 이전에 심은 나무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 또는 호흡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허용하는 방식의 총량규제제도를 실시함.
- 제도의 시행이전에 기업의 조림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참여실적을 앞당겨 인정하는 사전실적 인정제도를 실시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기준 이외에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이산화탄소”를 포함시키는 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함.

□ 「수질환경보전법」 개선

- 심산계곡에서는 피서를 위한 야영과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하절기에는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한하여 야영을 허가함.
- 허가된 야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야영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하절기에는 헬기 등 집단장비를 동원하여 철저히 관리함.
- 댐 등 폐쇄성 수역과 국립공원 등 경관수려한 산간계곡 청정수계에서의 불법적 “야영행위 금지” 조항을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함.

□ 환경전광판의 설치와 경보제 실시

- 도민들이 대기오염의 불법 유출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 신고전용전화(128번)의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신고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함.

□ 제1장 행정계획

□ 초정약수 『세종수』의 국보지정

- 초정약수는 약수의 효험과 세종대왕이 60일간 머무르신 역사적 사실 등을 고려, 『세종수』로 명하여, 고유명사화 함으로써 그 상품적 가치를 제고시킴.
- 『세종수』는 약수로서의 효험은 물론 약수를 음용한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인물의 중요성 등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충북지역의 보물임.
- 『세종수』는 구녀성의 전설에서 유래하는 아홉 명의 선녀와 세종대왕의 흉상을 건립, 선녀와 대왕이 하사하는 세종수를 관광객이 받아 음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수를 신성화, 가치화하고 『세종수』는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역사적 이미지를 제고시킴.
- 『세종수』는 『문화재보호법』 제 4조(보물·국보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조 2(국보)의 5(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에 의하여 국보(國寶)로 지정함.
- 『세종수』는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광천수로서의 특성과 역사성에 비추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함.
- 『세종수』는 현재와 같은 탄산수의 전국 판매방식을 전환하여 초정에서만 마실 수 있게 관리하고, 판매시에는 크리스탈병에 담아 현지에서 고급 특산품으로만 판매함.
- 주변의 『운보의 집』, 『난연구소』, 『손병희선생 유택지』, 『한봉수선생 묘소』, 『윤관장군 영당』, 『구녀성』등 관광자원과 연계개발함.

□ 차량 배기가스, 소음 등 지역(충청북도) 대기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

□ 충청북도 환경보전조례 제정

8) 토지이용 부문

□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지방심의기구 신설

- 도단위에 지방심의기구를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개발 인·허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부분별한 개발허가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서까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개발허가를 연동화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함.

제3부 행·재정계획 ■■■

☐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실시

- 준농림지역의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용도지역 재부여 계획을 수립함.
- 도는 준농림지 개발 관련 각 시·군이 조례작성에 필요한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함.
-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규제 완화를, 공해를 유발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장을 조성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제한하는 등 지역별 차등규제 방안을 마련함.

☐ 토지특성별 차별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청주권 및 대전권(청원, 옥천)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평가검증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지와 보전지, 개발불가능지에 대한 원칙 설정함.
- 특히 대전권 도시계획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옥천 및 청원 일부지역의 그린벨트에 대하여 추락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각 기초단체별, 용도별, 소유주별 산지현황을 조사하여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시·군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수립에 맞는 조례제정 방안

☐ 도시경관조례 제정(시·군별)

9) 복지 부문

☐ 생업자금 융자 확대

- 자립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실을 감안한 생업자금 융자가 이루어져야 함.
- 실사를 통한 지원·관리·지도·위원회를 통하여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인 630명을 선정하여 1,200만원~3,000만원을 융자해줌.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현실화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시설운영비의 현실화를 꾀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이로부터 각 시설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투명성이 발휘되도록 하며 또한 바람직한 보호양식을 정착시킴.

-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현실화
입소시설 실제운영비의 80% 지원(2000) → 100%지원(2004)
이용시설 실제운영비의 50% 지원(2000) → 80%지원(2004)
- 평가제의 적극 활용 및 인센티브제 적용 : 지역평가지표(2000)
→ 시행(2001)
- 시설의 운영위원회 적극 활용 : 2000년부터 의무적 설치 및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강화 및 교육 모니터링제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강화 및 운영위원 신진 학교 시찰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으로 전환함.
- 특히, '교육에 바란다' 소리함 설치 및 교육 모니터링제 운영 등으로 의사소통체계를 원활히 하고 공동체 시민모임 활성화를 위해 운영 지원 함.

□ 교육자치체제 개선

- 기초단위 교육자치확대
 - 기초단위(시·군·자치구)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 실시함
 - 현행 공급자 위주의 교육자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으로 주민자치에 접근함.
 - 교육자치단체가 교육 사안을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특별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진 의결기구로 발전시킴.

10) 재정 부문

□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용

-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분석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이 요망됨.
- 이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다수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제3부 행·재정 계획

재정계획

제 2 장

- 제1절 도 재정의 일반현황
- 제2절 도 재정계획의 기본방향 및 예측
- 제3절 도 재정 확보방안
- 제4절 세부투자계획

제2장 재정계획

제1절 도 재정의 일반현황

1. 도 재정규모의 지속적 확대

- 지방재정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고도성장과 소득증가에 힘입어 중앙재정과 마찬가지로 1997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의 결과 1990년대 초까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옴.
- 1997년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7.8%를 상회하였으며, 중앙 내 지방재정의 비율도 1985년 30.1%에서 1997년 38.1%로 증가하였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시(1995년)와 외환위기사태(1997년)를 맞이하여 큰 변화가 노정됨.
 -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시키면서 지방재정의 부분적인 확대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선출직 자치단체장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의 부분별한 추진으로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함.
 - 외환위기사태는 지방재정을 급속도로 위축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1997년말 도래한 외환위기사태 이후인 1998년도 지방재정의 경우 1997년도에 비하여 4.4%가 감소하였고, 중앙정부 대 지방재정의 비율도 35.2%로 축소됨.

〈표 Ⅲ-2-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1985년	1990년	1992년	1997년	1998년
중앙 정부	일반회계	125,324	274,557	335,017	675,785	702,635
	특별회계	27,751	49,521	117,447	307,514	362,086
	계	153,075	324,078	452,464	983,299	1,064,721
지방 정부	일반회계	42,123	154,910	220,787	436,358	410,249
	특별회계	23,773	74,230	126,132	167,677	167,304
	계	65,896	229,140	346,919	604,035	577,553

주 : 1) 지방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값으로 재출산재 기준임.

2) 지방재정규모에서 교육특별회계는 제외.

3) 1997년 이전은 결산액이고, 1997년은 최종예산액, 1998년은 당초예산액임.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제3부 영·재정계획 ■

- 세계적인 경쟁구조하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는 이제 재정위기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Ⅲ-2-2〉 재정위기의 원인

구분	내 용
재정위기의 원인	1)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과도한 지출 2) 주민들의 행·재정수요 증대 등에 기인한 재정지출의 팽창 3) 조세저항, 경기순환과 지역경제의 침체 등에 기인한 과세(세입) 기반의 약화 4) 자본·소득의 역외 이전 5) 지역경제 환류기능의 미흡 5) 비효율적인 재정관리(적자에산편성, 세수예측능력의 결여, 자금관리 및 예산회계관리의 낙후 등) 6) 중앙정부의 보조금 삭감 및 정부간 세원배분의 불균형

- 1994~1998기간 중 총세입으로 본 도 재정규모는 연평균 1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총세입의 증가가 지방세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국고보조금, 지방채발행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1997~1998년의 경우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저조한데 비하여 국고 보조금 및 지방채발행이 급증한 것은 도재정자립에 바람직하지 못함.

〈표 Ⅲ-2-3〉 세입규모추이

구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연평균 증가율 (%)
		규모	증감률 (%)	규모	증감률 (%)	규모	증감률 (%)	규모	증감률 (%)	
총세입	1,582,445	2,007,058	6.8	2,387,425	18.9	2,683,638	12.4	2,969,124	10.6	17.2
지방세수입	316,781	392,668	23.9	452,698	15.2	451,421	-0.2	415,483	-7.9	7.8
세외수입	369,623	501,010	35.5	755,046	50.7	811,377	7.4	813,863	0.3	23.5
지방교부세	395,485	448,143	13.3	476,619	6.3	506,651	6.3	520,554	2.7	7.2
지방양여금	111,702	129,984	16.3	182,480	40.3	200,592	9.9	196,052	-2.2	16.1
국고보조금	354,622	426,171	20.1	468,692	9.9	637,541	36.0	821,827	28.9	23.7
지방채	6,700	68,685	925.1	45,826	-33.2	57,704	25.9	105,328	82.5	250.1

자료 : 통계청 통계DB3(www.nso.go.kr)

■ 제2장 재정계획

-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줌.
-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은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 비하여 기타 수입들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일반회계중심의 일반재원 조달구조

- 1998년 예산결산현황을 보면 도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20,293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규모는 1,952,09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4.1%를 차지함.
-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예산결산에서 전체예산대비 일반회계의 예산비중은 약80%내외를 기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도의 재원조달구조는 일반재원동원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Ⅲ-2-4〉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예산총액(A)	1,261,525	1,532,427	1,949,394	2,208,383	2,320,293
일반회계(B)	1,021,632	1,266,411	1,551,898	1,823,292	1,952,093
특별회계(C)	239,893	266,016	397,496	385,091	368,200
일반회계비중	81.0	82.6	79.6	82.6	84.1

자료 : 지방행정정보은행(laib.mogaha.go.kr)의 자료에서 재구성

3. 자체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재정자립도

- 도의 재정자립도는 1996~1998년 기간동안 1996년을 제외하고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표 Ⅲ-2-5〉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전 국	69.5	63.2	63.9
충 북	56.0	44.5	48.5

자료 : 통계청 통계DB(www.nso.go.kr)

제3부 행·재정계획 ■

- 1998년의 경우 도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순계규모기준으로 48.5%로 전국 평균 63.9%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전국 9개 도평균 49.9%에도 미치지 못함.
- 특히 도의 세입총액 중 지방세수입의 비중은 415,48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총액 2,376,116백만원의 17.5%에 불과하며, 이는 세외수입 737,610백만원(전체 세입총액대비 31.0%)에 비하여도 거의 절반에 그치는 실정임.

〈표 Ⅲ-2-6〉 1998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시도	세입총액	자체수입			재정자립도(%)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전국	50,989,344	32,591,407	17,148,290	15,443,117	63.9
시평균	2,354,532	1,959,981	1,319,360	640,622	76.7
서울	7,446,959	7,086,242	4,944,434	2,141,808	95.2
부산	2,321,811	1,815,078	1,310,666	504,412	78.2
대구	2,203,387	1,435,174	825,578	609,596	65.1
인천	1,647,326	1,296,959	867,296	429,663	78.7
광주	1,201,323	888,984	445,580	443,404	74.0
대전	943,108	642,455	443,743	198,712	68.1
울산	717,813	554,976	398,220	156,756	77.3
도평균	3,834,177	2,096,838	879,197	1,217,641	49.9
경기	9,067,193	7,257,404	3,520,308	3,737,096	80.0
강원	3,261,450	1,543,179	469,462	1,073,717	47.3
충북	2,376,116	1,153,093	415,483	737,610	48.5
충남	2,995,430	1,334,761	550,901	783,860	44.6
전북	3,075,465	1,366,667	509,453	857,214	44.4
전남	4,071,455	1,642,988	479,463	1,163,525	40.4
경북	4,507,714	1,850,580	804,323	1,046,257	41.1
경남	4,223,483	2,266,783	962,431	1,304,352	53.7
제주	929,291	456,084	200,949	255,135	49.1

주 : 1. 일반회계 결산순계입

2. 단체간 및 회계간에 중복 계상된 예산액은 공제됨.

3. 지방 재정자립도 = $\frac{(\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text{세입총액}} \times 100$

자료 : 행정자치부 및 통계청 통계DB(www.nso.go.kr)

4. 신중한 부채관리 대책의 필요

-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부채를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어느 정도 건실하던 지방재정이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 12월 현재 16조 2,229억원에 달함.
- 1999년 6월 현재 각 지방정부의 부채는 전체 지방정부예산의 45%를 차지하는 16조 8천 3백억원 정도이며, 특히 최근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와 수수료 등과 같은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동시에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줄어들면서 빈약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도의 1999년 예산 대비 1998년 12월 현재 부채규모는 29.5%로서 전국평균 36.4% 보다 낮으며, 9개 도만의 평균 31.4% 보다도 약간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1998년 12월 현재 부채규모를 볼 때, 청주시 1,337억원, 충주시 956억원, 음성군 607억원으로 많은 부채규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전반적인 부채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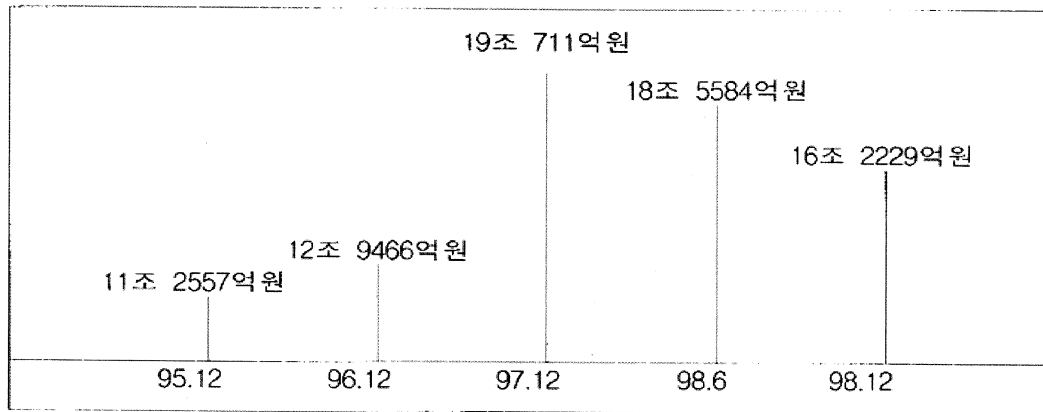
〈표 Ⅲ-2-7〉 시도별 부채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부채(A)	1999년 예산(B)	(A/B)×100
계	162,229	445,352	36.4
서울	12,418	78,745	15.8
부산	20,187	22,013	91.7
대구	16,575	19,632	84.4
인천	10,920	15,158	72.0
광주	8,641	9,363	92.3
대전	6,566	8,525	77.0
울산	3,034	6,098	49.8
경기	26,245	70,878	37.0
강원	7,326	25,239	29.0
충북	5,269	17,873	29.5
충남	7,153	27,917	25.6
전북	7,692	26,647	28.9
전남	7,115	35,737	19.9
경북	10,907	36,726	29.7
경남	10,416	35,037	29.7
제주	5,205	9,755	53.4

주 : 부채규모는 1998년 12월 현재이며 시도가 출자한 산하단체의 부채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 중앙일보 1998. 10. 17 및 1999. 7. 1일자에서 제작됨

제3부 행·재정계획



주 : 시도가 출자한 산하단체의 부채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 중앙일보 1998.10.17일자

〈그림 Ⅲ-2-1〉 지방정부의 부채추이

- 1994~1998년 기간 중 도의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채비중은 대체로 확대되어 왔는데, 지방채발행의 확대에 의한 총세입의 확충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지방채발행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표 Ⅲ-2-8〉 지방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총세입(A)	지방채(B)	지방채비중(B/A : %)
전 국	평균	52,499,934	1,294,565	2.7
	1998년	62,702,417	2,396,502	3.8
	1997년	62,017,618	1,861,533	3.0
	1996년	54,965,110	976,265	1.7
	1995년	45,610,764	863,909	1.8
	1994년	37,203,763	374,617	1.0
충청북도	평균	2,325,938	56,849	2.7
	1998년	2,969,124	105,328	3.5
	1997년	2,683,638	57,704	2.1
	1996년	2,387,425	45,826	1.9
	1995년	2,007,058	68,685	3.4
	1994년	1,582,445	6,700	0.4

자료 : 통계청 통계DB(www.nso.go.kr)

5. 충북의 재정분석 지표

- 도 본청의 재정분석 지표를 보면, 자주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는 평역시를 제외한 도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성 지표중 경상수지비율과 세입·세출충당률은 열악한 수준을, 지방채채무상환률은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재정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및 자체수입증감률, 경상비증감률은 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표 Ⅲ-2-9) 충북도 본청의 재정분석 지표

(단위 : %)

구 분	분석영역	단위지표	분석결과		
			도평균	충청북도	비교
재정의 건전성	자주성	재정자립도	39.29	30.88	○
		재정력지수	83.82	53.29	○
	안정성	경상수지비율	22.30	33.30	○
		세입·세출충당률	97.22	94.47	○
		지방채채무상환률	4.33	3.50	●
재정의 효율성	생산성	재정계획운영비율	103.69	99.98	●
		세입예산반영비율	101.30	101.22	●
		투자비비율	80.57	83.16	●
	노력성	자체수입증감률	82.62	91.02	●
		경상경비증감률	94.09	92.31	●

주 : 1) 충북도 본청에 한하며, ●는 도평균을 상회하여 우위상태, ○는 저조함을 나타냄.

- 2) ①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정수기반이 충실을 의미 ② 재정력지수는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높을수록 세입자주기반이 좋음 ③ 경상수지비율은 경상경비의 일반재원 수입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좋음 ④ 세입·세출충당비율은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균형을 이룸 ⑤ 지방채상환비율은 일반재원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좋은 상태 ⑥ 재정계획운영비율은 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계획의 실제예산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나타냄 ⑦ 세입예산반영비율은 지방세입의 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용을 의미 ⑧ 투자비비율은 투자사업비의 전체예산액 중 집행비를 나타내는 세출분석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합리적으로 운영 ⑨ 자체수입증감률은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정수노력이 좋음 ⑩ 경상경비증감률은 경상경비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출분석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경상경비의 절감효과가 높음

자료 : 행정자치부, 1998회계년도 지방재정종합분석, 1999.

제3부 영·재정계획 ■

- 시·군별 지방재정을 분석해 보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시단위는 청주시만 평균을 상회하고 충주시와 제천시는 열악한 수치를 보임. 군단위에서는 청원, 진천, 단양만이 평균을 상회하고, 기타 군은 하회하고 있으며 재정력 지수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재정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재정계획운영비율은 충주시가 99.98로 10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군단위에서는 청원, 옥천, 음성 이 양호함. 한편 투자비 비율은 도내 시 모두가 평균을 하회하며, 군단위는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재정의 노력성을 보면, 자체수입증감률의 경우 도내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되며, 보은과 영동 이 군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보임. 경상경비증감률을 보면 충주시가 가장 양호하고, 군단위에서는 괴산, 단양만이 양호함.
- 재정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및 자체수입증감률, 경상비증감률은 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시·군별 지방재정을 분석해 보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시단위는 청주시만 평균을 상회하고 충주시와 제천시 는 열악한 수치를 보임. 군단위에서는 청원, 진천, 단양만이 평균을 상회하고, 기타 군은 하회하고 있으며 재정력 지수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재정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분석해 보면, 재정계획운영비율은 충주시가 99.98로 10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군단위에서는 청원, 옥천, 음성 이 양호함. 한편 투자비 비율은 도내 시 모두가 평균을 하회하며 군단위는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재정의 노력성을 보면, 자체수입증감률의 경우 도내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되며, 보은과 영동 이 군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보임. 경상경비증감률을 보면, 충주시가 가장 양호하고, 군단위에서는 괴산, 단양만이 양호함.

〈표 Ⅲ-2-10〉 시·군별 지방재정 분석자료

구분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효율성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총당률	지방세상환비율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 반영비율	투자비율	자재수입증감률	경상경비증감률
도평균	39.29	83.82	22.30	97.22	4.33	103.69	101.30	80.57	82.62	94.09
충청북도	30.88	53.29	33.30	98.47	3.50	99.98	101.22	83.16	91.02	92.31
시평균	61.32	66.41	43.50	90.02	5.01	90.69	100.84	72.55	97.32	97.45
청주시	74.06	94.76	42.94	84.38	5.70	85.13	102.77	68.75	96.64	103.43
충주시	50.98	38.82	47.16	90.47	7.42	99.02	96.66	65.54	99.46	96.80
제천시	42.24	27.81	47.43	91.91	9.47	101.95	100.70	76.60	102.18	99.97
군평균	37.49	23.13	52.54	93.64	4.76	97.58	101.39	72.06	98.81	98.11
청원군	45.35	32.61	48.72	94.52	3.13	99.01	99.44	76.98	86.44	106.41
보은군	18.87	11.80	60.88	97.48	7.06	211.54	100.22	74.26	112.53	106.84
옥천군	31.67	22.80	52.26	95.26	5.65	98.05	99.25	74.32	92.28	99.30
영동군	31.90	14.89	54.92	90.53	3.45	110.66	98.53	67.38	106.05	99.27
진천군	44.67	38.90	54.97	91.95	3.91	97.08	100.93	73.75	86.46	98.50
괴산군	32.50	12.42	47.26	92.07	5.78	102.22	97.21	71.67	100.19	93.82
음성군	45.02	41.38	53.02	92.62	2.23	98.68	100.02	75.14	100.78	99.40
단양군	38.05	19.65	57.08	94.82	7.22	101.17	99.99	61.31	100.97	97.58

자료 : 행정자치부, 1998회계년도 지방재정종합분석, 1999.

제2절 도 재정계획의 기본방향 및 예측

1. 재정계획의 기본방향

□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전개

- 도 재정의 악화 또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도는 징세노력을 강화하고 건축재정을 실시하여야 함.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재정위기 도래시 긴급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부채탕감을 위한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시켜야 함.

□ 재정위기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 도의 재정상태, 부채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제3부 영·재정계획 ■

있는 장치를 마련토록 함. 이를 위해 현재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지방재정진단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도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재정운용 및 재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도 재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이해는 도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건전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하고도 적극적인 재정정보 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한 건전재정 도모

- 도재정의 체질개선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원의 편제가 심하지 않고 소득의 탄력성이 큰 국세 중에서 지방세의 성격을 띤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여야 하며, 의존재원(특히 교부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 도의 경우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선 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데, 특히 산출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분석할 수 있는 기구로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다수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이 외에도 도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과 공동으로 생산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방식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Ⅲ-2-11〉 재정책충방안

구 분	지방정부	중앙정부
유동성 확 보	· 세입확대 노력 · 징세노력의 강화 · 긴축재정 운용	· 지방정부에 긴급자금지원 · 적자탕감을 위한 지방채발행 허용
재정위기 예 방	· 재정진단 수용 및 실시 · 투명한 재정운용 및 재정정보 공개	· 지방정부 재정진단 실시 · 재정운용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
재정지출의 효 율 화	· 우선순위별 전략적 투자 ·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 발족 · 공공서비스의 민관공동생산	· 중앙-지방간 조세불균형 조정 · 지출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2. 일반회계 세입예측

- 지방재정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인 여건은 중앙정부 재정계획, 지역경제 여건, 국내경제 여건 및 중앙정부 경제정책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지역경제 여건으로는 지역경제력(GRP, 인적자원, 자본 및 기타 생산자원 축적), 인구, 산업구조 등이 변수로 작용함.
- 충북의 지방재정에 대한 예측은 각 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에 전적으로 따르는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예측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예측을 중심으로 전개함.

□ 자체수입 예측

- 예측방법 :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GRP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α , β , γ 추정치를 구함.
 - 지방세 : $LT_t = \alpha + \beta GRP_t + \gamma LT_{t-1} + \varepsilon_t$
 - 세외수입 : $NTR_t = \alpha + \beta GRP_t + \gamma NTR_{t-1} + \varepsilon_t$
(LT_t , GRP_t , NTR_t 각각 t년도의 지방세, 지역총생산, 세외수입)
- 방정식에 추정계수 α, β, γ 및 총량지표 부문에서 추정된 GRP_t 예측치를 대입하여 LT_t (지방세예측치)와 NTR_t (세외수입 예측치)를 구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III-2-12〉 자체수입 회귀분석 결과

추정계수	구분	α	β	γ
추정치	지방세	-20.530	0.0000271	0.179
	세외수입	-122.630	0.0000774	-0.613
표준오차	지방세	59.802	0.0000293	0.871
	세외수입	87.069	0.0000242	0.445

〈표 III-2-13〉 자체수입 예측

(단위 : 십억원)

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성장률
지방세	544.7	574.5	602.8	631.8	662.0	693.7	876.5	1,107.3	1,397.6	4.82%
세외수입	664.1	889.9	816.8	930.0	932.2	1,005.7	1,264.5	1,606.9	2,036.3	5.76%

제3부 행·재정계획

□ 의존수입 예측

○ 예측방법 :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계획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지므로, 의존수입의 예측은 회귀분석 모형보다는 시계열분석에 의한 것이 타당함. 각변수에 대한 최적모형과 예측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방교부세(Quadratic Curve) : $LST_t = a + b_1 + ct^2$
- 기타수입(Exponential Curve) : $OTHER_t = \exp(a + b \cdot t)$
(LST_t 는 t년도 지방교부세)

〈표 Ⅲ-2-14〉 의존수입 예측

(단위 : 십억원)

년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지방교부세	646.9	696.2	747.0	799.1	852.6	907.5	1,202.5	1,532.0	1,896.0	5.52%
기타수입	1,298.2	1,537.5	1,820.8	2,156.3	2,553.7	3,024.2	7,044.9	1,6411.1	3,8229.6	18.43%

제3절 도 재정 확보방안

1. 내부재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1) 지방 세외수입의 확충전략

□ 자금관리 효율화를 통한 이자수입의 확대

- 현금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집중계좌제도(concentration account), 영계좌제도(zero base balance) 등의 기법을 도입하고, 자금배정주기의 체계화와 여유자금의 유리한 금융상품 애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확충함.
- 집중계좌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지방세, 사용자부담금, 이전재정, 기채 등)을 하나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동 계좌에서 지출계좌에 대한 현금배정과 여유자금 운영 등을 통합관리하는 제도임.
- 영계좌제도란 현금지출에서 유후자금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집중계좌에서 지출액만큼의 현금을 이전시키면서 각 부서계좌의 잔액은 매일 “0”을 유지하는 제도임.

□ 사용자부담금 증대를 통한 필요재원의 확충

- 조세라는 일반재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이 운영되던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산출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가 팽배해 왔으나, 점차 기업가적 정부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특정 서비스를 사용자 부담을 통해 공급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공공서비스는 시장재와 유사한 민간재로 전환되기 때문에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민간경영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것임.
- 거시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시민수요에 기초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형성을 위해 사용자 부담금의 증가를 통한 사회적 효율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2)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활성화

- 향후 공공서비스의 가격형태가 사용자부담금 성격으로 전환되고 “특정서비스에 대한 특정재화”의 연계가 구조화되면서 정상이윤보장과 민간기업들의 참여동기를 유발함.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해당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조직간의 가격경쟁상황이 창출되어 행정의 효율화를 압박하게 될 것이므로 지방정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에 나서야 함.
-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위탁업체 또는 위탁서비스에 대한 최적 규모를 고려하여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최적규모의 위탁규모를 설정하면 관리비용 절감에 따라 위탁업체의 수수료가 낮아지므로 그 만큼 예산감축 요인이 발생함.

3) 지역개발기금의 확충을 통한 자주적 자원조달

- 1990년대 중반이후 시군별로 개발수요가 급증하여 일반재원만으로 투자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략사업에 대한 기금의 융자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짐.
- 일반회계 재원 이외에 광역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주민복리증진,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적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투자재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판매수입과 기금운영수익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상 추가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매우 제

제3부 행정·재정계획

한적이므로 지속적인 지역개발기금 확충을 위해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함.

〈표 Ⅲ-2-15〉 지역개발기금 확충방안

구분	내용
융자조건 다양화	· 적정수익보장 곤란 사업: 강제소화공채발행 · 적정수익 보장 사업: 시장실세금리 반영하는 일반기채 발행(일반기채의 경우 중앙정부는 지역개발기금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한 면세혜택고려 : 시장소화촉진)
경영수익 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기금에 투자	· 도분청의 지역개발부담금수익이나 출자가관의 경영수익 배당금액의 일부를 기금재원으로 투자 · 시군의 경영수익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금재원으로 투자(시군은 출자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기금융자혜택 부여)
중앙정부의 지원	· 중앙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저리융자 또는 지역개발공채 인수

4) 자원봉사의 정착을 통한 예산절감

- 최근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들은 주민참여 확대라는 민주주의적 효과 외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민간부문의 인적자원활용을 통해 정상경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음.

〈표 Ⅲ-2-16〉 지역사회에서 공공부문에의 활용이 예상되는 자원봉사활동

구분	활 동 사 례
사회복지	말벗 봉사, 생활서비스봉사(장애자, 독거노인), 책의 점자사업
보건·의료	재가물리치료 및 건강상담(장애자, 독거노인), 병원 및 보건소에서의 안내, 위문활동, 보호자 없는 환자돌보기, 위생지도, 지역순회 서비스
방범·치안	자율방범대 활동
청소년선도	공원 및 유흥가 등에서의 청소년 선도활동
문화·예술	공립 어머니 합창단의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정 등에서 무료공연, 지역사회 문화·예술 안내, 미술관·박물관 안내, 지역문화재 조사 및 보호활동
스포츠·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지도, (산, 공원 등에서의) 체조지도
교통	교통정리, 거리질서 주도, 주차단속 및 계도
소방	불조심 캠페인, 소방활동, 구조구급
환경	환경정화(하천변, 공원, 놀이터), 자연보호 캠페인, 쓰레기 분리수거, 취사행위 및 자연훼손 감시 등 산림보호활동, 환경미화활동(페인트칠, 전지 및 세초작업, 꽃, 나무심기 등)
교육	성교육 및 상담, 학생상담, 방과후 아동지도, 범죄예방교실운영, 급식지도, 사회교육(컴퓨터, 외국어, 기술)지원활동

자료 : 김정경, (1996), 『공공부문 자원봉사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62

제2장 재정계획

-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동원성에 기초한 무보수 활동이고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순수 민간차원의 노력봉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활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수요공급체계의 효율적인 방안 구축에 미흡함.
-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효과적인 민간의 인력자원을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함.

2. 외부자원 확충 방안

1) 아웃소싱을 통한 행정비용의 절감

□ 아웃소싱(outsourcing)의 적극적 활용 모색

- 협의의 아웃소싱은 개념상 민간위탁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의 아웃소싱과 현재 지방정부에서 활용되는 민간위탁의 실천관행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아웃소싱개념을 적용할 경우 민간위탁에 비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둘째, 아웃소싱의 주된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성과에 있지만, 현재의 민간위탁은 행정서비스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셋째, 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측면에서 아웃소싱은 특정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자체의 통폐합을 의미하나, 현재의 민간위탁은 일부 행정기능이 위탁수행된다고 하여도 위탁업체관리 및 지도감독업무 등으로 조직자체는 그대로 존속함.

□ 아웃소싱의 목표 및 활용효과 분석

-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아웃소싱 영역과 실행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도입할 경우 먼저 아웃소싱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 아웃소싱은 원가절감 외에 조직의 기능을 단순화시켜 핵심역량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조직 경량화 및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조직의 기능을 단순화시켜 제한된 내부자원을 중요한 업무에 집중시킴.
 - 수요변동폭이 크거나 관련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직이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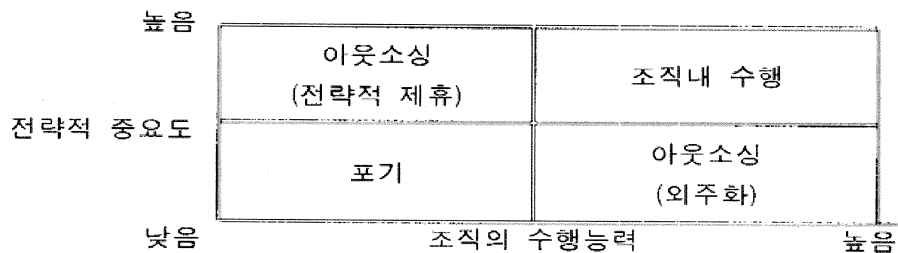
제3부 행정·재정계획

〈표 Ⅲ-2-17〉 아웃소싱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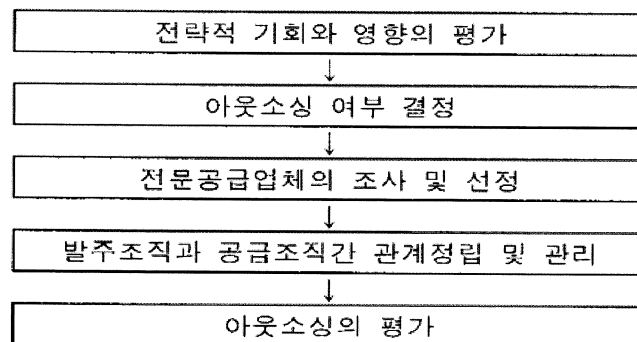
구분	내용
경제성	내부조직을 유지하기 보다 공급업체에 맡기는 것이 규모와 전문성에 의하여 경제적
서비스품질	많은 경우 공급자에게 맡기는 것이 자기 직원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
예측가능성	서비스 수준 보장을 조건으로 한 고정가격제 계약에 의하여 불확실성 감소
유연성	하부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조직의 성장을 도모
고정비의 변동비화	맡겨진 업무의 단위당 가격에 따르므로 이전의 고정비가 변동비화함.
인적자원의 능률적 활용	회소하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능력자가 더 가치있는 활동을 하도록 함.
재무자산의 효율적 활용	투자자산을 절감하고, 일부 자산을 공급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재무자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아웃소싱의 구체적 실천전략

- 아웃소싱의 목적이 과거 비용절감에서 조직외부의 발전된 전문기술활용으로 본래 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됨에 따라 조직의 핵심역량 파악후, 기타 업무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웃소싱의 요체라 할 수 있음.



〈그림 Ⅲ-2-2〉 아웃소싱 방침의 결정



〈그림 Ⅲ-2-3〉 아웃소싱의 과정모형

□ 지방정부 아웃소싱의 성공조건

- 지방정부 전체활동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사업성공의 편견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조직의 핵심역량을 구축한 후,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외부기업을 통해 아웃소싱해야 함.
- 아웃소싱 관련 제반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아웃소싱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함.
-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적 역량에 대한 장기적 위협가능성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통제수준을 달리하여야 함.
- 공급업체와 장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함. 빈번한 공급업체의 교체는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음.
-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기준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왜냐하면 아웃소싱의 실패는 대부분 관리의 부재에서 초래되기 때문임.

2)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민간자본활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 국민소득증가 및 생활수준향상과 함께,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다양화된 욕구가 증가하면서 정부역할은 증대하나, 제한된 공공재원은 여러 부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선진국에서 공공투자사업에의 민간참여는 시대적 조류이고, 민자의 참여로 정부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에 있어서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할 목적으로 종래의 재정투자일변도에서 재정과 민간투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도입하여 특정사업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기 전에 민간자본의 유치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함.
 - 독일의 경우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제도를 도입하여 도로사업 부문에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항만 부두터미널 시설의 60% 이상을 민권이 소유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의 고속철도는 주정부가 민간의 채권발행까지 보증해주는

제3부 영·재정계획

등의 정책지원을 통해 민자유치에 적극적임.

□ 민자유치의 유형과 민관간 역할분담형태

- 민자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직접참여(민간공급형), 간접참여(자금공급형), 분담참여(민관병존형), 위탁참여(업무위탁형), 합동참여(민관합동형) 등으로 구별됨.
- 현행 민자유치추진법에 의하면 민간법인과 민관합동법인만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바, 직접참여방식(민간법인)과 합동참여방식(민관합동법인)에 의한 사업추진만이 가능함.

〈표 III-2-18〉 민자유치의 유형

유형	사업주체	민간역할	공공역할	대상사업
직접참여 (민간공급형)	민간참여	사업계획제안 건설시공 자금조달 관리운영	기격규제 서비스수준규제	주차장 목합터미널 컨벤션센터 우편, 전화 등
간접참여 (자금공급형)	주체: 공공부문 자금: 민간부문	일부자금조달	일부자금조달이외 의 일체활동	대규모수익사업 택지개발 병원 복지시설 등
분담참여 (민관병존형)	일부: 공공부문 일부: 민간부문	건설시공 자금조달 관리운영	건설시공 자금조달 관리운영	공항 항만 일부도로
위탁참여 (업무위탁형)	주체: 공공부문 서비스: 민간부문	서비스생산	서비스공급 및 전 달, 비용징수	쓰레기처리 오물수거 공공시설유지 각종검사
합동참여 (민관합동형)	합동법인 (공공+민간)	공동출자, 합동법인 설립,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 건설시공, 사후관리 운영		대형프로젝트 일부도로 공항·항만 등

- 민자유치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 첫째, 대상사업의 위험성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 둘째, 많은 민자유치사업을 일시에 추진하여 물리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 셋째, 운영기간중 예상수익 미달 등 위험요인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 넷째, 민자유치제도가 미비하고 관련전문가가 부족하며,
 - 다섯째, 정부와 민간기업간 민자유치사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민간은 다
른 형태의 사업으로, 정부는 정부발주사업으로) 공감대형성의 부족을 들
수 있음.

제4절 세부투자계획

1. 투자사업 선정의 기준

1) 목표 지향성 충족

- 기본목표·전략에 부합 정도
- 부문별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 정도

2) 주민만족 및 지역개발 파급효과 극대화

- 지역주민에 의한 선호도 만족
- 기타 사업과의 연계성 확대
- 지역적 전후방 파급성 극대화

3) 지역간 협력촉진 강화

- 국내외 협력·재휴 촉진
- 지역간 광역사업 개발
- 지역의 국제화·개방화 수준 제고

4) 총복의 전략사업 중점투자 기준: 단기·중기 투자계획의 기준

-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
- 활력 넘치는 농촌건설
- 지역경제력 강화 및 지역개발 촉진
-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기반 조성
-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 양질의 사회교육 환경조성
- 지방자치 기반 강화

제3부 영·재정계획

2. 대상사업 선정의 기준

1) 사전적 타당성 분석 의무화

- 사전 타당성(경제적, 재무적) 분석을 거치도록 의무화
- 외부전문가 또는 국제적인 조사·분석기관 적극 활용

2) 타당성 분석결과에 의한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 사전 타당성 분석결과, 내부수익률(FIRR)이 높거나 총사업비 대비 재정투자 비율이 작게 투입되는 사업
- 민간경영의 효율과 창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민간제안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강화

- 민간제안은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분석·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예상 수요 및 투자비용,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유도
- 사전 타당성(경제적, 재무적) 분석을 거치도록 의무화

〈표 Ⅲ-2-19〉 투자 우선 순위의 결정기준

구 분	착 안 점	내 용	결 정 기 준
사업 내용	· 지방투자사업의 실시연수 · 계속성의 판단	· 장·단기적 투자사업 · 추가요구사업	· 사업의 성격 (계속성)
주민과의 관계	· 주민의사의 반영 · 사업효과의 주민수혜범위 판단	· 주민숙원사업 · 민원해소사업 · 다수인요구사업 · 주민수혜대상의 범위	· 주민숙원도 · 주민수혜도
사업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 타부문산업의 촉진 ·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 소득, 고용증대	· 경영수익사업 · 소득증대사업 · 고용창출사업 · 세수증대사업 · 기반시설확충사업	· 경제적 효율성 의 파급효과
투자 재원	· 투자사업에 따른 재원의 분류	· 국도비보조사업 · 기채사업 · 순지방비사업 · 자부담사업 · 복합적 사업	· 재원조달방법

3. 총 투자규모 및 투자비 분담

- 2000~2020년 기간동안 도 종합계획상의 사업추진을 위한 총소요액은 약 68조 6,380 억원으로 추정됨.
- 부문별 투자소요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물류 부문의 비중이 33.9%로 가장 높고 첨단지식산업(19.1%), 주거 및 도시개발(12.5%), 관광(9.0%), 환경(6.8%), 체육·교육·복지(6.8%) 부문의 순으로 나타남.
- 2000~2020년 계획기간 중 투자액의 배분분포를 살펴보면, 상반기 5개년간(2000~2004)년에 소요될 투자액이 전체의 27.7%인 19조 337억원, 2005~2009년은 23.9%, 2010~2014년은 25.0%, 2015~2020년은 23.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함.

〈표 Ⅲ-2-20〉 부문별 투자비 산정 및 분담내역

(단위 : 억원, %)

시책분야	총투자액 (비중)	주체별 분담내역(비중)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총 계	686,380 (100.0)	324,954 (47.3)	68,041 (9.9)	30,149 (4.4)	263,236 (38.4)
과학영농 부문	34,677 (5.1)	18,564 (53.5)	10,540 (30.4)	1,888 (5.4)	3,685 (10.6)
첨단지식산업 부문	131,394 (19.1)	5,846 (4.4)	7,949 (6.0)	75 (0.1)	117,524 (89.4)
교통·물류 부문	232,767 (33.9)	202,271 (86.9)	17,243 (7.4)	-	13,253 (5.7)
지역정보화 부문	40,484 (5.9)	24,629 (60.8)	1,571 (3.9)	15 (0.1)	14,269 (35.2)
문화 부문	6,137 (0.9)	2,716 (44.3)	1,293 (21.1)	924 (15.1)	1,204 (19.6)
관광 부문	61,953 (9.0)	4,209 (6.8)	2,080 (3.4)	1,996 (3.2)	53,668 (86.6)
주거 및 도시개발 부문	85,989 (12.5)	14,251 (16.6)	11,448 (13.3)	8,960 (10.4)	51,330 (59.7)
환경 부문	46,368 (6.8)	22,371 (48.2)	2,369 (5.1)	14,273 (30.8)	7,355 (15.9)
체육·교육· 복지 부문	46,611 (6.8)	30,097 (64.6)	13,548 (29.1)	2,018 (4.3)	948 (2.0)

주 : 반올림을 하였기 때문에 끝자리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제3부 영·재정계획

- 계획기간을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경우, 전반기는 총소요액의 51.6%에 해당하는 35조 4,08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후반기에는 48.4%인 33조 2,298억원이 투자될 것임.
-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상반기에는 부문별로 교통·물류(45.5%), 환경(8.2%) 등에서 중반기내지 하반기보다 높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임.
- 반면, 첨단지식산업, 관광 등의 부문은 중반기내지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표 Ⅲ-2-21〉 단계별 투자비 산정 및 분담내역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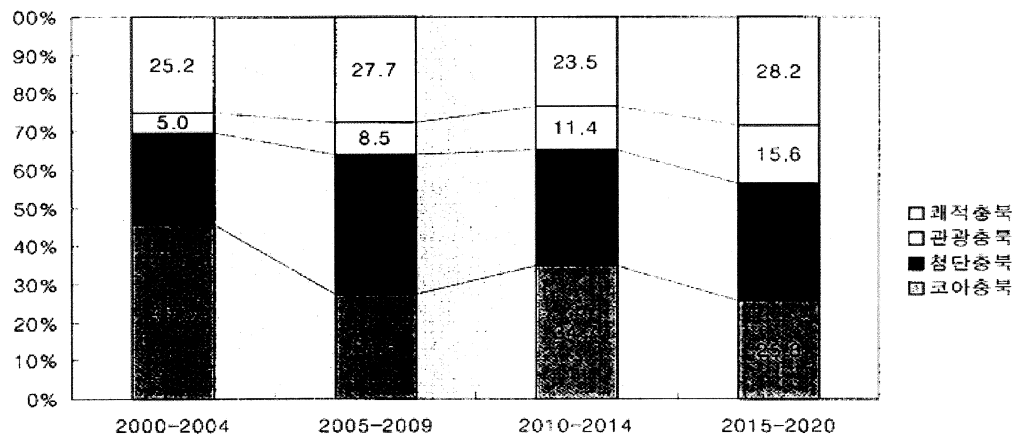
분야	총 투자액	연차별 투자계획						2005~ 2009	2010~ 2014	2015~ 2020
		소계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	686,380	190,337 (27.7)	22,735	34,188	39,930	45,970	47,514	163,745 (23.9)	171,919 (25.0)	160,379 (23.4)
	100.0	100.0								
과학영농	34,677	16,689 (48.1)	2,442	2,760	3,076	4,243	4,168	12,911 (37.2)	3,835 (11.1)	1,242 (3.6)
	5.1	8.8								
첨단지식 산업	131,394	24,131 (18.4)	1,787	2,257	4,032	7,778	8,277	28,963 (22.0)	40,300 (30.7)	38,000 (28.9)
	19.1	12.7								
교통·물류	232,767	86,646 (37.0)	11,396	17,097	16,289	19,293	22,571	45,016 (19.3)	59,741 (25.7)	41,364 (17.8)
	33.9	45.5								
지역정보화	40,484	5,527 (13.6)	6	712	1,152	1,776	1,881	17,457 (43.1)	8,000 (19.8)	9,500 (23.5)
	5.9	2.9								
문화	6,137	1,689 (27.5)	112	307	317	460	493	1,871 (30.5)	1,343 (21.9)	1,234 (20.1)
	0.9	0.9								
관광	61,953	7,784 (12.5)	317	1,094	2,137	1,935	2,301	12,136 (19.6)	18,251 (29.5)	23,782 (38.4)
	9.0	4.1								
주거 및 도시개발	85,989	18,409 (21.4)	2,377	3,667	5,040	3,529	3,796	19,030 (22.1)	17,590 (20.5)	30,960 (36.0)
	12.5	9.7								
환경	46,368	15,514 (33.5)	2,585	3,351	3,831	2,834	2,913	12,787 (27.6)	12,042 (26.0)	6,025 (13.0)
	6.8	8.2								
체육·교육 ·복지	46,611	13,948 (30.0)	1,713	2,943	4,056	4,122	1,114	13,574 (29.1)	10,817 (23.2)	8,272 (17.7)
	6.8	7.3								

제2장 재정계획

- 제3차 도 종합계획에서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2000~2004년)에는 「코아충북」과 「패적충북」 목표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 「관광충북」과 「첨단충북」의 목표는 하반기(2015~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임.

〈표 Ⅲ-2-22〉 제3차 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에 따른 투자비 산정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20	합 계
코 아 충 북 (교통·물류)	86,646 (45.5)	45,016 (27.5)	59,741 (34.7)	41,364 (25.8)	232,767 (33.9)
첨 단 충 북 (산업·정보화)	46,347 (24.3)	59,331 (36.3)	52,135 (30.3)	48,742 (30.4)	206,555 (30.1)
관 광 충 북 (문화·관광)	9,473 (5.0)	14,007 (8.5)	19,594 (11.4)	25,017 (15.6)	68,091 (9.9)
패 적 충 북 (환경·주거 및 도시 개발·체육·교육· 복지)	47,871 (25.2)	45,391 (27.7)	40,449 (23.5)	45,256 (28.2)	178,967 (26.1)
합 계	190,337 (27.7)	163,745 (23.9)	171,919 (25.1)	160,379 (23.4)	686,380 (100.0)



〈그림 Ⅲ-2-4〉 계획목표에 따른 투자비 추이

제3부 영·재정계획

4. 투자재원 확보방안

1) 단기투자재원 확보 방안

- 신세원 발굴
-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 경영수익사업 발굴
- 비과세감면의 축소
- 세외수입 확충

2) 중장기 투자재원 확보 방안

- 국세와 지방세 체계 조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 외자유치 확대
-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

5. 집행관리 방안

1)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방법 :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의 평가항목

결정기준	평 가 내 용	평 가 항 목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과 편익과의 관계하에 평가 · 경제적 수익성의 측정자료로 NPV, B/C Ratio, IRR 등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수익률이 대단히 높은 사업 · 투자수익률이 보통인 사업 · 투자수익률이 낮은 사업
주민숙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기초육구, 주민의 요구, 민원의 발생과 연관된 사업 · 주민생활과의 밀접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숙원사업 · 복합적 사업 · 자체사업
사업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시로 나타나는 직·간접효과가 미치는 범위와 정도 파악 · 예컨대 소득증대, 고용창출, 연관산업의 촉진, 기반시설의 확충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급효과가 큰 사업 · 파급효과가 보통인 사업 ·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
주민수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실시로 그 편익 내지 효과를 받는 주민의 대상범위의 정도 · 수혜의 정도는 자치단체의 전체주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계층 및 집단별로 평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민 수혜사업 · 다수주민 수혜사업 · 일부주민 수혜사업
자원조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재원의 조달가능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자원(국비, 민자, 기채)조달 사업 · 복합적 자원(외부자원, 지방비) 조달 사업 · 순지방비 사업
사업성격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실시연수, 사업완공 시기, 사업의 보완, 마무리 등 사업기간에 기초하여 성격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업 · 보완사업 · 단년도사업

2)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역주민 또는 민간기구(NGO)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내용 점검



시 · 군별 발전방향

청주시 : 중부권의 미래를 여는 국제문화 교류의 중심지

개발 목표

-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문화도시
- 중부권의 중추도시로서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도시
- 첨단산업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기술도시

발전 방향

- 사회 각 분야에서 직접 외국의 도시와 교류를 다각화하여 선도적 지역발전 추진
-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의 통합과 아울러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이를 통한 윈스톱·논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현
- 지역적 특성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체계적 개발을 통한 청주의 자랑거리와 관광자원 활성화
- 공항과 첨단항공산업으로 지역경제발전의 개기를 마련하고 중부권의 교통 요충지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외적 위상 강화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동의 승수효과가 지역 내에서 창출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각 산업부문간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을 이루는 생산체제 구축
- 중부권과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서의 민모일신과, 다각적인 도시성장관리 정책으로 부질서한 도시비대화 예방과 내실있는 삶의 터전으로 육성
- 유기적인 도농통합, 녹지의 적정보전 및 생태공원의 조성과 녹색교통수단 도입 등 순환체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추진

충주시 : 한반도의 중심에 선 21세기 중부내륙의 거점도시

개발 목표

- 사통팔달 전국교류망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
- 교통·산업·관광·교육·문화해택을 고루 갖춘 살기좋은 '도농통합 도시'
- 중원문화와 호반·온천·산악이 어우러진 '국제적인 휴양관광도시'

발전 방향

- 전국 어디서나 1시간내에 접근이 가능한 국토중심의 교통요충지
 전국 주요철도와 연결되는 철도교통망 체계 구축 (충북선 전철화, 서울~충주~분경간 내륙중단철도망)
- 적공해 첨단산업과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으로 중부내륙 경제권의 중심지
 - 서울~이천~충주~구미간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청주~충주~제천간 첨단지식산업벨트의 교차
 -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 중부내륙지역의 첨단산업 거점
- 호반·온천·산악·문화유적이 잘 어우러진 국제적 내륙관광도시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10년의 장기계획)을 토대로 민·외자 유치 개발
- 전통문화와 예술이 더욱 승화·발전된 명실상부한 중원문화예술의 중심지
 - 전국 7대 문화권으로 지정 → 국가차원의 개발 및 지원
- 지식·정보우위의 시대에 걸맞은 21C형 교육문화의 도시
 대학 및 연구소 유지를 통해 지식산업기반 구축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21세기형 교육 환경 조성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어려운 계층이 조나 전 높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선진국형 복지도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 모든 개발사업은 환경을 전제로 한 개발 추진

제천시 : 더불어 잘사는 21C 전원도시 제천 건설

개발 목표

- 차별성 있는 청풍명월의 체험적 관광휴양도시
-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전국제일의 푸른환경도시
- 역사·문화 유적지의 보고, 문화도시 제천
- 도내 북부권 국가기간 도로망을 연계한 활력있는 첨단지식산업도시

발전 방향

-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청정도시
 -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도시 조성
 - 대규모 환경처리시설의 확충과 생태계 복원으로 삶의 질 향상
- 활력있는 첨단지식 산업도시
 -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광역적 집산성 세고로 지역환경발전체계 구축
 - 전통과 첨단을 조화시킨 다양한 복합산업기지로의 수도권기능 분담
 -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역사전통의 교육 문화도시
 - 의림지, 자양영당 등 역사·문화유적지의 산교육 강화 추구
 -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교육·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 청풍명월의 관광·휴양도시
 - 특색있고 차별성 있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 및 휴양의 중심지로 개발
 - 체험적 관광과 휴양을 겸비한 재휴형 관광지로 육성

청원군 : 21세기 세계속에 우뚝서는 살기좋은 청원

개발 목표

-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지식산업의 메카
- 첨단과학과 농업이 결합된 전원지역
- 역사와 문화가 조화되는 선진관광지역

발전 방향

-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조성 및 벤처협동화단지 육성 등을 통한 지식산업의 메카로서 입지 구축
- 청주국제공항 및 경부고속전철과 연계하여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 등 지역간 교통연계망 구축을 통한 상승효과를 발휘 중부권 최대의 첨단산업지역으로 부상
- 첨단기술 및 지식을 영농과 결합시켜 대도시주변의 입지여건을 활용 교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예중심의 첨단영농 육성
- 천연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대도시 주변의 전원주거 공간으로 조성
- 선사문화유적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의 지역내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내륙교통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로 국제적인 관광문화 지역으로 말뚝을
- 청정지역으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테마가 있는 특화된 문화관광 지역으로 육성

보은군 : 보존과 개발, 관광과 농업이 조화된 희망찬 보은건설

개발 목표

-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산업 진흥
- 온 군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

발전 방향

- 전례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산업의 중점육성
- 고속교통망 조기확충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발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와 건설중인 정주~상주간 고속도로를 효과적으로 연계한 간선교통축을 중심으로 기존 공업단지 및 신설될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보조축 개발
 - 여건변화와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관광산업을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계 교통망을 확충함.
- 청정환경의 보존과 환경친화적 개발의 가속화
 - 자연환경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이 갖는 본래의 자정능력을 회복시울 유도
 - 관광개발지를 관광자원과 격리시켜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며 문화재와 자연경관은 원형 그대로를 살려 자연미적 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오염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옥천군 : 남부권의 교육·문화·경제 중심지 건설

개발 목표

- 농·공병진의 원교 산업지대 형성
- 특산물중심의 환경보전형 원교농업지대로 육성
- 공업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달성
- 정주권 형성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적정인구의 지역적 배분 유도

발전 방향

- 대도시 원교 「환경보전형」농공병진지역
 - 2000년 이후 주변도시에 분담된 대전 대도시의 상업, 고급주거 및 첨단 고부가 업종 유치
 - 원교 1차산업에서 2·3차 산업의 기능분담 전환과 새로운 기능을 개화적 시개발로 수용
 - 옥천은 대전과 불과 1.8KM거리에 4차선 국도가 연결되어 15~20분 내 왕래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옥천을 대전시민의 안정된 식량생산 및 시설원에 및 원교채소단지로 개발하여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녹색의 고장」으로 개발
- 자족형 기능도시
 - 비개발 공업지역의 개화적인 개발로 첨단 고부가업종 유치
 - 기술집약형 공업유치로 고용 및 재정자립도 제고
 - 농공단지의 확대 개발로 대도시 지원 전문 부품산업 육성
- 쾌적한 휴양공간이 풍부한 땅
 - 도시의 친환경적 개발로 환경도시 구축
 - 도로 등 기반시설 완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대청호와 담양수계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최대한 살려 소규모 집회, 연회, 숙박 연구시설을 제공하여 조용한 휴식의 고장으로 개발

영동군 : 전통과 자연, 인공이 조화를 이룬 복지영동 건설

개발 목표

- 지식감동행정의 실천
- 과학영농특화산업육성
-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
- 문화관광중심도시 추구
-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발전 방향

- 진정한 주민감동행정 구현을 위한 지식감동행정의 실천
- 지역주민의 안정된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농·공명진 정책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을 중부권(영동/용산/십전), 남부권(황간/추풍령/매곡/상촌), 서부권(양강/용화/학산/양산)의 3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개발전략을 전개
-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풍요로운 친위생활공간 조성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신문화의 수용으로 지역문화 창조
 - 국악을 테마로 한 전국적 예술행사인 난계국악축제 및 난계국악단 운영
 -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등 전통문화공간의 현대화
-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밝고 명랑한 복지사회 구현
 - 생활권역별로 지리, 조건, 주택 등에 부합되는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공급

진천군 :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생거진천

개발 목표

- 삶의 질이 보장되어 떠나고 싶지 않은 생거진천
-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립경제를 이루는 진천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미래형 자연환경의 보범을 창출하는 진천
- 차별화된 지역문화가 살아있는 진천

발전 방향

- 지역간 연계의 용이성과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기회요소의 적극적인 활용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한 자립경제를 달성
 - 오창과학산업단지(문백면 사양리) 및 생명과학, 신소재 중심의 산업단지(빅수면 산수리)를 조성
 - 연구소 개별입지시 단지화를 도모하여 지식산업과 첨단산업이 연계된 R&D 형태의 테크노파크를 조성
- 환경시대의 자연친화적 삶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자연 속의 터전을 지향
 - 생물서식공간(Biotope) 및 생태통로(Eco-Corridor)조성으로 그린네트워크를 조성
 - 향토수종을 활용한 가로수를 식재하여 개성있는 도시가로 조성
- 독특한 자연환경 및 지역 관광자원의 상품화
- 지역특유의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21세기 세계화시대에서의 문화적 경쟁력 확보
 - CIP 도입을 통해 문화 및 브랜드 상품 개발에 활용

고산군 : 21세기 축복받은 미래의 땅, 살기좋은 청정고산 건설

개발 목표

- 미래지향적 균형개발과 특화된 광역개발
- 21세기 첨단영농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 자치단체 건설
- 자연·인간·문화가 살아있는 청정고산 실현
- 주제가 있는 미래형 관광고산 조성

발전 방향

- 지역중심의 쾌적한 농촌 중소도시의 기능과 자연이 조화된 전원도시 건설
 -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촌 정주도시의 형성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주택수요의 고급화·도시화에 맞추어 주민이 만족하는 취락구조개선 및 주택보급
- 생산·유통 기능이 강화된 자족도시
 - 성장유망작목의 단지화, 무공해 유기농법의 시범지역화 등으로 선진 농업부가
 -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건설한 기업의 지역내 유치
 - 지역주변의 농·임산물을 집성, 분배하는 농특산물 유통의 중심도시 육성
- 교통의 중심도시
 -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으로 교통의 중심지 부각
 - 주변 고속도로와 연계한 국도 및 지방도의 4차선 확·포장으로 지역개발 조기 달성
- 중부권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 화양동, 쌍곡, 괴강국민관광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광명소화 추진
 - 수안보온천, 증주댐,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과 단양관경 등 주변 관광권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 지역특성에 맞는 가족 휴식공간 확충 및 개발을 통한 휴양형·연수형 관광명소 육성

음성군 : 자연 · 기술 · 환경이 조화된 그린토피아 음성 건설

개발 목표

- 농업과 공업의 조화로운 발전 ·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첨단화, 공업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의 점진적 증가지역으로 유도, 지역간 균형개발추진, 군민의 생활 편의증진
- 환경친화적 개발과 자연 · 기술 · 환경의 그린토피아 음성구현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화 · 선진화 · 기술화 추구

발전 방향

- 도시 · 농촌의 주거환경개선
 - 중소도시형 주택의 공급, 농촌주택의 건설, 주거환경 기반시설 확충
 - 정주이건을 고려한 정주마을 특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
- 공업기반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선산업 지구형의 복합단지 개발
 - 삼성덕정산업단지, 음성이노베이션파크 등
-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나 지방비 분담을 통하여 기반산업으로서의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
- 국도의 고속화사업, 지역간선도로의 확포장에 역점
 - 국도3호선 및 국도 37, 38호선 확포장 추진
 - 국도36호선(음성 소이-충주를 연결) 추진, 지방도 515호선 확포장
- 생태교육장건설, 비지터센터전립, 도심자연하천조성 등 환경친화적 개발 추진

단양군 :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떠오르는 푸른 관광단양

개발 목표

- 대자연과 푸른 비전이 함께 하는 휴양레저 스포츠의 관광단양
- 역사문화유적과 현제가 어우러진 현대예술지향의 문화단양
- 작지만 여유롭고 인정이 넘쳐나는 향기로운 전원의 푸른단양

발전 방향

- 지역 내 산재한 관광자원을 1개의 관광거점과 4개 소권역의 특화지역으로 구분
 - 관광거점: 단양읍
 - 소권역 : 북부특화지역(매포읍), 동부특화지역(온달지구 및 영춘북벽지구), 남부특화지역(대강면 남천·남조리·사인암 일대), 서부특화지역(금수산 및 옥순·구남봉 지역)
- 매포 우덕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멘트 산업 기반(석회석 자원 및 시설기반)을 집단지화·집단지화하는 대규모의 석회 산업특화지구조성과 2개소의 중앙고속도로 IC인근에 위치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발전
- 특화작목 육성과 대도시 직거래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통해 문화관광, 기간산업, 환경농업을 상호 공동 발전
- 청정자연의 산수관광을 기본으로 수양개 등 선사문화유적, 산성 등 다양한 국경역사문화와 전통도예, 체험레저 등 선사에서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문화와 현대의 테마가 조화되는 방향의 관광개발

중평출장소 : 21세기 중부권 핵심의 새 천년 새 중평 건설

개발 목표

- 충북의 남부와 북부개발축의 걸림도시 중평
-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메카 '첨단중평'
- 역사·문화 창조의 '관광중평'
- 환경보전, 생활·복지환경개선을 통한 전국세일의 "삶의 질"을 보장

발전 방향

- 충북의 남부와 북부개발축을 연결하는 걸림도시 역할 감당
 - 모든 분야의 중심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개편
 - 중앙 및 도 단위기관과 대학유치, 지역 공간 기능별 토지이용 체계를 확립
-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메카 「첨단중평」
 - 도·농간 적거리 시스템 개발 및 충북 인산에 대한 고부가가치 청주 과학대 4년제 승격추진과 관광·정보대학 등의 유치 및 설치
- 역사문화 창조의 「관광중평」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인위적 관광자원을 조성 (수북원, 자연생태고원, 문화의 거리 조성)
 - 관광 종합 정보센터건립과 충북 종합 관광판매망 구축 등 마케팅체계를 구축
- 전국 세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중평」
 - 도·농 지역을 구분한 환경 친화적 도시개발과 경관보전 및 복지공간 조성
 - 사회복지 분야에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체육·문화 등 활동공간의 설치

시·군별 개발방향 종합표

지역	계획기조	지역기능	산업기능	관광기능
청주시	-중부권의 미래를 여는 국제문화 교류의 중심지	-중부권의 중추도시로서 산업경제 및 생활 환경의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	-첨단산업 중심의 교육, 연구, 생산 및 정보기능을 갖춘 도시	-고인쇄문화와 공예산업의 세계화를 통한 독자적 문화인프라 구축
충주시	-한반도의 중심에 선 21세기 중부 내륙의 거점도시	-중부내륙 경제권의 중심지 -국토중심의 교통요충지	-무공해 도시형 공업단지 조성 (신니면) -지역특산물육성 (사과, 밤, 복숭아 등) -축산경쟁력 제고	-충주관광종합개발 계획 (10년) -중원문화권 개발 (중원 문화 DB구축 및 문화마케팅 추진)
제천시	-더불어 잘사는 21C 전원도시 제천 건설	-내륙지역의 사통팔달 중심지 -복합산업기지로의 수도권기능 분담	-첨단산업단지 조성 -채소, 버섯, 화훼 재배 확대 -지역특화식품 개발	-역사문화테마 관광지 (의림지, 박달재) -산수휴양 관광지 -체류형 관광지
청원군	-21세기 세계속에 우뚝 서는 살기 좋은 청원	-주변대도시 주민들의 거주공간 -중부지역 물류의 중심지	-원예중심의 첨단 영농 육성 -지식산업의 메카 -중부권 최대의 첨단 산업지역	-체험/체류/실버/모험형 등의 다양한 참여형 위락시설 도입 -관광벨트사업 개발
보은군	-보존과 개발, 관광과 농업이 조화된 희망찬 보은건설	-청정특산물 생산에 적합한 입지 -미래 관광수요의 패턴에 맞는 최적지	-특화작목 육성, 지역특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를 조성 -계획적인 공업단지 조성 -관광산업을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육성	-체류형 관광지 개발 -연중 및 장기체제 휴양 관광지화 -자연/문화/향토/유산 등이 종합적으로 융화된 관광 창조
옥천군	-남부권의 교육·문화·경제 중심지 건설	-대전권의 위성도시 -녹색/휴식의 고장 -보은/옥천/영동의 중심 생활권	-농업권역별 개발 -무공해 공단조성 -농업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레저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전천후 관광 이벤트 창출 -관광지간 순환 이용체계 구축
영동군	-전통과 자연, 인공이 조화를 이룬 복지영동 건설	-문화관광중심도시 -편리한 수송망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	-과학영농특화산업 -과실생산지원체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특색있는 관광개발 (양산팔경, 울한계곡, 한천팔경) -문화관광선략 (난계국악축제, 국악 박물관)

- 계속 -

지 역	계획기조	지역기능	산업기능	관광기능
진천군	-전통산업과 첨단 산업이 조화를 이 루는 생거진천	-관광 및 여가공간으로 서의 중심성 이용 -지역간 연계의 용이 성, 수도권 인접지역	-농업의 2차/3차 산업 화 -핵심부품 생산업종 -R&D 형태의 테크노 파크 조성	-생태 관광 이미지 실현 (왜가리도래지 등) -통일대탐, 화랑축제, 독립기념관을 연계한 호국관광이벤트
괴산군	-21세기 축복받은 미래의 땅, 살기 좋은 청정괴산 건 설	-교통의 중심지 -수도권 기능의 분산수 용 -휴양관광 거점지역	-고추공사를 설립, 규 모의 경제 실현 -토종어종 집단 양식장 을 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첨단기업 및 우수 중 소기업 유치	-주변 관광권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휴양형/연수형 관광 명소 육성 -4대 관광권역 설정
음성군	-자연·기술·환경 이 조화된 그린도 피아 음성 건설	-중부내륙의 핵심 공업 지역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 지	-신산업 지구형의 복합 단지 개발 -꽃단지, 과학산업단지 조성 -정보통신사업 촉진	-수변휴양 관광지, 특산 물 관광단지 조성 -차곡 종합관광 휴양단 지 조성
단양군	-중부내륙을 대표 하는 떠오르는 푸 른 관광단양	-교통관광 결절지 -수도권 배후기능의 역 할 분담 -특화산업지구	-석회 산업특화지구 조 성(애포 우덕 지구) -특화작목 육성 및 직 거래	-청정자연과 조화되는 체류형 관광유도 -문화관광유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조화)
증 평 출 장 소	-21세기 중부권 핵 심의 새 천년 새 증평 건설	-수도권과 청주권의 기능을 분담 수용 -충북의 남부와 북부개 발축을 연결하는 결절 도시 역할	-첨단 농업단지 조성 -과학영농화와 충북 인 삼의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 제조 산업 육성	-충북관광종합센터 설 치 (미케팅체계구축) -내·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휴양도시 건설



부문별 투자계획

- 농업 부문 -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2014	주채별 분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안생산업 경정확	생산업 규모화 및 유관농지모전	일반경지정리	3,580.0	00~11	186.0	280.0	250.0	250.0	250.0	1,500.0	864.0	2,860.0	360.0	360.0	
		대구확경지정리	2,125.0	00~15	62.0	100.0	100.0	100.0	100.0	750.0	750.0	1,700.0	425.0		
		영농규모화 사업	775.0	00~04	149.0	152.0	155.0	158.0	161.0			775.0			
		농지관리시스템구축	15.0	01~10		1.7	1.7	1.6	1.7	7.0	1.3		15.0		
		일반농수개발	1,183.2	01~10		29.3	29.3	29.4	36.7	812.2	246.3	1,183.2			
		추경농생신화	60.4	01~10		3.6	3.6	3.6	10.0	34.7	4.9		60.4		
농산물 가치	농산물 가치	쌀농도 고급 다양화(기술개발)	1.5	01~03		0.3	0.3	1.0					1.5		
		농산물대체 추진	319.0	00~20	21.0	23.0	23.0	23.0	23.0	107.5	92.5	141.0	64.0	114.0	
		쌀전업농육성	500.0	02~06			100.0	100.0	100.0	200.0		500.0			
		지역특화작물수신단지 조성	132.6	00~02	32.6	50.0	50.0						112.6		20.0
		상표포장재 개발보급	82.0	01~14		5.0	7.0	10.0	10.0	20.0	30.0		82.0		
		대내외적인 홍보사업	20.0	00~09	2.0	2.0	2.0	2.0	2.0	10.0			20.0		
농산물 가치	농산물 가치	지역특화작물 고급화	25.0	02~06			5.0	5.0	5.0	10.0		20.0	5.0		
		수출전략거점단지 조성	40.0	00~09	2.0	2.0	2.0	2.0	2.0	30.0		20.0	10.0		10.0
		해외시장개척	203.9	00~14	0.9	5.0	9.0	39.0	40.0	90.0	20.0		203.9		
		가공농산물 특화전략추진	250.0	02~14			3.0	3.0	4.0	40.0	200.0	100.0	100.0		50.0
		수출주력품목 신장육성	160.0	01~09		20.0	20.0	20.0	20.0	80.0			160.0		
		수출산업육성의 추진	70.0	02~14			3.0	3.0	4.0	30.0	30.0		50.0		
농산물 가치	농산물 가치	수출농업육성기금 조성	60.0	01~14		5.0	5.0	5.0	5.0	10.0	30.0		60.0		
		인상산업의 고부가가치화	2,175.0	00~09	145.0	145.0	145.0	400.0	470.0	870.0			2,175.0		
		농산물수출입 전매증전 건 선	500.0	05~09						500.0		300.0	100.0		100.0
		농산물전문판매단지 조성	200.0	05~09						200.0			100.0		100.0
		해외 수출농산물판매장 개설	70.0	02~14			3.0	3.0	4.0	20.0	40.0		50.0		20.0

기술집약적 산업화	첨단신농업기술의 개발	350.0	00~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200.0	100.0	50.0
	신품종개발 확대	2.0	00~14	0.3	0.3	0.3	0.2	0.1	0.4	0.4	1.0	1.0			
	안전생산기술 개발	5.3	00~14	0.5	0.7	0.6	0.8	0.7	1.0	1.0	5.3				
	시설농업 지속확대	382.0	00~09	7.0	44.0	39.0	50.0	50.0	192.0		34.0	39.0			309.0
	과학영농통목지구 육성	1,120.0	00~14	81.0	99.0	100.0	200.0	200.0	440.0		500.0	200.0	180.0		240.0
	벤처농업육성	800.0	00~09	67.0	63.0	70.0	100.0	100.0	400.0		500.0	150.0	150.0		
	첨단농기업 육성	73.0	00~09	3.0	10.0	10.0	10.0	10.0	30.0		73.0				
	발기반정리	750.0	00~15	65.0	65.0	60.0	60.0	60.0	250.0	190.0	600.0	75.0	75.0		
	농작업의 100%기계화	2,790.0	00~09	260.0	260.0	270.0	500.0	500.0	1,000.0		2,790.0				
	농업용수 개발확대	5,214.0	00~20	424.0	408.0	425.0	386.0	312.0	1,529.0	865.0	5,068.0	44.0	102.0		
농특 산품의 고부가 가치화	농업생산기반 의 조성	182.0	01~10		16.1	16.1	16.2	18.3	95.7	19.6	182.0				
	배수개선사업	291.0	00~04	96.0	88.0	81.0	14.0	12.0			230.0	31.0	30.0		
	기계화 경작로 확보	200.0	02~05			50.0	50.0	50.0	50.0		100.0	100.0			
	농기계구입자금지원 확대	10.0	00~04	2.0	2.0	2.0	2.0	2.0				10.0			
	농업인력의 정예화	46.0	00~09	10.0	10.0	6.0	5.0	5.0	10.0		46.0				
	특성화대 학지원	2.4	00~09	0.1	0.5	0.6	0.3	0.3	0.6			2.4			
	농작물 증자은행 운영	14.6	00~14	0.5	5.6	0.7	0.6	0.6	1.6	5.0		14.6			
	동물유전자은행 운영	5.6	00~14	0.6	0.5	0.5	0.5	0.5	1.0	2.0		5.6			
	식물유전자은행 운영	3.5	00~09	0.4	0.4	0.4	0.4	0.4	1.6		3.5				
	농업안전산업 교육	36.0	00~14	2.4	2.4	2.4	2.4	2.4	12.0	12.0		18.0	18.0		
생산지원기반 의 조성	마을 농업정보센터 설치	2.9	00~02	1.0	1.0	1.0						2.9			
	영농조합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1,036.0	00~04	171.0	181.0	186.0	249.0	249.0			724.0	156.0	156.0		
	성주권 개발사업	800.0	03~09				300.0	300.0	200.0		300.0	250.0	150.0	100.0	
	농산물도매센터 확대														

구분	유형물류시설 의 확충	특수신물처리장	100.0	00~0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0		50.0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556.0	00~09	36.0	40.0	100.0	120.0	220.0				556.0						
특 수 신 물 의 고 부 가 가 치 화	농산물 보 호 확 대	계약재배 확대	405.0	00~02	130.0	135.0	140.0							405.0						
		농특산물축제의 내실화	110.0	00~14	2.0	2.0	2.0	2.0	50.0	50.0			110.0							
		농산물 전지상거래	150.0	05~14						50.0	100.0		100.0	50.0						
		농특산물홍보전략 추진	10.0	01~04		2.0	2.0	3.0	3.0				10.0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추진	0.6	00~02	0.1	0.2	0.2						0.3	0.3						
		상품홍보 강화	20.0	00~09	3.0	3.0	3.0	3.0	3.0	5.0				20.0						
	농특산물의 보 호 확 대	농업환경변동 모니터링	6.9	00~14	0.2	0.4	0.3	1.0	1.0	2.0	2.0			6.9						
		식물생태 및 토양연구	45.0	00~14	5.0	5.0	5.0	5.0	5.0	10.0	10.0		15.0	20.0	10.0					
		농업환경정비화	100.0	00~14	5.0	5.0	5.0	5.0	5.0	25.0	50.0		30.0	30.0	20.0	20.0				
		진통식품테마마을 육성	2.0	0	2.0									1.0	1.0					
		에너지 대체기술개발	1.8	00~04	0.3	0.5	0.5	0.2	0.3				1.8							
		신소재 이용기술 개발	9.6	00~04	1.2	1.2	3.2	2.0	2.0					9.6						
환 경 보 호 확 대	친환경 농 업 의 정 착 한 발 달	환경농업 기술개발	9.5	00~14	0.6	0.7	0.8	1.6	1.6	3.8	0.4			9.5						
		친환경 농업시범마을 육성	1.8	00~01	0.9	0.9							1.4		0.4					
		친환경 농업직접지원체	150.0	00~20	8.0	8.0	8.0	8.0	8.0	40.0	40.0	30.0	150.0							
		환경농업 교육장 설치	3.5	0	3.5								1.5	0.5	1.0	0.5				
		병해충종합관리(IPM)모델 개발	3.1	00~10	0.3	0.3	0.5	0.2	0.3	0.5	1.0		2.0	1.1						
		기상재해시스템 선진화	70.0	00~09	5.0	3.0	2.0	15.0	15.0	30.0				70.0						
친 화 성 농 업 의 추 진	친환경 농 업 의 추 진	투약개량제 공급	364.0	00~20	26.0	26.0	26.0	26.0	26.0	78.0	78.0	286.0	36.0	42.0						
		오지종합개발사업 육성	740.0	00~04	137.0	153.0	152.0	147.0	151.0					518.0	111.0	111.0				
		신촌종합개발사업 육성	706.0	00~06	29.0	30.0	30.0	170.0	170.0	277.0			360.0	80.0	266.0					
		축산물 종합처리장	20.0	00~02	10.0	10.0						14.0				6.0				

영역	내수면 어업 개발	토종어종류 보존 육성	20.0	00~09	2.0	2.0	3.0	3.0	3.0	5.0	5.0	10.0	5.0	5.0	
지속가능 개발	지속가능 개발	신원생태공원 조성	30.0	00~09	2.0	2.0	2.0	2.0	3.0	6.0	15.0	10.0	10.0	10.0	
생태 환경	생태 환경	세전년순자의 숲 조성 확대	20.0	00~09	2.0	2.0	2.0	2.0	2.0	2.0	10.0	5.0	15.0		
생태 환경	생태 환경	종합관광농원 육성	13.0	00~02	1.0	6.0	6.0							13.0	
생태 환경	생태 환경	민박마을 조성화	9.0	00~02	1.0	4.0	4.0							9.0	
생태 환경	생태 환경	문화마을 조성사업	2,025.0	00~07	96.0	96.0	250.0	250.0	250.0	250.0	1,083.0	1,420.0	303.0	302.0	
생태 환경	생태 환경	전원주택단지	1,060.0	00~09	120.0	120.0	120.0	350.0	350.0	200.0	150.0				1,060.0
생태 환경	생태 환경	휴양실버타운	700.0	05~09							700.0				700.0
생태 환경	생태 환경	전원동호인촌	500.0	02~09			10.0	20.0	20.0	30.0	440.0				500.0
생태 환경	생태 환경	Green Tour 프로그램 활성화	51.0	00~05	0.2	0.3		0.5	0.5	20.0	30.0		51.0		
생태 환경	생태 환경	농업부문 합계	34,676.7		2,441.6	2,759.8	3,075.9	4,243.5	4,167.9	12,910.6	3,835.4	1,242.0	18,564.4	1,887.7	3,684.5

- 산업 부문 -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20	추채별 분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국 내 중 신 전 지 영	첨단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첨단지식산업벨트 조성	35,000.0	05~20							5,000.0	15,000.0	15,000.0			35,000.0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12,000.0	02~09			700.0	2,500.0	2,500.0	6,300.0			1,000.0			11,000.0
		오창과학산업단지	6,328.0	00~04	1,313.0	558.0	457.0	2,000.0	2,000.0				600.0			5,728.0
		벤처빌딩건립	50.0	01~03		20.0	20.0	10.0					50.0			
		벤처기업임대공간조성	128.0	00~01	26.0	102.0								128.0		
		충주과학산업단지	3,000.0	05~09						3,000.0						
		아파트형 공장건설	2,100.0	02~08			300.0	300.0	300.0	1,200.0			1,000.0	1,100.0		
		기존산업단지 활성화	1,100.0	02~07			100.0	100.0	200.0	700.0						1,100.0
		협동회사업 육성	111.0	1		111.0								111.0		
		과학영재교육센터 운영	3.6	00~02	1.2	1.2	1.2							3.6		
지 기 자 확 충 내 위 용	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교류 인적확대	외국투자유치 활성화	50,000.0	01~20		1,000.0	1,000.0	1,000.0	1,000.0	6,000.0	20,000.0	20,000.0				50,000.0
		해외연수 및 파견제도 확대	75.0	00~14	1.0	1.5	2.5	5.0	5.0	10.0	50.0			75.0		
		공동프로젝트개발	300.0	05~14						100.0	200.0		200.0	50.0		50.0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105.0	00~09	2.0	5.0	8.0	10.0	10.0	20.0	50.0			105.0		
		과학기술인력 보강	600.0	05~14						300.0	300.0			600.0		
		지역내외 과학기술인력의 DB화	2.0	01~02		1.0	1.0							2.0		
		연구개발기반 확충	6.0	00~04	0.5	0.5	1.0	1.0	3.0					6.0		
		기능간 연계체계 확립	100.0	10~14							100.0			50.0		50.0

450

- 교통·물류·정보통신 부문 -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20	주제별 분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국 향	동맥아 목류전단 물류공영 항상	황주로 확장	1000	-2020							1000		1000			
		계류장 확충	92	-2003	17	30	30	15					92			
		화물정사의 건립	500	-2009		30				470						500
도 로	동서간 지역 통합을 위한 고속 도로망 구 축	고동애로구간 국도의 4차선화장 (47개 노선)	24,862	-2020		1,500	1,850	2,500	3,500	5,512	10,000		24,862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0개 노선)	6,223	-2010	50	250	300	450	1,000	4,173			4,356	1,867		
		국도대체 우회도로 (6개 노선)	5,637	-2010	50	70	180	220	500	4,617			3,946	1,691		
		지방도로 확포장 지원 (18개 노선)	10,951	-2015	500	750	900	1,500	1,500	3,801	2,000			10,951		
		지방도 정비사업 (28개 노선)	730	-2009	40	45	45	50	50	500				730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량 (2개 노선)	42	-2004	5	7	9	11	10					42		
		군도 정비 (195개 노선)	952	-2020	51	51	47	47	47	235	235	239	762	190		
		농어촌도로 정비 (1950개 노선)	2,079	-2005		376	395	415	436	457			1,767	312		
		자동차 전용도로화 추진 (4개 국도)	7,500	-2004		1,500	1,500	2,000	2,500				7,500			
		도계연결국도 4차선 확장	3,500	-2009		700	900	800	500	600			3,500			
		중부내륙고속도로 (음성-김곡-괴산 연통)	22,394	-2004	3,874	4,155	4,500	5,000	4,865				22,394			
		중앙고속도로 (세천-봉양-단양 대강)	7,653	-2001	4,285	3,368							7,653			
		포항 개설 (19개 사업)	799	-2007		50	75	118	120	436			799			

도	로	인중-삼척간 고속도로 (동서 4축)	72,131	-2020	1,120	2,580	2,575	2,500	3,000	10,400	23,450	26,506	72,131		
		서천-괴산-물진간 고속도로 (동서 5축)	19,200	-2020						4,800	9,600	4,800	19,200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동서 6축)	8,050	-2006	550	800	1,500	1,800	1,500	1,900			8,050		
		국도연결 건널목 정비	292	-2005		50	50	60	70	62			292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	1,374	-2004					1,374				1,374		
		종합환승센터 설치	400	-2010						400					400
		충북선 전철화 사업	2,636	-2003	784	500	700	653					2,636		
		청주-대진간 도시철도 (청주권 경전철 포함)	7,123	-2020							3,560	3,563			7,123
		지역간 연결철도 (이천-문경)	7,164	-2019							3,258	3,906	7,164		
		중앙선 전철화 사업 (원주-영천)	8,595	-2017		9	35	47	113	1,655	4,385	2,350	8,595		
		태백선 전철화 사업 (제천-태백)	3,219	-2014						966	2,253		3,219		
		음성종합유동단지 건설	250	-2007		50	50	71	50	29					250
		충부내륙간 유동단지 건설 (송주)	600	-2009						600					600
		유동단지 건설(제천 봉양)	500	-2010						500					500
		제천 대화화물터미널	30	-2004		10	10	5	5				15		
		연풍 농산물 유통센터	40	-2004		10	10	10	10				20		
		이원 농산물 유통센터 건설	50	-2004		10	10	20	10				25		
		모은 농산물 유통센터 건설	50	-2004		10	10	20	10				25		
		웅산 화물유통센터 건설	250	-2005		20	30	30	20	150			125		
		증평 인심유통센터 건설	400	-2004		50	100	150	100				200		
		충부권 내륙화물기지(무강)	3,529	-2010			300	500	900	1,829					3,529

도 시 교 통	종합적인 도시교통 계획추진	지천거도로(394개 노선)	938.5	-2009	70.0	80.0	85.0	90.0	100.0	513.5		469.3	469.3			
		종합교통안내시스템 도입	50.0	-2006			20.0	20.0	5.0	5.0	20.0		25.0	25.0		
		보행자 도로종합정비 (총 6개 사업)	400.0	-2009		30.0	50.0	50.0	50.0	50.0	220.0			400.0		
		교통계획조사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15.0	-2002				15.0						15.0		
		버스, 택시정류장시설 현대화	100.0	-2010		5.0	5.0	5.0	5.0	15.0	70.0		50.0	50.0		
		Park & Ride 주차장	350.0	-2004					150.0	200.0						350.0
		자전거 주차장 건설	4.0	-2004			0.5	1.0	1.0	1.5				4.0		
		지도제작 및 주차장 안내시스템 정비	2.0	-2002				2.0							2.0	
		TDM 및 TSM 도입	50.0	-2009								50.0		25.0	25.0	
		ATIS 도입	50.0	-2006								50.0			50.0	
		교통정보센터	10.0	-2004							10.0				10.0	
교통물류 합계		232,766.5		11,396.0	17,096.5	16,289.0	19,293.0	22,571.5	45,015.5	59,741.0	41,364.0	202,271.3	17,243.3	0.0	13,252.0	
정보 통신	정보화 촉진을 위한 동지 역개 발추 진	중소기업 정보화 창업지원	3,800	-2010		300.0	400.0	500.0	500.0	2,100.0		3,800.0				
		읍면동 정보집근 청구화 (CAP)	120	-2006		10.0	10.0	15.0	15.0	70.0		120.0				
		RIC와 CAP 간 정보통신망 구축	800	-2010							800.0		800.0			
		전사적 정보시스템(ERP) 구 현	150	-2005			30.0	50.0	50.0	20.0		150.0				
		S/W 벤처기업 육성기금	1,500	-2010		200.0	250.0	250.0	300.0	500.0		1,500.0				
		S/W 벤처인대공단	2,600	-2015		100.0	200.0	200.0	100.0	1,000.0	1,000.0		1,300.0	1,300.0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설립	500	-2006		50.0	50.0	150.0	150.0	100.0		250.0			250.0	
		지역산업·경제 D/B 구축	13.9	-2005	0.5	1.5	8.5	2.4	0.5	0.5			7.0	7.0		
		기업경영지원센터 설립	27	-2005		12.0	10.0	3.0	1.0	1.0			18.9			8.1

454

- 문화 부문 -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20	주제별 분량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	문화재 및 문화유적의 보존 정비	3,047.0	1998-2020	107.0	120.0	130.0	140.0	150.0	800.0	800.0	800.0	1,828.2	804.4	414.4	
		문화유적의 체계적 발굴조사	52.0	2001-2020		1.0	1.0	10.0	10.0	10.0	10.0	10.0	12.0	20.0	10.0	10.0
		중원문화의 발굴과 진흥	38.0	2001-2020		2.0	3.0	4.0	4.0	20.0	2.0	3.0	10.0	20.0	8.0	
	지역정체성 확립	지역박물관 확충과 특성화	220.0	2001-2020		20.0	20.0	20.0	20.0	80.0	30.0	30.0	120.0	50.0	20.0	30.0
		중원문화권의 위상 재정립	100.0	2001-2009		10.0	20.0	20.0	20.0	30.0			50.0	30.0	20.0	
		중부학연구소 활성화	17.7	1999-2009	0.7	1.0	1.0	1.0	1.0	5.0	4.0	4.0		10.7	4.0	3.0
문화예술의 창조력 고취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도시 공간	4.0	2005-2009						4.0				3.0	1.0	
		지역정체성 찾기	5.0	2005-2009						5.0				3.0	1.0	1.0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 (문화회관, 문화회관, 도서관)	295.0	2001-2009		35.0	20.0	40.0	60.0	140.0			150.0	65.0	65.0	15.0
	문화재정확대	문화예술인과 단체 지원	38.0	2000-2020		3.0	4.0	5.0	5.0	7.0	7.0	7.0	10.0	16.0	8.0	4.0
		문화예술기금 확대	152.0	2001-2020		7.0	8.0	8.0	9.0	40.0	40.0	40.0		24.0	28.0	100.0
		지역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1.3	2001-2004		0.3	0.5	0.3	0.2					0.3	0.3	0.7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재단 설립, 운영	150.0	2005-2015						100.0	20.0	30.0	20.0	20.0	15.0	95.0
		문화의 거리 확대 조성	10.0	2003-2010				1.0	1.0	5.0	3.0		3.0	4.0	2.0	1.0
		충북문화정보센터 운영	10.0	2003-2014				1.0	1.0	3.0	5.0		3.0	4.0	2.0	1.0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상품 개발	37.0	2000-2014		2.0	3.0	3.0	5.0	12.0	12.0			3.0	6.0	28.0
		문화산업 육성	1,900.0	2001-2020		100.0	100.0	200.0	200.0	600.0	400.0	300.0	500.0	200.0	300.0	900.0
		태미투어코스 개발	4.0	2001-2004		1.0	1.0	1.0	1.0					1.0	3.0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역문화 이벤트 특성화	향토문화축제의 활성화	26.0	200-2004	4.0	5.0	5.0	6.0	6.0				10.0	5.0	11.0	
		국내외 문화교류 확대	30.0	2005-2020						10.0	10.0	10.0		10.0	5.0	15.0
		문화부문 합계	6,137.0		111.7	307.3	316.5	460.3	493.2	1,871.0	1,343.0	1,234.0	2,716.2	1,293.4	923.7	1,203.7

- 관광 부문 -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20	주제별 분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어벤처형 관광 개발 추진	관광개발의 원리조트화	아간돌개장 운영	100.0	2000-2002			8.0	12.0	40.0	40.0			10.0	4.0	6.0	80.0
		청룡호 수경공원 조성	100.0	2002-2006			20.0	20.0	20.0	40.0			4.0	2.0	2.0	92.0
		수안모 돛단배장 건설	150.0	2000-2006			5.0	5.0	10.0	130.0			10.0	5.0	5.0	130.0
		속리산 레고도미노홀 건설	400.0	2000-2002			30.0	50.0	100.0	220.0			10.0	5.0	5.0	380.0
		생태 체험공원 조성	300.0	2001-2010		20.0	40.0	23.0	23.0	194.0			12.0	5.0	7.0	276.0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4,000.0	2000-	4.0	6.0	20.0	30.0	50.0	1,000.0	1,210.0	1,680.0	800.0	100.0	200.0	2,900.0
		충북한타지아월드 조성	2,500.0	2010-							2,500.0		100.0	40.0	60.0	2,300.0
		워터프론티어 조성	1,500.0	2005-						450.0	1,050.0		60.0	20.0	40.0	1,380.0
		지구촌 테마파크 조성	2,000.0	2005-						600.0	700.0	700.0	80.0	30.0	50.0	1,840.0
		휴양메디컬리조트 건설	2,500.0	2005-						750.0	750.0	1,000.0	100.0	50.0	50.0	2,300.0
		기존관광지 확충 보강 정비	6,000.0	2005-						2,000.0	2,000.0	2,000.0	500.0	250.0	250.0	5,000.0
		내륙순환도로이미지화사업 추진	3,500.0	1997-	60.0	60.0	60.0	60.0	60.0	450.0	750.0	2,000.0	60.0	30.0	30.0	3,380.0
관광특구 및 개발촉진 지구 육성	관광특구 개발촉진 지구 육성	관광도로경관디자인계획 추진	5.0	2002			5.0							3.0	2.0	
		속리산관광특구활성화	866.0	1997-2010	1.0	1.0	156.0	156.0	156.0	396.0			30.7	17.8	17.5	800.0
		수안모관광특구활성화	1,413.0	1997-2010	2.0	2.0	302.0	171.0	171.0	400.0	365.0		70.0	35.0	35.0	1,273.0
		단양관광특구지정개발	2,700.0	2000-	4.0	140.0	140.0	75.0	75.0	570.0	600.0	1,096.0	62.0	26.0	36.0	2,576.0
		개발촉진지구관광개발	4,104.0	1997-	70.0	230.0	460.0	570.0	575.0	2,199.0			409.0	200.0	341.0	3,154.0
어벤처형 관광 개발 추진	관광특구 개발촉진 지구 육성	전국민속대축제 개최	6.0	2006-						1.8	4.2		1.0	1.0	4.0	

어 드 벤지 관 개 수	관광특구 및 개방특지 지구 육성	온천수 식생원 조성	150.0	2005-							45.0	105.0		6.0	2.0	4.0	138.0
		도담섬봉신비효과 연출	50.0	2006-							15.0	35.0		2.0	1.0	1.0	46.0
		새천년 전구소로드 조성	300.0	2006-							90.0	210.0		12.0	6.0	6.0	276.0
		불교성물 조각놀이공원 조성	30.0	2006-							9.0	21.0		1.0	1.0	2.0	26.0
		보은대로 명상길 조성	30.0	2010-								30.0		1.2	0.6	0.6	27.6
		남원강 아드벤처 조성	300.0	2010-								300.0		12.0	6.0	6.0	276.0
		스포츠게이트타운 조성	6,000.0	1999-	1.0	4.0	150.0	150.0	155.0	340.0	1,200.0	4,000.0	200.0	60.0	60.0	60.0	5,680.0
		충정복도 말레 나이트온 건설	1,534.0	2000-2004	50.0	450.0	400.0	300.0	200.0	134.0				500.0			1,034.0
		충주 백건제힐 타운	100.0	2010-								100.0		3.0	2.0	5.0	90.0
		괴산 연수타운 조성	5,400.0	2004-					300.0	500.0	900.0	3,700.0	100.0	40.0	60.0	60.0	5,200.0
타마힐 신규 관광지 개발	제천 청풍랜드 조성	2,000.0	2006-						303.6	708.4	988.0	50.0	20.0	20.0	20.0	1,910.0	
	보은 명성체힐 파크	100.0	2015-							20.0	30.0	50.0	3.0	1.5	1.5	94.0	
	청주랜드 개발	350.0	2001-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0	250.0
	중평 인삼가공타운 조성	10.0	2002-2004			5.0	3.0	2.0					0.5	0.5	9.0		
	영동 국악타운 조성	1,270.0	1997-	5.0	3.0	46.0	20.0	20.0	300.0	400.0	476.0	127.0	50.0	77.0	77.0	1,016.0	
	옥천 바이오 체힐농장	20.0	2001-		5.0	5.0	5.0	5.0					1.0	0.5	0.5	18.0	
	무극 금광힐리지 조성	700.0	2010-							200.0	500.0	10.0	5.0	5.0	5.0	680.0	
	진천 화랑테마 파크	15.0	2000-	2.0	2.0	3.0	3.0	5.0					3.0	1.0	1.0	10.0	
	넉당 도 자체힐 파크	900.0	2000-	6.0	14.0	20.0	20.0	20.0	20.0	20.0	630.0	36.0	18.0	18.0	18.0	828.0	
	지 식 기반형 관 광 신 업 육	관광인큐베이티스시스템 구축	50.0	2001-		2.0	2.0	2.0	2.0	2.0	40.0		10.0	5.0	5.0	30.0	
관광상품개발기획단 운영		5.0	2001-		0.5	0.5	0.5	0.5	1.0	2.0			2.0	3.0			
관광캐릭터 개발사업 육성		6.0	2000-	0.5	0.5	1.0	1.0	1.0	2.0					1.5	1.5	3.0	

지리산악지형도

관공매업 사업진 행현황	관공매업 사업진 행현황	관공매업 사업진 행현황	충북 관광 CF제작 방영	3.0	2001-		1.0	2.0									3.0		
			지치단체장 투어개발	4.0	2001-		1.0	1.0	1.0								4.0		
			관광정보지원체계 구축	5.0	2000	5.0										3.5	1.5		
			지역전문관광가이드제도 도입	4.0	2001-		1.0	1.0	1.0	1.0							2.0	2.0	
			테마 미니박물관 조성	50.0	2002-			10.0	4.0	4.0	15.0	17.0			2.0	3.0	5.0	40.0	
			관광 CIP 전략 추진	30.0	2002-			6.0	6.0	6.0	6.0	6.0			5.0	10.0	15.0		
			외래관광객 유치촉진계획 수립시행	10.0	2001-		0.5	0.8	0.8	0.9	7.0				3.0	3.0	4.0		
			관광미디어 믹스관 설치	30.0	2005-						10.0	10.0	10.0		10.0	5.0	15.0		
			관광여행자의 집 설치	30.0	2006-						9.0	21.0			2.0	1.0	1.0	26.0	
			야경 관광이벤트 활성화 사업 추진	10.0	2006-						3.0	7.0			0.4	0.2	0.2	9.2	
			충북관광공사 설립	80.0	2005-						24.0	56.0			4.0	4.0	4.0	68.0	
			국제출발교류진 순회개최	10.0	2010-							10.0			0.4	0.2	0.2	9.2	
			국제관광마케팅 추진	5.0	2010-							5.0			0.2	0.1	0.1	4.6	
			관광협회업무기능보강	5.0	2000-	1.0	1.0	1.0	1.0	1.0						5.0			
			외국인관광투자 자유지역 지정개발																
			국제관광투자 합작사업 추진																
			관광부문 합계			61,953.4		316.7	1,094.4	2,136.5	1,935.5	2,300.6	12,135.6	18,251.2	23,783.0	4,209.4	2,080.2	1,996.2	53,667.6

- 주거 및 도시개발사업 부문 -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20	주체별 분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거 및 도시개발사업	주거 및 도시개발	신규주택사업	16,930.0		900.0	1,050.0	1,050.0	1,050.0	1,050.0	5,230.0	3,300.0	3,300.0	1,693.0	1,693.0	1,693.0	11,851.0	
		주거환경개선사업	1,310.0		65.0	65.0	65.0	65.0	80.0	300.0	320.0	350.0	524.0	196.5	589.5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18,210.0	2000-2007	719.0	1,640.0	2,977.0	1,249.0	1,175.0	3,750.0	3,200.0	3,500.0			2,731.5	15,478.5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실태조사	10.0	2003~2004				5.0	5.0					10.0			
		광역도시계획수립	5.0	2001		5.0								5.0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3.0	2002			3.0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수립	12.0	2001~2002		12.0									4.0	8.0	
		오송신도시개발사업	14,200.0	2002~2016			40.0	100.0	200.0	200.0	1,000.0	1,000.0	11,860.0		3,000.0	3,200.0	8,000.0
		소도읍개발사업	1,402.0	계속사업	72.0	70.0	70.0	70.0	70.0	70.0	350.0	350.0	350.0	350.0	350.0	702.0	
		개발촉진지구	20,000.0	2000~2004 (계속사업)	150.0	200.0	200.0	250.0	250.0	500.0	5,000.0	6,000.0	7,700.0	2,000.0	2,000.0		16,000.0
		정주권개발사업	4,130.0	계속사업	170.0	180.0	180.0	200.0	200.0	200.0	1,000.0	1,000.0	1,200.0	2,891.0	1,239.0		
		문화마을조성사업	5,925.0	계속사업	125.0	250.0	250.0	300.0	300.0	300.0	1,500.0	1,500.0	1,700.0	4,147.5	1,777.5		
		오지종합개발사업	3,100.0	계속사업	140.0	150.0	150.0	180.0	180.0	180.0	750.0	750.0	800.0	2,170.0	930.0		
		산촌종합개발사업	679.0	계속사업	29.0	30.0	30.0	35.0	35.0	35.0	150.0	170.0	200.0	475.3	203.7		
		토지종합정보개발	72.4	2000~2003	7.4	15.0	25.0	25.0								36.2	36.2
		주거 및 도시개발 합계	85,988.4		2,377.4	3,667.0	5,040.0	3,529.0	3,795.0	19,030.0	17,590.0	30,960.0	14,250.8	11,447.9	8,960.2	51,329.5	

- 환경 부문 -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20	주제별 분담			
													국비	도비	사군비	기타
자연환경 보존	자연환경 보존	새천년순수조성	525.0	2000~ 2020	29.0	21.0	25.0	25.0	25.0	125.0	125.0	150.0	263.0	100.0	100.0	62.0
		산간계곡수보호	140.0	"	-	7.0	7.0	7.0	7.0	35.0	35.0	42.0	70.0	35.0	35.0	-
		조정약수보전	67.0	2000~ 2004	-	7.0	17.0	16.0	15.0	12.0	-	-	33.0	12.0	12.0	10.0
		자연생태계조사연구	20.0	2000~ 2002	2.0	8.0	10.0	-	-	-	-	-	-	10.0	10.0	-
		자연생태공원조성	380.0	2001~ 2020	-	8.0	12.0	20.0	20.0	100.0	100.0	120.0	190.0	95.0	95.0	-
		생물서식공간(Biotope)조성	50.0	2003~ 2004	-	-	-	25.0	25.0	-	-	-	-	-	-	-
		자연형하천조성	1,600.0	2000~ 2020	51.0	44.0	32.0	33.0	40.0	250.0	300.0	850.0	800.0	240.0	560.0	-
		꽃(장미, 목련, 목단, 목화)동산조성	150.0	2005~ 2009	-	-	-	-	-	150.0	-	-	-	-	150.0	-
		환경교육의장·비지터센터·건립	400.0	2007~ 2016	-	-	-	-	-	150.0	150.0	100.0	200.0	100.0	100.0	-
		간선도로변 2줄빌 가로수식재	400.0	"	-	-	-	-	-	200.0	200.0	-	-	120.0	280.0	-
		단절된 간선도로 생태통로 연결, 복원	670.0	2001~ 2020	-	38.0	100.0	100.0	100.0	120.0	100.0	112.0	335.0	167.0	168.0	-
		자연사박물관건립	500.0	2010~ 2014	-	-	-	-	-	-	500.0	-	250.0	125.0	125.0	-
		환경전광판, 설치	24.0	2002~ 2003	-	-	12.0	12.0	-	-	-	-	-	12.0	12.0	-
		공단그린벨트조성	300.0	2005~ 2009	-	-	-	-	-	300.0	-	-	-	-	210.0	-
생활환경 보존	생활환경 보존	도시지역공원(매입), 조성	2,000.0	2008~ 2016	-	-	-	-	-	500.0	1,000.0	500.0	-	-	2,000.0	-
		청정연료 확대 보급	4,200.0	2000~ 2020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1,000.0	1,200.0	-	-	-	4,200.0
		도시하수처리효율성제고연구	4.0	2002	-	-	4.0	-	-	-	-	-	-	4.0	-	-
		하수처리장 슬러지의 퇴비화방안연구	5.0	2003	-	-	-	5.0	-	-	-	-	-	-	5.0	-

463

상 하 수 도 부 문	생 활 환경 보 전	상수도 유수를 제고	2,113.0	2000~ 2007	141.0	149.0	174.0	180.0	200.0	939.0	330.0	-	1,057.0	-	1,056.0	-
		상수도시설 확장	1,039.0	2000~ 2020	49.0	162.0	168.0	160.0	160.0	340.0	-	-	520.0	-	519.0	-
		고도정수처리 공장 설치	500.0	2010~ 2020	-	-	-	-	-	-	200.0	300.0	350.0	-	150.0	-
		중수도시설 보급	1,000.0	2005~ 2020	-	-	-	-	-	200.0	800.0	-	700.0	-	300.0	-
		하수관거의 확장	3,433.0	2000~ 2020	195.0	276.0	286.0	200.0	200.0	1,000.0	1,000.0	276.0	2,403.0	-	1,030.0	-
		하수처리시설 확충	7,000.0	2000~ 2020	587.0	945.0	896.0	500.0	500.0	995.0	2,312.0	265.0	5,810.0	-	1,190.0	-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1,521.0	2001~ 2020	-	246.0	328.0	436.0	236.0	-	275.0	-	1,065.0	-	456.0	-
		수자원의 관할 자치단체 "공유자산화, 연구	3.0	2002	-	-	3.0	-	-	-	-	-	-	3.0	-	-
자 원 관 리 부 문	자 원 관 리	"석회석 자원연구소" 설립	200.0	2003~ 2006	-	-	-	50.0	50.0	100.0	-	-	-	-	20.0	180.0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300.0	2002~ 2009	-	-	10.0	10.0	30.0	250.0	-	-	-	-	90.0	210.0
		대체에너지원 개발, 보급	55.0	2000~ 2020	2.0	3.0	5.0	5.0	5.0	15.0	10.0	10.0	17.0	-	15.0	23.0
		석회석자원 이용 "C" 공단 개발	1,000.0	2003~ 2009	-	-	-	100.0	200.0	700.0	-	-	300.0	100.0	100.0	500.0
		환경부문 합계	48,368.0		2,585.0	3,351.0	3,831.0	2,834.0	2,913.0	12,787.0	12,042.0	6,025.0	22,371.0	2,369.0	14,273.0	7,355.0

- 복지 부문 -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2014	2015~ 2020	주체별 분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보건 의료	도민 건강증진	의료시설 및 서비스 개선	13.4	2000~ 2009	5.2	2.8	1.8	1.8	1.8					6.7	6.7	
		방문보건사업 강화	60.0	2000~ 2009	6.0	6.0	6.0	6.0	6.0	30.0			7.0	27.0	26.0	
		국제보건산업박람회	480.0	2000~ 2010	-	120.0	20.0	100.0	20.0	220.0			240.0	240.0		
	보건소 현대화	보건소 기능 보강	74.0	2000~ 2004	14.0	15.0	15.0	15.0	15.0				74.0			
			1.0	2000~ 2004	1.0	-	-	-	-				1.0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시설 확충	118.9	2000~ 2004	18.2	20.1	23.2	26.7	30.7				80.7	35.0	3.2	
사회 복지	저소득층 생활모장	응급의료센터	48.2	2000~ 2004	9.6	9.6	9.7	9.6	9.7							48.2
		기초생활보장	0.5	2000~ 2001	-	0.5								0.5		
		생활보호자금 확대 조성	32,687.8	2000~ 2020	959.4	1,853.8	2,908.6	2,966.0	4,024.86	10,000.0	8,000.0	6,000.0	22,881.5	9,806.4		
		생업자금 융자	459.0	2000~ 2014	15.0	20.0	25.0	30.0	69.0	150.0	150.0		321.0	138.0		
		지활센터의 설치	11.0	2000~ 2004	3.0	2.0	2.0	2.0	2.0				5.0	3.0	3.0	
		사회복지관 확충	71.4	2000~ 2004		20.4	20.4	20.4	10.2				35.0	21.0	15.4	
	아동청소년 복지	특수교육시설의 확충	3.9	2000~ 2004			3.3	0.4	0.3				2.0	1.0	0.9	
		아동교육서비스 확대	155.0	2002~ 2014			5.0	30.0	30.0	85.0	5.0		120.0	35.0		
		아동상담소 설치 확대	85.0	2001~ 2004	-	2.0	3.0	15.0	15.0	50.0			35.0	25.0	25.0	
		그림출 실시	6.3	2000~ 2004	1.3	1.3	1.3	1.3	1.3					3.0	3.3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357.5	2000~ 2020	7.5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78.0		179.5	
		청년종합상담실	41.8	2000~ 2020	1.8	2.0	2.0	2.0	2.0	10.0	10.0	12.0	20.9	20.9		
		유해환경감시단 설치 운영	10.3	2001~ 2020	0.3	0.5	0.5	0.5	0.5	2.5	2.5	3.0		10.3		
		'심터'와 '중간의 집' 설치	320.0	2000~ 2004	-	80.0	100.0	80.0	60.0				160.0	96.0	64.0	

노인복지	고령화사회의 노인	430.0	2005~2015	-	-	-	-	-	-	130.0	300.0				30.0	400.0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	3.0	2002~2004	-	-	0.6	1.2	1.2					1.5	1.5		
	치매전문상담센터 설치	1.2	2000~2004	-	-	0.6	-	-						1.2		
	주·단기보호소 설치	139.1	2000~2015	11.7	9.2	11.0	10.4	9.8	45.0	42.0		100.0	25.0		14.1	
장애인복지	장문문화 개선	210.1	2015~2020	-	-	-					210.1	105.0	60.0		45.1	
	저소득장애인가족생활보장	424.9	2000~2014	17.0	44.7	47.0	52.6	73.6	90.0	100.0		323.9	101.0			
	순회재활서비스센터	14.5	2000~2004	1.2	2.8	3.5	3.5	3.5					7.5		7.0	
	장애인권의시설 확대	410.0	2000~2009	20.0	20.0	20.0	20.0	30.0	300.0			350.0	30.0		30.0	
여성복지	직업재활시설 확충(예산)	581.0	2000~2009	63.0	75.0	87.0	98.0	108.0	150.0			260.0	175.0		146.0	
	여성교육기회 확대	2.0	2000~2004	0.4	0.4	0.4	0.4	0.4					1.0		1.0	
	여성인력의 양성	180.0	2002~2010	-	-	30.0	25.0	25.0	100.0			180.0				
	여성복지시설 확충(예산)	23.0	2000~2004	8.0	5.0	6.0	2.0	2.0				11.0	7.0		5.0	
인간성 함양교육	시설에신지원 현실화	5,814.1	2000~2020	215.3	236.8	260.5	286.5	315.2	1,500.0	1,500.0	1,500.0	4,069.9	1,162.8		581.4	
	전문상담교사 연수 실시	0.3	2000~2004	0.06	0.06	0.06	0.06	0.06				0.15	0.08		0.07	
	학생소년지킴이제 연수	0.05	2000~2004	0.01	0.01	0.01	0.01	0.01					0.03		0.02	
	전통 예절실 설치	0.8	2000~2004	0.2	0.2	0.2	0.2	-				0.4	0.2		0.2	
교육정보화	전통 예절집 발간	0.01	2000~2004	0.01	-	-	-	-					0.01			
	초·중·고별 봉사 프로그램 제시	0.1	2000~2004	0.05	-	-	0.05	-					0.05		0.05	
	교육정보화기반 조성	316.88	2000~2009	94.34	90.94	95.28	26.32	5	5			190	80		46.88	
	교원선진화 추진	47.16	2000~2004	9.84	9.33	9.33	9.33	9.33				28.28	9.44		9.44	

과목	교육여건 조성	학교 통배합	10.5	2000~2004	6.3	2.2	1.2	0.5	0.3			5.24	2.63	2.63	
	평생교육 체제	학교급식 지원	303.3	2000~2004	80	80	77.5	35.8	30			151.65	121.32	30.33	
	교육자치체제 개선	학생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원격교육체제 구축	1.1	2000~2004	0.2	0.2	0.2	0.2	0.3			0.6	0.3	0.2	
		시군지역 확대	비예산	2000~2004	-	-	-	-	-						
		교육위원회 기능강화	비예산	2000~2004	-	-	-	-	-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138.0	2000~2020	5.0	5.0	5.0	5.0	5.0	35.0	48.0	14.0	22.0	20.0	82.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20.7	2000~2020	4.7	5.0	5.0	5.0	5.0	30.0	36.0		36.0	36.0	48.7
		생활체육단체 및 조직	79.0	2000~2020	2.5	2.5	3.0	3.0	4.0	20.0	24.0		51.0		28.0
		생활체육 홍보	8.3	2000~2020	0.3	0.4	0.4	0.4	0.4	2.0	2.4		8.3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1.4	2000~2020		0.2				0.4	0.4		1.4		
	지역사회체육 진흥	생활체육대회 육성	110.0	2000~2020	3.0	3.0	4.0	4.0	5.0	25.0	36.0		13.0	97.0	
		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	18.2	2000~2020	0.5	0.6	0.6	0.7	0.8	4.0	6.0	4.0	9.0	5.2	
		생활체육시설 확충	20.0	2000~2003	5.0	5.0	5.0	5.0					10.0	10.0	
	체육시설 확충	시군별체육시설 확충	750.0	2000~2014	50.0	50.0	50.0	50.0	50.0	250.0		75.0	150.0	300.0	225.0
		체육시설 보수 보강	547.0	2000~2020	47.0	30.0	50.0	50.0	50.0	100.0	120.0		273.5	273.5	
		다목적체육관 건립	100.0	2001~2003		25.0	50.0	25.0				50.0	50.0		
		도민체전 개최	17.9	2000~2020	0.5	0.6	0.7	0.8	0.9	4.5	5.4		17.9		
	전문체육 육성	우수선수발굴 육성	303.0	2000~2020	9.0	12.0	13.0	14.0	15.0	75.0	90.0		258.0		45.0
		전국대회 참가	210.0	2000~2020	10.0	10.0	10.0	10.0	10.0	50.0	60.0		179.0		31.0

제 육 군	전문체육 육성	전국대회 유치	20.0	2000~ 2020		1.0	1.0	1.0	1.0	5.0	5.0	6.0		20.0		
		체육단체 육성	200.0	2000~ 2020	6.0	7.0	8.0	9.0	10.0	50.0	50.0	60.0		170.0		30.0
		국제스포츠 교류	4.0	2000~ 2020	0.1	0.1	0.2	0.2	0.2	1.0	1.0	1.2		4.0		
		전국체전 개최	45.0	2001~ 2005		2.0	3.0	10.0	20.0	10.0			15.0	30.0		
	복지부문 합계		46,610.7		1,713.4	2,942.8	4,056.0	1,155.8	1,114.4	13,574.4	10,817.4	8,270.5	30,096.7	13,547.9	2,018.1	947.9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 연 정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진(가나다 순)

고 영 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
김 양 식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
김 진 덕 (충북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노 단 호 (충북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류 을 린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원 광 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
이 경 기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임 현 만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정 삼 철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표 감 수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연구자문위원(가나다 순)

김 상 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김 성 배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김 승 환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김 용 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 향 자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 종 섭 (충북대학교 농경제학과)
이 상 민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초 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정 회 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주 성 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 홍 린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홍 성 욱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보조인

김 빈 정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김 진 철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최 은 영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73-6430000-000068-01-20010800-01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